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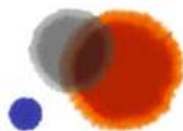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252-14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

2010년 11월

연구 책임자: 이관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제출문

본 보고서를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1월

※ 본 연구물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 용역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임하여 수행한 것입니다.

※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과 사례에 대한 평가,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밝혀 둡니다.

〈주관 연구 기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진〉

책임 연구원	이관규(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이동석(청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호철(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연구 보조원	양세희(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보현(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김남희(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정지현(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자문 위원〉

	채완(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재영(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도훈(부산외대 통역대학원 교수)
	정철근(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목 차

I. 조사 연구 개요	1
1. 목적	1
2. 범위	2
3. 내용	3
3.1. 문장 부호 규정 분석 및 사용 실태 조사·분석	3
3.2. 전문가를 통한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 필요성 타진	4
3.3. 문장 부호 규정의 효율적인 법적 지위 수준 분석	5
II. 문장 부호 규정 분석	7
1. 문장 부호의 개념	7
2.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	12
2.1. 명칭의 문제	12
2.2. 분류 체계의 문제	14
2.3. 수효의 문제	15
2.4. 띄어쓰기의 문제	16
3. 문장 부호 사용 실태 분석	18
III. 외국의 문장 부호	22
1. 중국의 문장 부호	22
1.1. 구말점호(句末点号)	24
1.2. 구내점호(句内点号)	25
1.3. 표호(标号)	26
1.4. 기타 문장 부호	28
2. 일본의 문장 부호	28
2.1. 。(句点 まる)	29
2.2. 、(読点 点 てん)	30
2.3. ()(括弧 かつこ)	30
2.4. 「」(かぎかつこ)	30
2.5. 『』(二重かぎかつこ)	31

2.6. · (中点, 中黑)	31
2.7. …… (点線, リーダー)	31
2.8. 물음표(?)와 느낌표(!)	31
2.9. 기타 부호	31
3. 영어의 문장 부호	32
3.1. 마침표(period)	33
3.2. 쉼표(comma)	33
3.3. 쌍반점(semicolon)	33
3.4. 쌍점(colon)	34
3.5. 물음표(question mark)	34
3.6. 느낌표(exclamation point)	35
3.7. 붙임표(hyphen)	35
3.8. 줄표(dash)	36
3.9. 소괄호(parenthesis)	37
3.10. 대괄호(bracket)	38
3.11. 빗금(slash)	38
3.13. 따옴표(quotation mark)	39
3.14. 생략 부호(apostrophe)	39
IV.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분석	40
1. 설문 조사 개요	40
1.1. 설문 조사 목적	40
1.2. 설문 조사 설계	40
1.3. 설문 조사 방법	42
1.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42
1.5. 응답자 구성	43

2. 주요 결과 요약	44
2.1. 문장 부호 규정의 인지도 및 수용도	44
2.2.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	47
2.3.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만족도	48
2.4.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의한 국어 사용 변화	49
3. 조사 결과 상세 분석	51
3.1. 문장 부호 규정의 인지도 및 수용도	51
3.2.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	98
3.3.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만족도	104
3.4.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의한 국어 사용 변화	121
V. 법학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 분석	132
1. 면담 조사 개요	132
1.1. 면담 조사 일정	132
1.2. 면담 대상	132
1.3. 면담 조사 방법	133
1.4. 면담 조사 내용	133
2. 면담 조사 실행	135
2.1. 면담 1	135
2.2. 면담 2	136
2.3. 면담 3	137
2.4. 면담 4	138
2.5. 면담 5	139
3. 면담 조사 분석	140
3.1. 응답 1 유형	140
3.2. 응답 2 유형	140
4. 면담 조사 결과	142
4.1. 문장 부호 규정의 독립성 유무	142
4.2. 문장 부호 규정은 고시(告示) 수준	142

VI. 조사 연구 요약 및 해석	144
1. 조사 연구 개요	144
2.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145
3. 법학 전문가 대상 면담 조사 결과	146
〈참고 문헌〉	147
〈부록〉	154
1. 예비 설문 조사	154
2. 전문가 설문 조사지	167
3. 기본 통계표	178
3.1. 전체 통계표	178
3.2. 국어학자 집단 통계표	198
3.3. 외국어학자 집단 통계표	217
3.4. 인문사회과학자 집단 통계표	236
3.5. 이공학자 집단 통계표	255
3.6. 언론인 집단 통계표	275
3.7. 출판인 집단 통계표	295
3.8. 국어교육자 집단 통계표	315
3.9. 문인 집단 통계표	334
3.10. 기타 집단 통계표	351
4. 설문 조사 서술식 문항 결과	371
5. 자문 회의 회의록	379
6. 중간 보고회 회의록	382
7. 한글 맞춤법 부록 문장 부호 규정	384

1. 목적

본 조사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본 조사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본 조사 연구의 실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실행적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본질적 목적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 연구

(2) 실행적 목적

가.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타진한다.

다. 문장 부호 규정의 효율적이고 타당한 법적 지위와 법규화 수준을 모색한다.

(2)에서 보듯이 본 조사 연구의 실행적 목적은 (가)를 통해 (나)로, (나)를 거쳐 (다)로 이어지는 선조적(線條的)·단계적·위계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장 부호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현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문장 부호 사용 실태를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하여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현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각계 전문가들에게 설문 조사를 통하여 타진해 보면서 문장 부호 규정 개정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문장 부호 규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장 부호 규정의 법규화 수준에 대한 법학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효율적인 실행을 도모한다.

이번 조사 연구를 위와 같이 3단계의 실행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이유는 첫째, 문장 부호 규정 자체에 산재한 이론적 문제점이 많은 데다가 둘째, 실제 국민들이 문장 부호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이로 인한 사회 각계의 개정의 요구가 높아진 상태이고 셋째, 특히 연구자 집단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개정 요구 사항 등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적 효과를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문장 부호 규정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 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어기본법 제12조(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에 있다. 즉 “어문 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 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법조문에 근거하여 문장 부호 규정이 국민의 문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사용 양상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수립한 후, 정책 수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범위

본 조사 연구의 범위는 내용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래서 그 조사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사 범위'와 '조사 수행 기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는데, 이는 범위 제한을 통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조사 연구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3) 조사 범위

가.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 조사·분석

나. 전문가 대상 설문을 통한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 필요성 타진

다. 설문지를 정교화하기 위해 예비 설문과 본 설문으로 나누어 조사

라. 문장 부호 규정의 효율적인 법규화 수준 분석

(4) 조사 수행 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3)과 (4)는 본 조사 연구의 대상 범위와 시간적 제한 내용이다. 조사 대상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조사 범위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즉 문장 부호 규정 분석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첫 번째 조사 연구, 전문가를 통한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타진하는 두 번째 조사 연구, 문장 부호 규정의 효율적인 법규화 수준을 분석하는 세 번째 조사 연구로 요약된다.

위의 (3)에서 첫 번째 조사 연구는 현행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 실려 있는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내용 분석과 실제 문장 부호 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조사 연구이다. 이러한 첫 번째 조사 연구를 통하여 문장 부호에 대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의 요구 사항 등을 근거로 하여 실효성 있는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다.

이렇게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두 번째 조사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타진해 본다. 이러한 의견 타진 과정은 설문 조사 방법을 이용한다. 즉 550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50명)과 본 설문(500명)으로 나누어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예비 설문을 통하여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도출하고, 본 설문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문장 부호 규정 항목들에 대한 개정 및 보완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 조사 연구는 문장 부호 규정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로, 문장 부호 규정을 고시로 할 것인지 단순 지침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그 효과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이는 법학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고, 외국의 유사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문장 부호 규정의 법적 지위를 모색하는 조사 연구이다.

(4)에서 본 조사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본 과업을 완수하도록 하였다.

3. 내용

본 조사 연구의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조사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즉 문장 부호 규정상 문제점과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과제 1), 다음으로 각계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타진해 보는 것(과제 2), 마지막으로 문장 부호 규정의 법규화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다(과제 3). 이 조사 내용의 세부 연구 내용과 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3.1. 문장 부호 규정 분석 및 사용 실태 조사·분석

먼저 첫 번째 조사 연구 내용은 현행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 실려 있는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내용 분석과 실제 문장 부호 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통하여 문장 부호에 대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의 요구 사항 등을 근거로 하여 실효성 있는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한다.

문장 부호 규정 분석 및 사용 실태 조사·분석에서는 먼저 기존 문장 부호와 관련된 연구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문장 부호 규정의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문장 부호 규정의 항목들 중에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선별한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내용적인 면, 체계적인 면, 명칭에 대한 면, 문장 부호의 수효에 대한 면, 문장 부호의 용법적인 면 등 다각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관규(1995), 국립국어연구원(2002), 임동훈(2002), 이동석(2006), 이승후(2006), 김도훈(2006), 김봉국(2007), 신호철(2009) 등에서는 이에 대한 혼란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문장 부호의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장 부호 규정 항목 내용의 미흡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의욕적인 작업이 세 차례 있었다. 1996년 국어정보학회의 『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이하 ‘표준안(1996)’), 1998년 국립국어연구원의 『문장 부호 개정안』(이하 ‘개정안(1998)’), 2002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개최한 「문장 부호 세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이하 ‘세칙안(2002)’에서도 문장 부호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만한 해결책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장 부호의 국민들의 사용 실태와 인식 실태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작업도 수차례 있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한 최혜원(2000, 2001, 2002, 2003)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에서 조사·수행한 양명희(2005) 『국어 사용 환경 조사』와 양명희(2005)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에 실시한 『어문 규범 영향 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 2005년에 수행한 『어문 규범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등 국가 기관 차원에서의 실태 조사와 언어 의식 조사, 영향 평가 등의 연구 결과가 있다.

본 조사 연구의 첫 번째 과제에서는 문장 부호의 기존 연구 결과물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문장 부호의 개념,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정리하면서 문장 부호 규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 발견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조사 내용에 대한 용이한 접근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3.2. 전문가를 통한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 필요성 타진

두 번째 조사 연구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타진해 보는 작업이다. 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 조사 방법을 이용했다. 설문 조사는 2단계에 걸쳐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에서 문장 부호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문 항목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하여 문장 부호 규정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굴·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 설문을 통하여 수정·보완된 설문지로 본 설문을 실시하여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이나 보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피설문자는 객관적인 설문을 위해 550명의 사회 각계 전문가로 한정하고, 이 전문가 집단의 직업 분야로 국어학자, 외국어학자, 인문사회과학자, 이공학자, 언론인, 출판인, 국어교육자, 문인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설문 조사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설문 조사 방법 개요

가. 대상: 각계 전문가 집단

(국어학자, 외국어학자, 인문사회과학자, 이공학자, 언론인, 출판인, 국어교육자, 문인 등)

나. 인원: 550명

다. 지역: 수도권

라. 조사 횟수: 2회(예비 조사와 본 조사)

마. 기타: 성별, 연령 구분 없음

또한 설문지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6) 설문 문항의 주요 내용

- 가.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 나.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다.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 라.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의한 국민의 국어 사용 변화 정도

이러한 설문 문항의 내용을 통하여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3. 문장 부호 규정의 효율적인 법적 지위 수준 분석

본 조사 연구의 세 번째 조사 내용은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법적 지위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현재 문장 부호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실려 있어, 엄밀하게 말한다면 문장 부호 규정을 단독으로 하나의 어문 규범이라 지칭할 수는 없다. 이것이 문장 부호의 법적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조선말규범집은 ‘맞춤법’(총칙, 7장 26항), ‘띄어쓰기’(총칙, 5장 22항), ‘문장 부호법’(총칙, 20항), ‘문화어발음법’(10장 31항), ‘내려쓰기’ 등 다섯 부문으로 구성된다. 조선말규범집은 조선어 철자법(1954년 제정)을 개정한 것으로 1966년 6월에 북조선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제정되었으며 현행 북조선 맞춤법은 1987년 5월 15일에 이를 개정한 것이다.

여기서 문장 부호만을 서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종속되어 부록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문장 부호법’이라 하여 독립된 어문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다. 실제 어문 생활에서 문장 부호 사용의 비중이 크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문장 부호를 한글 맞춤법의 부록이 아닌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갖도록 격상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법규화 수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법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집 방법은 ‘과제 2’와 달리 개별 면담 조사법을 실시한다. 법학 전문가 5명과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여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법적 수준과 이를 법규화할 때의 지위 수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해 본다. 이러한 개별 면담 조사법을 통하여 문장 부호 규정을 독자적인 규범으로 격상시켜 하나의 독립된 어문 규범으로 제정할 것인지, 현행과 같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한글 맞춤법에 두지만 본문의 독립 항목으로 격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마련한다.

또한 문장 부호 규정을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으로 할 것인지,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고시 수준으로 할 것인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지침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법학 전문가 면담 조사를 통하여 그 대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장 부호 규정과 유사한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외국의 어문 규범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들을 참고로 대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1. 문장 부호의 개념

문장 부호는 어문 규범의 한 항목으로 글을 쓸 때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표준안(1996), 개정안(1998), 세칙안(2002) 등 세 차례의 개정 의지를 보여 왔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어 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장 부호에 집중한 논의들이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적으로 연구 결과물의 수치만 보더라도 짐작 가능한 일이다. 그 이유로 우선 문장 부호가 음소, 형태소, 단어, 구, 절, 문장 등의 언어 단위로 뚜렷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장 부호가 음성학적 관점에서 어조를 반영하고, 자소론(字素論)적 관점에서 문장 종결의 기능을 하며, 통사론적 관점에서 구성 요소와 문장 구조를 연결시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문장 부호를 언어학적 단위의 하나로 인정하고 언어학 연구의 정당한 대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장소원, 1983).

이처럼 문장 부호가 독립적인 언어학적 단위로 충분한 기능이 있음이 주장된 후에도 여전히 문장 부호는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다. 이는 문장 부호가 언어학적 단위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글을 읽고 쓰는 데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글을 읽고 쓰는 장면에서 문장 부호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는 대체로 구두점과 관련하여 문장 부호에 대한 서지적인 검토와 함께 역사적인 연구들이 대종을 이루었다. 김민수(1973, 1984), 김병철(1977), 이복규(1995, 1996)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문장 부호의 사용상·기능상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장 부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어문 규범 차원에서 이루어지되 여기에 더해 쓰기의 기능이나 용법 차원에서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외국의 문장 부호 사례들과의 비교 대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도 나왔으며, 실제 언어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의 다양한 기능을 다루거나 언론 출판사들의 사용 매뉴얼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먼저 이관규(1995), 이익섭(1996), 민현식(1999), 신호철(2009) 등은 어문 규범 차원에서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하여 접근하였고, 이익섭(2002), 양명희(2002), 임동훈(2002) 등은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문장 부호의 실제 사용과 어문 규범과의 관련성 차원에서 접근한 논의로 이승후(2006), 박정규(2007), 김봉국(2007) 등이 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문장 부호에 대한 비교 연구들도 이루

어졌는데, 유형선(1997ㄱ, 나), 전수태(2002), 김주미(2002) 등이 그것들다.

또한 영어 문장 부호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로 김도훈(2006, 2010)이 있다. 김도훈(2006)은 영어의 콜론, 세미콜론, 대시에 대하여 국어 문장 부호와 비교하면서 번역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 부호 사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이동석(2006)에서는 동아일보 신문사에서 정한 편집 규정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 차원의 국어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차재은(1999)에서는 문장 부호의 교육적인 차원을 다루었다.

현재 문장 부호는 한글 맞춤법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어문 규정에서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뿐더러, 실제 국어 생활 속에서도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록이라는 규범적 지위 속에서 그 기술 내용 또한 소략하기 그지없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다른 4대 어문 규정들은 대원칙이나 개념 등이 총칙과 각 세부 조항의 기술과 함께 구체적인 예시와 예외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 있지만, 문장 부호는 명칭과 쓰임의 몇 예시만 제한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결국 문장 부호의 정체성이나 사용의 대원칙도 명시되지 않은 채 문장의 보조적 부호로서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임동훈(2002)이 주장한 바와 같이 문장 부호를 부록이라는 지위에서 ‘문장 부호법’²⁾이라는 독립적 규정으로 격상시키거나 한글 맞춤법의 부록이 아닌 독립된 항목으로 격상하는 것이 문장 부호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장 부호를 독립적 어문 규범으로 제정하든 한글 맞춤법 안의 독립 항목으로 지위를 격상시키든,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문장 부호의 정체성이나 개념을 밝히는 일이다. 이제 문장 부호의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한 후 문장 부호의 개념을 정의해 본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대체로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러한 사용 실태를 분석한 후 어문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문장 부호 규정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장 부호 자체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사전적 정의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선 문장 부호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사전적 논의와 개념 정의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기존 연구에서 문장 부호에 대한 개념

가. 문장 각 부분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명시하거나 글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표기법의 보조 수단으로 쓰이는 부호. 이 부호의 사용법을 구두법이라고 한다.(서울대 동아문

1) 세척안(2002:50)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문장 부호 규정에 북한의 문장부호법과 같이 총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2) 북한에서는 이미 1966년에 공포된 ‘조선말규범집(1966)’에서부터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의 4부 체제로 하면서 문장 부호를 다른 어문 규정들과 대등하게 취급하여 그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행 ‘개정 조선말규범집’(1988)에서도 ‘문장부호법’을 명시하여 독립된 규정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화연구소 편, 1973:107~108)

- 나. 문장 부호는 자모와 같이 그 언어에서 쓰이는 표기 체계의 한 구성 요소이며,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김민수, 1989:383).
- 다.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문장을 바로 읽도록 돕는, 즉 바른 讀解의 길잡이 구실을 하는 일련의 부호들이다.(이익섭, 1996:19).
- 라. 글쓴이가 의도한, 단어, 구, 절, 문장들 사이의 의미 내용을 글 읽는 이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며, 이 부호는 그에 상응하는 언어적 정보를 가진다.(차재은, 1999:290).
- 마. 문장 부호란 언어적 실체로서, 특수한 형태소이거나 혹은 특수한 단어의 한 종류이며, 종이에 받아 적기 힘든 구어의 요소들을 문어에서 표시하는 요소들로서 휴지, 음조, 강세 등을 나타내며, 글쓴이의 의도와 생각과 문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글을 읽는 이가 문장의 의미 및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바르게 소리 내어 읽도록 돕는 여러 가지 부호이다.(김도훈, 2006:11).
- 바. 문장 부호는 문장에 의미 첨가를 하거나 읽기의 이해를 돕는 부호라 할 수 있다. 즉 '문장의 의미 첨가와 독해의 보조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문장 부호이다.(신호철, 2009:426)
- 사.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부호.(『표준국어대사전』).

(2-1)은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문장 부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놓은 것들을 시기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문장 부호를 단지 언어학적인 차원에서의 보조 장치로서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언어학적 보조 장치일 뿐 아니라 글을 쓰고 읽을 때 필자와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부호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2-1. 가, 나)가 전자의 입장이고 (2-1. 다~바)가 후자의 입장이다. 이러한 구분은 문장 부호를 언어학적 단위에서 글을 쓰고 읽는 표기 체계로서 인식하는 변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문장 부호를 광의의 의미로 개념을 확대한 정의이다.

먼저 문장 부호를 언어학적 차원에서의 문자의 보조 수단으로 간주하는 정의를 살펴본다. (2-1. 가)에서 문장 부호는 문자의 보조 수단이면서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1. 나)에서는 문장 부호를 표기 체계의 한 요소로 간주하고,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요소들을 표현할 수 있는 '표기 대체'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양자의 차이는 문장 내 성분 간의 논리적 관계 명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장 성분 간의 논리적 관계는 문장 부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 문법 요소들이 그 일차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문장 부호의 주된 역할이나 기능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 부호의 정의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1. 가, 나)의 공통된 정의 내용은 문장 부호를 문자의 보조 수단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문장 부호에 국어의 자모(字母)와 같은 등급의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문장 부호가 표기 체계의 하나로 간주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문장 부호의 언어학적 지위를 격상시킨 정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의 내용에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언어

학적으로는 초분절적 요소를 가리키겠지만, 문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것들은 이러한 초분절적 요소 외에도 표현의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석의 다양성이 문 제시 될 수 있다. 또한 문자 표기 체계가 가질 수 있는 특성 중 문장 부호가 갖지 못하는 음성 실현이나 체계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문장 부호가 문자 체계의 구성 요소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문장 부호는 문자 체계의 부산물로 등장한 것인 만큼, 문장 부호가 문자 체계 내로 귀속되거나 문자의 기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필자와 독자를 포함하여 글을 쓰고 읽는 차원에서 문장 부호를 인식한 후자의 입장들을 살펴본다. 원래 중국 고문헌에서 구두 부호들은 ‘① 원저자가 쓴 경우, ② 초록으로 옮겨 적을 때 쓴 경우, ③ 읽는 사람이 첨가한 경우’로 나뉘는데, 근본적으로 ①, ②의 경우는 절대 다수의 고서들이 구두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한다(민현식, 1999:245). 곧 옛날에는 필자가 문장 부호를 찍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문장 부호를 찍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두점을 찍으면서 책을 읽는 능력이 우수한 문해력을 가진 유능한 독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처럼 문장 부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언어학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글을 쓰고 읽는 필자와 독자를 논의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문장 부호의 역사적인 전통성과 현실적인 쓰임, 기능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후자의 개념 정의는 이전의 개념 설명보다 진실보한 경우라 하겠다.

(2-1. 다)에서는 문장 부호를 ‘독해 길잡이’로 정의하였다. 이는 문장 부호가 문법적 구조를 명시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표인 것처럼 처리될 여지를 남기는 정의이다. 일부 문장 부호는 실제로 문장의 중의적인 구조를 해소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문장 부호가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또한 일견 문장 부호가 문장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장의 의미는 문자 기호들이 가지는 어휘적 의미의 합에 문장 구조적인 의미 등이 결합해서 산출되는 것이므로 어휘의 의미가 이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한다. 문자 기호들이 나타내는 의미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문장 부호이지, 역으로 문장 부호가 문자 기호의 의미 실현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뒤바뀔 수는 없다.

(2-1. 라)에서는 문장 부호를 언어적 정보를 가지는 의미 해석 장치라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규정한 정의 또한 문장 부호의 협의(狹義)일 뿐 만족할 만한 정의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2-1. 라)에서는 문장 부호를 문장 차원뿐 아니라 단어, 구, 절들도 포함해서 정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전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들의 문제점은 바로 문장 부호를 “문장”에 국한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문장 부호들 중에 빗금(/)은 문장 사이에서 발생할 뿐 아니라 단어나 구, 절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부호라는 것이다.

(2-2) 남궁만민/남궁 민 백이십오 원/125 원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가리- + -어 → 가리어 → 가려

차재은(1999:288)에서는 (2-2)의 예를 제시하면서 문장 부호의 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문장뿐 아니라 “-, +, →”와 같이 단어, 구, 절과도 관련된 문장 부호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문장 부호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문장 부호의 개념을 단어, 구, 절까지 포함해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문장 부호의 ‘문장’이 ‘문장’과만 관련된 제한적 정의라 할 수 없다. 문장이 그 하위 단위로 단어, 구, 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부호’란 용어 속에는 이미 문장의 하위 단위인 단어, 구, 절들의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2)에서 제시한 예 중에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상 “+, →” 기호는 문장 부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그 쓰임이나 기능상에서 문장 부호로 간주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겠지만, 어문 규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호를 대상으로 문장 부호의 개념 정의를 할 수는 없다.

(2-1. 마)에서 제시하고 있는 김도훈(2006)의 정의에서는 문장 부호의 언어학적인 특성과 필자 및 독자와의 관련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곧 문장 부호를 특수한 형태소나 단어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장 부호가 언어 사용 속에서 그 기능과 쓰임만 본다면 하나의 언어적 실체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언어의 단위인 형태소나 단어와 비교해 본다면 독립적 언어 단위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곧 형태소나 단어의 출현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체계 속에서 나온 단위 구성체이지만, 문장 부호는 언어 차원이 아니라 표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형태소나 단어가 일차적인 언어의 차원이라면 문장 부호는 이차적인 언어 차원의 문제란 것이다.

또한 문장 부호가 휴지, 음조, 강세 등을 표현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현재 어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문장 부호를 가지고는 이러한 운율적 요소들을 표기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정의를 위해서는 문장 부호의 개념뿐 아니라 범위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2-1. 바, 사)는 글을 쓰고 읽는 데 있어서 의미를 추가하거나 의미 해석을 보조하는 것으로 문장 부호를 정의하였다. 문장 부호에 대한 광의(廣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장 부호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문장 부호의 개념을 규정하기로 한다.

현재 문장 부호는 언어학적 차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문 규범 차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문장 부호 문제를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글을 쓰고 읽는 차원에서 공통된 기호의 사용으로 의사소통의 정확성, 효율성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문장 부호가 실제 국어 생활 속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상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규범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규범적 차원이라는 것은 실용성, 즉 언어 사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쓰고 읽는 입장에서 문장 부호의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 부호는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 속에 모두 표시한다. 필자는 문장 부호를 표기할 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표기된 문장 부호들을 통해서 독자가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능과 쓰임과 역할

을 해주는 보조 장치가 문장 부호인 것이다.

이렇게 문장 부호 속에는 필자와 독자의 입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문장 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규정한 문장 부호에 대한 정의는 나름 의미 있는 개념 정의라 할 만하다.

(2-1. 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부호”란 정의에서 “문장의 뜻을 돕”는 것은 문장 부호의 문장 안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한 것이고,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은 독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의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장 부호가 사용되고 있는 시대성과 문장 부호 사용 범위에 대한 것도 문장 부호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곧 문장 부호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 조건, 독자와 필자의 조건, 시대적 조건, 사용 범위 조건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문장 부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3) 문장 부호의 개념

현재 문장을 표현하는 데 두루 사용되며, 문장의 의미를 더하거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문장 내의 보조적인 표기 수단

(2-3)의 정의에서 시대적 조건으로는 “현재”를, 사용 범위 조건으로는 “두루 사용되며”, 기능적 조건으로는 “문장을 표현”하는 것과 “문장 내의 보조적인 표기 수단”이라는 것으로, 독자와 필자의 조건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더하거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의는 문장 부호의 개념의 틀을 다소 포괄한 것으로 이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문장 부호들이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 부호의 실상을 최대한 반영한 정의라 할 수 있다.

2.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

2.1. 명칭의 문제

문장 부호의 명칭의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문장 부호의 명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장 부호의 명칭에 대한 문제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고유어와 한자어 명칭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정규(2007)에서는 문장 부호의 명칭에서 고유어 명칭과 한자어 명칭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7개의 대범주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명칭이 각각 제시되어 있어 실제 대범주의 명칭은 7가지이지만 14개의 명칭이 공존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드러

냄표(顯在符)와 같이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신어까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문장 부호의 명칭을 형태나 모양, 기능이나 쓰임새, 위치에 따라 부여하는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빗금, 쌍점, 물결표’ 등은 그 모양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명칭을 부여한 문장 부호들이다. 또한 ‘이음표, 묶음표, 드러냄표, 줄임표, 숨김표’ 등은 문장 부호의 기능이나 쓰임새를 바탕으로 그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표, 가운뎃점’ 등은 문장 부호의 위치에 따라 그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명칭상의 혼란은 실제 문장 부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한다. 본 조사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장 부호의 명칭이 어렵다거나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문장 부호의 명칭을 형태, 기능, 위치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일관성 있게 부여해야만 혼란을 막고 문장 부호 자체도 체계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장 부호 중에서 현재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1. 마침표, 쉼표

실제 언중들은 온점을 마침표로, 반점을 쉼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장 부호 규정에는 마침표로 온점(.), 물음표(?), 느낌표(!)가 있으며, 쉼표에는 반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문장 부호 규정과 실제 사용 간의 괴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쌍점이나 빗금이 쉼표의 일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 언어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김봉국(2007)에서는 마침표는 문장을 끝내는 데 사용하는 부호로 인식할 수 있는데, 마침표의 하위 영역인 물음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문장 종결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 (2-4)가. 그것은 참 훌륭한(?) 태도야.
- 나. 우리 집 고양이가 외출(?)을 했어요.

(2-4)와 같이 물음표가 문장 중간에 사용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물음표는 마침표의 영역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2.1.2. 붙임표

붙임표를 두고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붙임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짧은줄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어문 규범에서조차도 하나의 문장 부호에 대한 명칭이 서로 달라 언중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붙임표의 명칭은 연결이라는 기능보다는 줄이라는 형태에 초점을 두어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붙임표는 이어주는

기능보다는 형태소의 경계를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줄표’와 대비하여 그 생김새를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하면 ‘짧은줄표’라는 명칭이 적합하다.

2.1.3. 빗금, 괄호

대부분의 문장 부호의 명칭에는 후행 어근으로 ‘점(點)’과 ‘표(標)’를 합성한다(신호철, 2009). 그러나 위의 문장 부호들은 다른 부호들과 달리 ‘점(點)’이나 ‘표(標)’라는 후행 어근을 가지지 않는다. 명칭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모두 ‘표류(標類)’ 명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문장 부호의 형태가 ‘점류(點類)’보다는 표류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많고, 둘째, 점류 명칭이나 표류 명칭과 단어 형성 구조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빗금표’, ‘괄호표’라고 명명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1.4. 마침표, 쉼표

일반인들은 온점과 반점을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부른다. 세척안(2002)이 이러한 언중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 쉼표의 경우, 쉼표 아래 하위 문장 부호들의 명칭은 모두 형태 명칭을 따르는데, 형태 명칭을 따르는 반점을 모두 쉼표라 부른다고 해서 기능 명칭인 쉼표로 부르게 되면 일관성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2.1.5.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실제 문장 부호에서는 이 세 가지 부호가 함께 쓰이는 예는 거의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괄호는 소괄호나 대괄호와 함께 사용되지 않아서 대, 중, 소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따옴표의 경우에 큰따옴표로 인용된 부분 속에 다시 작은따옴표를 적는 현행 문장 부호 규정과 평행하게 ‘[]’ 속에 ‘()’가 사용되기 때문에 대소(大小)를 굳이 가리자면 ‘[]’는 대괄호로, ‘()’는 소괄호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대괄호가 가지는 특수한 용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즉 괄호에서 크기에 의한 기준으로 대중소를 구분하여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은 없다. 따라서 대, 중, 소의 명명법을 버리고 괄호의 모양을 따라 ‘원괄호, 활괄호, 각괄호’의 형태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2. 분류 체계의 문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19개의 문장 부호(세로쓰기 포함 23개)를 7개의 상위 부류 별로 묶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문장 부호를 분류하고 있는 분류 기준 자체는 좀처럼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역시 분류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7개의 상위 부류 중에서 ‘VI. 드러냄표’ 아래에는 단 하나의 항목인 ‘1. 드러냄표’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

는 상위 부류와 하위 부류의 명칭이 같다는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하위 항목이 하나이면 상위 항목과 같은 것으로 하위 분류의 의미가 없다는 문제점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즉, ‘VI. 드러냄표’의 상위 부류의 분류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문장 부호의 분류 체계에서의 문제점으로 하위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이 기준은 쓰기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는 대부분이 가로쓰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세로쓰기의 쓰임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그 사용 빈도가 미미(微微)함에도 불구하고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세로쓰기의 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로쓰기를 자주 하였던 과거의 규정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세로쓰기를 거의 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문자 생활의 실태를 고려하여 세로쓰기 문장 부호를 설정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3. 수효의 문제

현재 문장 부호의 개수는 세로쓰기를 포함하여 모두 23개이다. 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수효에 대하여 많다는 의견과 적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 이유는 모두 타당하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실제 문자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장 부호를 규정에 정하고 있어 문장 부호의 개수가 많다고 주장할 수 있고, 문장 부호를 사용하다 보면 문장 부호 규정에 없는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 부호의 개수가 적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3개의 문장 부호 중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호 중 문장 부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호는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문장 부호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문장 부호의 수효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장 부호 규정에는 없으나 어문 규정집에는 있는 부호들이 존재한다(김봉국, 2009). 어문 규정집의 ‘일러두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2-5) 6. 여기에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원말 앞에 씬.

~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씬.

- 복합어의 결합 단위 사이에 씬.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때 씬.

/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복수 표준어임을 나타낼 때 씬.

(2-5)를 보면, 문장 부호 규정에 있는 ‘~, -, /’의 예와 문장 부호 규정에 없는 ‘←’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의 좌측 방향을 향한 모양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어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어문 규정집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를 새로운 문장 부호 안에 넣거나 아니

면 ‘←’를 빼고 문장 부호 규정에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 등도 어문 규정집의 내용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문장 부호 규정에는 빠져 있다.

신호철(2009)에서는 실제 문장 생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장 부호의 개수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할 문장 부호로 “겹꺾쇠표(《 》)와 꺾쇠표(< >)”, “쌍반점(:)”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아울러 수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문장 부호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현재 책이름을 표시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겹낫표, 낫표를 사용하는 경우,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를 사용하는 경우, “겹꺾쇠표(《 》)와 꺾쇠표(< >)”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겹꺾쇠표(《 》)와 꺾쇠표(< >)’는 책이름 표시에 자주 사용하는 부호로서 단행본에는 겹꺾쇠표, 논문 제목에는 꺾쇠표를 사용한다. 이 부호들은 사용 양상을 고려할 때 따옴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쌍반점은 영어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문장 부호이지만, 우리나라 어문 규정에서는 문장 부호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쌍반점의 사용 빈도는 꽤 높은 편이고, 언중들의 인식 속에도 이미 영어 명칭인 ‘세미콜론’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명칭에 대한 인식 정도나 문자 생활 속에서의 사용 빈도를 고려한다면 쌍반점도 문장 부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쌍반점에 대해서는 반점이나 가운데점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반점이나 가운데점이 대신할 수 없는 기능이 존재하므로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2-6) 쌍반점의 사용 예

사과, 배, 귤; 토마토, 딸기, 참외; 호두, 대추 등

(2-6)은 열매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처음 쌍반점 사용 이전 것들은 과일류를, 두 번째 쌍반점 사용 이전의 것들은 채소류를, 마지막 것은 견과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점이 쌍반점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쌍반점은 필수적으로 문장 부호 속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의적으로 추가해야 할 부호들이 있다. 우선 전문 분야의 부호들이 그것이다. 수학에서 사용되는 연산 부호로는 ‘더하기표(+), 빼기표(-), 곱하기표(×), 나누기표(÷), 더기빼기표(±)’ 등이 있다.

그리고 방향 지시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오른쪽화살표(→), 왼쪽화살표(←), 위쪽화살표(↑), 아래쪽화살표(↓), 양쪽화살표(↔), 위아래화살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듯이 어문 규정집 속에서 ‘왼쪽화살표(←)’를 사용한 예가 있으므로 이들도 문장 부호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부호로는 ‘같음표(=), 다름표(≠), 상동표(″), 별표(*)’ 등이 있는데, 이들은 실제 문장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부호들이다.

2.4. 띄어쓰기의 문제

문장 부호에서 띄어쓰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원래 띄어쓰기는 단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부호 자체는 단어가 아니어서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원래 띄어쓰기는 글을 쓰고 읽을 때 가독성과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장 부호도 글을 읽고 쓰는 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띄어쓰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띄어쓰기 자체를 하나의 문장 부호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지만, 무형의 존재를 유형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일단 문장 부호에서 띄어쓰기의 문제는 문장 부호를 앞말과 띄어 쓸 것인지, 뒷말과 띄어 쓸 것인지를 문제로 귀결된다. 쌍점의 예를 들어 문장 부호와 관련된 띄어쓰기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쌍점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띄어 쓰는 경향을 보인다.

- (2-7)가. 과일: 사과, 배, 포도
 - 나. 과일 : 사과, 배, 포도
 - 다. 과일:사과, 배, 포도
- (2-8)가. 장소: 본관 215호
 - 나. 장소 : 본관 215호
 - 다. 장소:본관 215호

위의 (2-7)은 내포되는 종류를 열거할 때 쓰이는 쌍점의 용법을 보인 예이고, (2-8)은 소표제어 뒤에 간단한 설명을 붙일 때 사용되는 쌍점의 용법을 보인 예이다. 이들 두 용법은 세 가지의 띄어 쓰기 양상을 보인다. 이 중 개정안(1998)과 세칙안(2002)은 (가)를 쌍점의 올바른 띄어쓰기로 정하였다. 이는 다른 문장 부호들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규정이라 하겠다. 온점이나 반점과 같이 앞말에 붙이고 뒷말과 띄어 쓰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아래의 예들은 사정이 다르다.

- (2-8) 가. 오전 07:00 (오전 07시 00분)
 - 나. 오전 07: 00
 - 다. 오전 07 : 00
- (2-9) 가. 마태 3:16 (마태복음 3장 16 절)
 - 나. 마태 3: 16
 - 다. 마태 3 : 16
- (2-10) 가. 3:2 (3 대 2)
 - 나. 3: 2
 - 다. 3 : 2
- (2-11) 가. 홍길동(2008:103)
 - 나. 홍길동(2008: 103)
 - 다. 홍길동(2008 : 103)

위의 예 (2-8)은 시간과 분을, (2-9)는 책의 장과 절을, (2-10)은 둘 이상을 대비할 때를 나타내는 점수 대 점수를, (2-11)은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출판 연도와 쪽수를 나타내는 예들이다. 위의 예들에서 올바른 쌍점의 띄어쓰기는 모두 (가)이다. 이들은 위에서 제시한 예들과 동일한 쌍점인데도 앞뒤 말과 모두 붙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시각적인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위 (2-8~11)의 예들이 모두 동일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다. 책과 관련된 (2-9)와 (2-11)은 장과 절, 출판 연도와 쪽수를 나타내기에 서로 긴밀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시각적으로 앞뒤 말과 붙여 있는 것이 안정적임에 비하여, (2-8)과 (2-10)은 시간과 분, 점수 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의 관련성이 적을 뿐더러 이 둘을 서로 분리하여 표기하여야 보다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 즉 시각적으로 볼 때 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시간과 분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두 팀의 점수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쌍점과 관련된 띄어쓰기 규정을 어차피 이중적으로 가져간다면, 원칙은 다른 문장 부호들과 마찬가지로 앞말과 붙여 표기하는 것으로 정하되, 세칙에서는 쌍점과 대비되는 사항들의 속성들을 살펴서 앞뒤 말과 띄어서 표기할 것인지 붙여서 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3. 문장 부호 사용 실태 분석

최혜원(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문장 부호 사용 실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점³⁾ 사용 오류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2) 반점이 잘못 사용된 예

가.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제사상 →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제사상 <SBS 호기심 천국(2002. 2. 9.):자막>

¶그러므로, 야후! 경매에서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동안 → 그러므로 야후! 경매에서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동안 <야후코리아:서비스 약관>

나.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걸어다니는 인간폭탄에 가위가 눌러 →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걸어다니는 인간 폭탄에 가위가 눌러 <중앙일보 2002. 4. 12. 금.: 6면\배명복 국제부장>

¶15일 H증권 사장 안모씨(→안 모 씨)에게서 2000만원(→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 15일, H증권 사장 안 모 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3) 최혜원(2001)에서는 '침표'라고 분류하여 다음의 오류 예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분류 아래 보이는 예들이 모두 침표 가운데서도 '반점'에 해당하는 것들이므로 여기에서는 규정대로 '반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협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2002. 4. 15. 월:A31면\정위용 기자>

다. ¶안철수연구소는 1995년, 백신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회사(→개발 회사)로서 보안업계(→보안 업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지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최초, 최고의 정보보안(→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 안철수연구소는 1995년 최초의 백신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회사로 보안 업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지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회사 소개>

¶라이코스가 아닌 다른 회사나, 단체에 의하여 제공되었습니다. → 라이코스가 아닌 다른 회사나 단체에 의하여 제공되었습니다. <라이코스:홈\서비스 약관>

¶편리하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 편리하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라이코스:커뮤니티\트라이포드\이용 안내\프론트페이지 활성화 방법>

(2-12)의 (가)에서 ‘그러나, 그러므로’ 뒤에 반점을 찍어 표기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뒤에는 반점을 쓰지 않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나)의 경우는 문장의 의미상 반점을 찍어 주는 것이 좋은 예들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모르는데’가 ‘걸어다니는’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르는데’ 다음에 반점을 넣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15일’이 ‘2000만 원을 받은 날’인지,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인지 불분명하므로 ‘15일’ 뒤에 반점을 찍어 주어야 한다. (다)의 문장들은 반점의 불필요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점을 찍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은 가운뎃점이 잘못 사용된 경우이다.

(2-13) 가운뎃점이 잘못 사용된 예

가. ¶육.해군 여성장교(→여성 장교) 첫 탄생 → 육해군 여성 장교 첫 탄생 <SBS 8시 뉴스 (2002. 03. 10.):자막>

¶남.녀 기성복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 남녀 기성복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연예스투:문화/생활\생활\패션\이강미 기자>

나. ¶5.10 합의안을 → 5.10 합의안을 <경실련:운동 성과\의약 분업 정착 및 의료 개혁 운동>

¶6.25전쟁기의 → 6.25전쟁기의 <진보 네트워크:참세상 방송국\초기 화면>

하나의 단어 내부에는 가운뎃점을 쓸 필요가 없다. (2-13)의 (가)에서 ‘육해군(陸海軍)’은 ‘육군과 해군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남녀’는 ‘남과 여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한 단어이므로 가운뎃점을 쓸 필요가 없다. (나)의 경우는 가운뎃점이 필요한 자리에 쓰이지 않은 예이다.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그러므로 ‘5·10’, ‘6·25’과 같은 표기가 적절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온점이 잘못 사용된 경우이다.

(2-14) 온점⁴⁾이 잘못 사용된 예

가. ¶2002. 1. 14 압구정동 → 2002. 1. 14. 압구정동 <SBS 쇼!일요천하(2002. 02. 03.):자막>

¶2002. 2. 10 생방송 음악캠프 → 2002. 2. 10. 생방송 음악캠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2002. 02. 24.):자막>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는 마침표를 써 주어야 한다. (2-14)의 (가)에서는 모두 ‘일’에 해당하는 숫자 뒤에는 온점을 찍지 않았는데, ‘일’이라는 말이 줄었으므로 온점을 써야 한다.

이번에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사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15)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가 잘못 사용된 예

가. ¶정글주스로 영화 주연을 맡은 야무진 차돌 “이범수” → 정글주스로 영화 주연을 맡은 야무진 차돌 ‘이범수’ <SBS 박수홍·박경림의 아름다운 밤(2002. 03. 22.):자막>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다음·한메일넷\공지 사항\1년 비사용 아이디 삭제(2002. 6. 28.)>

나. ¶‘세금 내지 말라’고 하는 이회창 후보의 특권적인 사고도 → 세금 내지 말라고 하는 이회창 후보의 특권적인 사고도 <한겨레 2002. 6. 1. 토.: 7면\김보협 기자>

다. ¶구대성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등판 간격이 너무 길다”는 것을 지적했다. → 구대성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등판 간격이 너무 길다는 것을 지적했다. <일간스포츠 2002. 4. 29. 월.: 14면\석명 특파원>

라. ¶그러자 ‘아마 모레(27일)가 될 것 같다’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 그러자 “아마 모레(27일)가 될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일간스포츠 2002. 4. 26. 금.: 6면\장윤호 특파원>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에게 ‘산이 깨어나는구나’라고 말씀하신다. →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에게 “산이 깨어나는구나”라고 말씀하신다. <오른발왼발:이 책은 꼭 읽십시다\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미숙)>

(2-15) (가)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큰따옴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작은따옴표를 쓰는 것이 맞다. (나)와 (다)는 각각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 안의 내용이 간접 인용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때는 따옴표를 생략하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라)에서는 작은따옴표 안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큰따옴표를 쓰는 것이 맞다.

(2-16) 낫표와 겹낫표가 잘못 사용된 예

가. ¶1984년 그룹 「시나위」로 데뷔 → 1984년 그룹 ‘시나위’로 데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2002. 02. 24.):자막>

4) 반점과 마찬가지로 이때도 최혜원(2001)에서는 ‘마침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분류하였으나 이 분류 아래서 보이는 예들이 모두 온점의 경우이므로 ‘온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러시아, 해킹 죄로 「FBI 수사관 고발」 → 러시아, 해킹 죄로 ‘FBI 수사관 고발’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초기 화면>

나. 『『문화적 다양성』과 『미인대회』, 그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 ‘문화적 다양성’과 ‘미인대회’, 그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진보 네트워크:참세상 방송국\초기 화면>

낫표(「 」)와 겹낫표(『 』)는 세로쓰기에 사용하는 부호이다. 이 부호를 가로쓰기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16)의 (가)와 (나)에서 그러한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각각 낫표와 겹낫표는 모두 가로쓰기 부호인 작은따옴표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마지막으로 붙임표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겠다.

(2-17) 붙임표가 잘못 사용된 예

가. 『0-3으로 완패했다. → 0:3으로 완패했다. <굿데이 2002. 5. 16. 목.:1면\서형욱 기자>

『2-0 → 2:0 <동아일보 2002. 6. 05. 수.:1면\특별취재팀>

나. 『러-일전쟁의 무력이 → 러일전쟁의 무력이 <동아일보 2002. 4. 11. 목.:A7면\시론>

다. 『직장인-대학생 자원봉사로 → 직장인, 대학생 자원봉사로 <동아일보 2002. 4. 25. 목.:A25면\정경준 기자>

『교회 자기희생(→자기 희생) 앞설 때 신뢰-존경 회복 → 교회, 자기 희생 앞설 때 신뢰. 존경 회복 <동아일보 2002. 5. 08. 수.:A19면\황태훈 기자>

라. 『李-陳게이트등 개입 의혹 → 李.陳 게이트 등 개입 의혹 <동아일보 2002. 4. 12. 금.:A3면\정위용 기자>

마. 『사람의 20-30배 정도나 → 사람의 20~30배 정도나 <에듀넷:초.중 학생\체험학습\현장 체험\강과 호수>

『이 책은 5-6학년 정도 되어 읽을 수 있는 책이고, → 이 책은 5~6학년 정도 돼야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오른발왼발:어린이 책 출판사를 찾아서\창작과 비평사(오진원)>

붙임표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를 보일 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는 다양하게 사용하는 예를 볼 수 있다.

(2-17)의 (가)에서는 둘 이상을 대비할 때 쌍점을 사용하지 않고 붙임표를 사용하였다. (나)에서는 한 단어 내부에 붙임표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다)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는 반점을 찍어 주는 것이 적절하다. (라)는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붙임표를 찍었는데, 이때는 가운데점을 찍는 것이 적절하다. (마)에서와 같이 ‘내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붙임표가 아니라 물결표를 표기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표기이다.

Ⅲ

외국의 문장 부호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언어와 문자는 서로 다르지만, 현재 각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 부호는 그 형태와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만국 공통의 표기가 된 것처럼, 문장 부호 역시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동양과 서양이 공통의 형태를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 부호는 서양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온 것이지만, 동양이 서양의 학문과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동서양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 부호의 형태와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마다 문장 부호 사용의 역사가 다르고, 국제 표준과 같은 강력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변형된 모습을 띠게 된다. 문장 부호의 목록과 용법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 차가 발생하게 되고, 시대가 변할수록 사회적 합의가 약해지거나 집단적인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국어의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다양한 문장 부호 규정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국어의 문장 부호를 개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동양과 서양의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되, 동양은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양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동양의 여러 국가들은 주로 서양의 문장 부호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장 부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현대식 문장 부호를 사용한 역사가 길지 않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될 수 있다.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중국과 일본이 문장 부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에는 비교적 학문적, 문화적 영향력이 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국어의 문장 부호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단서와 실마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문장 부호가 서양의 문장 부호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양의 문장 부호를 참고하는 것은 문장 부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1. 중국의 문장 부호

중국에서 현재와 같이 서양식 문장 부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이다. 그러나 오래 전에 이미 구두(句讀), 표점(標點)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전기정, 2007),

구절 간의 경계 등을 표시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장 부호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절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고리점(。)을 사용한 문헌들이 있으며,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용비어천가』 등의 문헌에 고리점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다양한 문장 부호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한 문장 부호는 구절 경계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매우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현대식 문장 부호를 문헌을 통해 처음 소개한 사람은 張德彝(1847~1919)이다. 장덕이는 서양식 교육을 받고 통역과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서 그의 저서 『歐美還遊記』를 통해 서양 각국의 문장 부호를 소개하면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현대식 문장 부호에 대한 인식이 일기 시작했다(전기정, 2007).

중국에서 처음으로 문장 부호 표기 방안이 제시된 것은 1897년으로서, 王炳耀가 『拼音字譜』를 통해 중국 최초로 標點方案을 제시하였다(전기정, 2007).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국가 차원에서 문장 부호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1920년의 일이다. 중국 정부는 1920년 2월 『通令採用新式標點符號文』을 통해 처음으로 12종의 문장 부호를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후 1951년 중앙인민정부출판총서(中央人民政府出版總署)에서 『标点符号用法』(第二套)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것은 1920년에 제정한 것을 조금 발전시킨 것으로서 1920년에는 12종을 제정하였던 것을 1951년에는 14종으로 확대시켰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 부호는 1990년에 제정되었다. 1990년 3월에 중화인민공화국신문출판서(中華人民共和國新聞出版署)의 중국국가언어문자위원회(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에서 세로쓰기 문장 부호를 가로쓰기 문장 부호로 바꾸면서 총 16개의 문장 부호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 13일 국가기술감독국(國家技術監督局)에서 『标点符号用法』을 펴내면서 각 문장 부호의 쓰임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어의 문장 부호는 크게 점호(点号)와 표호(标号)로 나뉘며, 점호(点号)는 다시 구말점호(句末点号)와 구내점호(句内点号)로 나뉜다. 중국의 구말점호(句末点号)와 구내점호(句内点号)는 각각 국어의 마침표와 쉼표에 대응되며, 중국의 표호(标号)는 국어의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드러냄표, 안드러냄표를 모아 놓은 집합체에 해당한다. 중국의 문장 부호는 이러한 분류 아래 다음과 같이 16개의 부호로 이루어져 있다.

(3-1) 중국의 문장 부호

가. 구말점호(句末点号)

。(句号) ? (问号) ! (叹号)

나. 구내점호(句内点号)

，(逗号) 、(顿号) ；(分号) ：(冒号)

다. 표호(标号)

() (括号) - (破折号) “ ” (引号) . (着重号) …… (省略号) - (连接号) 、(间隔号)

《》(书名号) __ (专名号)

중국어의 문장 부호 목록과 한국어의 문장 부호 목록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두 나라의 문장 부호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몇몇 부호에서는 모양이나 기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구말점호(句末点号)에서는 국어의 온점(.)이 중국에서 고리점(。)의 모습을 띠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국어에서는 가로쓰기에는 온점(.)을,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리점(。)을 주로 사용한다.

구내점호(句内点号)에서는 국어의 반점(,), 모점(、)과 중국어의逗号(,), 顿号(、)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국어에서는 가로쓰기에는 반점(,)을,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逗号(,)와 顿号(、)가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어에서는 쉼표에 가운뎃점(·)과 빗금(/)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빗금(/)이 공식적으로 16개의 문장 부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어의 가운뎃점(·)에 해당하는 间隔号(·)가 국어의 쉼표에 해당하는 구내점호(句内点号)가 아닌 표호(标号)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 국어의 문장 부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 ’이 중국의 문장 부호 규정에 分号(;)로 규정되어 있는 점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표호(标号)와 국어의 나머지 문장 부호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표호(标号)에 큰따옴표에 해당하는 인용호(“ ”)만 있을 뿐 작은따옴표에 해당하는 부호가 없는 점, 국어의 소괄호에 해당하는括弧(())만 있고 국어의 중괄호, 대괄호에 해당하는 문장 부호가 없는 점, 국어의 물결표, 숨김표, 빠짐표에 대응하는 문장 부호가 없는 대신 국어에는 없는书名号(《 》)와 专名号(…)가 중국의 문장 부호에는 있는 점 등이 양국 문장 부호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문장 부호 규정에 없는 문장 부호들, 예컨대 국어의 작은따옴표, 대괄호, 빗금, 물결표, 숨김표, 빠짐표 등이 중국어 문장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어에서도 문장 부호 규정에 없는 ‘ ; , 【 , 《 》 ’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듯이, 중국에서도 16개의 공식 문장 부호에 속하지 않는 문장 부호들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문장 부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문장 부호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문장 부호의 쓰임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아 향후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 부호의 목록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 구말점호(句末点号)

1.1.1. 。 (句号)

이 부호는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하는 종결 부호로서 국어의 온점 ‘ . ’와 같은 기능을 담당

한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구절의 경계에 속이 빈 고리점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서양의 문장 부호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서양의 문장 부호와 모양이 일치하지 않는다. 국어에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세로쓰기에서는 고리점을 사용하고, 일본에서도 보편적으로 온점 보다는 고리점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고리점 대신 온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고리점이 다른 문자나 부호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을 작성할 때는 국제 표준에 맞게 온점을 사용한다.

예컨대, 수학 공식을 전개할 때나 영어 사전을 만들 때는 고리점이 숫자 '0'이나 영어 알파벳 'o'와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리점 대신 온점을 사용하고 소수점을 표시할 때도 온점을 사용한다. 또한 과학 기술 논문이나 문헌을 작성할 때는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고리점 대신 온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1.2. ? (问号)

이 부호는 국어의 물음표와 형태와 용법이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구말점호(句末点号)이기 때문에 문장이 종결될 때에만 사용한다. 중국어의 경우 의문사가 있어도 문장 전체가 의문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부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문장이 의문문의 형태로 종결될 때에만 이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1.1.3. ! (叹号)

이 부호는 국어의 느낌표와 형태와 용법이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감탄이나 놀람 등을 표현하는 문장에 사용한다. 그러나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감탄의 정도가 강할 때에만 사용한다.

1.2. 구내점호(句内点号)

1.2.1. 、 (顿号)

이 부호는 주로 병렬 관계에 있는 단어 사이의 휴지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국어의 문장 부호에는 병렬 관계의 단어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문장 부호가 없으나, 중국어에서는 여러 단어가 병렬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 부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어의 가운데점의 용법 중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사용한다는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단어가 나열되더라도 그 단어들이 병렬 관계에 있지 않고 상하 관계에 있거나 연관성이 없이 단순히 나열되는 경우에는 이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1.2.2. , (逗号)

이 부호는 국어의 반점과 형태와 용법이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문장 내에서의 휴지를 표시 하며 복잡한 문장성분과 문장성분 사이, 복잡한 구와 구 사이, 도치된 문장 성분 사이, 절과 절 사이에 사용한다.

1.2.3. ; (分号)

이 부호는 국어의 문장 부호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국에서는 복문 내부의 병렬된 절 사이에 사용하거나, 전환이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다중 복문에서 첫 번째 층위의 전후 두 부분 사이에 사용한다. 또한 행을 나눠 열거하는 각 항목 사이에 사용하기도 한다.

1.2.4. : (冒号)

이 부호는 국어의 쌍점과 형태와 용법이 유사하다. 국어의 쌍점처럼 내포되는 종류를 제시 하거나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을 붙일 때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 외에도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용법이 있다. 사람의 호칭 뒤에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전개하거나 ‘說, 想, 是, 證明, 宣布, 指出, 透露, 表明, 規定, 例如, 如下’ 등의 단어 뒤에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전개하는 용법이 바로 그것이다.

1.3. 표호(标号)

1.3.1. () (括号)

이 부호는 국어의 소괄호와 형태와 용법이 유사하다. 국어의 묶음표에는 소괄호(()), 중괄호({ }), 대괄호([])가 있으나, 중국어의 문장 부호에는 공식적으로 이 부호 하나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에서도 다양한 괄호를 사용하여 방괄호(方括号, []), 육각괄호(六角括号, ()), 방두괄호(方頭括号, 【 】,) 등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1.3.2. — (破折号)

국어의 줄표와 형태와 용법이 유사하다. 중국의 파절호(破折号)도 국어의 줄표와 마찬가지로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할 때 주로 사용한다.

1.3.3. — (连接号)

국어의 붙임표와 형태와 용법이 유사하다.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때 사용하거나 접사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1.3.4. ˙ (着重号)

국어의 드러냄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 국어에서는 드러냄표 ‘˙, °’를 글자 위에 찍지만, 중국에서는 점을 글자의 아래에 찍어 해당 글자나 단어, 구절을 강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기도 한다.

1.3.5. …… (省略号)

국어의 줄임표와 형태와 용법이 유사하다. 국어의 줄임표는 규정 자체에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문을 통해 줄임표 다음에 온점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생략호(省略号) 뒤에 구호(句号)를 거의 찍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정의 예문과는 달리 줄임표 뒤에 온점을 찍지 않는 경우가 많다.

1.3.6. “” (引号)

인호에는 쌍인호(双引号)와 단인호(单引号)가 있다. 이들은 각각 국어의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에 해당한다. 쌍인호(双引号)는 직접 대화를 인용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국어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큰따옴표가 아닌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경우에도 국어의 큰따옴표에 해당하는 쌍인호(双引号)를 사용한다. 중국의 단인호(单引号)는 인용문 속에 다시 인용문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이러한 용법은 국어의 작은따옴표의 용법과 같다.

1.3.7. · (间隔号)

이 부호는 국어의 가운뎃점과 형태가 같지만, 용법은 완전히 다르다. 국어의 가운뎃점은 열거된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지만, 중국어의 간격호(间隔号)는 외국인의 성과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 성과 이름 사이에 표시한다. 또한 책 제목과 장 제목 또는 절 제목에 사용하여 이들을 구별할 때도 이 부호를 사용한다. 책의 제목에서 병렬 관계에 있는 단어가 연달아 나올 때에도 이들 단어 사이에 이 부호를 사용하고, 연도와 달을 구별하기 위해 이 부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1.3.8. 《》 (书名号)

이 부호는 책이름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책이름뿐만 아니라 노래 명칭, 그림 명칭 등 예술 작품의 이름을 나타낼 때도 이 부호를 사용한다. 국어에서도 책이름을 표시할 때 이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장 부호 규정에는 이 부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3.9. __ (专名号)

이 부호는 인명, 지명, 국명, 종족명, 단체명 등 고유명사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고유명사의 아래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표의문자인 한자의 특성상 고유명사에 포함되는 한자가 일반적인 한자의 의미로 해석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된 문장 부호라고 할 수 있다. 국어에서는 이러한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국어의 문장 부호 규정에는 이러한 부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 기타 문장 부호

중국의 공식 문장 부호 16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로는 공결호(空缺号, □), 피휘호(避讳号, X), 사선호(斜线号, /), 상징호(象征号, ~~), 표시호(标示号, *), 생년호(省年号, '), 흑광호(黑框号, □), 중자호(重字号, 々) 등이 있다.

공결호(空缺号, □), 피휘호(避讳号, X)는 각각 국어의 빠짐표와 숨김표에 해당한다. 글자가 들어가야 할 빈자리에 공결호(空缺号)를 사용하고, 금기어나 비속어를 표현하거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자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피휘호(避讳号)를 사용한다.

사선호(斜线号)는 시의 행이 나뉘는 표시하거나 예문의 단어나 구를 구분할 때 사용하고, 상징호(象征号)는 의성어의 억양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표시호(标示号)는 논문 문장에서 각주를 표시할 때 사용하거나 비문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 생년호(省年号)는 연도를 축약하여 나타낼 때 사용한다.

흑광호(黑框号)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매우 특이한 문장 부호인데, 고인(故人)의 이름을 표기할 때 사용한다. 고인(故人)의 이름 바깥에 사각형의 테두리를 두르는 방식으로 표현하며, 죽은 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중자호(重字号)는 글자가 중복되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부호로서 중국에서 세로쓰기를 할 때 사용하던 전통적인 문장 부호이지만, 가로쓰기를 할 때도 이 문장 부호를 자주 사용한다.

2. 일본의 문장 부호

일본 역시 현대식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역사가 길지 않다. 현대식 문장 부호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일본 역시 문장 부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간혹 문헌에 따라 아주 기본적인 방식으로 구두점(句讀點)을 사용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현대식의 문장

부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단순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어에 현대식 문장 부호가 도입된 시기는 대략 1870년대 무렵이며, 1880년대에 이르러서야 문장 부호의 쓰임이 다소 확산된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에 이르러 權田直助가 『國文句読考』(1887)를 통하여 일본어의 문장 부호를 정리하였고, 이후 1906년 국정 교과서 수정을 위한 표준안의 일환으로 文部大臣官房圖書課에서 『句読点法案』을 제정하였으나, 이후 간행된 문서에서 전반적으로 문장 부호를 사용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윤호숙, 2009).

이후 1946년에 文部省國語調査室에서 『くぎり符号の使い方[句読法](案)』을 제정하였고, 1949년에는 이를 개정한 『くぎり符号の使い方』이 總理廳, 文部省에서 간행한 『公文用語手びき』에 수록되었다.

일본의 신문에서 문장 부호가 전면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보다 조금 뒤의 일로서 『朝日新聞』(1950년 7월), 『毎日新聞』(1951년 1월), 『読売新聞』(1953년 1월) 순으로 문장 부호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윤호숙, 2009).

일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어의 문장 부호는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출판사나 개인에 따라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조금씩 다르고 그 용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중국이 1990년을 전후로 기존의 문장 부호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정비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1949년에 문장 부호 규정을 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관련 활동이 없어 낡은 문장 부호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일본어 문장 부호의 쓰임을 공식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많이 사용하는 문장 부호를 중심으로 그 쓰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 。 (句点 まる)

이 부호는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하는 종결 부호로서 국어의 온점 ‘.’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주로 세로쓰기에 사용하고 가로쓰기에는 국어의 온점과 같은 형태의 ‘.’를 사용하지만, 시각적인 효과와 오랜 관습에 의해 사람에 따라서는 가로쓰기를 할 때도 이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호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구절 경계 표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국어에서도 세로쓰기에서는 온점 대신 고리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고리점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부호의 사용은 중국과 일본이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인용문의 경우에는 인용부호인 ‘」’를 사용하는 대신 句点を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인용부호와 함께 句点を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비록 따옴표와 관련된 예문에서는 따옴표 안에 온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 、(読点 点 てん)

이 부호는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내부에 짧은 휴지를 둘 때 사용한다. 기능은 국어의 반점과 유사하다. 국어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문장 내부의 휴지를 반점으로 표시할 때 반점의 사용을 수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어의 경우 이 부호에 대한 쓰임이 훨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자의 구체적인 사용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読点의 사용 방식

- ① 같은 어구를 나열할 때
- ② 문두에 접속어나 접속구, 부사, 감동사가 올 때
- ③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거리가 멀 때
- ④ 중지, 원인, 이유, 조건, 한정 등의 종속절과 주절 사이에
- ⑤ 숨을 쉴 곳이나 쉬었다 읽을 곳이 있을 때
- ⑥ 수사를 나열할 때
- ⑦ 숫자의 자리수를 나타낼 때
- ⑧ 서술어의 주제를 나타내는 ‘は’나 ‘が’ 뒤에서
- ⑨ 문장 성분을 도치할 때
- ⑩ 대화 또는 인용문의 낫표 앞에
- ⑪ 대화 또는 인용문의 뒤를 ‘と’로 받아도 그것이 바로 술어에 이어지지 않을 때.
(단 ‘といつて’와 ‘と思つて’의 경우에는 예외)
- ⑫ 주어 뒤에 조사가 생략될 때
- ⑬ 단어나 의미가 결합하여 잘못 읽을 우려가 있을 때

2.3. () (括弧 かっこ)

일본에서 사용하는 괄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 (), <>, {}, [],【】, (), 【】, (), 【】 등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다.

2.4. 「」 (かぎかっこ)

이 부호는 대화 또는 인용문이나 책, 잡지, 소설의 제목 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 주로 세로쓰기에 사용하지만, 가로쓰기에서도 자주 사용한다. 이 부호는 국어의 낫표와 형태가 동일하다. 그러나 국어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가로쓰기에서는 작은따옴표를, 세로쓰기에서는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어의 용법과 국어의 용법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다.

2.5. 『』 (二重かぎかっこ)

이 부호는 국어의 겹낫표와 형태가 동일하지만, 그 쓰임은 같지 않다. 국어의 겹낫표는 세로쓰기에 사용하여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본의 이 부호는 인용문 안에 인용문이 있을 때 사용하며, 작품의 제목이나 상호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한다. 국어에서는 인용문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 큰따옴표 안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낫표 안에 겹낫표를 사용하여 이 두 부호의 층위 관계가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2.6. ・ (中点, 中黒)

이 부호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부호로서, 국어의 가운뎃점과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다. 그러나 오랜 전통의 영향으로 국어의 가운뎃점보다 훨씬 다양한 쓰임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을 사용해야 할 자리에 이 부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부호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사가 나열될 때 사용한다. 연월일이나 시간을 표시할 때 각각의 단위 사이에 사용하며, 소수점을 사용할 때도 사용한다. 일본에서의 특이한 용법은 외래어 및 외국어 고유명사를 구획할 때 사용한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성과 이름을 구별할 때도 성과 이름 사이에 이 부호를 사용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외국인명을 열거할 때 ‘=’를 사용하기도 한다.

2.7. …… (点線, リーダー)

이 부호는 국어의 줄임표와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6개의 점을 사용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3개의 점만 사용하기도 한다. 국어에서도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줄임표의 점의 개수를 줄여 표기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2.8. 물음표(?)와 느낌표(!)

국어의 문장 부호 규정에는 물음표와 느낌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본의 문부성에서 간행한 『国語の書き表し方』에는 원칙적으로 ‘?’와 ‘!’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이나 만화 등에서는 이 두 부호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어서, 실제로 일본어에서 이 두 부호가 완전히 안 쓰이는 것은 아니다.

2.9. 기타 부호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 >, -, ., ..’ 등 다양한 문장 부호가 사용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 서의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아무래도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개인이나 출판사에 따라 다양한 부호들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3. 영어의 문장 부호

서양에서 현대식 문장 부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의 알두스 마누치오(Aldus Manutius, 1450~1515)에 의해서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문장 부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하더라도 구절을 구별하는 정도의 아주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동양의 문자들이 대개 음절 단위의 표기를 지향했기 때문에 구절 경계만 잘 구별하면 글을 읽거나 쓰는 데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서양의 언어들은 음소 표기를 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 없고 통사적인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문장 부호의 도움이 없으면 글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따라서 서양에서 일찍이 문장 부호가 발달한 것은 언어적인 특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식 문장 부호가 서양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 덕분에 서양의 문장 부호는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워낙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굳이 통제하지 않더라도 규범이 잘 이루어져 있다. 물론 문장 부호를 사용하는 데 개인 차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편차가 동양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영어권의 예를 들자면, 권위 있는 여러 대학과 학술 단체를 중심으로 출판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가 여러 권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문장 부호와 관련해서는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 지침서 중 영국식 영어와 관련해서는 『The Oxford Style Manual』(2003)을 꼽을 수 있고, 미국식 영어와 관련해서는 여러 종류의 간행물이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지침서로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2009)와 『Chicago Manual of Style』(2010)을 들 수 있다. 전자는 2009년에 7판이 나왔고, 후자는 2010년에 16판이 나왔다.

특히 『Chicago Manual of Style』은 1909년에 초판이 나와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 16번의 개정을 거친 매우 권위 있는 지침서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 두 번째 부분의 제6장이 구두점(punctuation)에 대한 것으로서 문장 부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문장 부호는 마침표(period), 쉼표(comma), 쌍반점(semicolon), 쌍점(colon), 물음표(question mark), 느낌표(exclamation point), 붙임표(hyphen), 줄표(dash),

소괄호(parenthesis), 대괄호(bracket), 빗금(slash), 따옴표(quotation mark), 생략 부호(apostrophe) 등이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 마침표(period)

마침표는 평서문과 명령문의 끝에 사용하며,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오면 한 칸을 띄고 다음 문장을 시작한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단어나 구가 홀로 쓰일 때는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다. 완전한 문장이 소괄호(parenthesis)나 대괄호(square bracket), 따옴표 안에 올 때는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직접 인용문이 중간에 내포된 경우일 때는 마침표를 생략하거나 쉼표로 대체한다.

(3-3) 마침표를 괄호 안에 사용한 경우

Fiorelli insisted on rewriting the paragraph. (His newfound ability to type was both a blessing and a curse.)

3.2. 쉼표(comma)

쉼표는 문장에서의 작은 휴지를 나타내며,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하다. 영어의 문장 내부 구성과 문장 연결 방식은 국어보다 훨씬 복잡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영어의 경우 쉼표의 쓰임이 국어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절과 절이 연결될 경우, 절의 길이가 짧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접속사 앞에 쉼표를 사용한다. 종속절이 주절보다 먼저 나올 경우에는 종속절 뒤에 쉼표를 사용한다. 문두에 오는 부사구의 길이가 길 때는 쉼표를 사용하고 길이가 길지 않을 때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3-4) 접속사 앞에 쉼표를 사용한 경우

We activated the alarm, but the intruder was already inside.
The bus never came, so we took a taxi.

주어나 동사 사이에 부사구나 절이 삽입될 때에는 앞뒤로 쉼표를 사용하고, 연속적인 의미를 갖는 관계 대명사 which(who, whom, whose)를 포함하는 절이 있을 때에도 쉼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영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 국어의 문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5) 관계 대명사 앞에 쉼표를 사용한 경우

I prefer to share the road with illiterate drivers, who are unlikely to read books while driving.

3.3. 쌍반점(semicolon)

여러 항목을 나열할 때 항목들이 너무 많거나 복잡하여 중간에 나눠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항목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복문 구성에서는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 절과 절 사이에 사용하는데, 쌍반점을 사용하지 않고 별개의 두 문장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항목을 나열할 경우에는 나열 항목들이 길고 복잡할 때 쌍반점을 사용하여 항목들을 뚜렷하게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한다.

(3-6)가. 항목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The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was as follows: France, 4; Germany, 5; Great Britain, 1; Italy, 3; United States, 7.

나. 접속사 없는 복문 구성에서 사용한 경우

Though a gifted writer, Miqueas has never bothered to master the semicolon; he insists that half a colon is no colon at all.

3.4. 쌍점(colon)

한 문장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문장이나 예시문이 나올 때 사용하며, 여러 목록을 나열하기 전에도 도입부 다음에 쌍점을 사용한다. 따옴표나 괄호와 같이 사용할 때는 따옴표나 괄호를 닫은 다음에 쌍점을 사용한다.

(3-7)가. 부연 설명을 할 때 사용한 경우

They even relied on a chronological analogy: just as the Year II had overshadowed 1789, so the October Revolution had eclipsed that of February.

나. 목록을 나열할 때 사용한 경우

The watch came with a choice of three bands: stainless steel, plastic, or leather.

3.5. 물음표(question mark)

물음표는 직접적인 의문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글을 쓰는 이가 연도나 어떤 사실에 대해 의문을 표할 때도 편집자의 입장에서 물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람이나 불신, 불확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평서문이나 명령문에도 물음표를 사용할 수 있다.

(3-8) 평서문에 물음표를 사용한 경우

This is your reply?

물음표는 직접적인 질문 대상 뒤에 사용하며, 의문 표현이 문장이 아닐 경우에는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 표현을 대문자로 시작하지도 않는다. 간접 의문을 표할 때는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고 명령문 대신 완곡한 의문문의 형식으로 요청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3-9)가. 간접 의문문에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He wondered whether it was worth the risk.

How the two could be reconciled was the question on everyone's mind.

나. 의문문의 형식으로 완곡한 요청할 때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Would you kindly respond by March 1.

의문문 전체를 인용할 경우에는 물음표를 따옴표 안쪽에 사용하지만, 인용된 부분이 의문문의 일부일 때에는 따옴표 바깥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10)가. 물음표를 따옴표 안쪽에 사용한 경우

The ambassador asked, "Has the Marine Corps been alerted?"

나. 물음표를 따옴표 바깥쪽에 사용한 경우

Why was Farragut trembling when he said, "I'm here to open an inquiry"?

3.6. 느낌표(exclamation point)

느낌표는 외침이나 강조, 반어적 표현에 사용한다. 감탄문 전체를 인용할 경우에는 느낌표를 따옴표 안쪽에 사용하지만, 인용된 부분이 감탄문의 일부일 때에는 따옴표 바깥에 느낌표를 사용한다.

(3-11)가. 느낌표를 따옴표 안쪽에 사용한 경우

performer walked off the stage amidst cries of "Brava!"

나. 느낌표를 따옴표 바깥쪽에 사용한 경우

She actually wants me to believe the manufacturer's claim that her watch is "water resistant to 300 meters"!

3.7. 붙임표(hyphen)

붙임표는 복합어를 표시하거나 단어 구획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또한 전화번호나 사회안전번호, ISBN과 같이 연속성이 없는 숫자를 구별하여 표시할 때도 사용한다. 알파벳을 하나하나 떼어 내어 표시할 때도 붙임표를 사용하며, URL이나 이메일 주소를 표시할 때도 붙임표를 사용한다.

(3-12)가. 숫자와 함께 붙임표를 사용한 경우

1-800-621-2376 or (1-800) 621-2376

나. 문자와 함께 붙임표를 사용한 경우

“My name is Phyllis; that’s p-h-y-l-l-i-s.”

3.8. 줄표(dash)

영어의 줄표는 길이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가장 짧은 것이 ‘en dash’(-)이고 ‘em dash’(—), ‘2-em dash’(—), ‘3-em dash’(—) 순으로 줄의 길이가 길어진다. 붙임표와 줄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둘은 엄연히 기능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구별하도록 해야 한다.

‘en dash’(-)의 주된 기능은 숫자를 이어 주는 것이다. 연속성을 갖는 날짜, 시간, 페이지 등을 표시할 때 이 부호를 사용하며, 점수를 표현할 때도 이 부호를 사용한다. 간혹 단어를 이어 줄 때도 있는데, 두 단어가 짝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부호를 사용한다.

(3-13)가. 연속성을 갖는 숫자와 함께 사용한 경우

The years 1993-2000 were heady ones for the computer literate.

For documentation and indexing, see chapters 14-16.

Join us on Thursday, 11:30 a.m.-4:00 p.m., to celebrate the New Year.

나. 점수에 사용한 경우

On November 20, 1966, Green Bay defeated Chicago, 13-6.

다. 짝을 이루는 단어에 사용한 경우

The London-Paris train leaves at two o’clock.

‘em dash’는 흔히 줄표(dash)라고 불리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ash’이다. 어떤 내용을 확대하여 설명할 때, 따옴표, 쉼표, 쌍점을 대신하여 이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시어를 제시하거나 명사를 나열한 후 주절을 이끄는 대명사가 올 때 이 부호를 사용한다. 생각이나 발화, 대화를 하는 도중에 문장 중간이나 끝에서 말이 끊어질 때도 이 부호를 사용한다.

(3-14)가. 부연 설명에 사용한 경우

It was a revival of the most potent image in modern democracy—the revolutionary idea.

My friends—that is, my former friends—ganged up on me.

나. 주절을 이끄는 대명사 앞에 사용한 경우

Darkness, thunder, a sudden scream—nothing alarmed the child.

다. 문장의 끊어짐을 표현한 경우

“Will he—can he—obtain the necessary signatures?” asked Mill.
“Well, I don’t know,” I began tentatively. “I thought I might—”
“Might what?” she demanded.

‘2-em dash’는 이름이나 특정 어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단어 전체나 단어의 일부를 노출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해독이 불가능한 부분을 표시할 때도 사용한다. 단어 전체가 노출되지 않을 때에는 이 부호 앞뒤로 한 칸씩을 띄어 쓴다. 무엇인가를 채워 넣도록 비워둔 빈칸에는 이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밑줄을 사용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3-15)가. 단어 전체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

“The region gives its — to the language spoken there.”

나. 이름의 일부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

Admiral N— and Lady R— were among the guests.

다. 해독이 안 되는 부분을 표시한 경우

David H—h [Hirsch?] voted aye.

‘3-em dash’는 참고문헌 등의 서지 사항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데, 직전 항목의 저자나 편집자가 다시 반복될 때 이 부호를 사용한다.

(3-16) 서지 사항에 사용한 경우

McCloskey, Deirdre N. *The Bourgeois Virt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 *Crossing: A Memoi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3.9. 소괄호(parenthesis)

소괄호는 어떤 내용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데, 줄표와 용법이 유사하나 쉼표와는 근본적으로 용법이 다르다. 소괄호는 문장 내의 다른 요소와 문법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소를 제시할 때 사용한다.

(3-17) 특정 내용을 제시할 때 사용한 경우

Intelligence tests (e.g., the Stanford-Binet) are no longer widely used.

Our final sample (collected under difficult conditions) contained an impurity.

Wexford’s analysis (see chapter 3) is more to the point.

생소한 용어에 대해 설명하거나 외국 용어를 번역하여 제시할 때도 소괄호를 사용한다.

(3-18) 용어를 설명할 때 사용한 경우

A drop folio (a page number printed at the foot of a page) is useful on the opening page of a chapter.

The term you should use for 1,000,000,000 is mil millones (billion), not billón (trillion).

3.10. 대괄호(bracket)

대괄호는 주로 학술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원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원문에 대해 보충, 설명, 번역, 수정 등을 할 때 이 부호를 사용한다. 번역문에서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원어의 단어나 구를 제시하면서 이 부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발음을 표시할 때도 이 부호를 사용한다.

(3-19)가. 편집자가 원문을 보충할 때 사용한 경우

“They [the free-silver Democrats] asserted that the ratio could be maintained.”

“Many CF [cystic fibrosis] patients have been helped by the new therapy.”

나. 번역문에서 사용한 경우

The differences between society [Gesellschaft] and community [Gemeinschaft] will now be analyzed.

다. 발음을 표시한 경우

The verb *entretenir* [ãtrɛtnir], like keep, is used in many idioms.

3.11. 빗금(slash)

빗금은 선택 관계를 표시한다. 빗금의 좌우에 있는 요소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빗금이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선택’의 의미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연속되는 두 해를 나타낼 때는 줄표 대신 빗금을 사용한다. ‘per’를 생략하는 대신 빗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3-20)가. 선택 관계에 사용한 경우

he/she

Hercules/Heracles

나. ‘and’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an insertion/deletion mutation

an MD/PhD program

다. 연속되는 두 해를 나타내는 경우

The winter of 1966/67 was especially severe.

Enrollment has increased between 1998/99 and 2001/2.

라. 'per'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110 km/sec

\$450/week

3.13. 따옴표(quotation mark)

따옴표에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가 있다. 큰따옴표는 단어, 구, 문장 등을 인용할 때 사용하고 작은따옴표는 인용문 안에 또 다른 인용 내용이 있을 때 사용한다. 직접 인용을 할 때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지만, 간접 인용을 할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3-21) 따옴표를 사용한 경우

“Thus conscience does make cowards of us all,” she replied.

3.14. 생략 부호(apostrophe)

생략 부호는 소유격을 나타내거나 숫자나 문자를 생략할 때 사용한다. 아주 드물게 특정 표현의 복수를 표현할 때 생략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생략 부호는 작은따옴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어와 생략 부호 사이에는 어떠한 부호도 사용할 수 없다.

(3-22)가. 소유격에 사용된 경우

the horse's mouth

a bass's stripes

나. 문자를 생략한 경우

singin' gov't rock 'n' roll

다.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

x's and y's

IV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설문 조사 개요

1.1. 설문 조사 목적

본 설문 조사는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인지도, 수용도, 만족도, 필요성의 정도, 국어 사용 변화의 정도 등을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설문 조사 설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사회 각계의 전문가 500명을 표집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약 6주간의 조사 기간 동안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조사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예비 조사에서는 본 설문 조사와는 달리 50명의 전문가 집단을 따로 구성하여 8월 중순경에 실시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직업 분야 선정은 8개로 고르게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개념과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본 설문을 위한 전문가의 개념과 범위를 별도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전문가’의 정의를 보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전문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연구자 집단과 직업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의 구분만으로는 이 두 집단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정하기란 지난(至難)할 뿐이고, 이러한 사전에서의 추상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실제 설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본 설문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분야별로 선정한 8개 분야에서 연구자 집단과 직업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고, 연구자 집단의 경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직업 전문가 집단은 해당 직업에 종사한 지 5년 이상 된 경력자로 한정하였다. 문인 집단은 연구자 집단과 직업 전문가 집단에 모두 속할 수 있는 직업군인데, 두 집단의 전문가 선별 기준을 취사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인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단한 작가 이상을 전문가로 설정하였다.

또한 직업 전문가 집단 가운데 본 설문 조사의 특성상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현장 전문가보다는 사무직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본 설문이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것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글이나 문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데 반해 상대적으로 사무직 전문가들은 항상 글과 문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의 전문가는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4-1) 전문가 선별 기준

구분	영역	기준 내용	
대상 기준	연구자	학력	해당 분야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국어학자, 외국어학자, 인문사회과학자, 이공학자
	직업 전문가	경력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근무 이력을 가진 자
			언론인, 출판인, 국어교육자
문인	학력, 경력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나, 또는 문단에 등단한 이력을 가진 자	
공통 기준		글과 문서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자	
필수 기준		현재까지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연구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위와 같은 전문가 선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 조사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작성하였다.

(4-2) 설문 조사 계획

번호	구분	내용	
1	조사 대상	각계 전문가 집단 (국어학자, 외국어학자, 인문사회과학자, 이공학자, 언론인, 출판인, 국어교육자, 문인 등)	
2	조사 인원	예비 조사:50명, 본 조사: 500명	
3	조사 지역	수도권 및 기타	
4	조사 횟수	2회(예비 조사와 본 조사)	
5	조사 기간	예비 조사	2010년 8월 9일 ~ 2010년 8월 10일
		본 조사	2010년 8월 30일 ~ 2010년 10월 4일
6	기타 사항	성별, 연령 구분 없음	

1.3. 설문 조사 방법

설문 조사의 방법으로는 집단 면접 방법과 개별 면접 방법을 모두 이용하였다. 우선 해당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는 학술대회, 정례 모임, 학교, 직장 등을 찾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문인들의 경우는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즉 문예창작과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선별 기준에 적합한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실시하고, 또 집단 면접을 실시할 수 없는 문인들은 개인별로 직접 방문하여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1.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을 통하여 6주 동안 조사된 설문지를 수거하여 정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collecting) → 검사(Editing) → 부호화(Coding) → 입력(Punching) → 교정(Data Cleaning) → 자료 분석(Data Processing/Analysis)'의 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4-3) 자료 처리 과정 및 분석 방법

처리 과정	분석 내용 및 방법
수집 (collecting)	응답자의 설문지 수거 및 분류·정리
	▼
검사 (Editing)	설문지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
부호화 (Coding)	전산처리를 위해 설문지 내용의 부호화
	▼
입력 (Punching)	집계를 위한 컴퓨터 입력 작업
	▼
교정 (Data Cleaning)	입력된 자료의 오류를 검증하고, 발견된 오류를 설문지와 비교하여 교정
	▼
자료 분석 (Data Processing / Analysis)	통계패키지(SPSS) 및 엑셀(Excel)을 이용하여 자료를 집계 및 정량 분석

1.5. 응답자 구성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례는 총 560건이다. 이 가운데에서 검사(Editing) 과정을 거쳐 500건의 설문 자료를 검출하였다. 검출된 500건의 응답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4-4) 설문 조사 응답자 구성표

전체		사례 수		구성비	
구분	내용	(명)		(%)	
성별	남	184	500	36.8	100
	여	313		62.6	
	무응답	3		0.6	
연령별	20대	226	500	45.2	100
	30대	177		35.4	
	40대	71		14.2	
	50대 이상	22		4.4	
	무응답	4		0.8	
지역별	수도권	438	500	87.6	100
	강원	1		0.2	
	충청	22		4.4	
	전라	4		0.8	
	경상	28		5.6	
	제주	1		0.2	
	무응답	6		1.2	
직업별	국어학자	60	500	12	100
	외국어학자	50		10	
	인문사회과학자	60		12	
	이공학자	50		10	
	언론인	50		10	
	출판인	60		12	
	국어교육자	60		12	
	문인	50		10	
	기타	60		12	

2. 주요 결과 요약

2.1. 문장 부호 규정의 인지도 및 수용도

2.1.1.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

◆ 문항 1

문장 부호의 명칭과 사용법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 중 문장 부호의 이름이나 사용법 등이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406명(81.2%)이 알고 있었고, 92명(18.4%)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2명(0.4%)은 무응답으로 답변을 하였다.

◆ 문항 2

한글 맞춤법 내의 문장 부호 규정을 실제 본 적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 중 문장 부호 규정을 실제 본 적이 있다는 대답으로 263명(52.6%)이 응답하였고, 237명(47.4%)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문항 2-1

문장 부호 규정을 어떠한 동기로 보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가 중 '학교 교육을 통해'란 응답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56명(31.2%)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란 응답자가 96명(19.2%)으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개에 의해'는 3명(0.6%)로 가장 낮았다.

◆ 문항 3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하는가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 응답자 중 '그렇다'로 응답한 수가 219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로 응답한 수는 132명(26.4%)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수가 58명(11.6%)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수가 58명(11.6%),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수가 22명(4.4%)으로 무응답(11명, 2.2%)보다는 많았지만 응답한 집단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하는 집단과 참고하지 않는 집단의 비율이 81.8% 대 16%로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하는 집단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 문항 4

응답자가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지키는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가 집단 중 '3번 보통이다'로 응답한 수가 208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4번 그렇다'로 응답한 수가 192명(38.4%)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5번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수도 41명(8.2%)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2번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수는 35명(7.0%), '1번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수는 11명(2.2%)으로 가장 적은 응답자 수를 보이고 있다.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지키는 집단과 지키지 않는 집단의 비율이 88.2% 대 9.2%로

문장 부호 규정을 지키는 집단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 문항 5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호 중 문장 부호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복수로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1번 ‘책이름 표시 기호’ 등의 전문 영역에서 사용하는 부호가 문장 부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63.5%(450건)이나 되었다. 다음으로 수학 공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칙연산 부호 등도 문장 부호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이 18.9%(134건)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모티콘의 경우 이를 문장 부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 건수 중 24건(3%)에 지나지 않았다.

◆ 문항 6

① 23개 문장 부호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온점으로 87.4%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물음표가 78.4%로 392명이 응답하였다. 세 번째는 반점인데, 70.8%(354명)이 ‘매우 높다’를 선택하였다. 네 번째는 느낌표로서 69.8%인 349명이 ‘매우 높다’를 선택하였다.

② 사용 빈도가 낮은 순위를 보면 고리점을 76.6%가 ‘매우 낮다’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500명의 전문가 응답자 중 384명에 이르는 수치이다. 다음으로는 모점인데 368명(73.6%)이 ‘매우 낮다’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드러냄표, 빠짐표, 숨김표 순으로 각각 61.8(309명)%, 61.4%(307명), 49.0%(245명)가 ‘매우 낮다’로 응답하였다.

③ 괄호를 나타내는 문장 부호 중에서 소괄호만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매우 높다, 45.8%), 나머지 중괄호와 대괄호의 사용 빈도는 소괄호에 비해 사용 빈도가 현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15.2%, 16.6%).

④ 겹낫표와 낫표의 사용 빈도도 다른 문장 부호에 비해 낮음을 볼 수 있다. 겹낫표와 낫표 모두 ‘매우 높다’를 선택한 사람은 58명으로 11.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 문항 7

23개 문장 부호의 명칭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물음표로 92.8%(464명)에 해당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두 번째는 느낌표로서 459명이 그 명칭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91.8%의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문장 부호 명칭의 인지도 상위 10개를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5) 문장 부호 명칭 인지도 상위 10개

순위	1	2	3	4	5	6	7	8	10	
명칭	물음표	느낌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소괄호	대괄호	중괄호	물결표	줄임표	온점
%	92.8	91.8	90.6	90.0	87.4	86.0	85.0	83.4	83.4	78.8
명	464	459	453	450	437	430	425	417	417	394

◆ 문항 8

23개 문장 부호의 명칭 중에서 명칭에 대한 적절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물음표로 83%(415명)에 해당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두 번째는 느낌표로서 414명이 그 명칭이 적절하다고 대답하여 82.8%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문장 부호 명칭이 적절하다고 조사된 상위 10개의 문장 부호를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6) 문장 부호 명칭의 적절성 상위 10개

순위	1	2	3	4	5	6	7	8	10	
명칭	물음표	느낌표	작은따옴표	소괄호	가운뎃점	큰따옴표	물결표	빗금	줄임표	중괄호, 대괄호
%	83.0	82.8	81.2	81.0	80.8	80.0	78.2	77.8	77.8	77.2
명	415	414	406	405	404	400	391	389	389	386

2.1.2.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수용도

◆ 문항 9

아라비아 숫자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의 온점을 일자 마지막에 쓰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286명으로 57.2%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의 응답은 162명으로 32.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숫자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마지막 일자 뒤에 온점을 찍는 것은 89.6%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문항 10

관형어 다음 문장 성분을 수식하지 않을 때 반점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346명(69.2%)이고,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76명(15.2%)이다. 절반 이상의 전문가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항 11

접속어 뒤에 반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 분석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361명(72.2%)이고,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67명(13.4%)으로, 3분의 2 이상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문항 12

큰따옴표 안에서 다시 직접 인용을 할 경우에 작은따옴표를 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5.6%(378명)에 이르고, 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67명(13.4%)에 지나지 않았다.

◆ 문항 13

겹낫표와 낫표의 기능에 대한 질문으로 이들이 세로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로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60.4%가 이러한 기능을 모른다고 했다. 반면에 23.2%는 이를 안다고 하였다.

◆ 문항 14

인용을 할 때 따옴표 안에서 종결 어미 뒤에 온점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하고 281명(56.2%)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216명(43.2%)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문항 15

줄임표를 사용할 때에 6개의 점을 모두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64.6%(323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그렇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상대적으로 19.6%(98명)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문항 16

아라비아 숫자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일자 뒤에 온점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60.6%(303명)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8%(154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항 17

가운뎃점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54.6%(273명)의 응답자가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두 구성 요소가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가운뎃점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반대로 28.8%(144명)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문항 18

‘내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 부호로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8.2%(241명)의 응답자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지’의 의미로 붙임표를 사용하는 응답자는 22.8%(154명)로 나타났다.

◆ 문항 19

책명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부호를 모두 선택하는 복수의 응답을 요하는 질문에서는, 총 응답 건수 453건 가운데에서 책명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호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②겹낫표’로서 302건(66.7%)의 응답 수가 나왔다. 두 번째는 76건(10.4%)의 응답을 보인 ‘④낫표’이다. 세 번째는 ‘①큰따옴표’(41건, 9.1%), 네 번째는 ‘③작은따옴표’(31건, 6.8%), 다섯 번째는 ‘⑤소괄호’(3건, 0.7%)이다.

◆ 문항 20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는 없는 세미콜론(:)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63.8%(319명)가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2.6%(63명)만이 세미콜론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2.2.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

◆ 문항 21

글을 읽고 쓸 때 문장 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91.6%(458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2%(36명)만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

◆ 문항 22

문장 부호의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89.8%(449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2%(6명)만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

◆ 문항 23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 부호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7.8%(239명)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러한 경험을 겪은 응답자는 19.6%(98명)에 지나지 않았다.

2.3.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만족도

◆ 문항 24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38.6%(193명)가 만족도를 보였고,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56명으로 11.2%를 차지하였다.

◆ 문항 25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7개의 보기를 제시하여 복수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한 질문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㉔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의 사용법이 실제 사용과 다른 것이 있다.'로 155명(38.1%)이 응답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㉑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빠진 경우가 있다.'인데, 76명(16.8%)이 응답하였다. 세 번째 문제점은 '㉓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의 이름 중 부적절한 것이 있다.'로 92명(22.6%)이 응답하였다. 네 번째 문제점은 '㉒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 중 컴퓨터로 글을 쓸 때 부적절한 것이 있다.'인데, 31명(6.8%)이 응답하였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앞의 두 번째 문제점과 같이 분석·기술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자는 3명(0.7%)이다.

◆ 문항 26

① 세로쓰기에 사용되는 문장 부호들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211명(42.2%),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53명(30.6%)이었다.

②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문장 부호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8.8%(394명),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6%(33명)였다.

③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문장 부호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71.8%(358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11.4%(57명)였다.

④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모티콘과 같은 기호들을 문장 부호로 도

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문장 부호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50%(250명)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22.6%(113명)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⑤ 국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에 대하여 문장 부호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8.2%(241명)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1.6%(58명)에 지나지 않았다.

◆ 문항 27

문장 부호 개정 방안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5개의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하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④대대적인 문장 부호 사용 실태 조사’로 피설문자의 절반에 가까운 240명(48%)이 응답하였다. 두 번째는 ‘①문장 부호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홍보’로 170명(34%)이 응답하였다. 세 번째는 ‘③ 문장 부호 개정 관련 아이디어 모색’으로서 57명(11.4%)이 응답하였다.

2.4.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의한 국어 사용 변화

◆ 문항 28

국민의 문장 부호 규정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양상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70%(335명)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1.4%(57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문항 29

문장 부호를 개정하였을 때 문장 부호의 개정된 내용을 직접 찾아보겠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69.8%(349명)가 직접 보겠다고 응답하였고, 18.4%(92명)가 찾아보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 문항 30

문장 부호 규정을 개정한다면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대로 사용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75.4%(367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4%(20명)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 문항 31

문장 부호 개정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서, 기대 효과가 가장 큰 것은 ‘③문장 부호 사용을 통한 활발한 표현 수단 구축’으로 47.2%(236명)가 응답하였다. 다음은 ‘①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기여’로 44.8%(224명)가 응답하였다.

◆ 문항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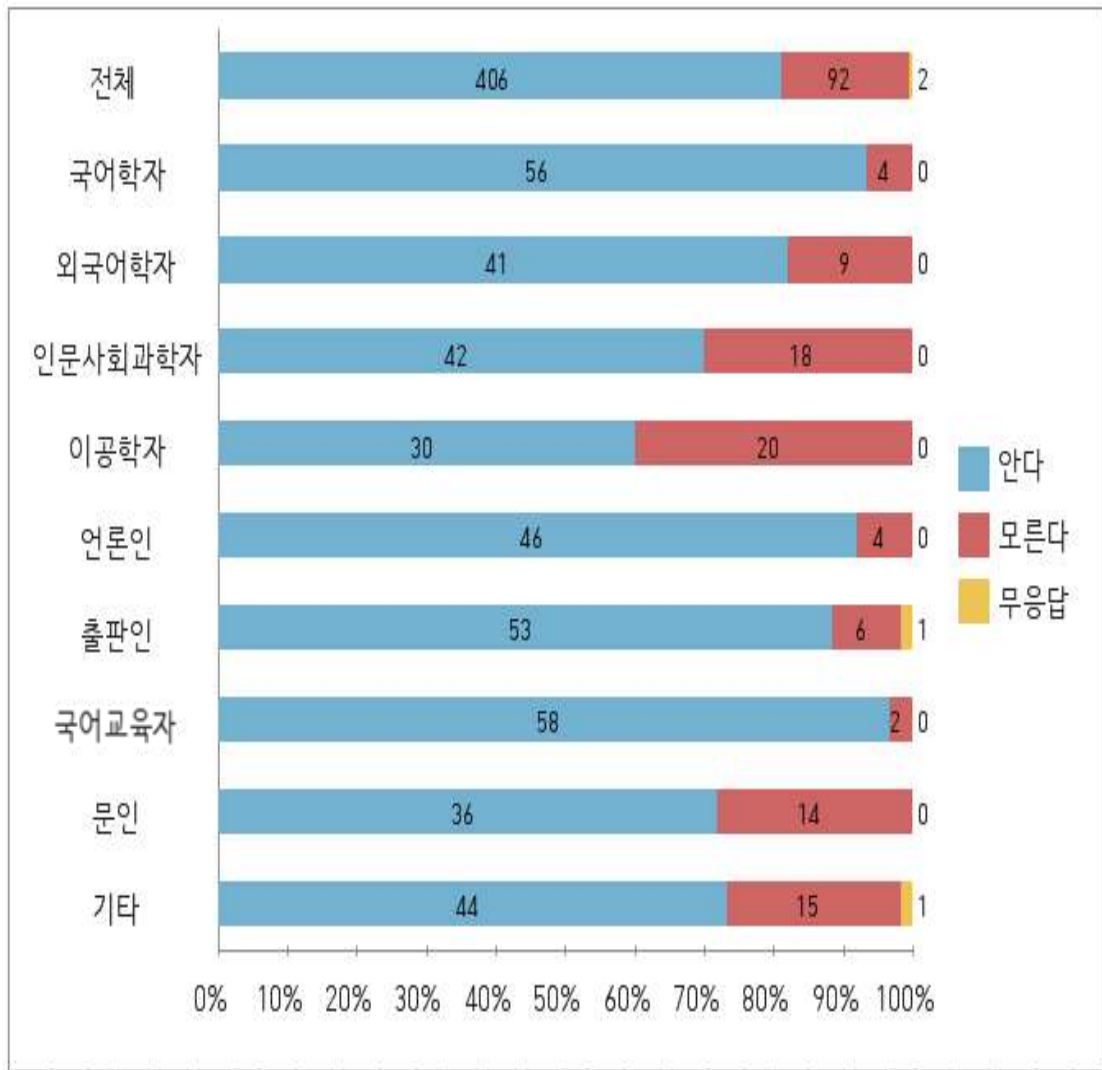
우리나라 안에서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아직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1, 2단계)는 응답이 34.8%(174명),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4, 5단계)는 응답이 18%(90명), 3단계 보통이라는 응답이 46%(230명)였다.

◆ 문항 33

전체 176건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대부분은 설문 조사지에 반영되어 있는 의견들이라서 모두 기술하지는 않고 아래 도표에 대표적인 의견들만을 제시한다.

(4-7) 서술식 의견 정리

번호	요약	의견 내용
1	교육	개정도 중요하지만 문장 부호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함. 초중고교에서 반복적으로 교수학습할 필요 있음.
2	홍보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보통 대중들은 문장 부호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홍보부족 때문이라 생각한다.
3	추가	컴퓨터 사용에 의한 새로운 문장 부호에 대한 제시가 부실한 듯
4	명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문장 부호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부호와 관련되는 이름으로요.
5	실태	실태 조사 필요. 규정된 문장 부호도 적고 실제 사용이 반영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문장 부호가 한글 맞춤법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 중 국어교육자 집단이 96.7%(58명)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이공학자 집단이 60%(30명)으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국어학자는 93.3%(56명)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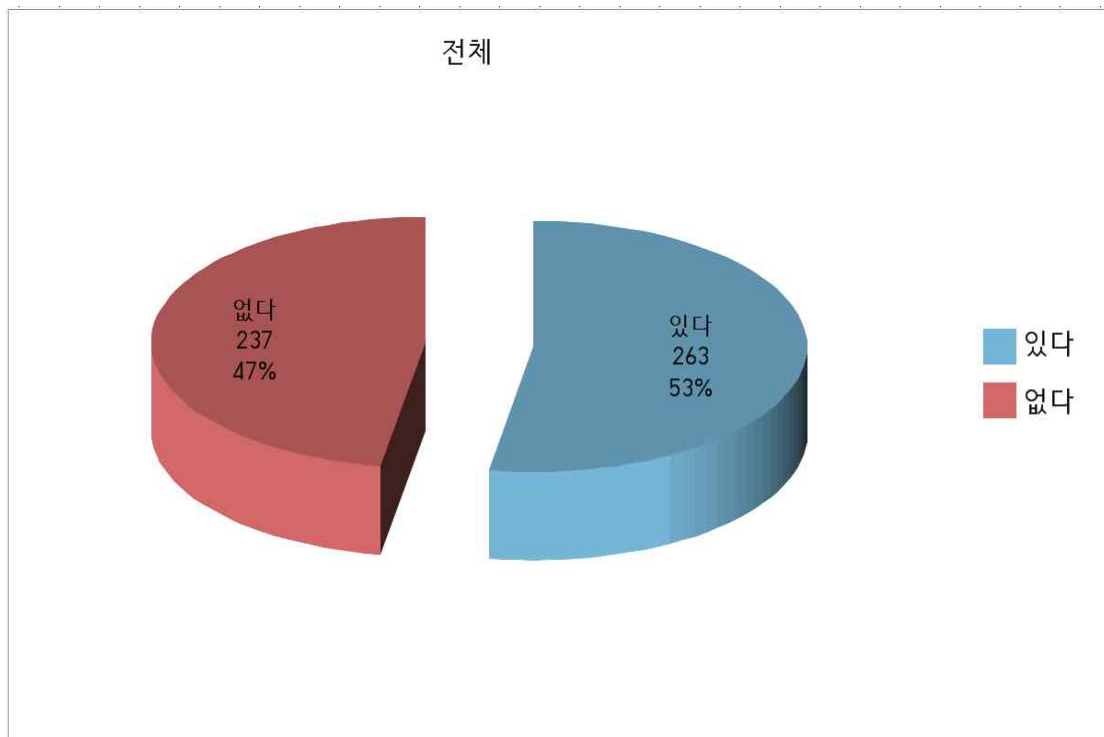
문항2.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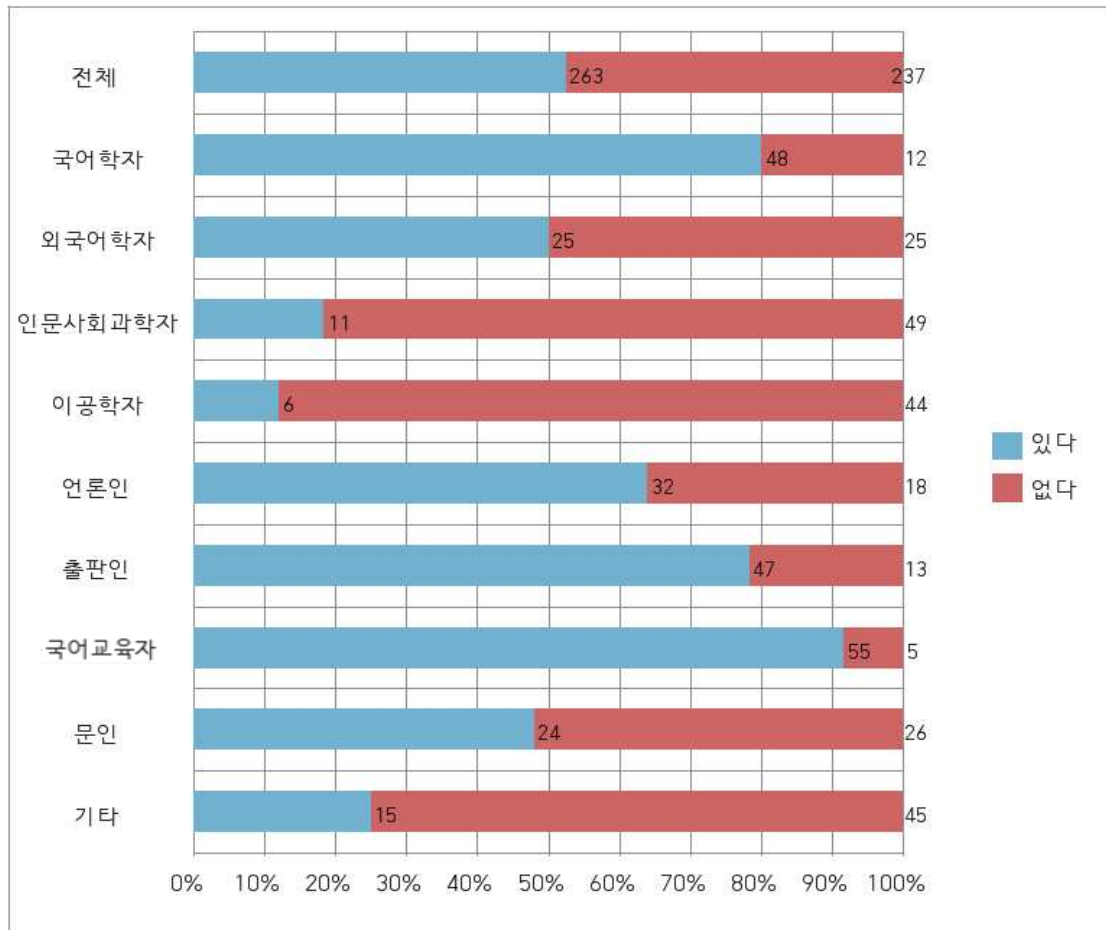
① 있다.

② 없다.

문항2는 한글 맞춤법 내의 문장 부호 규정을 실제 본 적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문항1과에서 문장 부호 규정의 실체에 대한 인지 여부에 이어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여부를 묻는 문항이다.

각계 전문가 중 문장 부호 규정을 실제 본 적이 있다는 대답으로 263명(52.6%)이 응답하였고, 237명(47.4%)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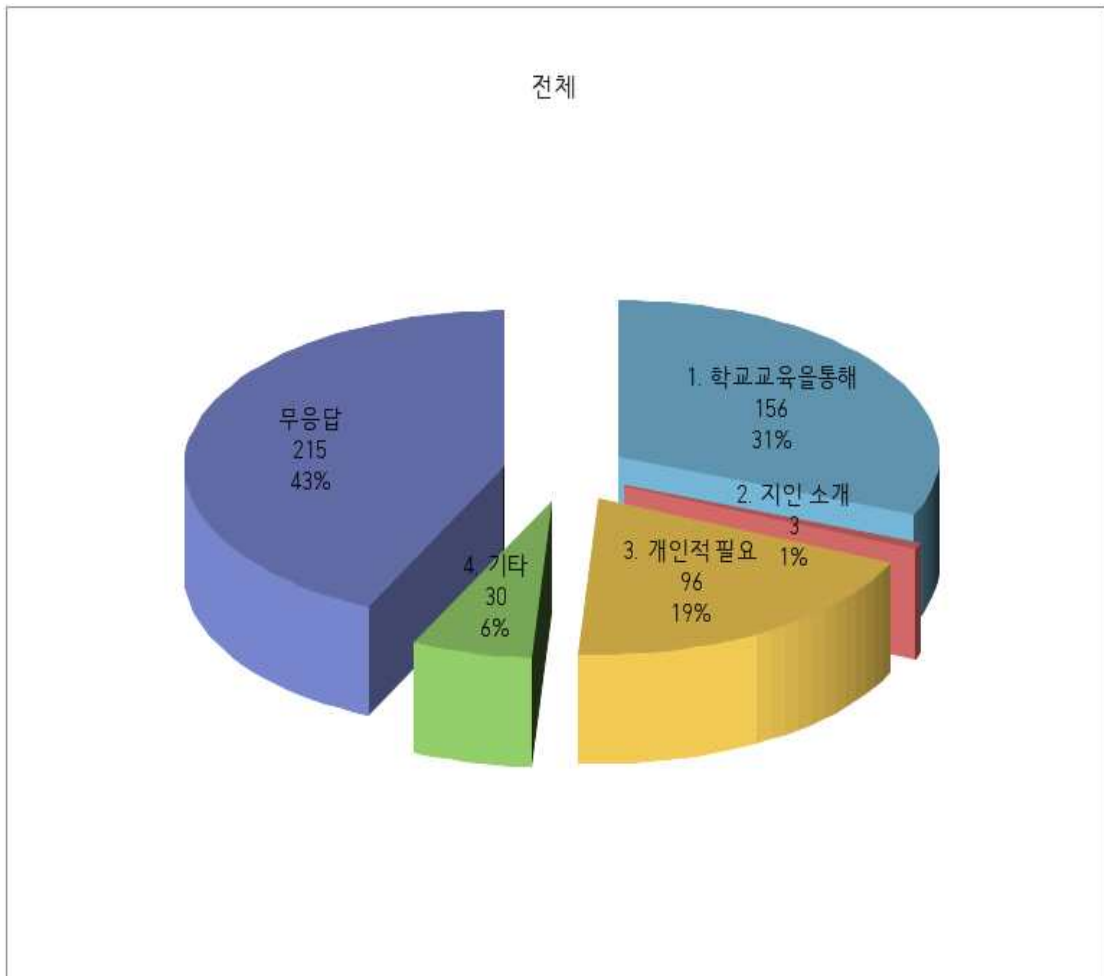
문장 부호 규정을 본 적이 있는 전문가 집단도 역시 국어교육자 집단이 55명(91.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어학자가 48명(80%)의 응답을 보였다. 이공학자 집단은 6명(12%)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인문사회과학자 집단도 11명(18.3%)으로 두 번째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언론인(32명, 64%)과 출판인(47명, 78.3%) 집단과 같이 글과 많이 접하는 전문가 집단이 상대적으로 문장 부호 규정을 접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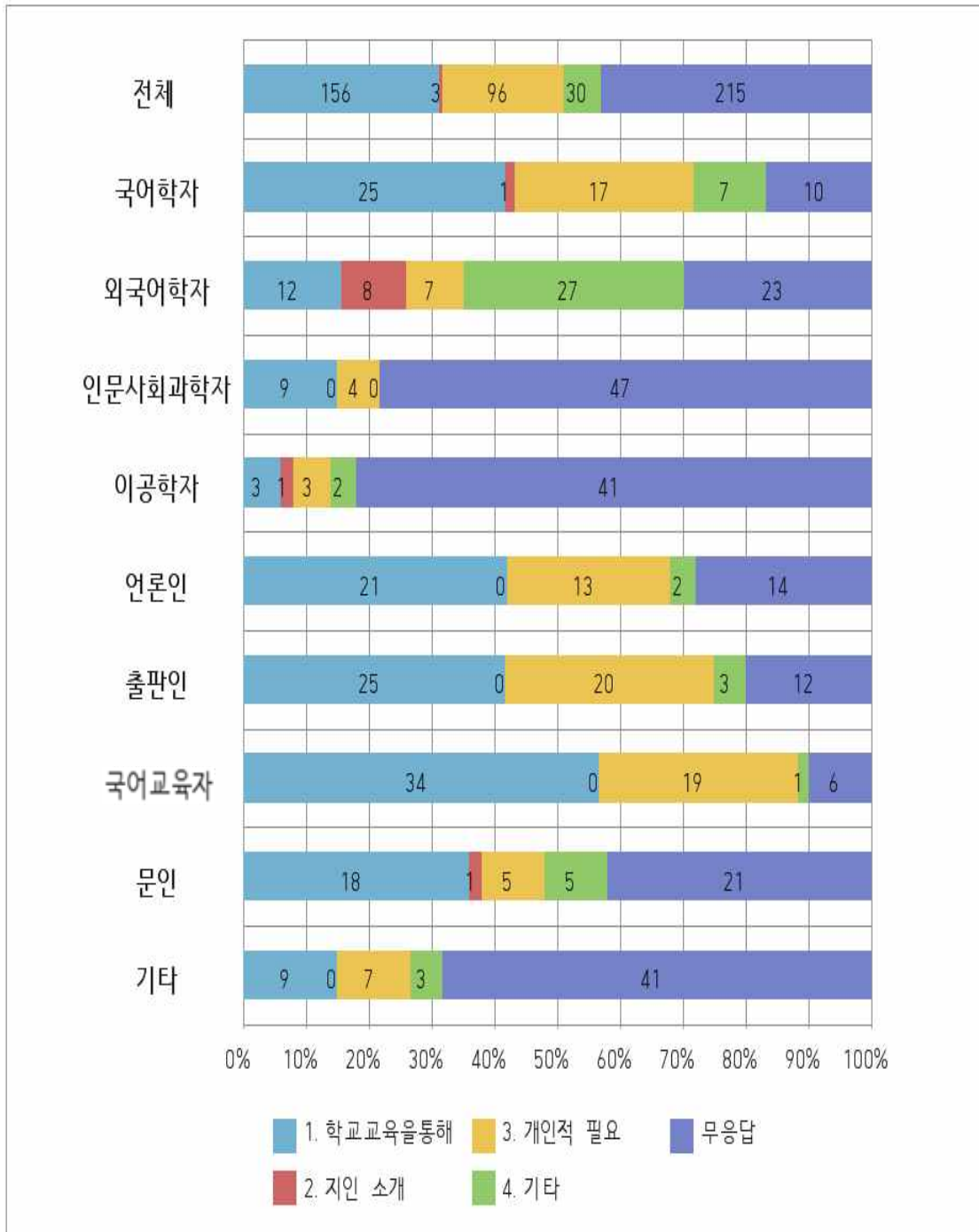
문항2-1. 문장 부호 규정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동기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까?

(2번 문항에서 '① 있다'에 응답하신 분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학교 교육을 통해 ② 다른 사람의 소개에 의해
- ③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④ 기타

문항2-1은 문장 부호 규정을 어떠한 동기로 보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인 것이다. 각계 전문가 중 어떤 동기로 문장 부호 규정을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란 응답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56명(31.2%)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사람의 소개에 의해'는 3명(0.6%)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란 응답자도 96명(19.2%)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이 '학교 교육을 통해' 문장 부호 규정을 접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데 비해 이공학자 집단의 경우 '학교 교육을 통해'(3명)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3명)가 동수를 이루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문항3. 문장 부호 규정을 알고 있으시면, 글을 쓸 때 참고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3은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하는가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이다. ‘매우 그렇다’는 글을 쓸 때 어문 규정집을 직접 참고하는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글을 쓸 때 옆 사람에게 물어보며 참고하는 정도의 경우이고, ‘그렇지 않다’는 글을 쓸 때 문장 부호를 모르는 경우에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문 규정집을 참고하지도 않는 경우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는 문장 부호에 대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이다’는 참고할 때도 있고 참고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경우이다.

각계 전문가 집단이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로 응답한 수가 219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로 응답한 수가 132명(26.4%)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세 번째는 ‘매우 그렇다’ 58명(11.6%)과 ‘그렇지 않다’ 58명(11.6%)이 같은 수치를 보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수는 22명(4.4%)으로 무응답(11명, 2.2%)보다는 많았지만 응답한 집단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하는 집단과 참고하지 않는 집단의 비율이 81.8% 대 16%로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하는 집단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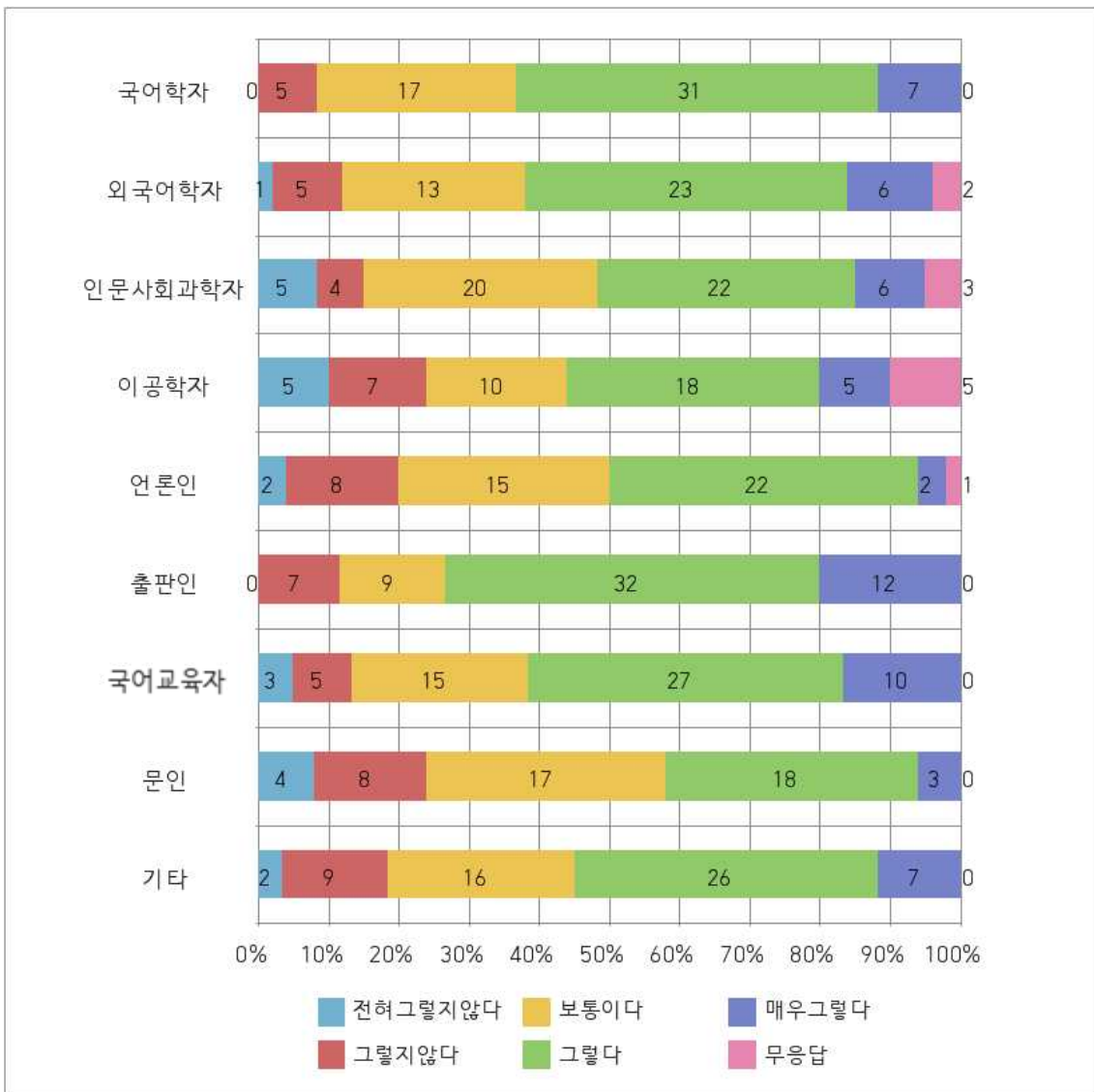
전체



이를 각계 전문가 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집단은 출판인 집단(32명, 53.3%)이고, 전혀 참고하지 않는 집단은 이공학자(5명, 10%)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고한다’와 ‘참고하지 않는다’만으로 구분한다면, 국어학자 집단이 91.7%로 문장 부호 규정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출판

인 집단으로 88.3% 정도가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하지 않는 집단은 역시 이공학자 집단으로 24%가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학자		외국어학자		인문사회과학자		이공학자		언론인		출판인		국어교육자		문인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번	0	0	1	2	5	8.3	5	10	2	4	0	0	3	5.0	4	8	2	3.3
2번	5	8.3	5	10	4	6.7	7	14	8	16	7	11.7	5	8.3	8	16	9	15.0
3번	17	28.3	13	26	20	33.3	10	20	15	30	9	15.0	15	25.0	17	34	16	26.7
4번	31	51.7	23	46	22	36.7	18	36	22	44	32	53.3	27	45.0	18	36	26	43.3
5번	7	11.7	6	12	6	10.0	5	10	2	4	12	20.0	10	16.7	3	6	7	11.7
무응답	0	0	0	0	3	5.0	5	10	1	2	0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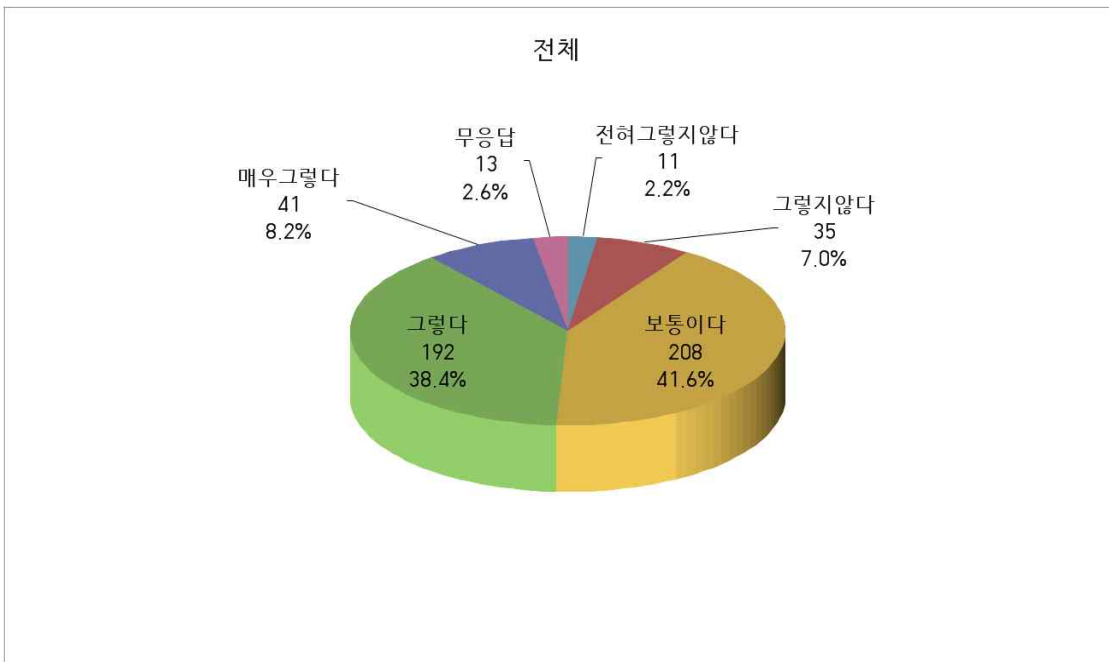
문항4.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잘 지키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4는 응답자가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지키는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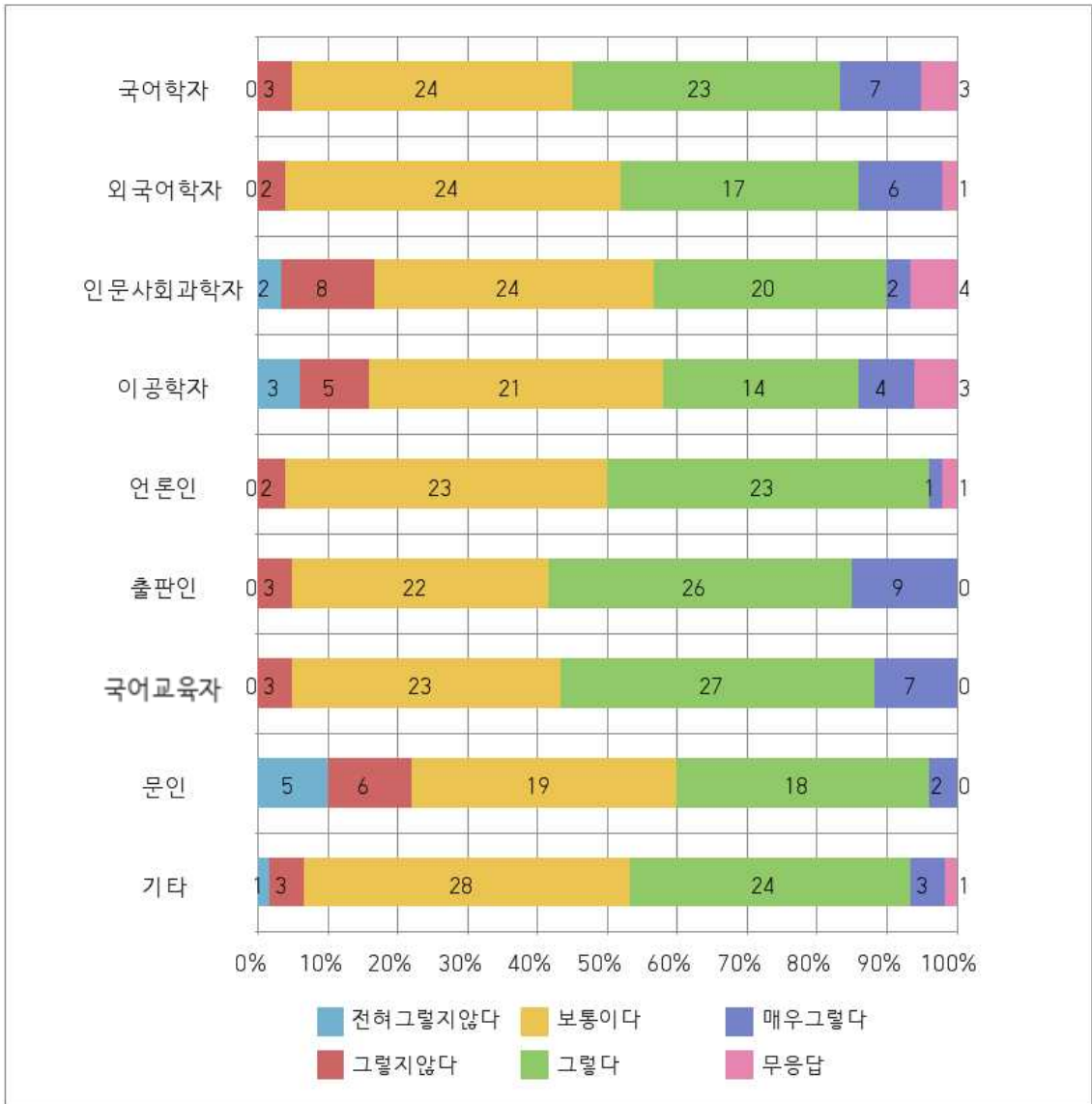
이 질문에 '3번 보통이다'로 응답한 수가 208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4번 그렇다'로 응답한 수는 192명(38.4%)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5번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수는 41명(8.2%)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2번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수는 35명(7.0%)으로 네 번째, '1번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수는 11명(2.2%)으로 다섯 번째를 차지하였다.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지키는 집단과 지키지 않는 집단의 비율이 88.2% 대 9.2%로 문장 부호 규정을 지키는 집단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각계 전문가 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매우 잘 준수하는 집단은 국어교육자와 출판인 집단으로 95%(3~5번)가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언론인이 9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국어학자는 90%로 네 번째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문장 부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집단으로는 문인 집단이 22%(1, 2번)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자가 16.6%, 이공학자가 16%로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하였다.

	국어학자		외국어학자		인문사회과학자		이공학자		언론인		출판인		국어교육자		문인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0	0	0	0	2	3.3	3	6	0	0	0	0	0	0	5	10	1	1.7
②	3	5.0	2	4	8	13.3	5	10	2	4	3	5.0	3	5.0	6	12	3	5.0
③	24	40.0	24	48	24	40.0	21	42	23	46	22	36.7	23	38.3	19	38	28	46.7
④	23	38.3	17	34	20	33.3	14	28	23	46	26	43.3	27	45.0	18	36	24	40.0
⑤	7	11.7	6	12	2	3.3	4	8	1	2	9	15.0	7	11.7	2	4	3	5.0
무응답	3	5.0	1	2	4	6.7	3	6	1	2	0	0	0	0	0	0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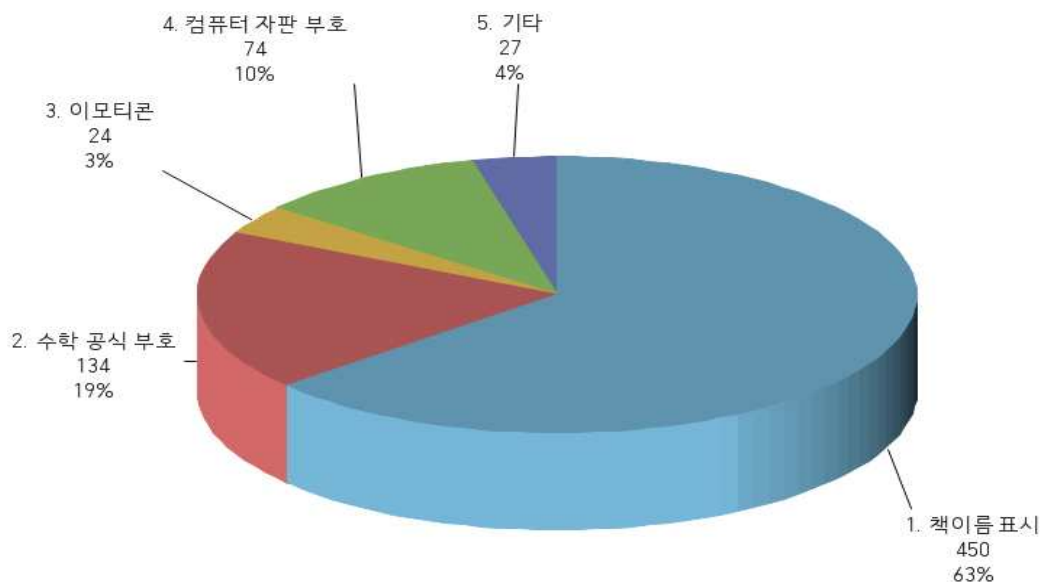
문항5. 현행 문장 부호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보기 중 문장 부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checkmark 표시를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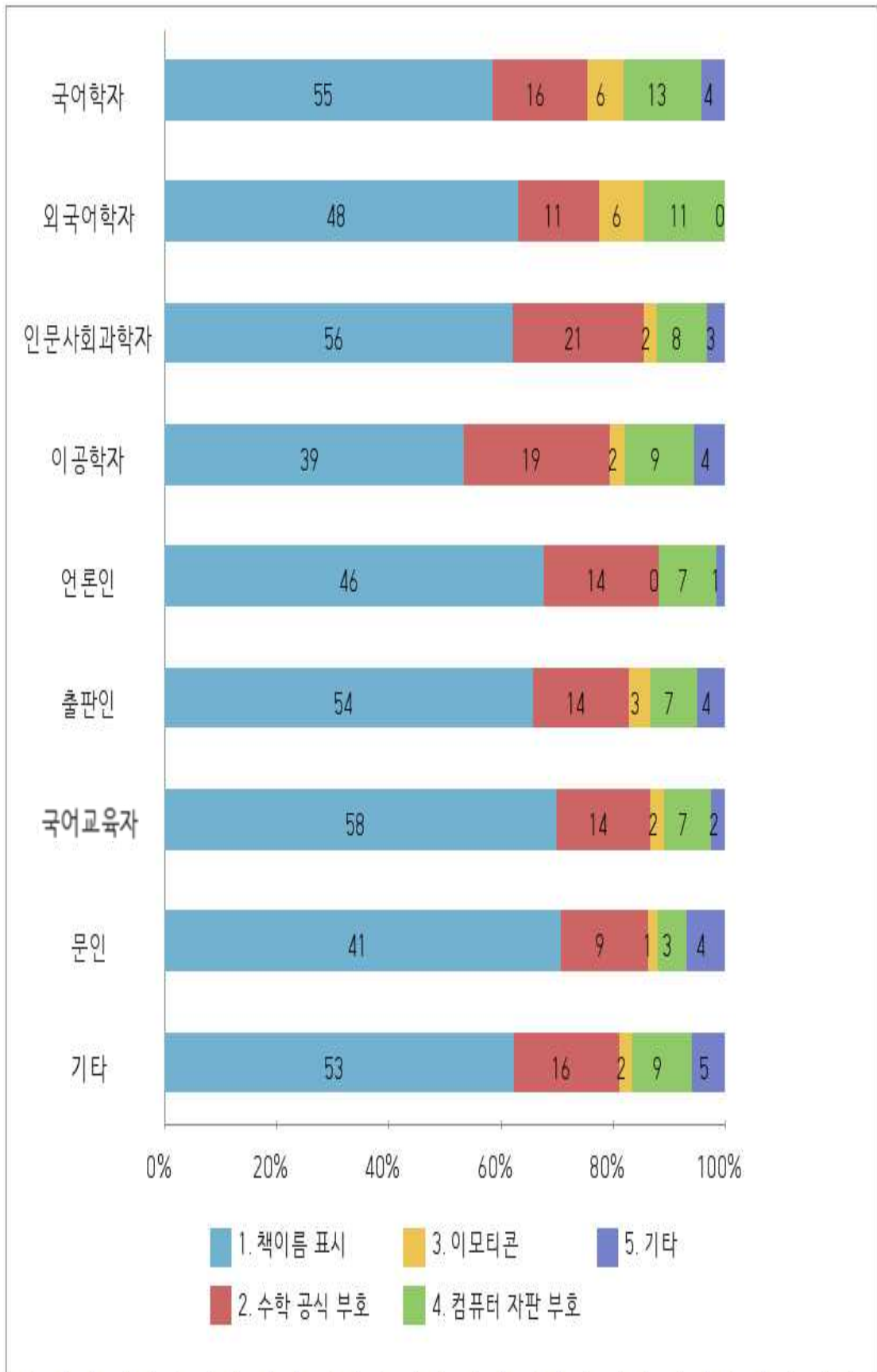
- ① 전문 영역에서 사용하는 부호(예: 『무정』, 『무정』, 《무정》 등의 책이름(書名) 표시 기호 등)
- ② 수학 공식 등에 사용하는 부호 (예: +, -, ×, ÷ 등)
- ③ 이모티콘 (예 : ^^ 등)
- ④ 휴대폰 및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부호 (예: @, #, & 등)
- ⑤ 기타

문항5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호 중 문장 부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복수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전체 응답 수가 709건이나 되어 응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호 중 문장 부호에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1번 ‘책이름 표시 기호’ 등의 전문 영역에서 사용하는 부호가 문장 부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63.5%(450건)나 되었다. 다음으로 수학 공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칙연산 부호 등도 문장 부호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이 18.9%(134건)의 응답률을 보였다.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의 경우 이를 문장 부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 건수 중 24건(3%)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모티콘은 아직은 공식적인 글쓰기 부호로서의 자격이 미달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문항6. 다음의 각 문장 부호를 귀하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숫자를, 사용 빈도가 낮을수록 낮은 숫자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6은 23개의 응답을 요구하는 복수의 문항이다. 즉, 문항6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 23개(세로쓰기 포함)에 대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묻는 질문이다.

23개 문장 부호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온점으로 87.4%에 해당하였다. 이는 500명의 전문가 집단 중에서 437명이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것이다. 다음으로 물음표가 78.4%로 392명이 ‘매우 높다’로 응답하였다. 세 번째는 반점인데, 70.8%가 응답하여 354명이 ‘매우 높다’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느낌표인데 69.8%인 349명이 ‘매우 높다’를 선택하였다. 이는 실제 문장 사용 속에서 흔하게 쓰이는 네 개의 문장 부호로 당연한 순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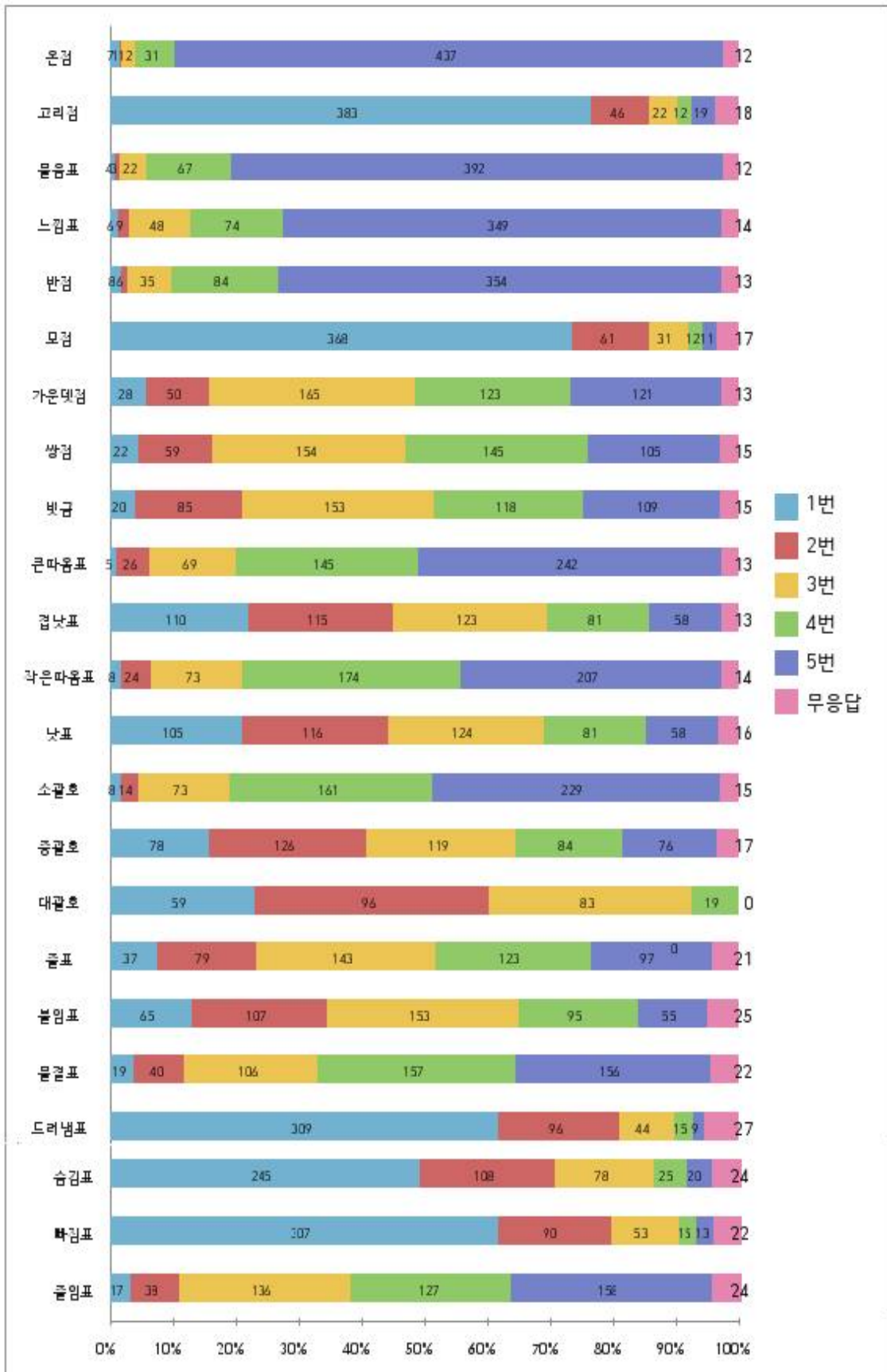
사용 빈도가 낮은 순위를 보면 고리점을 76.6%가 ‘매우 낮다’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500명의 전문가 응답자 중 384명에 이르는 수치이다. 다음으로는 모점인데 368명(73.6%)이 ‘매우 낮다’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드러냄표, 빠짐표, 숨김표 순인데 각각 61.8(309명)%, 61.4%(307명), 49.0%(245명)이다. 이는 우선 고리점과 모점은 세로쓰기에서만 쓰이는 문장 부호이기 때문에 가로쓰기를 실행하는 현재로서는 전문가조차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드러냄표, 빠짐표가 60% 이상, 숨김표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로 사용 빈도가 낮다고 한 것은 이 세 문장 부호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괄호를 나타내는 문장 부호 중에서 소괄호만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매우 높다, 45.8%), 나머지 중괄호와 대괄호의 사용 빈도는 소괄호에 비해 사용 빈도가 현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15.2%, 16.6%).

겹낫표와 낫표의 사용 빈도도 다른 문장 부호에 비해 낮음을 볼 수 있다. 즉 겹낫표와 낫표 모두 ‘매우 높다’를 선택한 사람이 58명으로 11.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매우 낮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겹낫표가 110명으로 22.0%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낫표가 105명으로 2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보다 ‘매우 낮다’가 두 배나 많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문장 부호의 사용 빈도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설문 통계표와 그래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온점	7	1.4	1	0.2	12	2.4	31	6.2	437	87.4	12	2.4
2	고리점	384	76.6	46	9.2	22	4.4	12	2.4	19	3.8	18	3.6
3	물음표	4	0.8	3	0.6	22	4.4	67	13.4	392	78.4	12	2.4
4	느낌표	6	1.2	9	1.8	48	9.6	74	14.8	349	69.8	14	2.8
5	반점	8	1.6	6	1.2	35	7.0	84	16.8	354	70.8	13	2.6
6	모점	368	73.6	61	12.2	31	6.2	12	2.4	11	2.2	17	3.4
7	가운뎃점	28	5.6	50	10.0	165	33.0	123	24.6	121	24.2	13	2.6
8	쌍점	22	4.4	59	11.8	154	30.8	145	29.0	105	21.0	15	3.0
9	빗금	20	4.0	85	17.0	153	30.6	118	23.6	109	21.8	15	3.0
10	큰마음표	5	1.0	26	5.2	69	13.8	145	29.0	242	48.4	13	2.6
11	겹낫표	110	22.0	115	23.0	123	24.6	81	16.2	58	11.6	13	2.6
12	작은마음표	8	1.6	24	4.8	73	14.6	174	34.8	207	41.4	14	2.8
13	낫표	105	21.0	116	23.2	124	24.8	81	16.2	58	11.6	16	3.2
14	소괄호	8	1.6	14	2.8	73	14.6	161	32.2	229	45.8	15	3.0
15	중괄호	78	15.6	126	25.2	119	23.8	84	16.8	76	15.2	17	3.4
16	대괄호	59	11.8	122	24.4	121	24.2	96	19.2	83	16.6	19	3.8
17	줄표	37	7.4	79	15.8	143	28.6	123	24.6	97	19.4	21	4.2
18	붙임표	65	13.0	107	21.4	153	30.6	95	19.0	55	11.0	25	5.0
19	물결표	19	3.8	40	8.0	106	21.2	157	31.4	156	31.4	22	4.4
20	드리넵표	309	61.8	96	19.2	44	8.8	15	3.0	9	1.8	27	5.4
21	숨김표	245	49.0	108	21.6	78	15.6	25	5.0	20	4.0	24	4.8
22	빠짐표	307	61.4	90	18.0	53	10.6	15	3.0	13	2.6	22	4.4
23	줄임표	17	3.4	38	7.6	136	27.2	127	25.4	158	31.6	24	4.8



문항7. 다음의 각 문장 부호에 대해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1번, 모르고 있는 경우는 2번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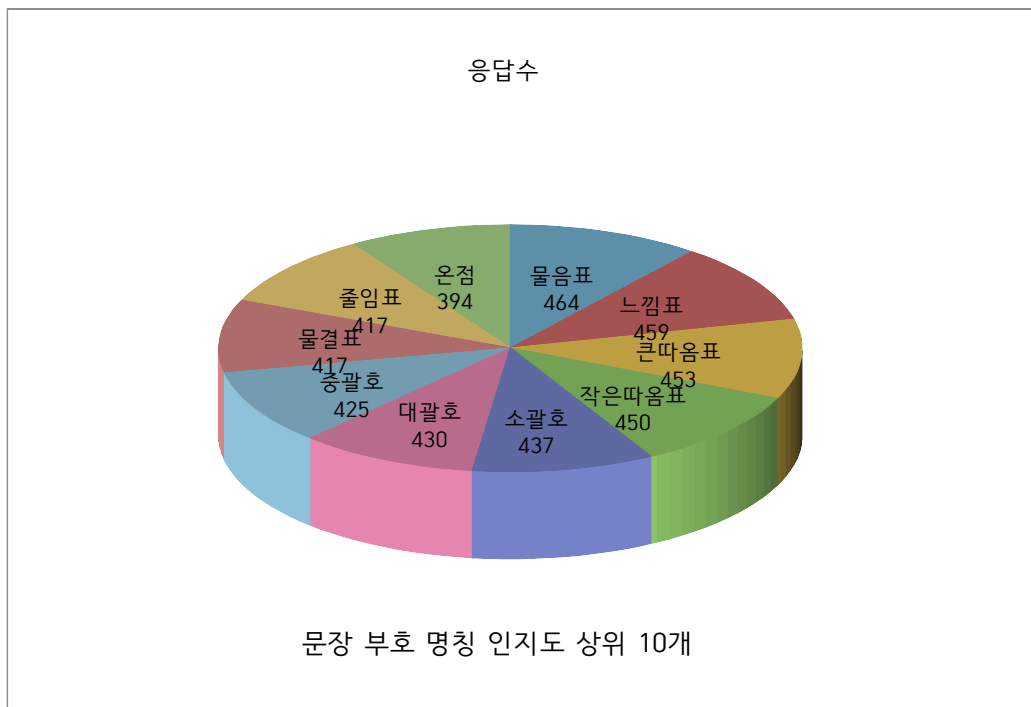
안다	모른다
①	②

문항7은 23개의 응답을 요구하는 복수의 문항이다. 즉, 문항7 내에 있는 문장 부호 23개 (세로쓰기 포함)의 명칭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23개 문장 부호의 명칭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물음표로 92.8%(464명)에 해당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두 번째는 느낌표로서 459명이 그 명칭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91.8%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문장 부호 명칭의 인지도 상위 10개를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 부호 명칭 인지도 상위 10개>

순위	1	2	3	4	5	6	7	8	10	
명칭	물음표	느낌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소괄호	대괄호	중괄호	물결표	줄임표	온점
%	92.8	91.8	90.6	90.0	87.4	86.0	85.0	83.4	83.4	78.8
명	464	459	453	450	437	430	425	417	417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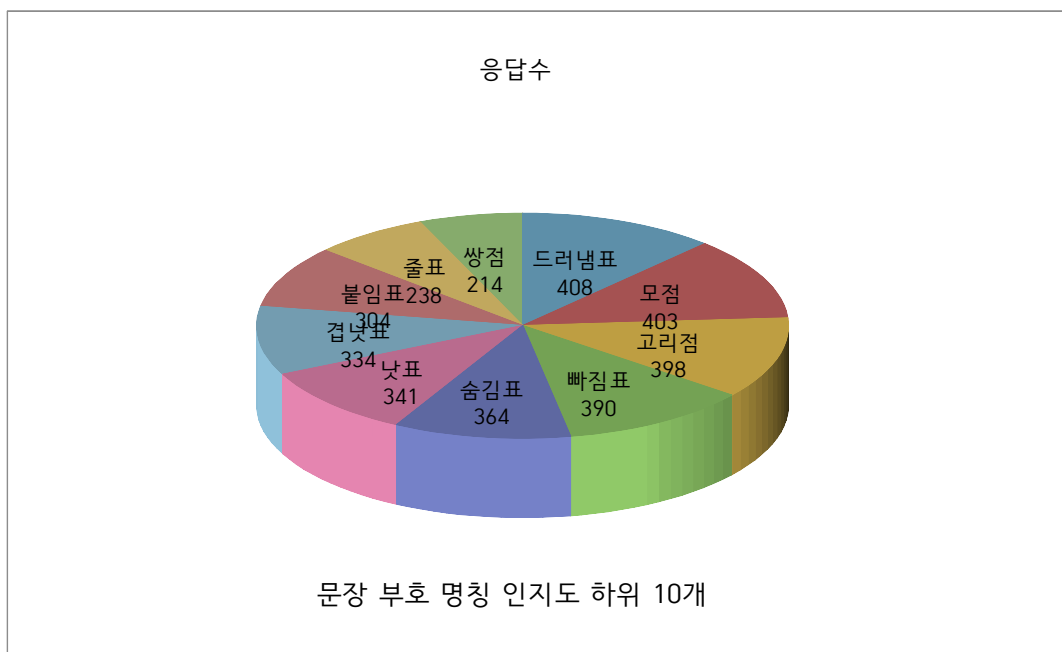


위 도표에서 보면 물음표, 느낌표뿐 아니라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명칭에 대한 인지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500명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그 명칭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온점의 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예상 외로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온점은 문장 부호 가운데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장 부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명칭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23개 문장 부호 가운데 78.8%의 응답률을 보이며 10위를 차지하였다. 사용 빈도만을 고려한다면 온점에 대한 명칭의 인지도는 상위권에 들어야 할 것인데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즉, 사용 빈도에 비해 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것은 흔히 온점을 마침표로 잘못 지칭해 오던 습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장 부호 명칭을 모른다는 응답 순위를 보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인 문장 부호 명칭은 드러냄표로 81.6%(408명)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모점(80.6%, 403명), 고리점(79.6%, 39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도가 낮은 문장 부호의 명칭 상위 10개를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 부호 명칭 인지도 하위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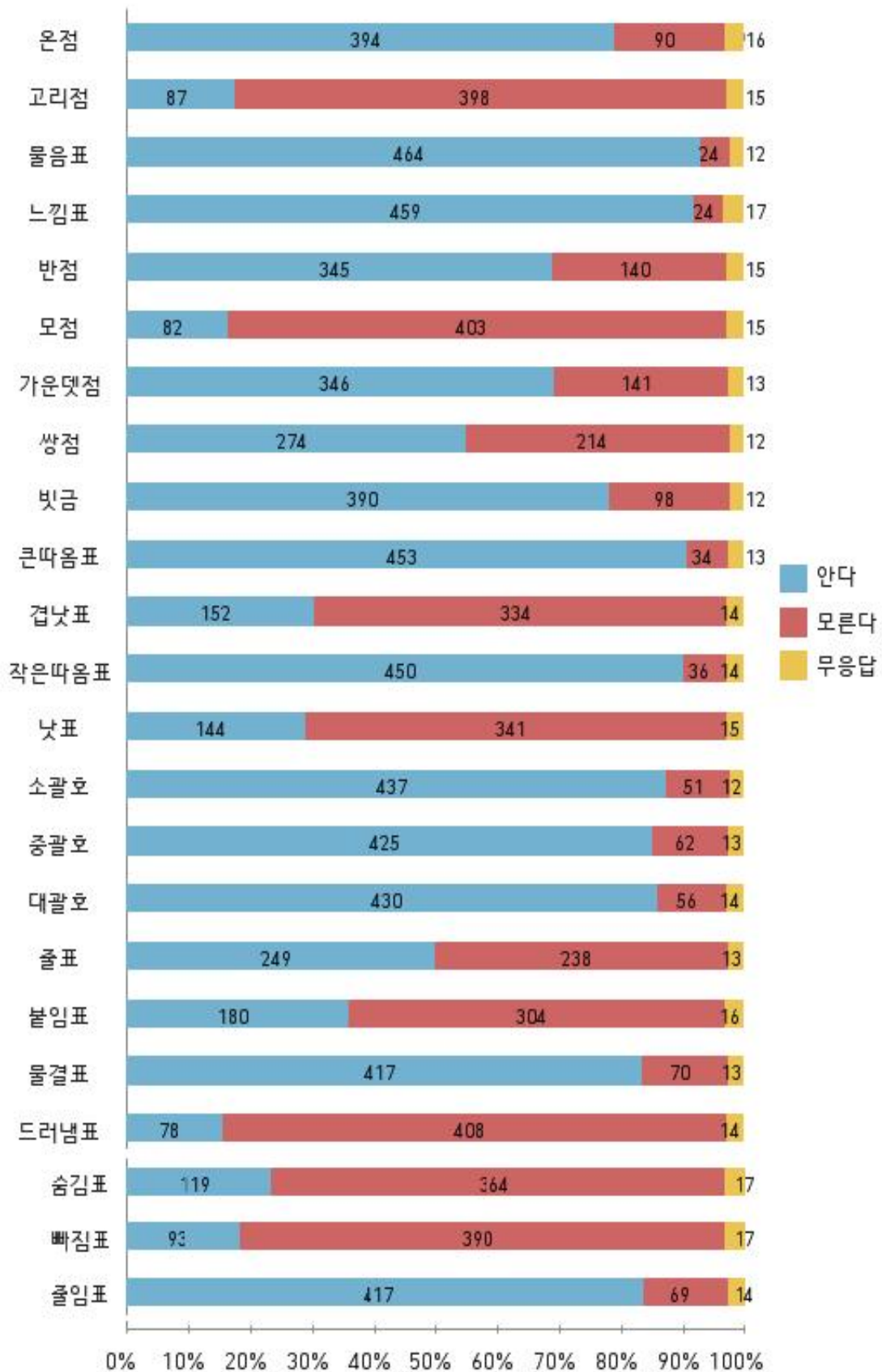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명칭	드러냄표	모점	고리점	빠짐표	숨김표	낫표	겹낫표	붙임표	줄표	쌍점
%	81.6	80.6	79.6	78.0	72.8	68.2	66.8	60.8	47.6	42.8
명	408	403	398	390	364	341	334	304	238	214



위 도표에서 문장 부호 명칭 중 가장 인지도가 낮은 것은 드러냄표이다. 실제 글을 쓸 때 필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아 그 명칭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위(80.6%)와 3위(79.6%)는 각각 모점과 고리점인데 이것 역시 세로쓰기에서만 사용되는 문장 부호로서 실제 글쓰기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그 명칭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줄표와 쌍점의 명칭이 각각 9위(47.6%)와 10위(42.8%)로 낮게 나타난 것은 영어 명칭이 더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장 부호 명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설문 통계표와 그래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안다		② 모른다		무응답	
		명	%	명	%	명	%
1	은점	394	78.8	90	18.0	16	3.2
2	고리점	87	17.4	398	79.6	15	3.0
3	물음표	464	92.8	24	4.8	12	2.4
4	느낌표	459	91.8	24	4.8	17	3.4
5	반점	345	69.0	140	28.0	15	3.0
6	모점	82	16.4	403	80.6	15	3.0
7	가운뎃점	346	69.2	141	28.2	13	2.6
8	쌍점	274	54.8	214	42.8	12	2.4
9	빗금	390	78.0	98	19.6	12	2.4
10	큰마음표	453	90.6	34	6.8	13	2.6
11	겹낫표	152	30.4	334	66.8	14	2.8
12	작은마음표	450	90.0	36	7.2	14	2.8
13	낫표	144	28.8	341	68.2	15	3.0
14	소괄호	437	87.4	51	10.2	12	2.4
15	중괄호	425	85.0	62	12.4	13	2.6
16	대괄호	430	86.0	56	11.2	14	2.8
17	줄표	249	49.8	238	47.6	13	2.6
18	붙임표	180	36.0	304	60.8	16	3.2
19	물결표	417	83.4	70	14.0	13	2.6
20	드러냄표	78	15.6	408	81.6	14	2.8
21	숨김표	119	23.8	364	72.8	17	3.4
22	빠짐표	93	18.6	390	78.0	17	3.4
23	줄임표	417	83.4	69	13.8	14	2.8



문항8. 다음의 각 문장 부호에 대해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번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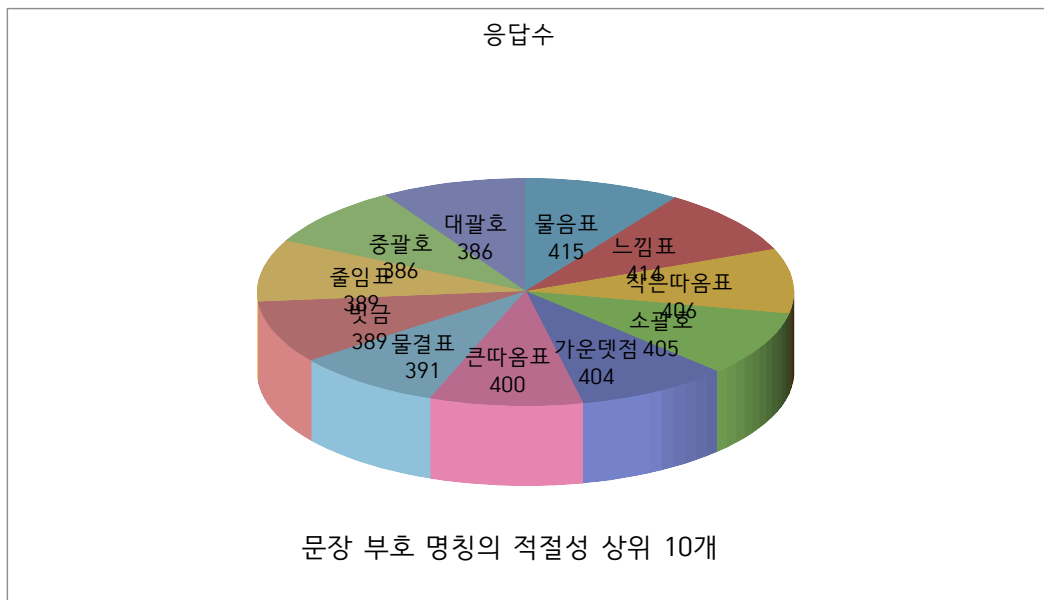
문항8은 23개의 응답을 요구하는 복수의 문항이다. 즉, 문항8 내에 있는 23개 문장 부호 (세로쓰기 포함) 명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부적절한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이다.

23개 문장 부호의 명칭 중에서 명칭에 대한 적절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물음표로 83%(415명)에 해당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두 번째는 느낌표인데 414명이 그 명칭이 적절하다고 대답하여 82.8%의 응답률을 보였다. 물음표와 느낌표는 문장 부호 명칭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똑같이 1위와 2위를 차지하여 명칭에 대한 인지도와 적절성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문장 부호 명칭이 적절한 상위 10개의 문장 부호를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 부호 명칭의 적절성 상위 10개>

순위	1	2	3	4	5	6	7	8	10	
명칭	물음표	느낌표	작은따옴표	소괄호	가운뎃점	큰따옴표	물결표	빗금	줄임표	중괄호, 대괄호
%	83.0	82.8	81.2	81.0	80.8	80.0	78.2	77.8	77.8	77.2
명	415	414	406	405	404	400	391	389	389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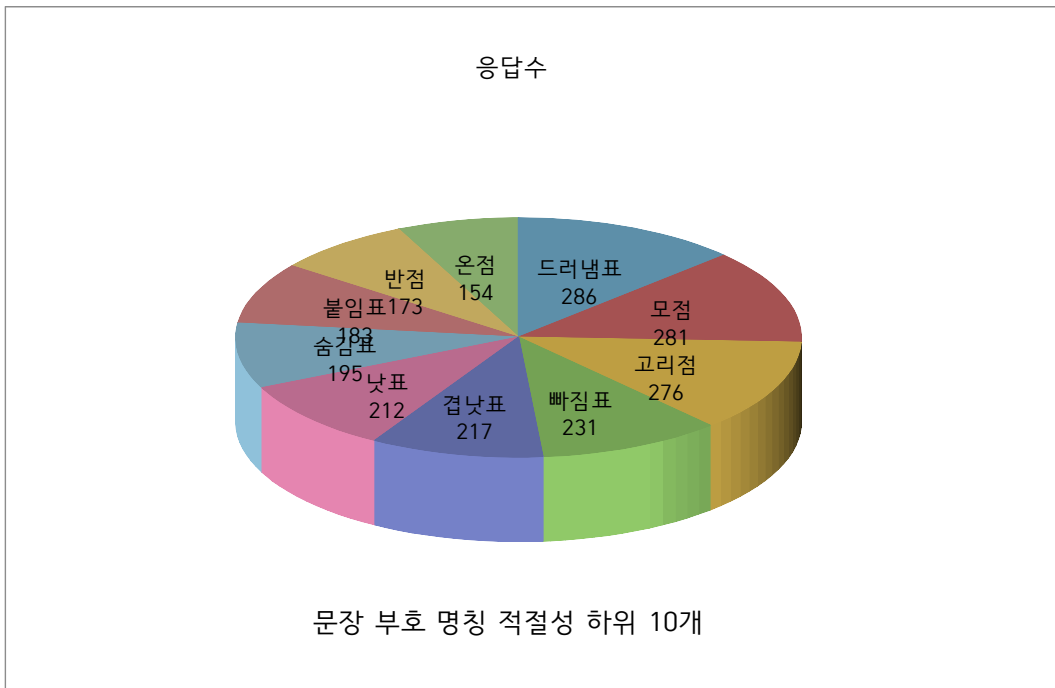
위 도표에서 보면 1위와 2위를 차지한 물음표, 느낌표에서 10위를 차지한 중괄호와 대괄호까지 응답률이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상위 10위권 내에서 문장 부호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괄호 명칭을 제외하고는 응답자들이 대부분 문장 부호의 명칭을 문장 부호의 형태나 모양과 일치시켜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문장 부호 명칭의 적절성이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것은 드러냄표로 57.2%(286명)이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모점(56.2%, 281명), 고리점(55.2%, 27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장 부호 명칭이 부적절한 상위 10개의 문장 부호를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 부호 명칭 적절성 하위 10개>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명칭	드러냄표	모점	고리점	빠짐표	겹낫표	낫표	숨김표	붙임표	반점	은점
%	57.2	56.2	55.2	46.2	43.4	42.4	39.0	36.6	34.6	30.8
명	286	281	276	231	217	212	195	183	173	154



위 도표에서 보면 드러냄표가 문장 부호의 명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로쓰기에서만 사용하는 모점과 고리점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4위는 빠짐표인데 46.2%(231명)이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응답하였다. 숨김표와 붙임표는 각각 7위(39%, 195명)와 8위(36.6%, 183명)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가 문장 부호의 형태나 모양에서 명칭을

따운 것이 아니라 문장 부호의 기능 차원에서 그 명칭을 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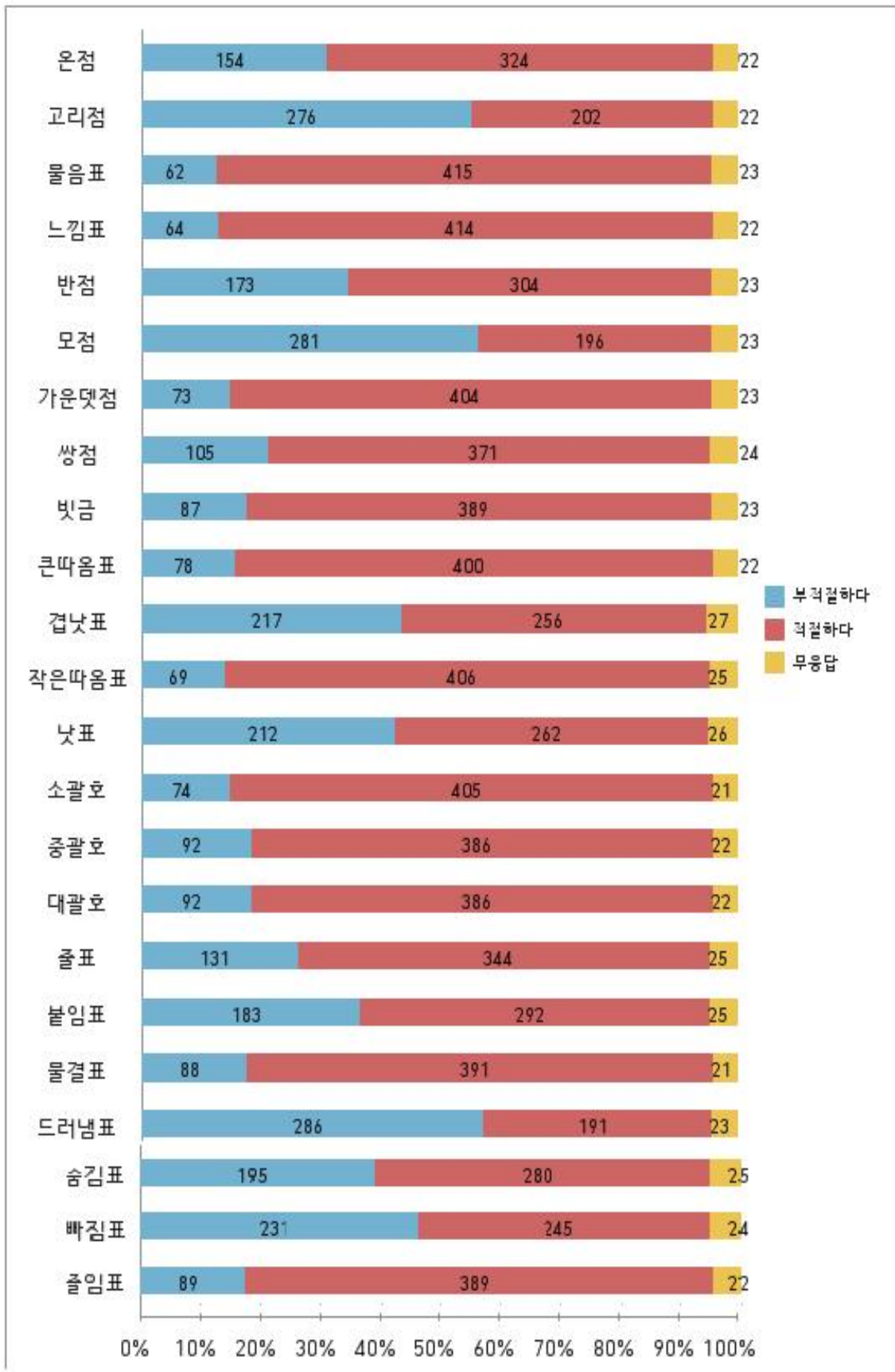
또한 반점과 온점도 9위와 10위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문장 부호 중 그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들이지만 이들의 명칭에 대한 적절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흔히 쉼표와 마침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미있는 현상은 1위에서 4위까지 문장 부호 명칭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순위와 문장 부호 명칭이 부적절한 1위에서 4위까지의 순위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문장 부호의 명칭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1위부터 3위까지도 문장 부호 명칭의 상위 인지도 순위 1~3위까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문장 부호의 명칭과 그 명칭의 적절성 여부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장 부호의 명칭을 부여할 때 문장 부호의 기능보다는 형태나 모양을 고려해서 부여하는 것이 문장 부호의 명칭에 대한 인지도나 명칭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장 부호 명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설문 통계표와 그래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무응답	
		명	%	명	%	명	%
1	온점	154	30.8	324	64.8	22	4.4
2	고리점	276	55.2	202	40.4	22	4.4
3	물음표	62	12.4	415	83.0	23	4.6
4	느낌표	64	12.8	414	82.8	22	4.4
5	반점	173	34.6	304	60.8	23	4.6
6	모점	281	56.2	196	39.2	23	4.6
7	가운뎃점	73	14.6	404	80.8	23	4.6
8	쌍점	105	21.0	371	74.2	24	4.8
9	빗금	87	17.4	389	77.8	23	4.6
10	큰마음표	78	15.6	400	80.0	22	4.4
11	겹낫표	217	43.4	256	51.2	27	5.4
12	작은마음표	69	13.8	406	81.2	25	5.0
13	낫표	212	42.4	262	52.4	26	5.2
14	소괄호	74	14.8	405	81.0	21	4.2
15	중괄호	92	18.4	386	77.2	22	4.4
16	대괄호	92	18.4	386	77.2	22	4.4
17	줄표	131	26.2	344	68.8	25	5.0
18	붙임표	183	36.6	292	58.4	25	5.0
19	물결표	88	17.6	391	78.2	21	4.2
20	드러냄표	286	57.2	191	38.2	23	4.6
21	숨김표	195	39.0	280	56.0	25	5.0
22	빠짐표	231	46.2	245	49.0	24	4.8
23	줄임표	89	17.8	389	77.8	22	4.4



3.1.2.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수용도

문항9.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온점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1919.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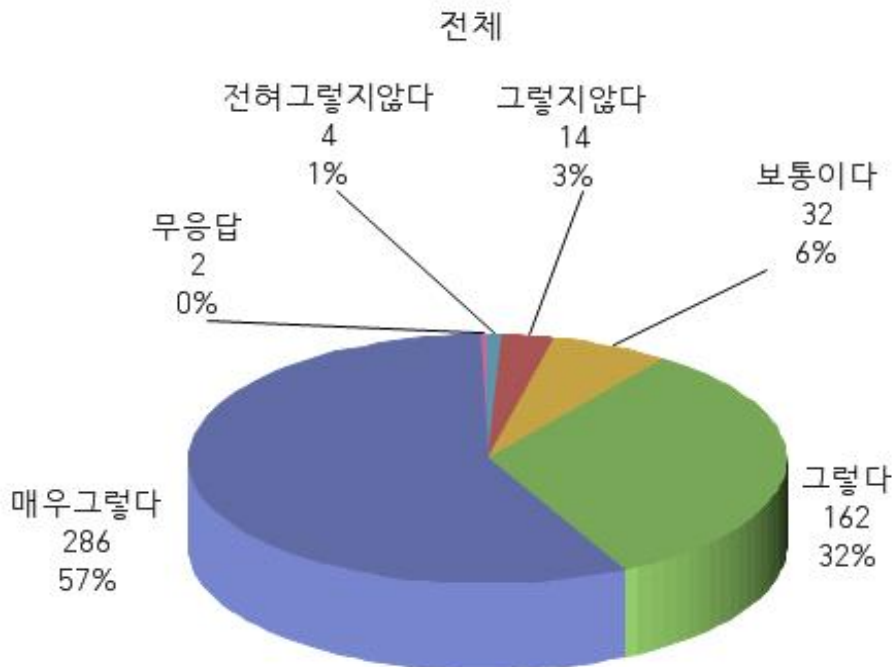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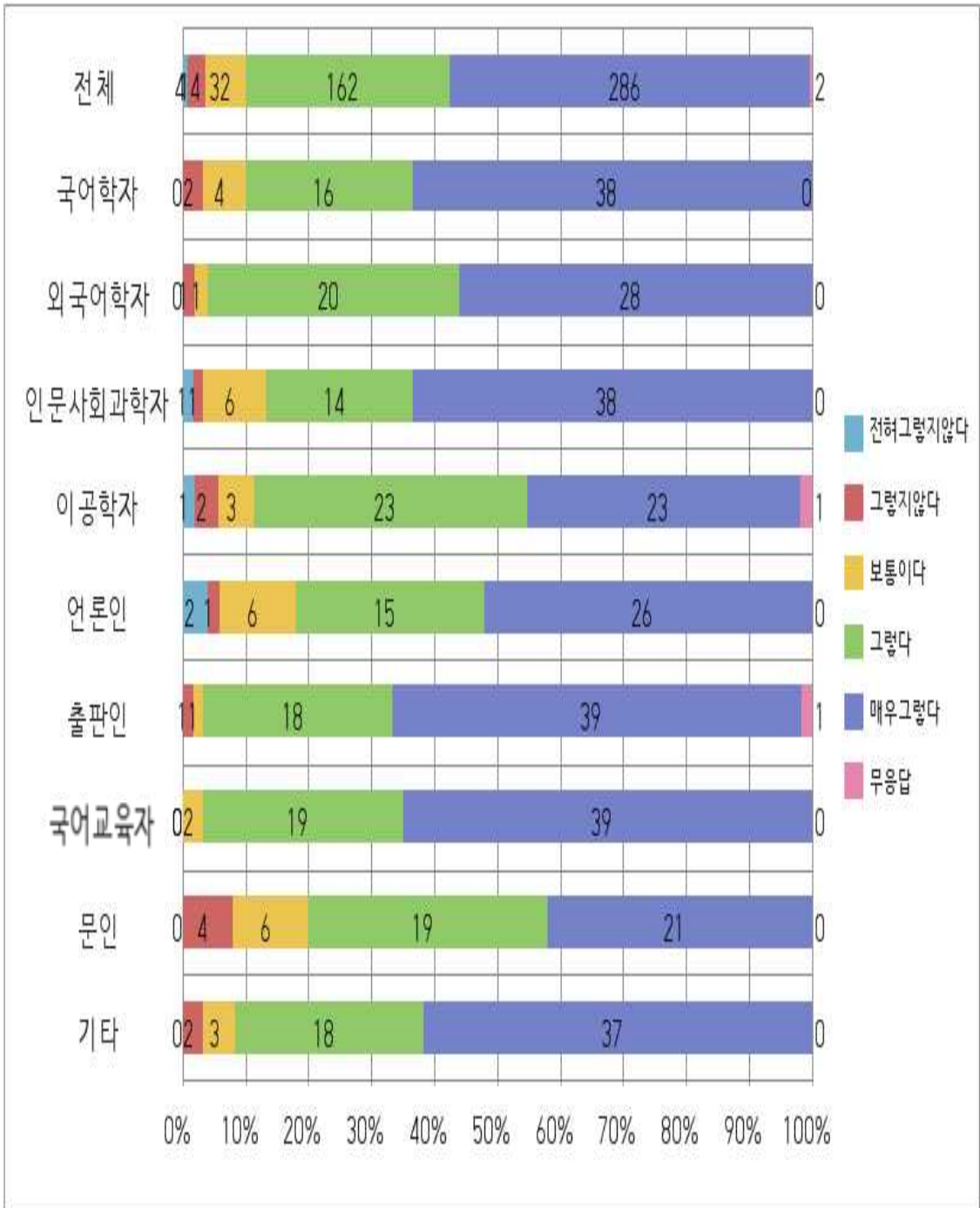
문항9는 아라비아 숫자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의 온점을 연월일자 마지막에 쓰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가운데 ‘매우 그렇다’는 응답수가 286명으로 57.2%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는 162명으로 32.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숫자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각각의 뒤에 온점을 찍는 것은 89.6%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역시 국어학자나 국어교육자들이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며 출판인 역시 이와 동일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인문사회과학자 집단에서도 동일 수준의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문인 집단이 응답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20%(10명)라는 응답률을 볼 때 문인 집단이 문항9의 질문에 대하여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외이다.





문항10.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반점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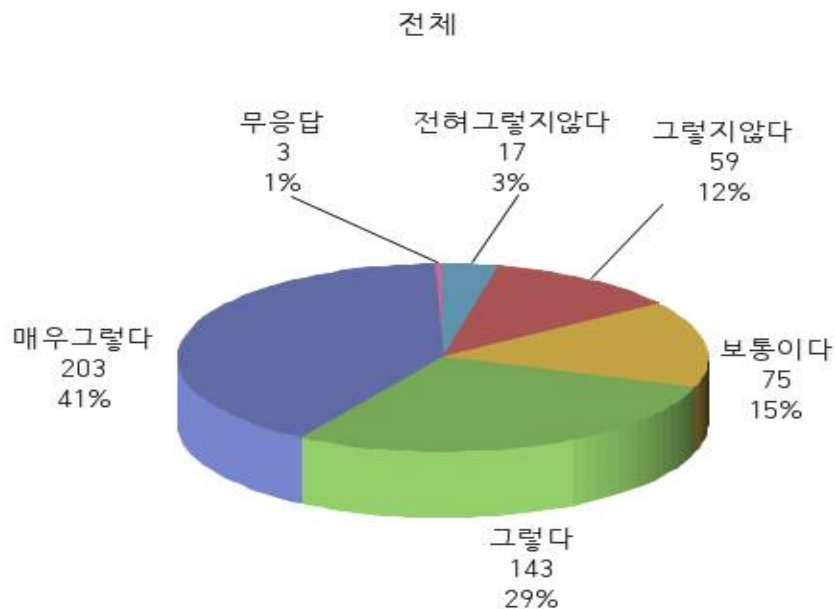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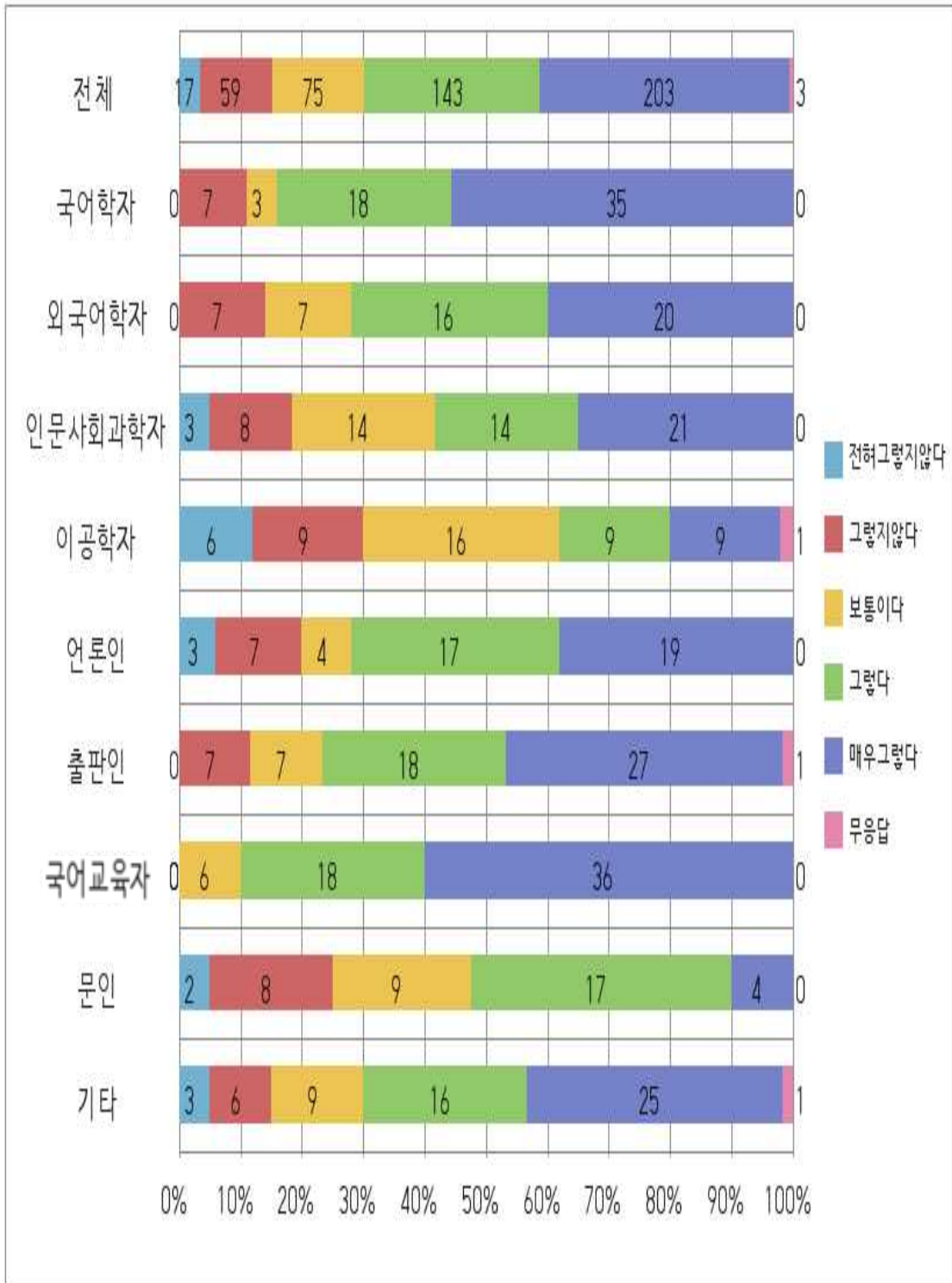
문항10는 관형어 다음 문장 성분을 수식하지 않을 때 반점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은 모두 346명(69.2%)이고,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76명(15.2%)이다. 절반 이상의 전문가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별로는 국어교육자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60%, 36명)와 ‘그렇다’(30%, 18명)의 긍정의 응답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국어학자 집단이 ‘매우 그렇다’(53.3%, 32명)와 ‘그렇다’(30%, 18명)를 합한 응답률에서 83.3%를 차지하였다.

이공학자 집단은 이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5개 척도에 고르게 분산되어 나타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12%, 6명), ‘그렇지 않다’(18%, 9명), ‘보통이다’(32%, 16명), ‘그렇다’(18%, 9명), ‘매우 그렇다’(18%, 9명)가 고른 분포를 보인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도 36%에 머물러 국어교육자 집단의 90%와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문항11.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 ‘그리고, 그러나’ 뒤에는 반점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사랑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루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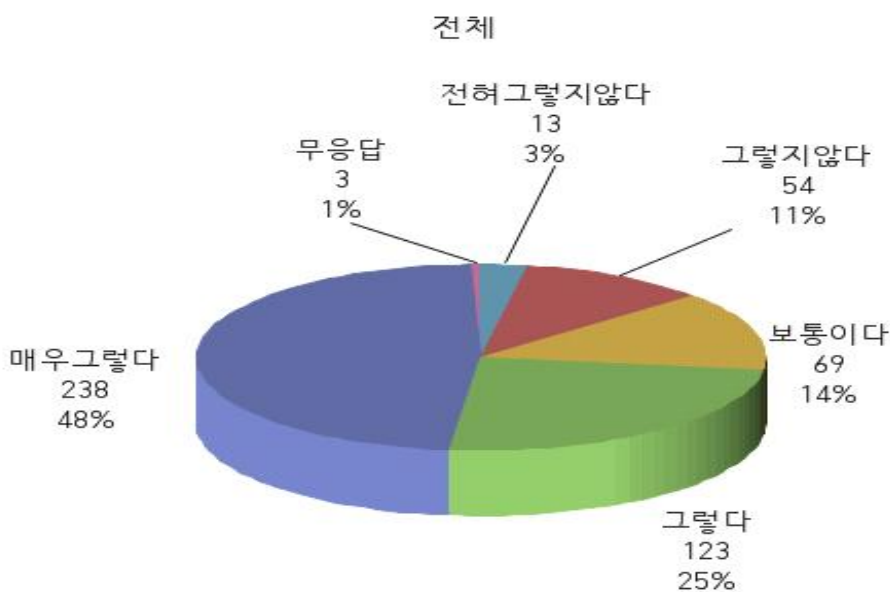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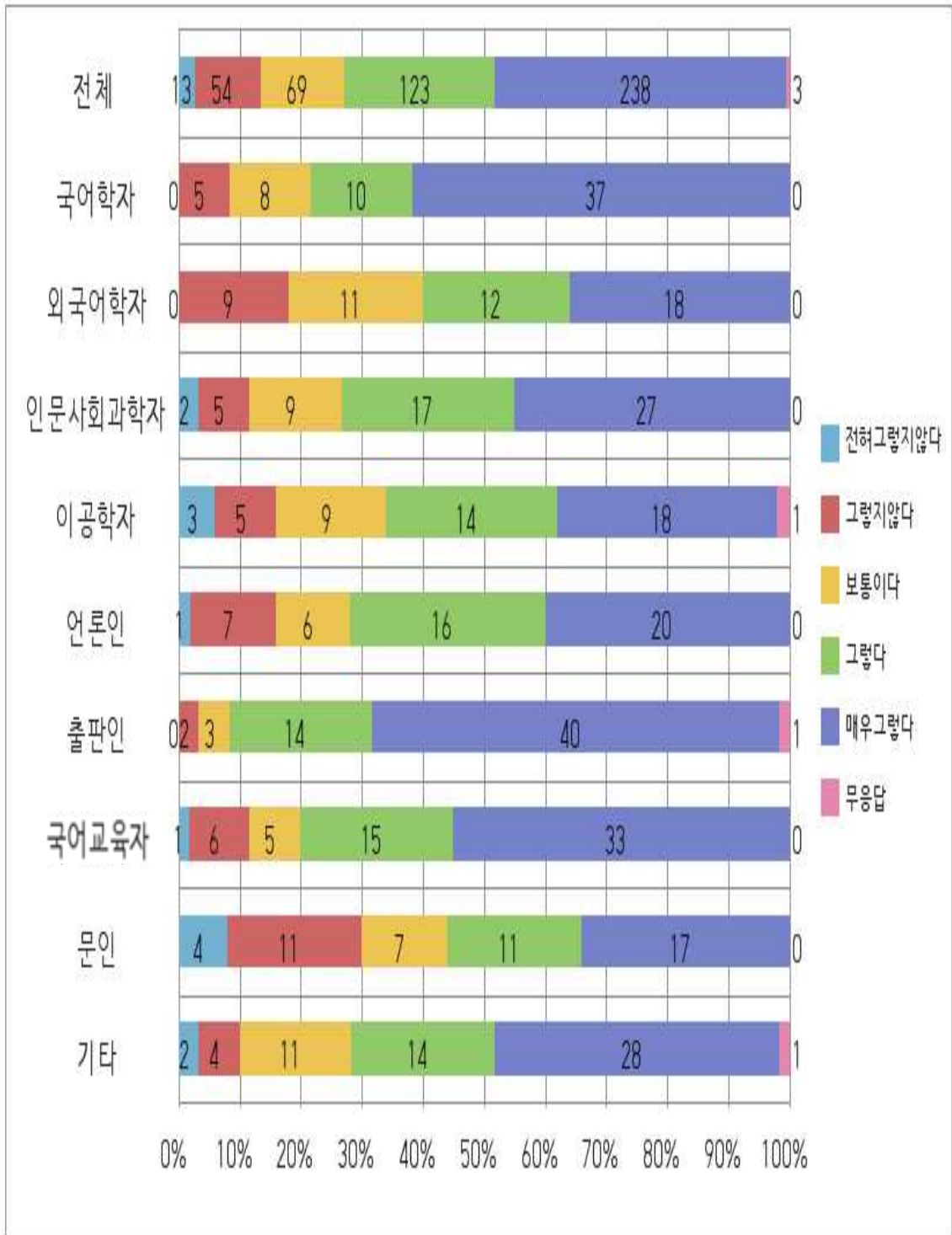
문항11은 접속어 뒤에 반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 분석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361명(72.2%)이고,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67명(13.4%)으로, 3분의 2 이상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별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집단은 출판인 집단이었다. 출판인 집단은 ‘매우 그렇다’(66.7%, 40명), ‘그렇다’(23.3%, 14명)가 90%에 이르러, 대부분의 응답자가 접속어 뒤에 반점을 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국어교육자 집단으로 80%(‘매우 그렇다’(55%, 33명), ‘그렇다’(25%, 15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은 국어학자 집단인데 78.4%(‘매우 그렇다’(61.7%, 37명), ‘그렇다’(16.7%, 10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국어학자 집단이 국어교육자 집단에 비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지만,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에서 국어교육자 집단에 뒤져 전체 순위에서 밀렸다.

접속어 뒤에 반점을 찍지 않는다는 것에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집단은 30%를 보인 문인 집단이다. 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8%(4명), ‘그렇지 않다’에 22%(11명)에 이르는 응답을 하였다. 다음은 외국어학자 집단인데, ‘그렇지 않다’에 18%(9명)가 응답을 하였다.





문항12.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작은따옴표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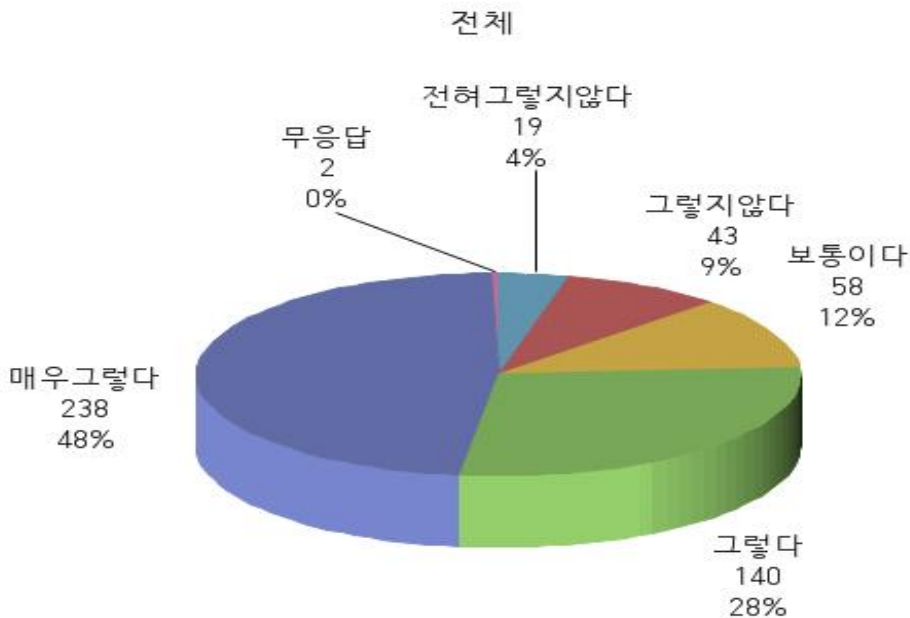
(예)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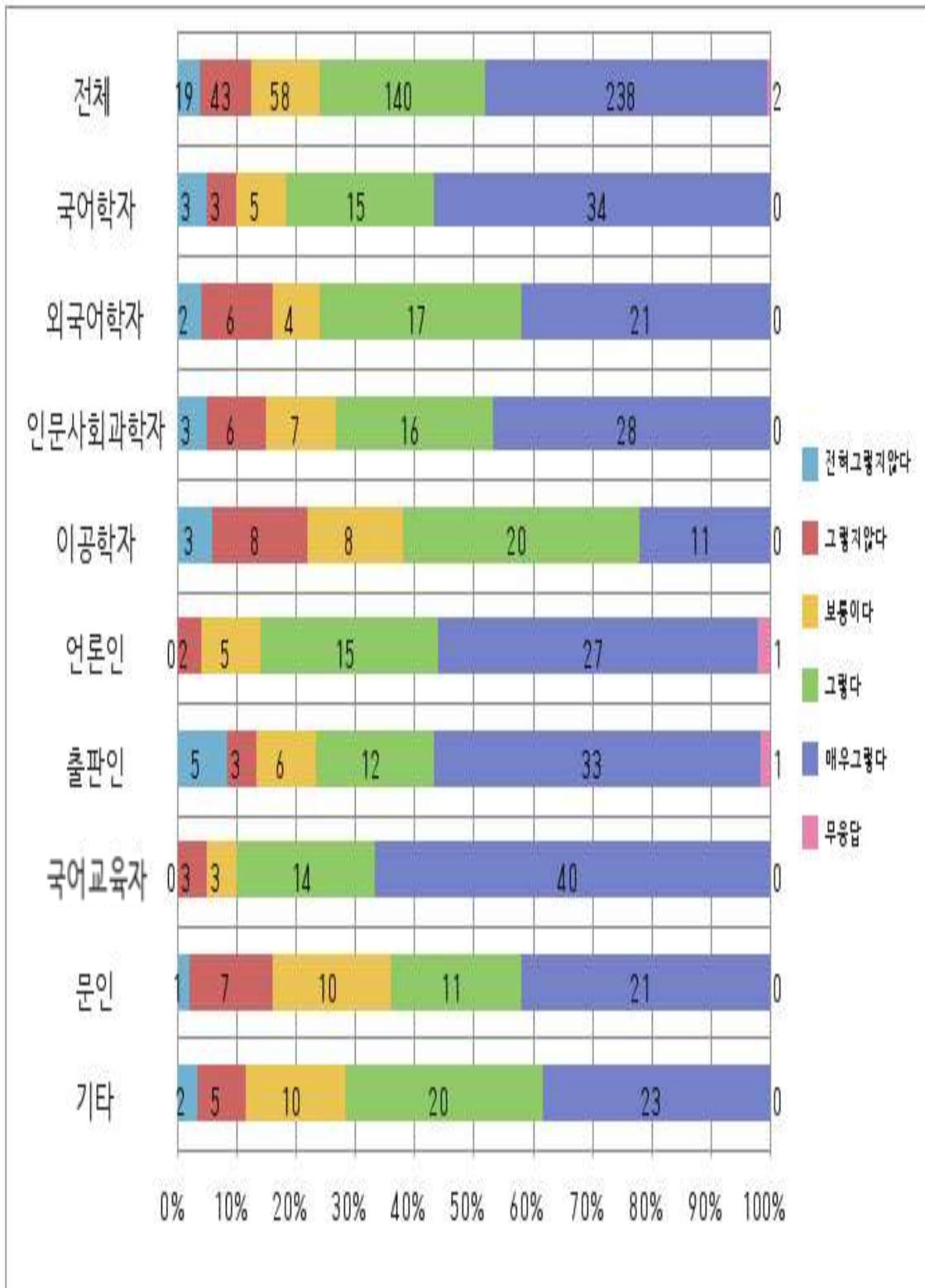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12는 큰따옴표 안에서 다시 직접 인용을 할 경우에 작은따옴표를 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항의 전체 응답을 보았을 때 직접 인용 안에서 또 인용을 할 경우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75.6%(378명)에 이른다. 이 중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수는 47.6%(238명), ‘그렇다’로 응답한 수는 28%(140명)이다. 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13명, 2.6%), ‘그렇지 않다’(54명, 10.8%)로 둘을 합쳐도 67명(13.4%)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항12에 대하여 인지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국어교육자 집단으로 ‘매우 그렇다’가 40명(66.7%), ‘그렇다’가 14명(23.3%)으로 나타나, 국어교육자 집단 전체의 9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은 이공학자 집단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6%), ‘그렇지 않다’가 8명(16%)으로 이공학자 응답자 전체에서 22%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13. 겹낫표(「 』)와 낫표(「 」)가 각각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기능으로 세로쓰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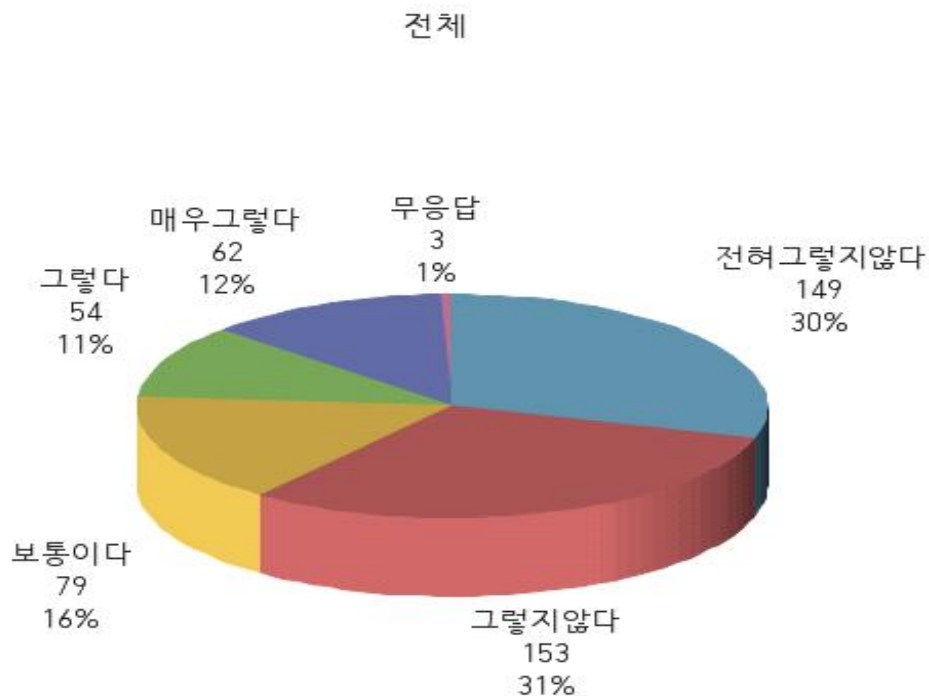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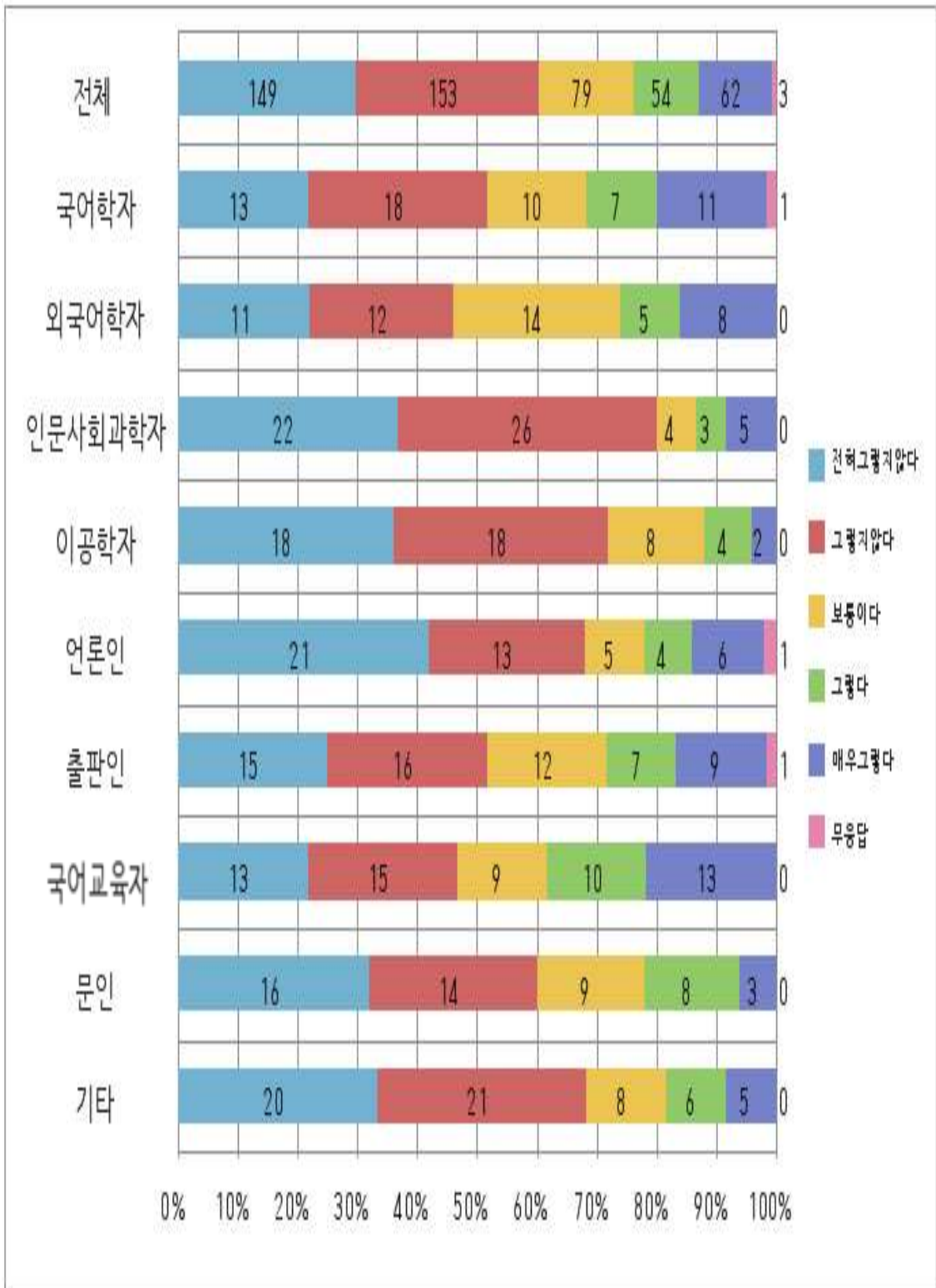
문항13은 겹낫표와 낫표의 기능에 대한 질문으로 이들이 세로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로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문항13의 경우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응답을 보았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9명(29.8%), ‘그렇지 않다’가 153명(30.6%)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60.4%가 겹낫표와 낫표의 기능을 모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매우 그렇다’는 62명(12.4%), ‘그렇다’는 54명(10.8%)으로 23.2%만이 겹낫표와 낫표의 세로쓰기 기능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단별로는 국어교육자 집단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우 그렇다’ 13명(21.7%), ‘그렇다’ 10명(16.7%)로 38.4%의 응답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항에 비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은 인문사회과학자 집단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명(36.7%), ‘그렇지 않다’가 26명(43.3%)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과학자 전체 응답자 중 80%가 겹낫표와 낫표의 따옴표로서의 기능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14. 큰따옴표 또는 작은따옴표와 함께 ‘라고’ 등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따옴표 안에 들어간 문장 뒤에 온점(.)을 사용하십니까?

온점(.)을 사용한 예: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온점(.)을 사용하지 않은 예: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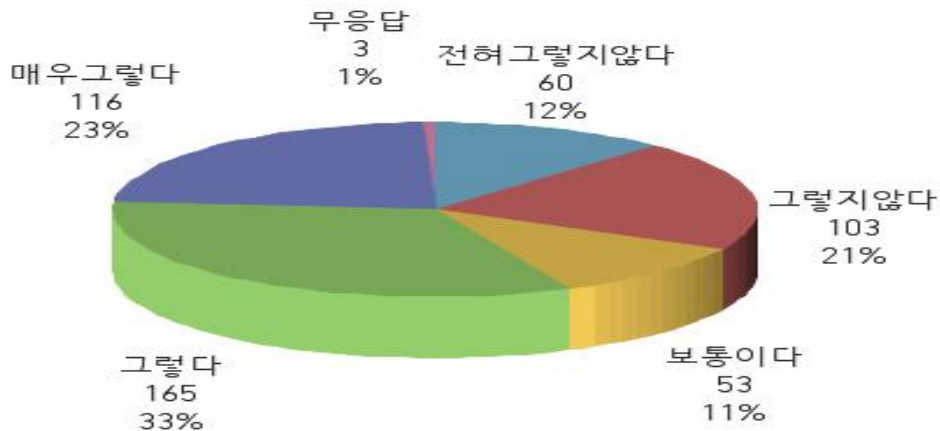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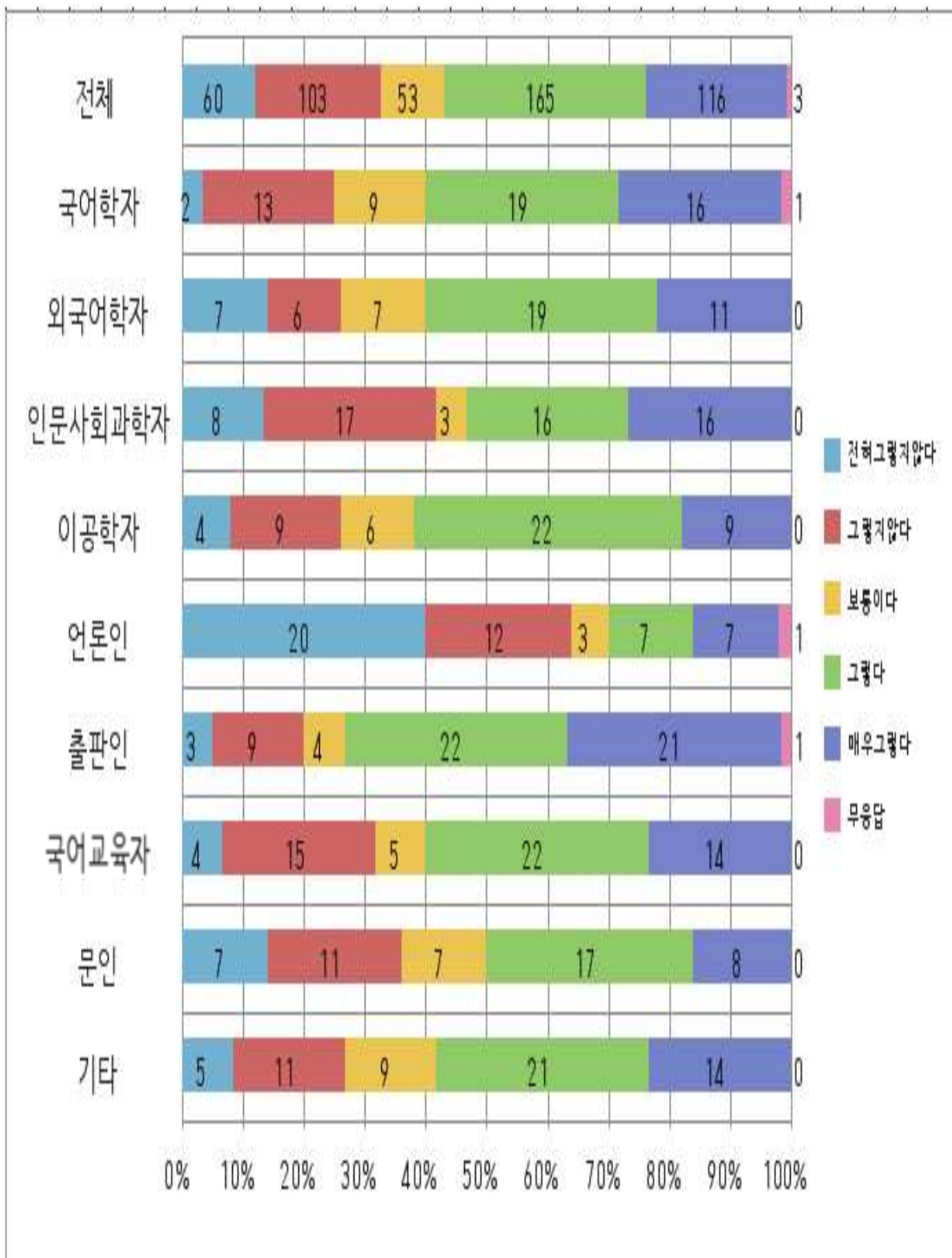
문항14는 인용을 할 때 따옴표 안에서 종결 어미 뒤에 온점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문항의 보기 속에 제시하고 있는 것 중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가 정답이다. 정답과 오답을 함께 제시한 것은 응답자의 문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 문항에 대한 긍정·부정의 응답자 비율은 비슷하다. 전체 응답자 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하고 281명(56.2%)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60명, 12%)와 ‘그렇다’(103명, 20.6%), ‘보통이다’(53명, 10.6%)를 합하면 216명(43.2%)에 이른다.

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집단은 출판인 집단으로 ‘매우 그렇다’가 21명(35%), ‘그렇다’가 22명(36.7%)의 응답 수를 보였다. 전체 71.7%의 출판 전문가들이 인용을 할 때 따옴표 안에서 종결 어미 뒤에 온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집단은 언론인 집단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명(40%), ‘그렇지 않다’가 12명(24%)으로 전체 출판인 응답자 중 인용을 할 때 따옴표 안에서 종결 어미 뒤에 온점을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64%(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15. 말을 줄일 때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줄임표(……)를 사용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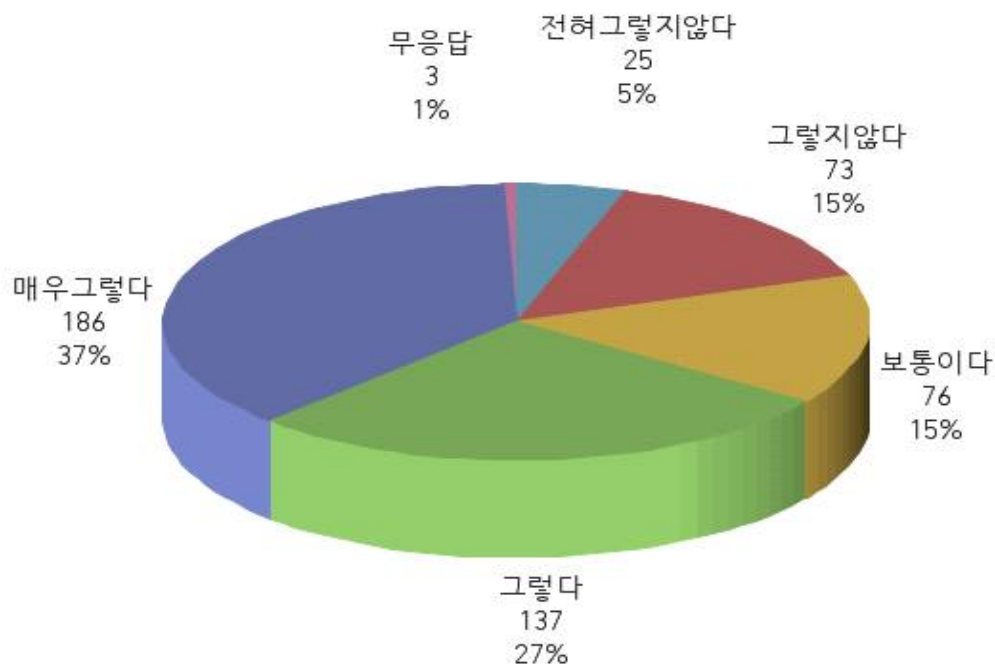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15는 줄임표를 사용할 때에 6개의 점을 모두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문항15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을 때, ‘매우 그렇다’(186명, 37.2%)와 ‘그렇다’(137명, 27.4%)를 합산하면 64.6%(323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줄임표를 6개의 점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25명, 5%)와 ‘그렇지 않다’(73명, 14.6%)를 합산하여 19.6%(98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줄임표로 6개의 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단별로 보면, 국어교육자 집단은 ‘매우 그렇다’가 33명(55%), ‘그렇다’가 18명(30%)로 85%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줄임표로 6개의 점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반대로 인문사회과학자 집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7명(11.7%), ‘그렇지 않다’가 14명(23.3%)로 35%(21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줄임표를 6개의 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문항16.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일(日) 뒤에 온점(.)을 사용하십니까?

일(日) 뒤에 온점(.)을 사용한 예: 1919.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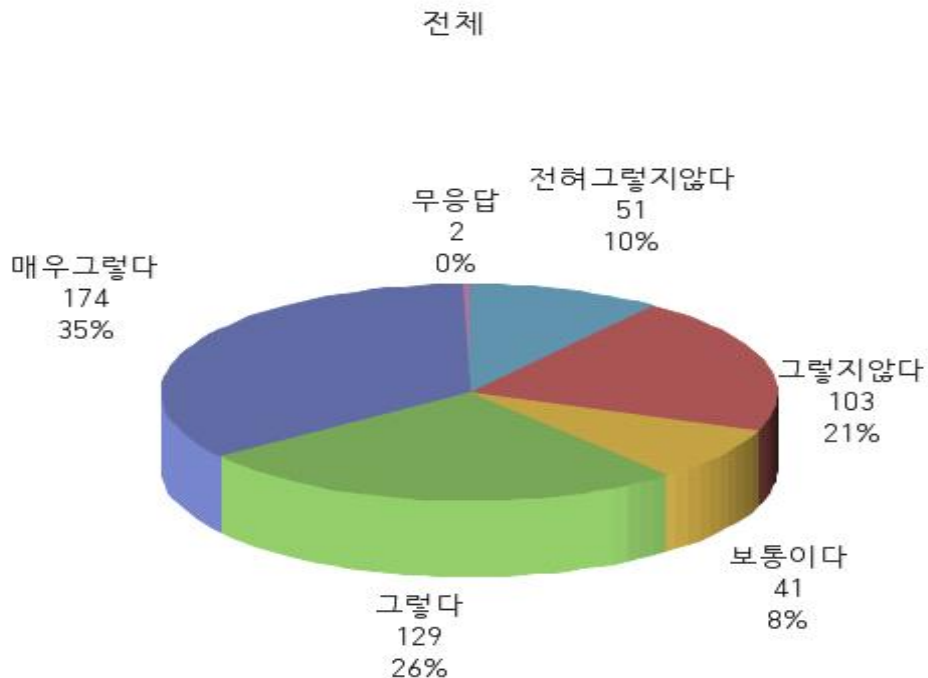
일(日) 뒤에 온점(.)을 사용하지 않은 예: 1919.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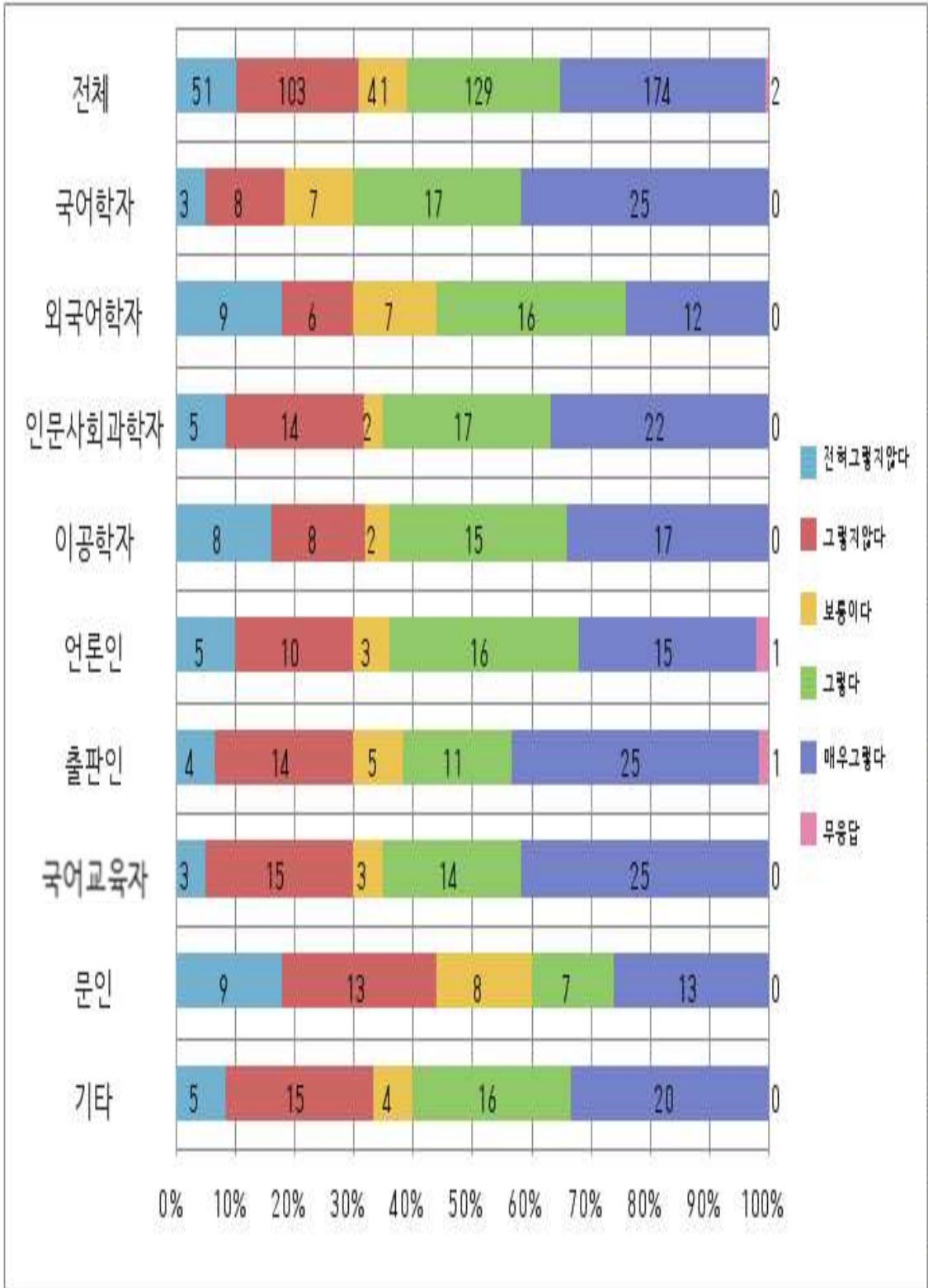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16은 아라비아 숫자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일자 뒤에 온점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문항16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0.6%(303명)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일자 뒤에 온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8%(154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일자 뒤에 온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항9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각각의 뒤에 온점을 표시하는 것을 안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 89.6%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즉 연월을 생략할 때에는 온점을 사용하지만, 마지막 일자 뒤에는 온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습관으로 많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집단별로는 국어학자 집단이 70%(42명)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문인 집단이 44%(22명)로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17.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등록된 단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가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가운뎃점(·)을 사용하십니까?

(예) 남·여, 한·일, 직·간접, 육·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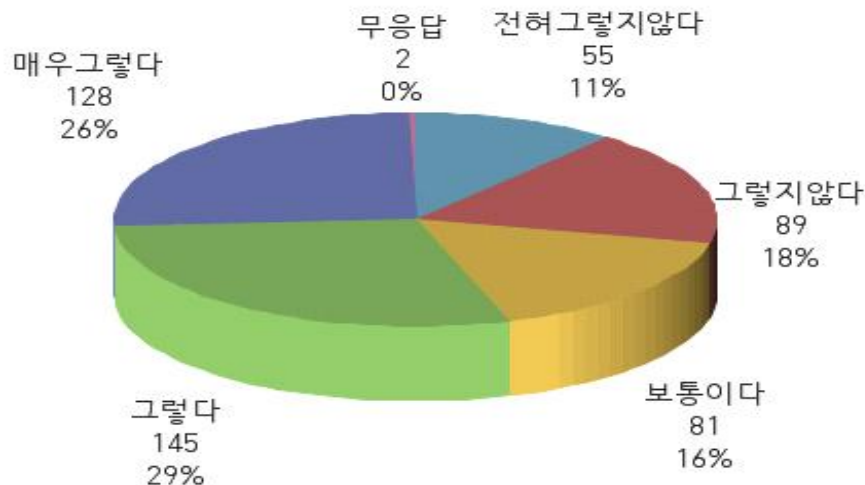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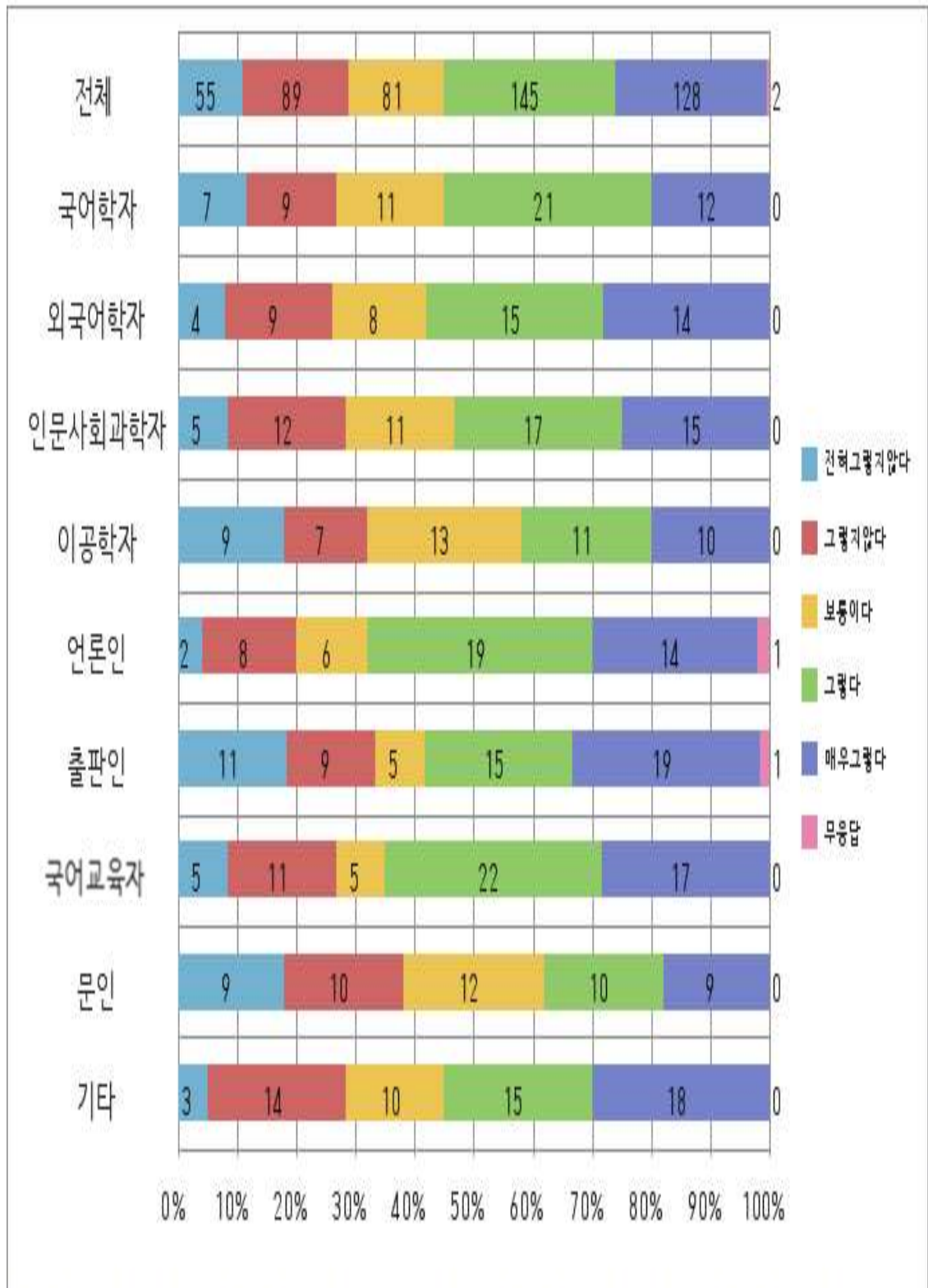
문항17은 가운뎃점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즉,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만, 두 구성 요소가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가운뎃점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전체적으로 54.6%의 응답자가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어도 두 구성 요소가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가운뎃점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매우 그렇다'가 128명(25.6%), '그렇다'가 145명(29%)이었다.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집단은 언론인 집단이다. 언론인 응답자의 응답 건수를 보면 '매우 그렇다'는 14명(28%), '그렇다'는 19명(38%)으로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집단은 문인 집단으로 38%(19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문항18. '내지'라는 뜻으로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사용하십니까?

물결표(~)를 사용한 예: 5~10명, 4월 5일~4월 15일
 붙임표(-)를 사용한 예: 5-10명, 4월 5일-4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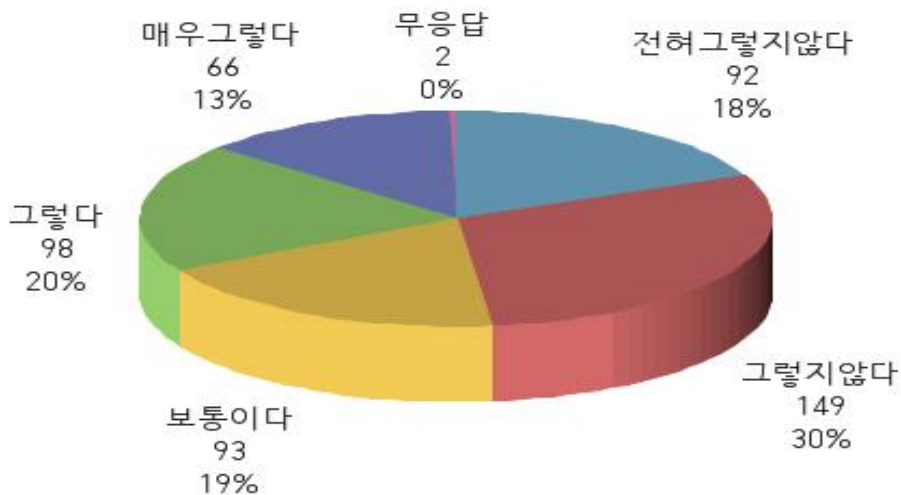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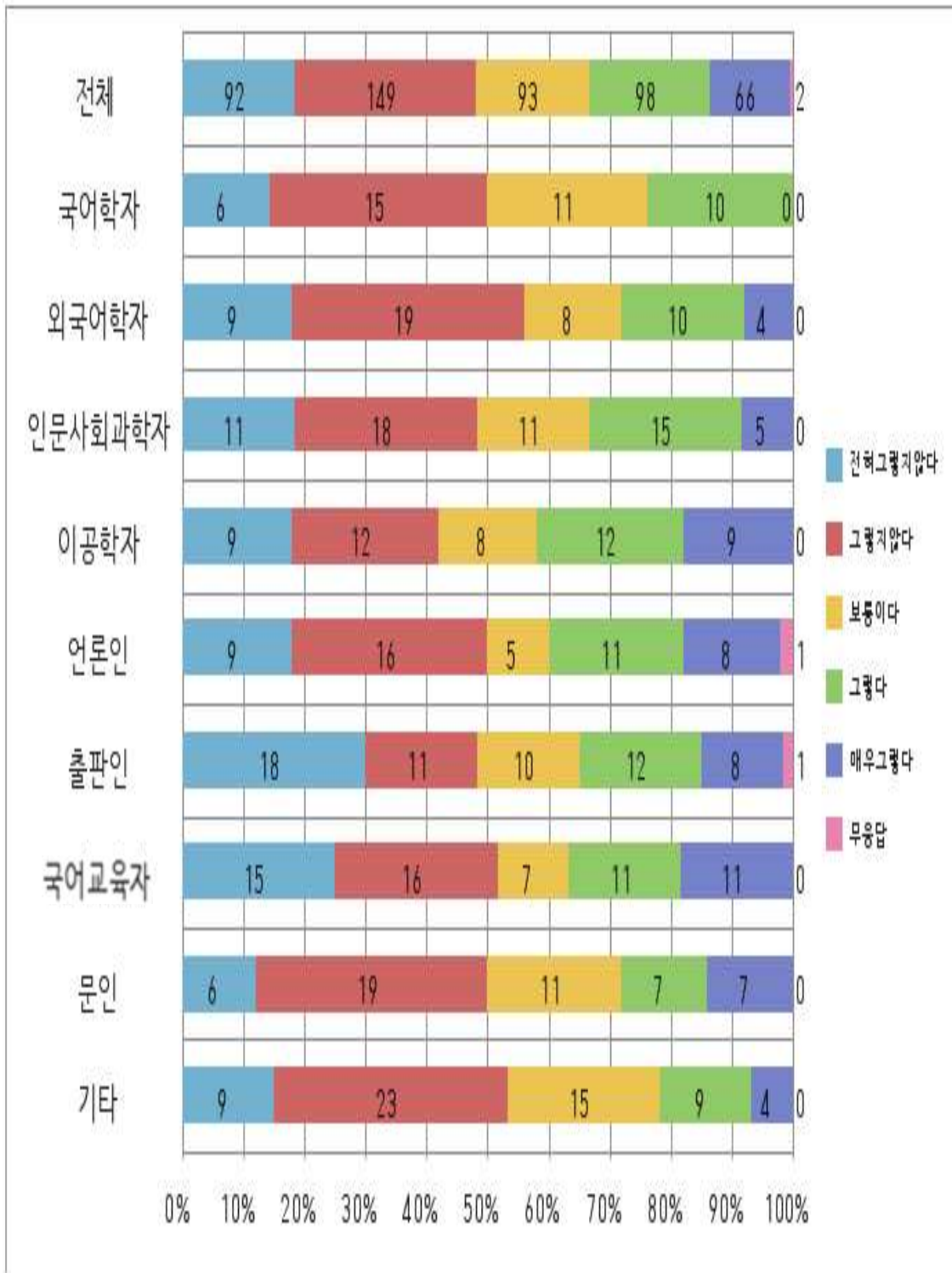
문항18은 '내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 부호로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문항18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내지'의 뜻으로 붙임표 대신 물결표를 좀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붙임표를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92명(18.4%),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149명(29.8%)으로, 48.2%(241명)의 응답자가 '내지'의 의미로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지'의 의미로 붙임표를 사용하는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에 66명(13.2%), '그렇다'에 98명(19.6%)으로 22.8%(154명)에 이른다.

집단별로는 '내지'의 의미로 붙임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 이공학자로 '매우 그렇다'(9명, 18%)와 '그렇다'(12명, 24%)를 합산하여 4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대로 '내지'의 의미로 붙임표를 가장 사용하지 않는 집단으로는 외국어학자로 '전혀 그렇지 않다'(9명, 18%)와 '그렇지 않다'(19명, 38%)를 합산하면 56%(28명)에 이른다.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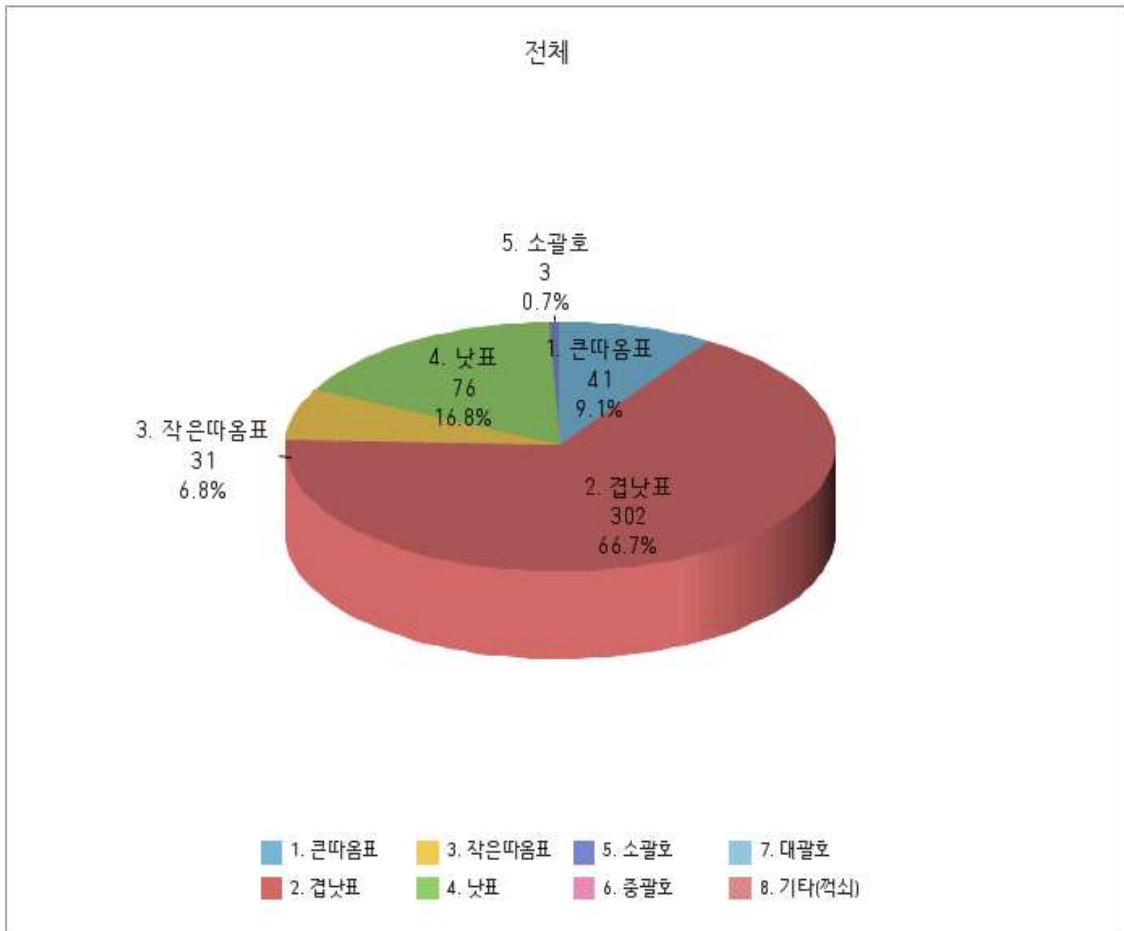


문항19. 책이름(書名)을 표시할 때 어떤 부호를 사용하십니까?

- ① 큰따옴표 (“ ”) ② 겹낫표 (「 」) ③ 작은따옴표 (‘ ’)
 ④ 낫표 (『 』) ⑤ 소괄호 (()) ⑥ 중괄호 ({ })
 ⑦ 대괄호 ([]) ⑧ 기타 (< > , 《 》)

문항19는 응답자가 책명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부호를 모두 선택하는 복수의 응답을 요하는 문항이다.

문항19에 대한 응답 건수는 500명의 응답자 중 453건이다. 이 가운데에서 책명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②겹낫표’이다. 전체 302건의 응답이 나와 전체 응답 건수의 66.7%에 이른다. 두 번째는 76건(10.4%)의 응답을 보인 ‘④낫표’이다. 세 번째 ‘①큰따옴표’(41건, 9.1%), 네 번째가 ‘③작은따옴표’(31건, 6.8%), 다섯 번째가 ‘⑤소괄호’(3건, 0.7%)이다. 나머지 ⑥, ⑦, ⑧에 대한 응답 건수는 없었다. 전체 결과로 볼 때 책이름을 표시하는 문장 부호로 겹낫표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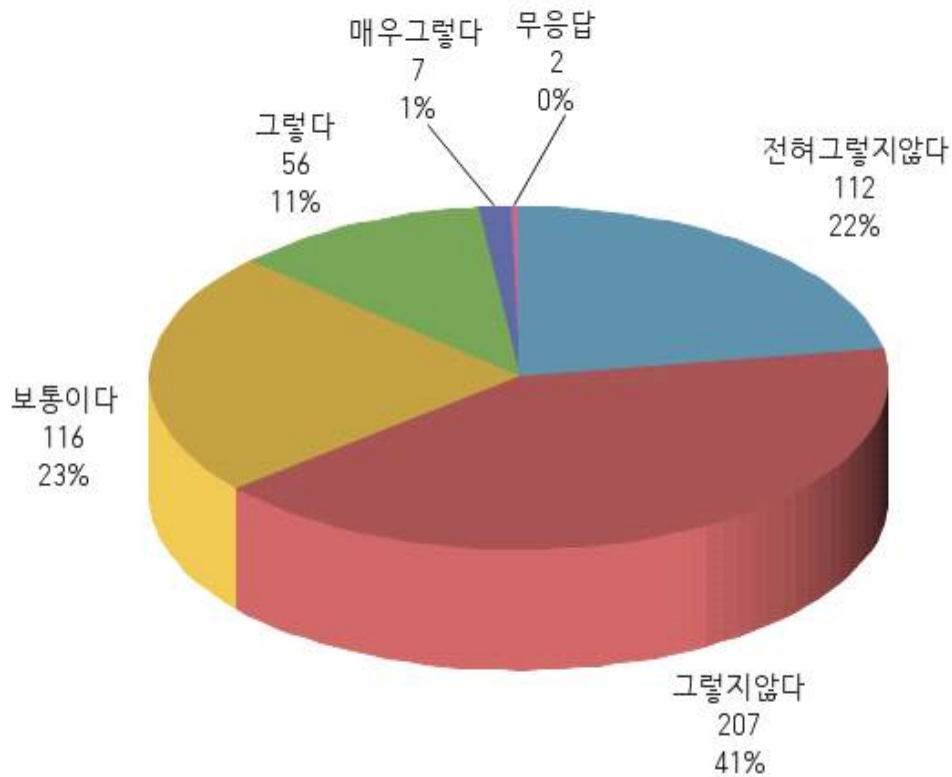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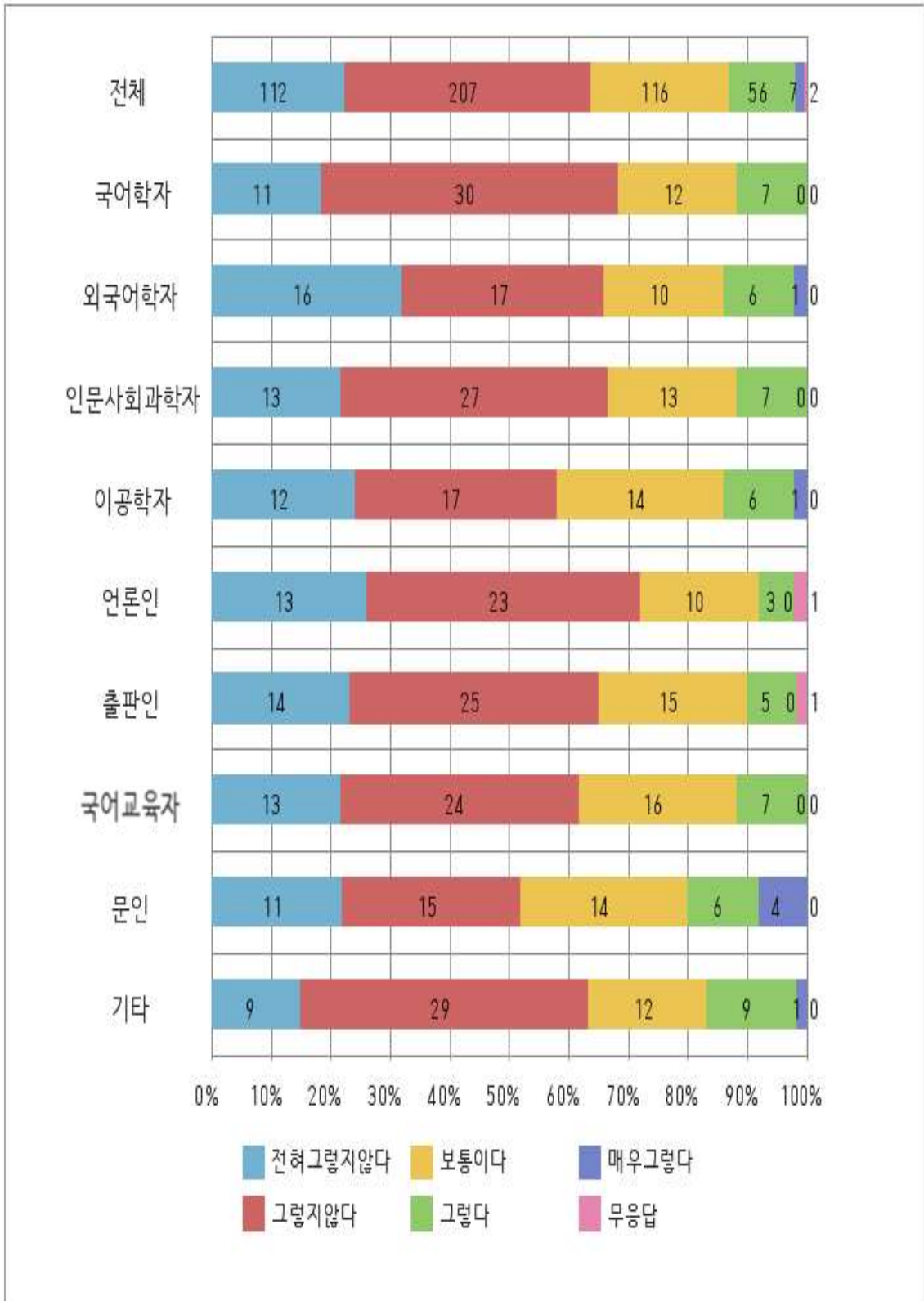
문항20. 글을 쓸 때 세미콜론(;)을 사용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20은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는 없는 세미콜론(;)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세미콜론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112명, 22.4%)와 ‘그렇지 않다’(207명, 41.4%)를 합산하면 63.8%(319명)로 ‘그렇다’(56명, 11.2%)와 ‘매우 그렇다’(7명, 1.4%)를 합산한 12.6%(6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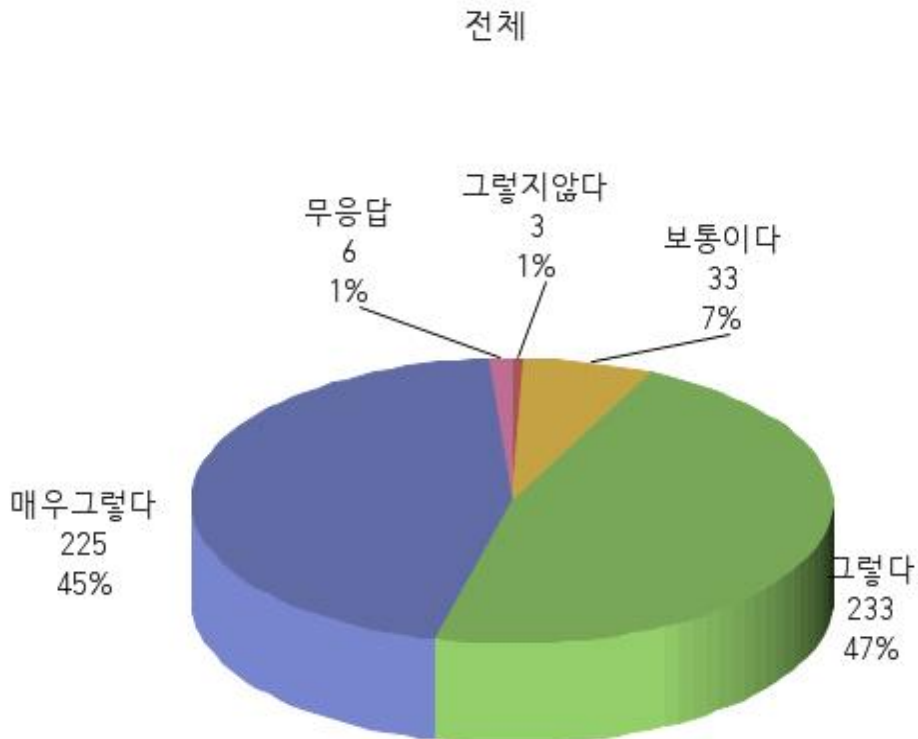
3.2.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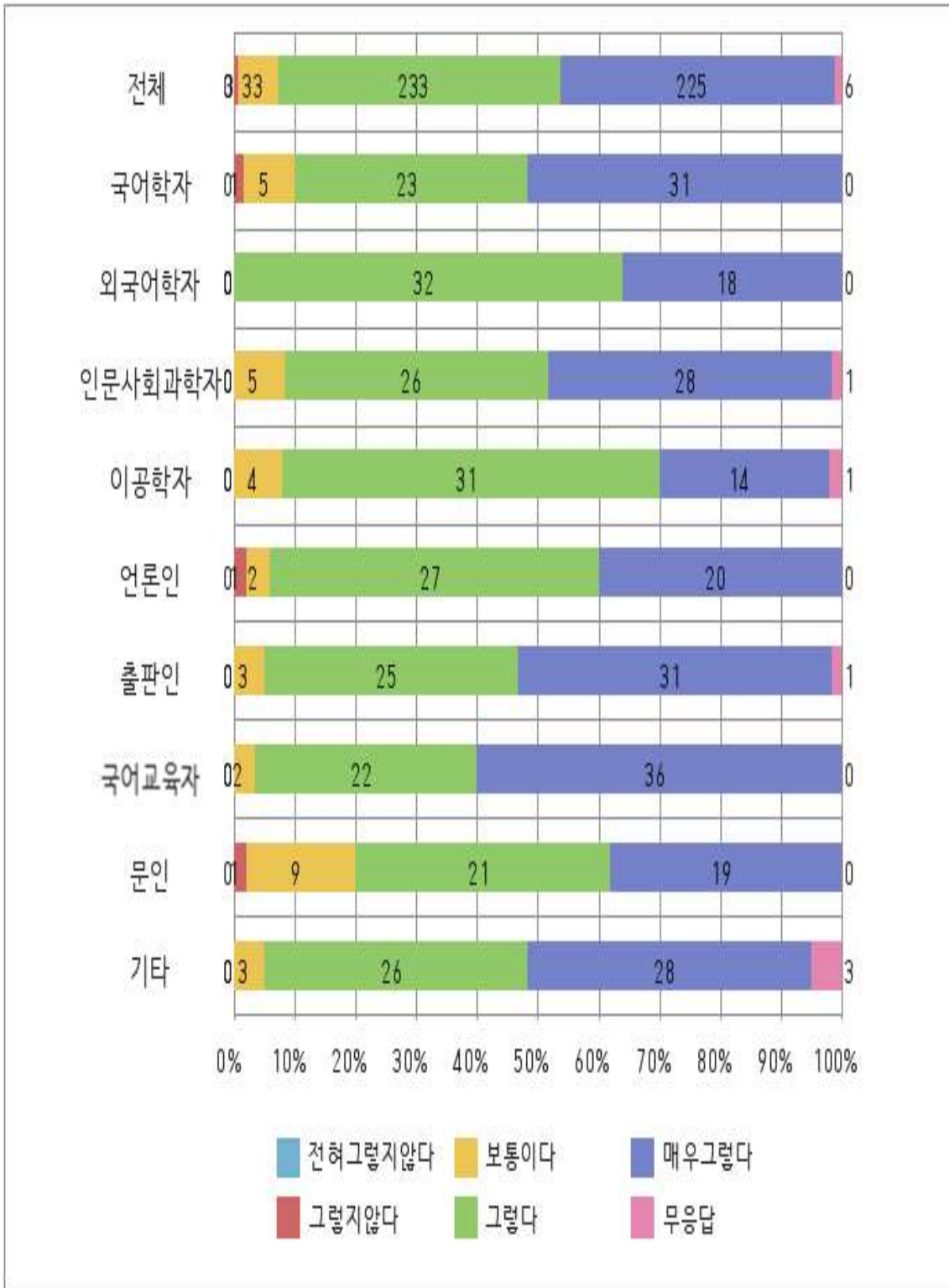
문항21. 글을 읽고 쓰는 데 문장 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21부터 문항23까지는 문장 부호와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이다.

문항21은 글을 읽고 쓸 때 문장 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문장 부호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문장 부호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 '매우 그렇다'가 225명으로 45%이고 '그렇다'가 233명으로 46.6%이며, 양자를 합쳐 전체 91.6%(458명)에 이른다. 반면에 문장 부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3명(0.6%)과 '그렇지 않다' 33명(6.6%)으로 전체 500명 중 7.2%(36명)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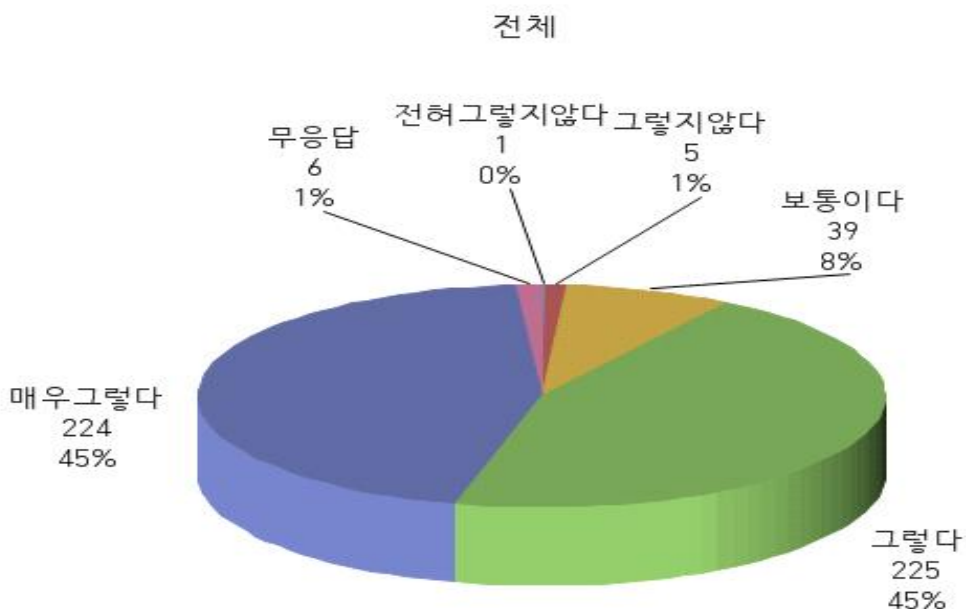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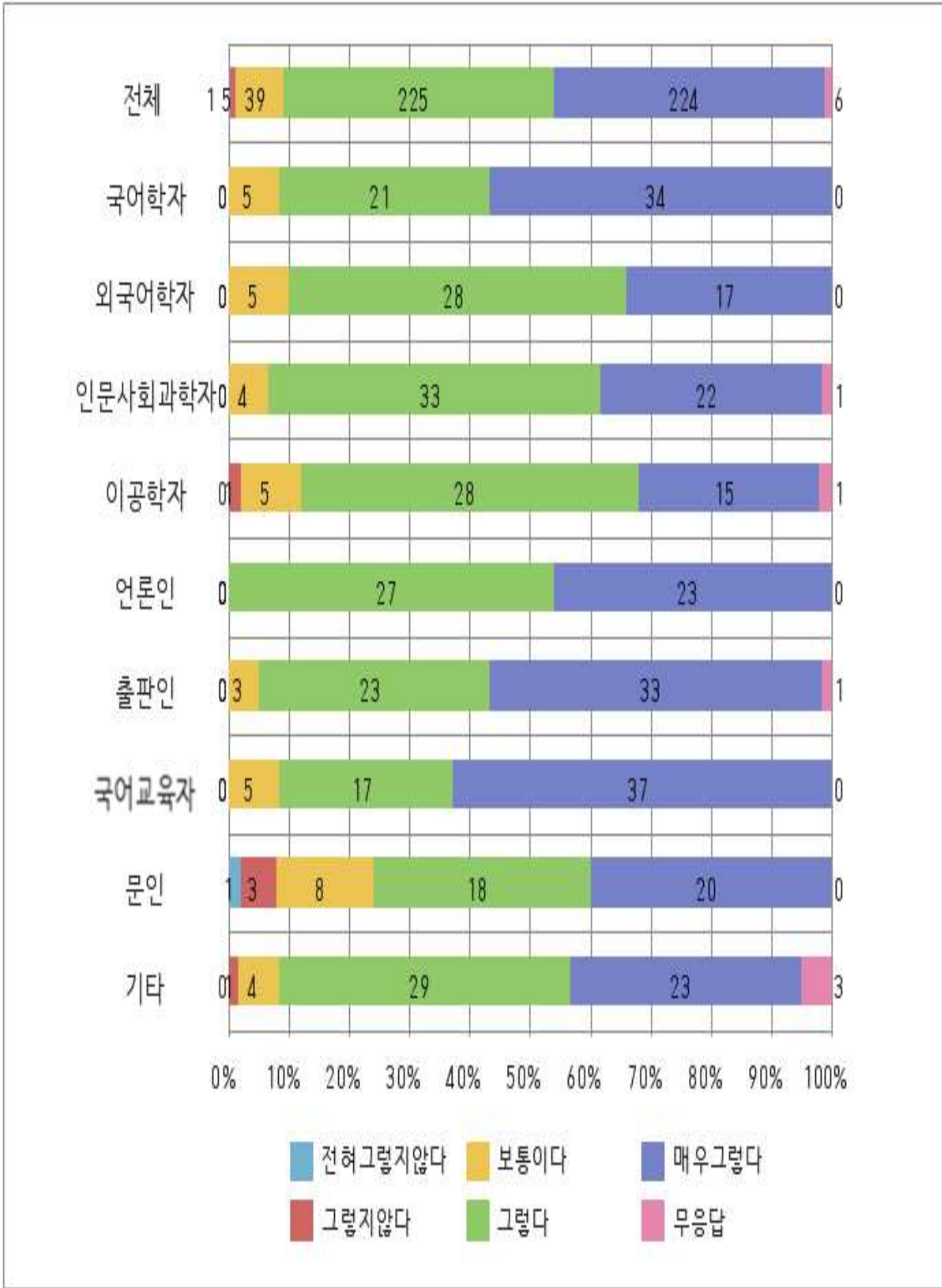
문항22. 문장 부호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22는 문장 부호의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사항을 묻는 질문이다. 문항22는 문항21과 연관된 문항이지만, 문항21에서는 글을 읽고 쓸 때 문자 이외의 문장 부호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임에 반하여, 문항22는 이렇게 필요한 문장 부호들을 하나의 질서 체계로 표준화된 규범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즉, 문항21은 개별 문장 부호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고, 문항22는 체계화된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두 문항을 구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문장 부호의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문장 부호 규정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동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매우 그렇다' 224명(44.8%), '그렇다' 225명(45%)으로 전체 89.8%(449명)에 이른다. 반면에 문장 부호의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명(0.2%)과 '그렇지 않다' 5명(1%)으로 전체 500명 중 1.2%(6명)일 뿐이다.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문장 부호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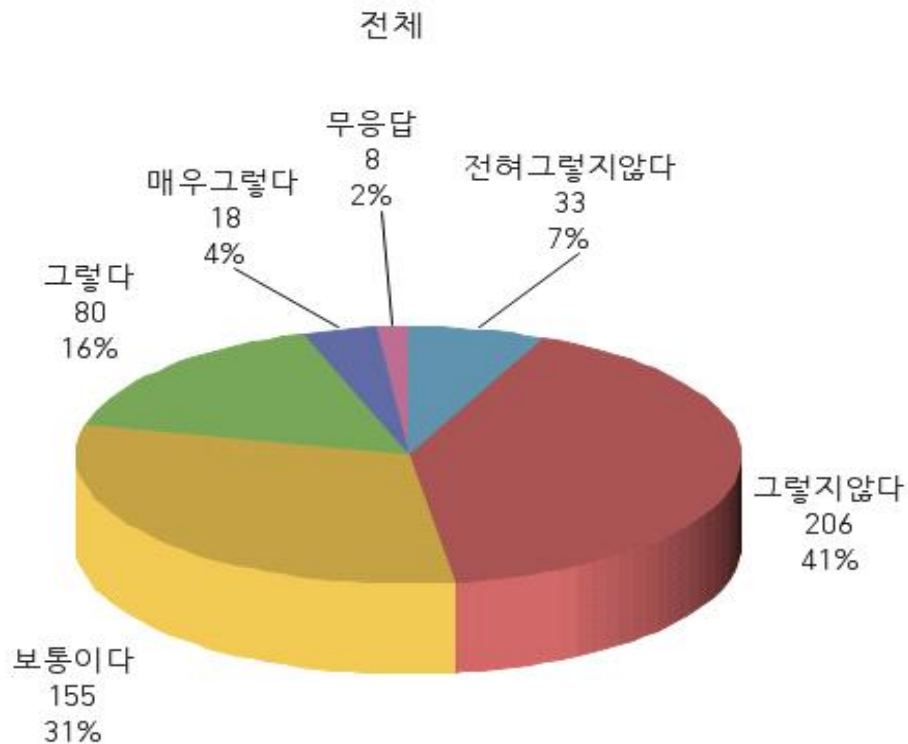
문항23.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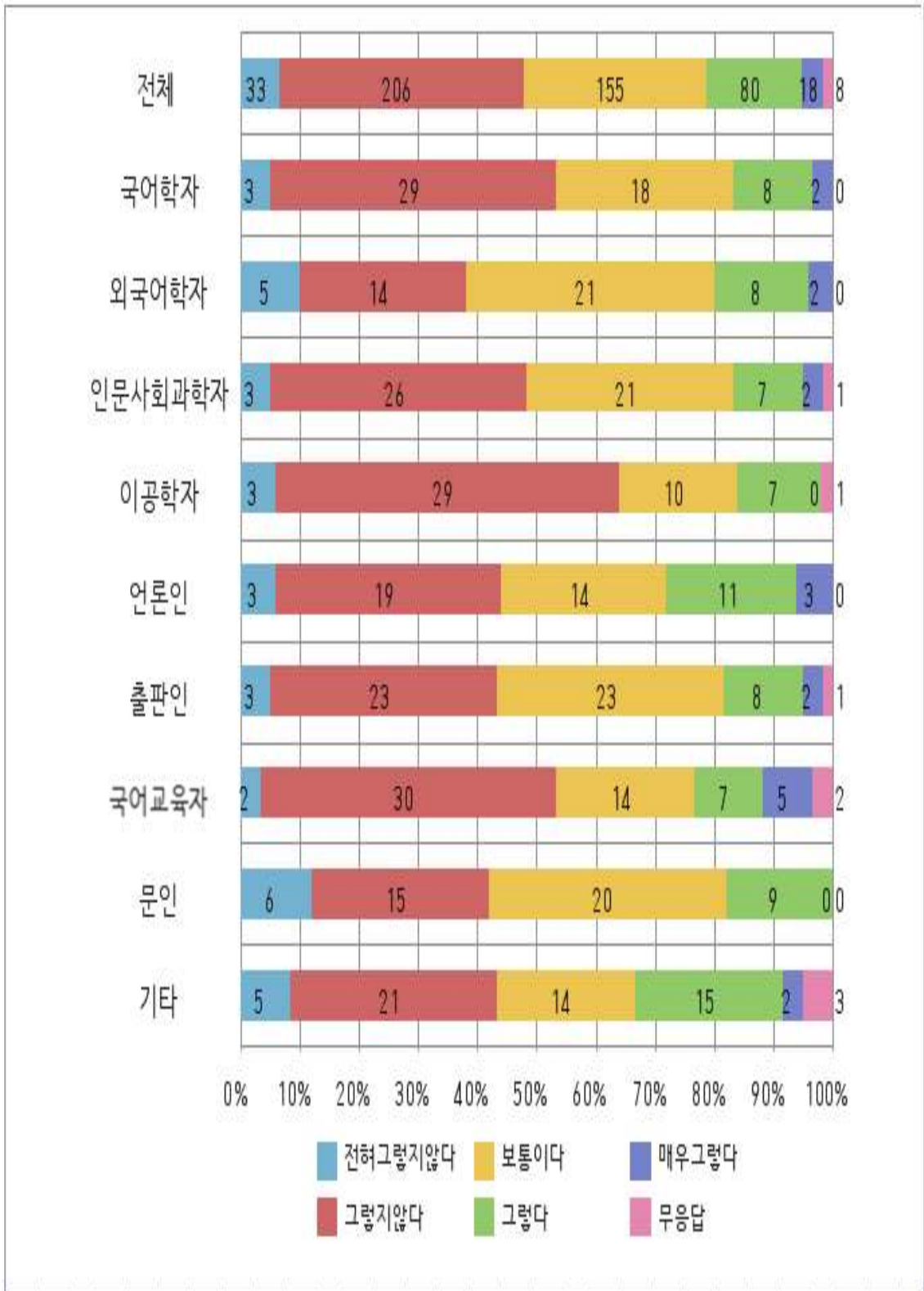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23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 부호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인 까닭인지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여 의사소통의 곤란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가 33명(6.6%)이고 '그렇지 않다'가 206명(41.2%)에 이른다. 양자를 합산하면 47.8%(239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반대로 문장 부호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 상황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의견은 '매우 그렇다'가 18명(3.6%)이고 '그렇다'가 80명(16%)으로 전체 19.6%(98명)에 지나지 않았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많은 곤란을 경험한 전문가 집단은 언론인 집단으로 '매우 그렇다'(3명, 6%), '그렇다'(11명, 22%)를 합하면 28%(14명)에 이른다. 반대로 가장 적은 곤란을 겪은 집단은 이공학자 집단으로 '그렇다'에 대한 응답만 7명(14%)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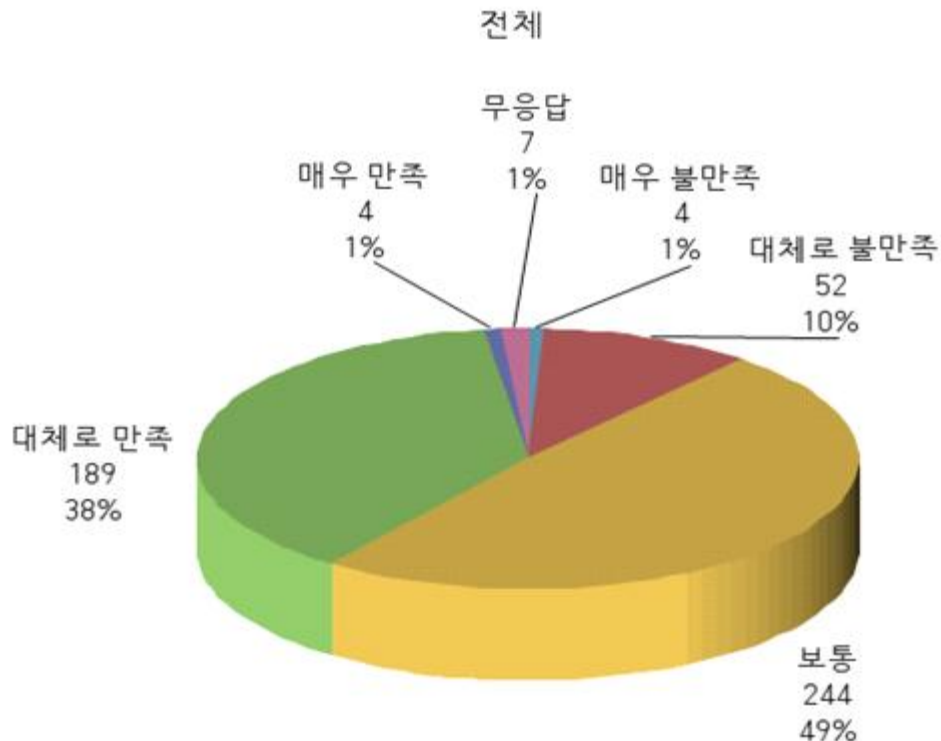
3.3.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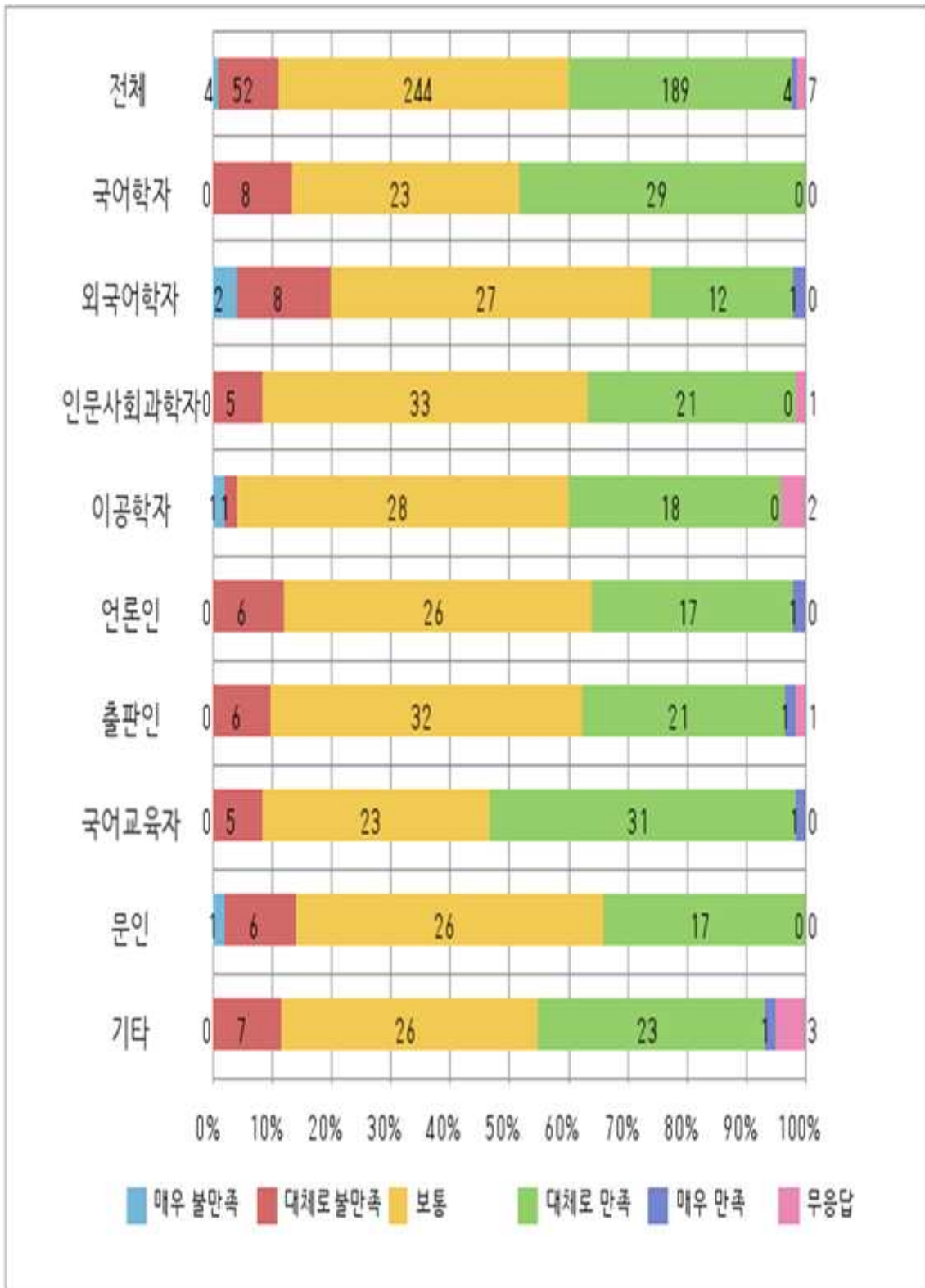
문항24.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스럽다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24부터 문항27까지는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질문이다. 문항24는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이다.

이 문항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통이다’에 의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체(‘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에서 193명으로 38.6%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전체(‘매우 불만족스럽다’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56명으로 11.2%의 불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만족도를 어느 쪽으로 계산할 것인가를 떠나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만족도가 38.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전문가 집단은 외국어학자 집단으로 전체(‘매우 불만족스럽다’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10명으로 20%의 비율을 차지한다.





문항25.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의 이름 중 부적절한 것이 있다.
- ②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의 사용법이 실제 사용과 다른 것이 있다.
- ③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 중 컴퓨터로 글을 쓸 때 부적절한 것이 있다.
- ④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빠진 경우가 있다.
- 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제시된 문장 부호의 수가 너무 많다.
- ⑥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제시된 문장 부호의 수가 너무 적다.
- ⑦ 기타

문항25는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불만족의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7개의 보기를 제시하여 복수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한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7개의 보기 중에서 5개만이 선택되었다. ‘⑥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제시된 문장 부호의 수가 너무 적다.’와 ‘⑦기타’의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우선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것은 ‘②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의 사용법이 실제 사용과 다른 것이 있다.’이다. 이것은 전체 155명이 응답하여 38.1%에 이르는 수치이다. 실제 말글살이 속에서 규정 속에 정해 놓은 문장 부호 규정과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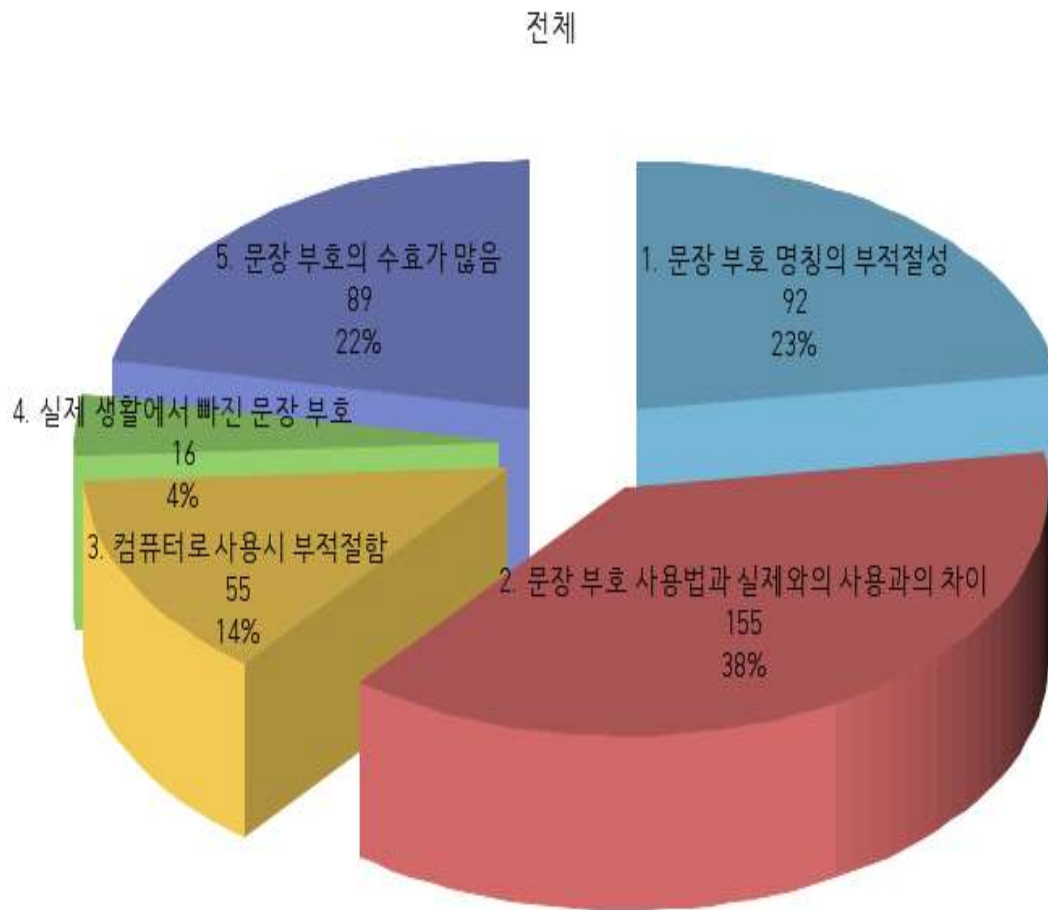
두 번째 문제점으로 응답한 것은 ‘④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빠진 경우가 있다.’인데, 76명(16.8%)이 응답하였다. 이 문제점은 ⑤번 보기의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즉, ‘⑤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제시된 문장 부호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응답 결과와 동일한 선상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장 부호의 수는 세로쓰기 포함해서 23개이다. 이 가운데에서 실제 글을 읽고 쓰는 데 사용하는 문장 부호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리점, 모점, 드러냄표, 숨김표, 빠짐표’ 등은 실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항5에서 조사된 것처럼 이러한 실제 말글살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장 부호보다는 실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사칙연산 부호 등을 문장 부호 규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판단에서는 문장 부호 규정에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문장 부호가 많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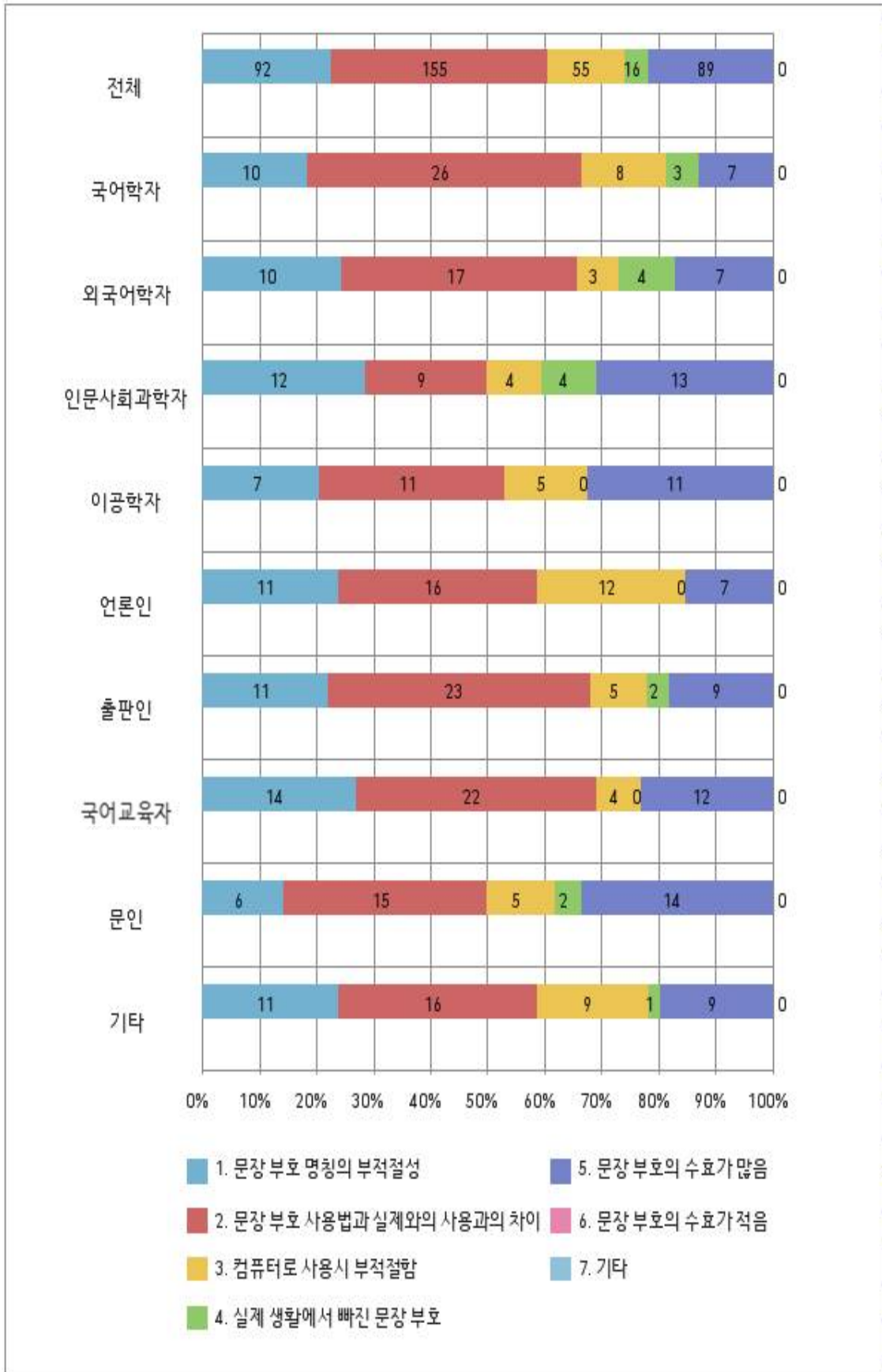
세 번째 문제점은 ‘①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의 이름 중 부적절한 것이 있다.’이다. 이것을 응답한 수는 92명으로 22.6%에 이른다. 문장 부호의 명칭에 대한 문제로 문장 부호의 명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의 문항7과 문항8에서 명칭의 인지 여부와 적절성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에도 도출된 것이다. 앞에서 ‘드러냄표, 숨김표’와 같이 문장 부호의 기능이나 용법에서 그 명칭을 따온 경우보다는 ‘물음표, 느낌표’와 같이 문장 부호의 형태나 모양에서 그 명칭을 따온 것이 문장 부호의 명칭으로 적절하다는 응답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네 번째 문제점은 ‘③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 중 컴퓨터로 글을 쓸 때

부적절한 것이 있다.’인데, 31명(6.8%)이 응답하였다. 현재 글쓰기는 거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자판의 기호와 문장 부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와 관련된 응답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앞의 두 번째 문제점과 같이 분석·기술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자는 3명(0.7%)이다.





문항26. 향후 국어의 문장 부호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세로쓰기에서 사용되었던 문장 부호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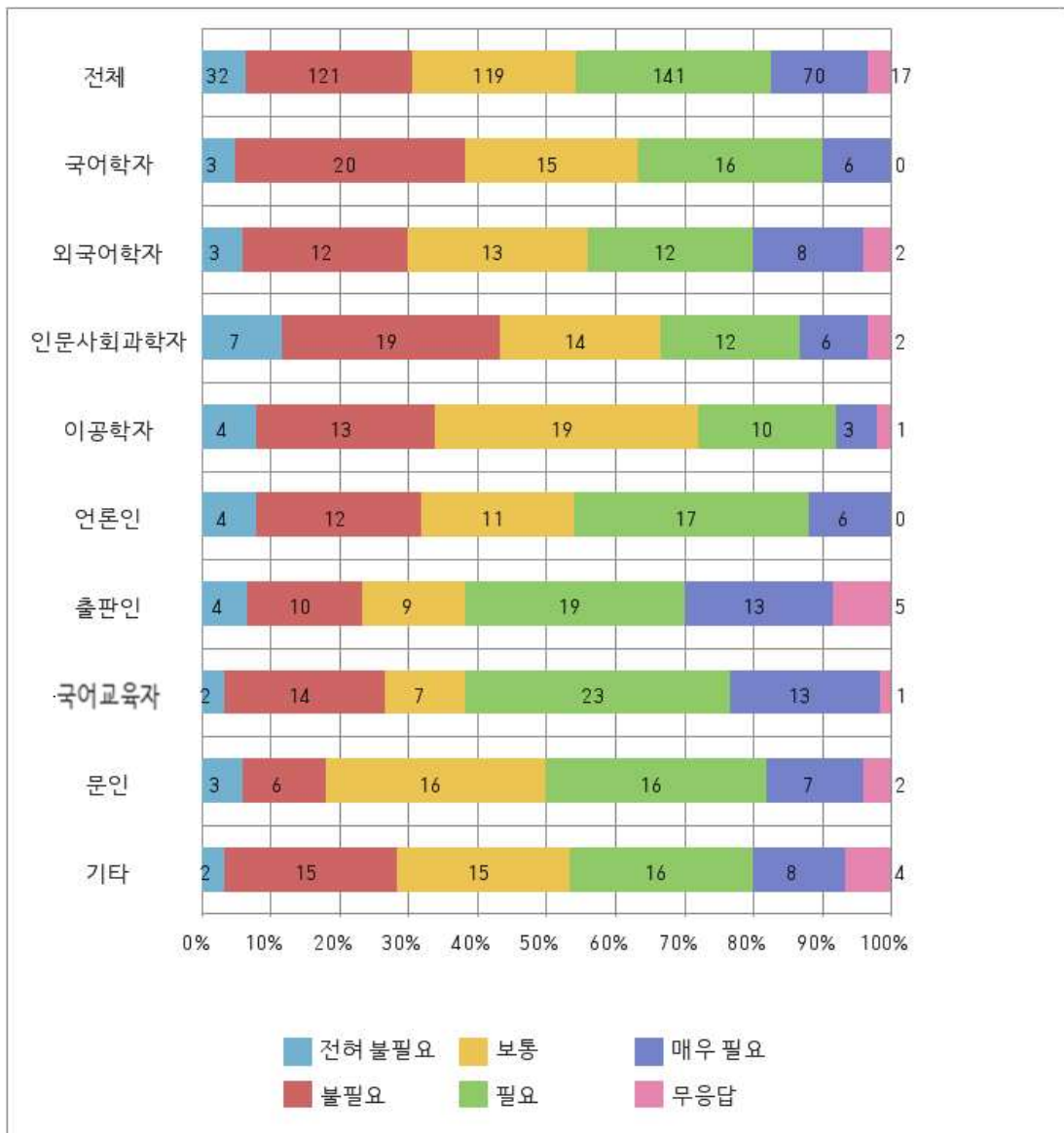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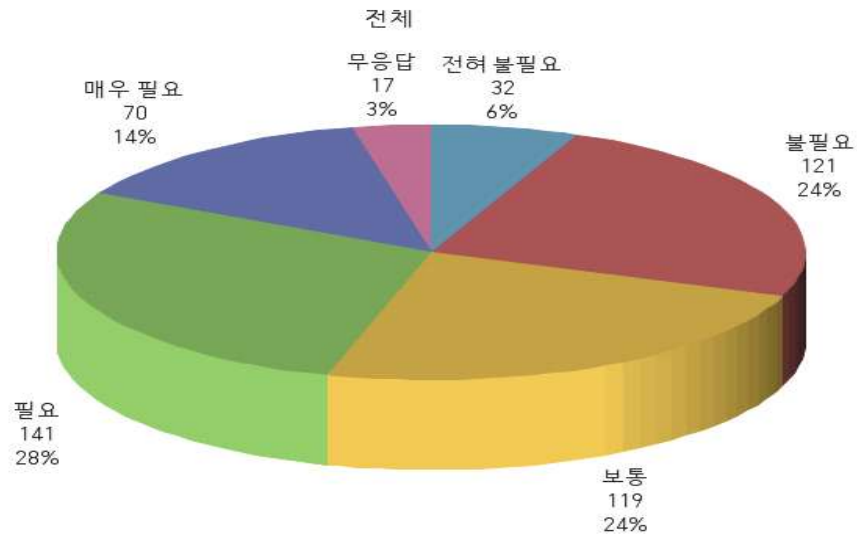
문항26은 내부에 5가지의 질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복수의 질문 형식을 띠고 있는 문항이다. 그 첫 번째 질문인 문항26의 1)은 세로쓰기에 사용되는 문장 부호들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세로쓰기에 사용되는 문장 부호가 필요하다고도 불필요하다고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211명(42.2%)이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53명(30.6%)이어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필요하다는 쪽이 약간 우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세로쓰기 문장 부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를 넘어서는 경우가 두 집단밖에 없다. 세로쓰기 문장 부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한 집단은 바로 국어교육자 집단이다. 국어교육자 집단의 경우 ‘매우 필요’(13명, 21.7%)와 ‘필요’(23명, 38.3%)를 합하면 60%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교육적인 목적에 의한 필요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두 번째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집단은 출판인 집단이다. ‘매우 필요’(13명, 21.7%)와 ‘필요’(19명, 31.7%)를 합하면 53.4%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직업의 특성상 세로쓰기 문장 부호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세로쓰기 문장 부호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집단은 외국어학자 집단이다. 외국어학자 집단에서는 ‘매우 필요’가 6명(10%)이고 ‘필요’가 12명(20%)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30%(18명)에 이른다. 그러나 ‘전혀 불필요’가 7명(11.7%), ‘불필요’가 19명(31.7%)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3.4%(26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세로쓰기 문장 부호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함께 조사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문항26. 향후 국어의 문장 부호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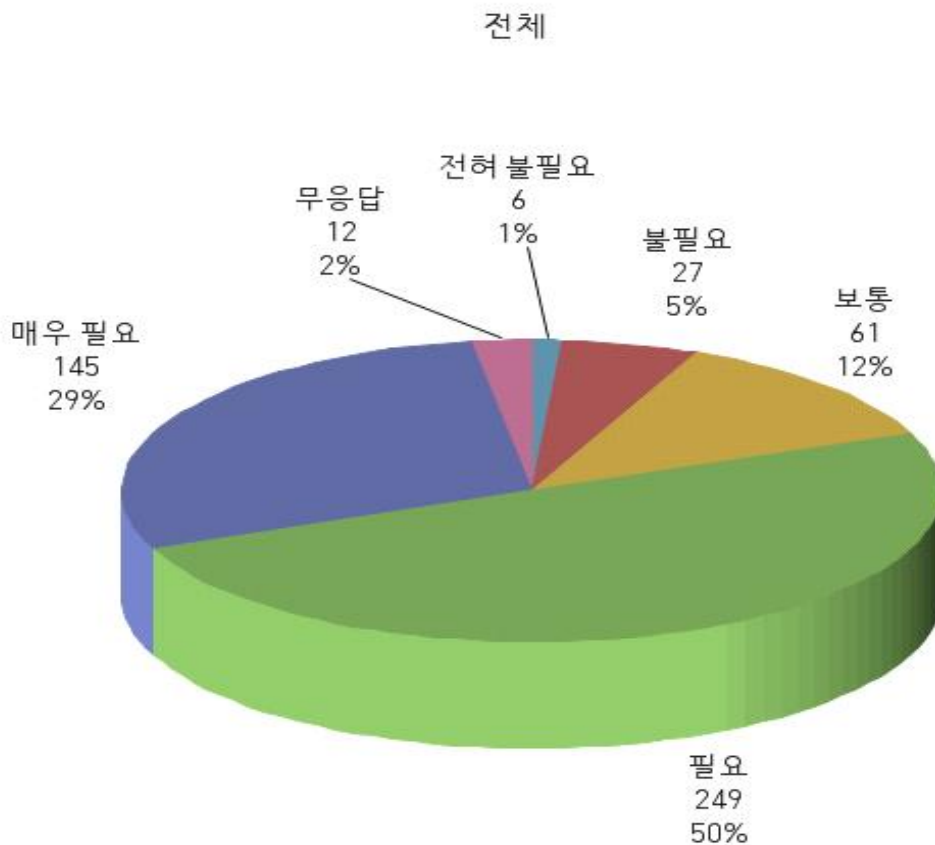
2)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문장 부호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문항26의 2)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문장 부호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문장 부호는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의견 중에서 ‘매우 필요’가 145명(29%), ‘필요’가 249명(49.8%)로 양자를 합하면 78.8%(394명)에 이른다. 반면에 개정할 필요가 없는 의견은 ‘전혀 불필요’가 6명(1.2%), ‘불필요’가 27명(5.4%)으로 둘을 합하면 6.6%(33명)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에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문장 부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르게 의견이 나오고 있음을 그래프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문장 부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항26. 향후 국어의 문장 부호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3)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문장 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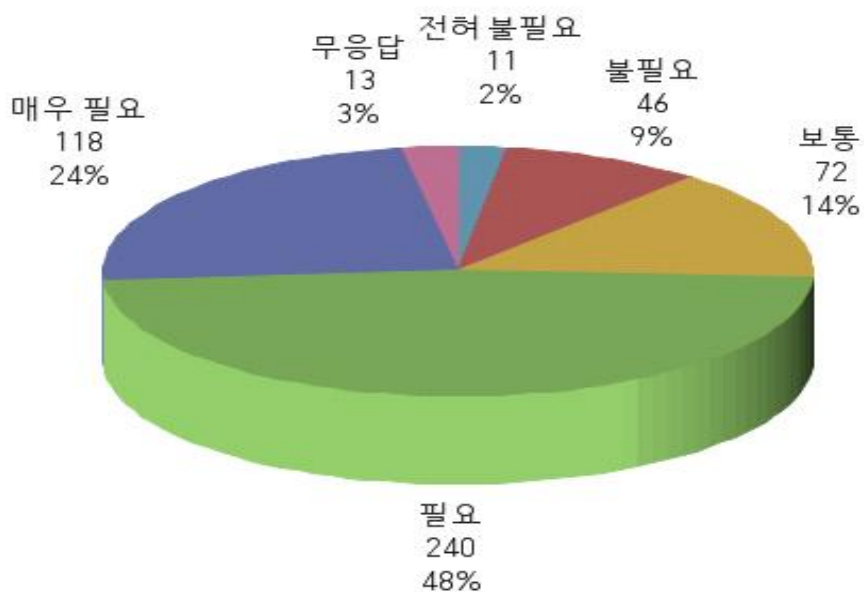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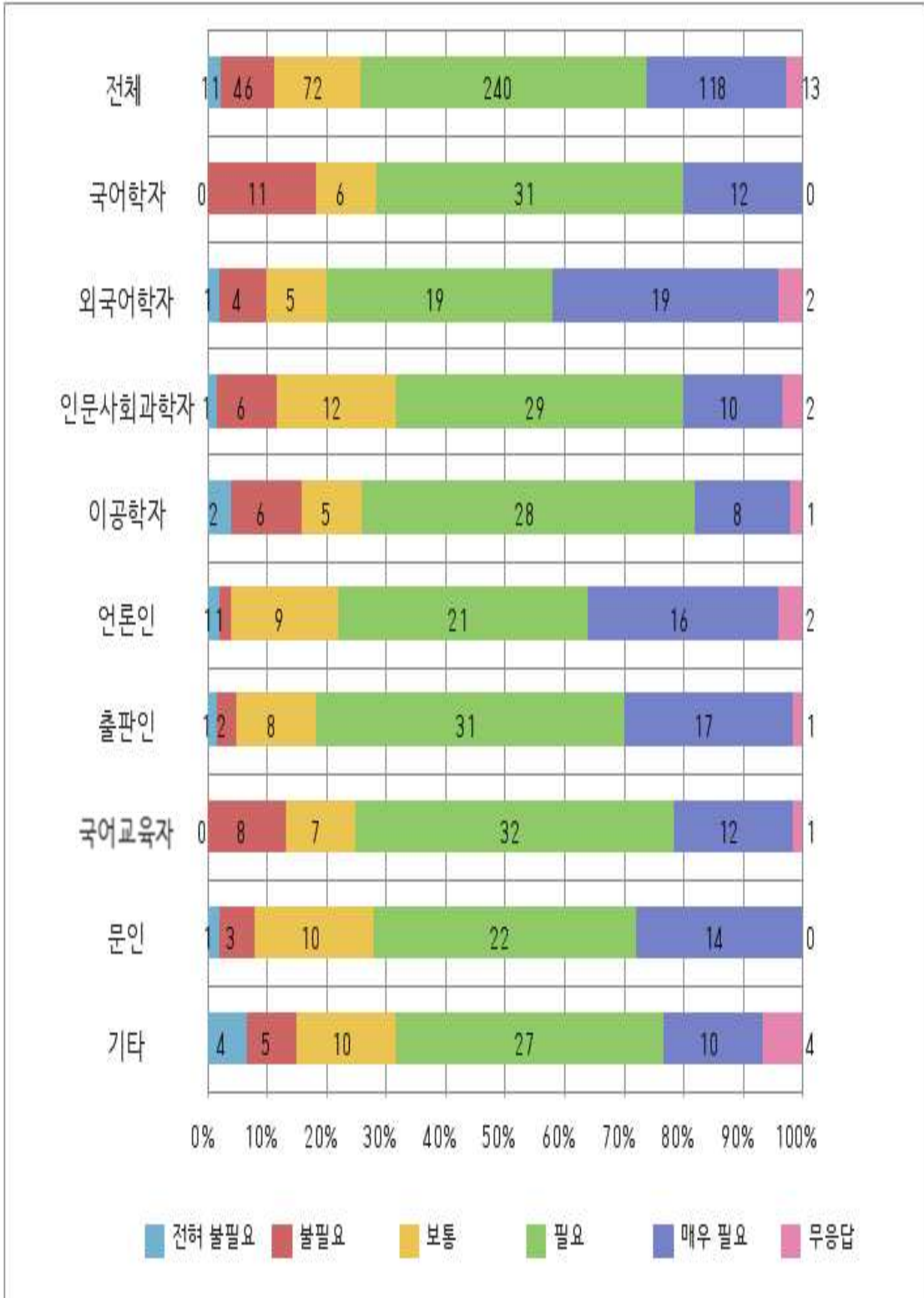
문항26의 3)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문장 부호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도 문항 26의 3)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문장 부호는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의견 중에서 ‘매우 필요’가 118명(23.6%), ‘필요’가 240명(48%)으로 양자를 합하면 71.8%(358명)에 이른다. 반면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전혀 불필요’가 11명(2.2%), ‘불필요’가 46명(9.2%)으로 둘을 합하면 11.4%(57명)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문항26의 2)번보다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를 감안할 때 문항 26의 2)번과 동류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르게 의견이 나오고 있음을 그래프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장 부호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전체





문항26. 향후 국어의 문장 부호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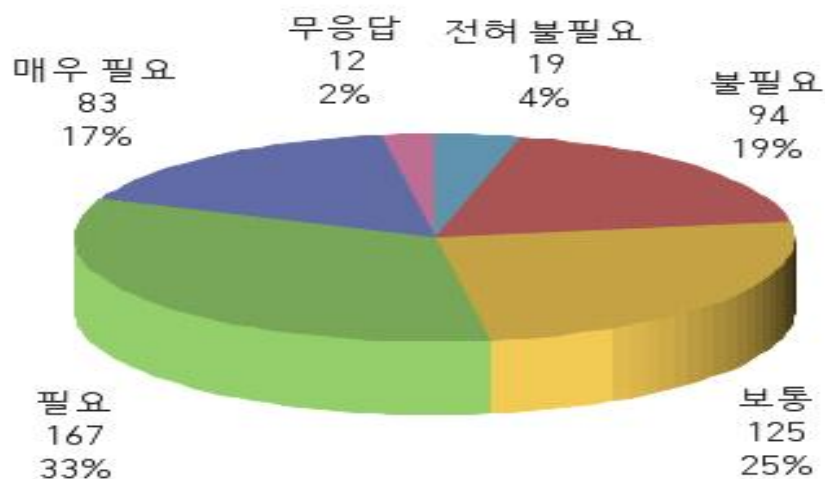
4)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새로운 통신 수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에 대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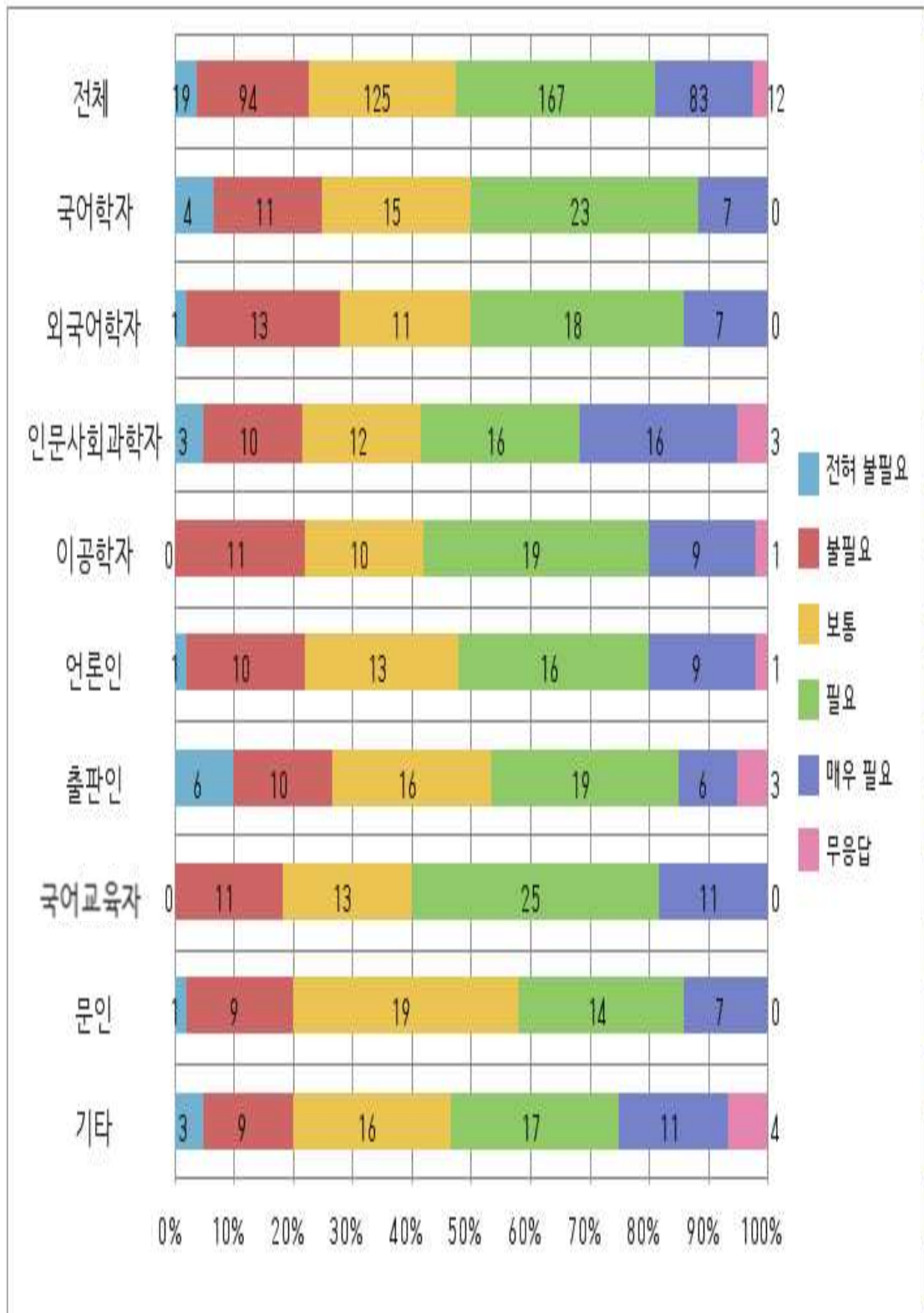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문항26의 4)는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모티콘과 같은 기호들을 문장 부호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문장 부호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은 이전 문항 26의 2)와 3)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호들을 문장 부호로 도입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도입하자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을 그래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의견 중에서 ‘매우 필요’가 83명(16.6%), ‘필요’가 167명(33.4%)으로 양자를 합하면 50%(250명)에 이른다. 반면에 도입할 필요가 없는 의견은 ‘전혀 불필요’가 19명(3.8%), ‘불필요’가 94명(18.8%)으로 둘을 합하면 22.6%(113명)가 된다. 도입 찬성 의견이 도입 반대 의견에 거의 두 배에 달하지만 ‘보통’의 응답률(25%)을 감안하고, 또 문항26의 2)나 3)의 개정 필요의 응답률과 비교하였을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고르게 나오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등의 통신 수단에 사용되고 있는 기호들을 문장 부호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전체





문항26. 향후 국어의 문장 부호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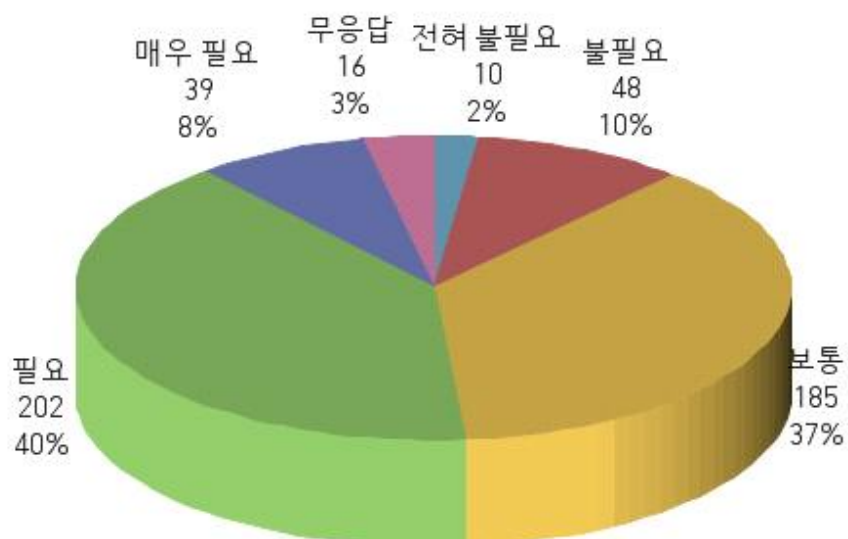
5) 국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문항26의 5)는 국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에 대하여 문장 부호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도 문항 26의 1)과 문항26 2), 3)의 중간 수준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국어에서만 사용되는 문장 부호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체 의견 중에서 ‘매우 필요’가 39명(7.8%), ‘필요’가 202명(40.4%)으로 양자를 합하면 48.2%(241명)에 이른다. 반면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전혀 불필요’가 10명(2%), ‘불필요’가 48명(9.6%)으로 둘을 합하면 11.6%(58명)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긴 하지만 문항26의 2)번보다는 ‘매우 필요’ 응답이 적고, ‘보통’의 응답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문항 26의 2)번이나 3)번과 같이, 국어에서만 사용되는 문장 부호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체





문항27. 문장 부호 개정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문장 부호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홍보
- ② 문장 부호 개정의 재정적 기반 마련
- ③ 문장 부호 개정 관련 아이디어 모색
- ④ 대대적인 문장 부호 사용 실태 조사
-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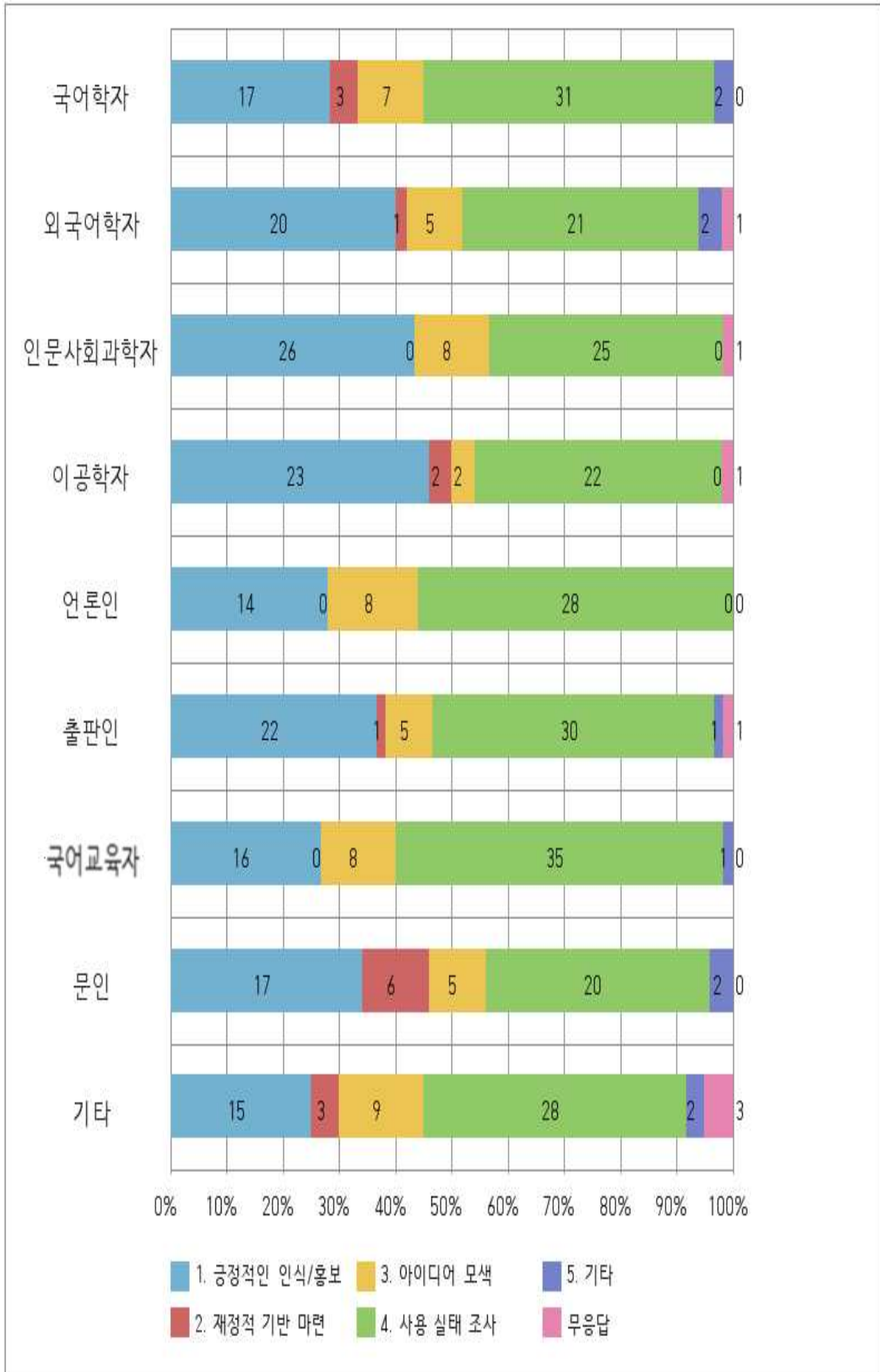
문항27은 문장 부호 개정 방안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5개의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하는 질문이다.

이 문항에서 문장 부호 개정 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④대대적인 문장 부호 사용 실태 조사’이다. ④항은 응답 수가 240명(48%)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이다. 실제로 문장 부호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한 경우는 1996년 국어정보학회의 연구 보고서 외에는 이후의 개인적인 연구 자료 외에는 없고, 대부분 어문 규범의 실태 조사 속에 극히 일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①문장 부호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홍보’로 170명(34%)이 응답하였다. 세 번째 중점 사항의 의견부터는 그 응답률이 미미하다. 세 번째 중점 사항으로는 ‘③문장 부호 개정 관련 아이디어 모색’인데 500명의 응답자 중 57명(11.4%)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인 응답 분석은 아래의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다.





3.4.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의한 국어 사용 변화

문항28. 문장 부호 규정은 국민의 사용 양상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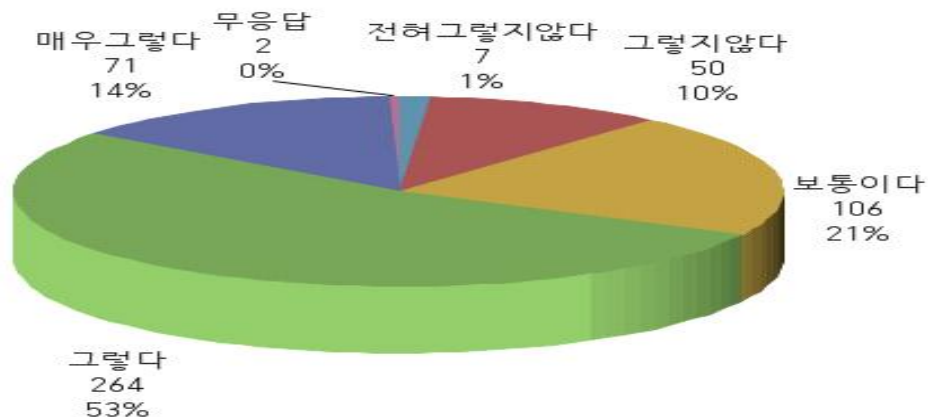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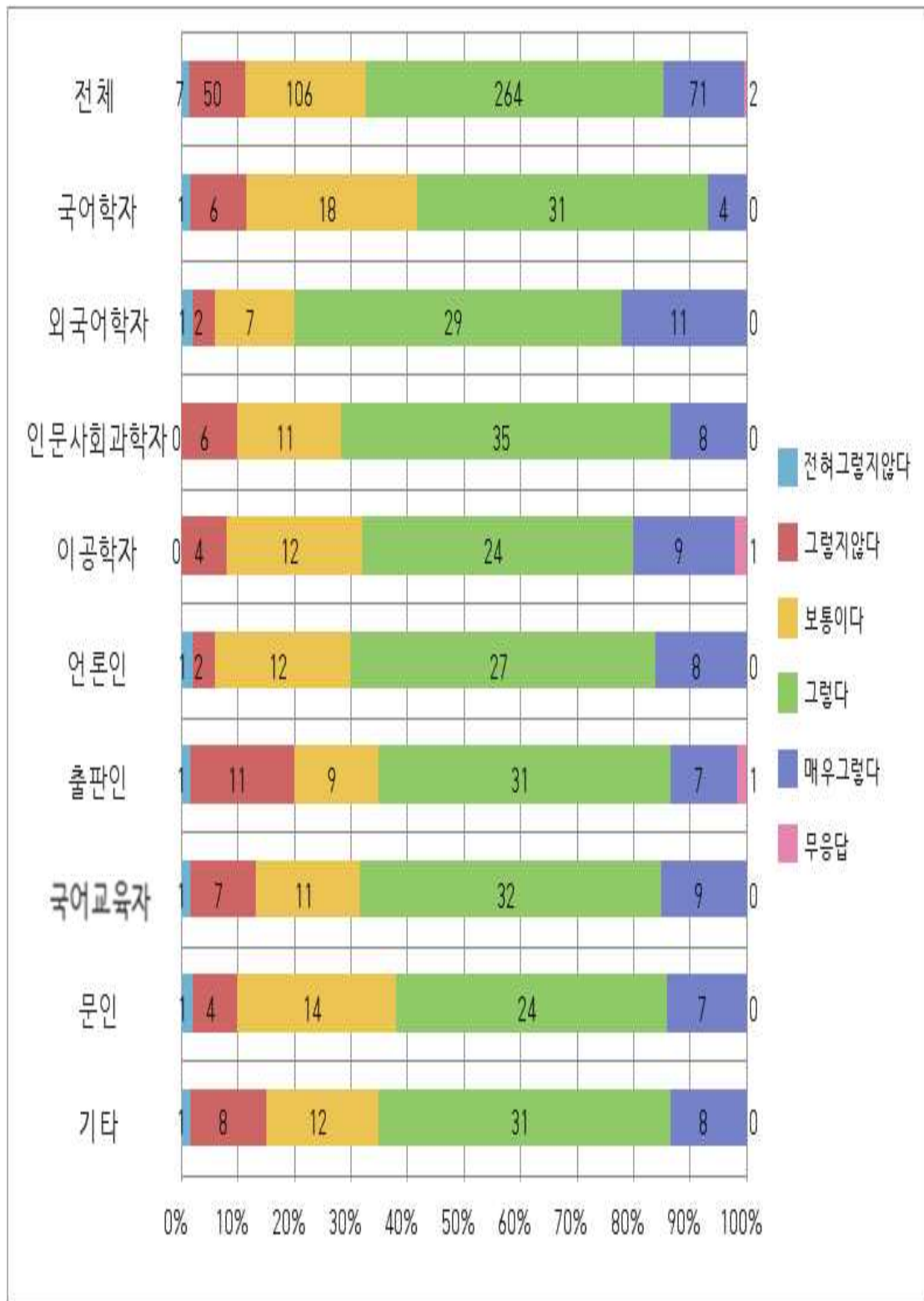
문항28부터 문항32까지는 문장 부호 규정을 개정하였을 때 국민들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이 범주의 문항들은 국어기본법 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에 근거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개정 이후의 대한 전문가들의 개정 규범 준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들이다.

문항28은 국민의 문장 부호 규정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양상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은 문장 부호 규정은 그것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사용 양상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응답 가운데 ‘매우 그렇다’가 71명(14.2%)이고 ‘그렇다’가 264명(53.8%)으로 둘을 합하면 70%(335명)에 이른다. ‘보통이다’(106명, 21.2%)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11.4%(57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은 국민들의 사용 양상에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전체





문항29. 문장 부호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찾아보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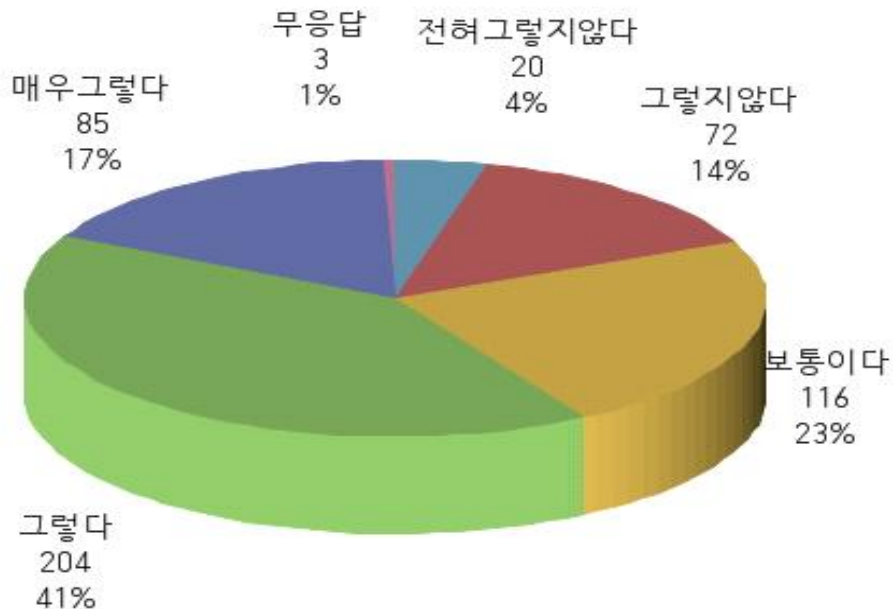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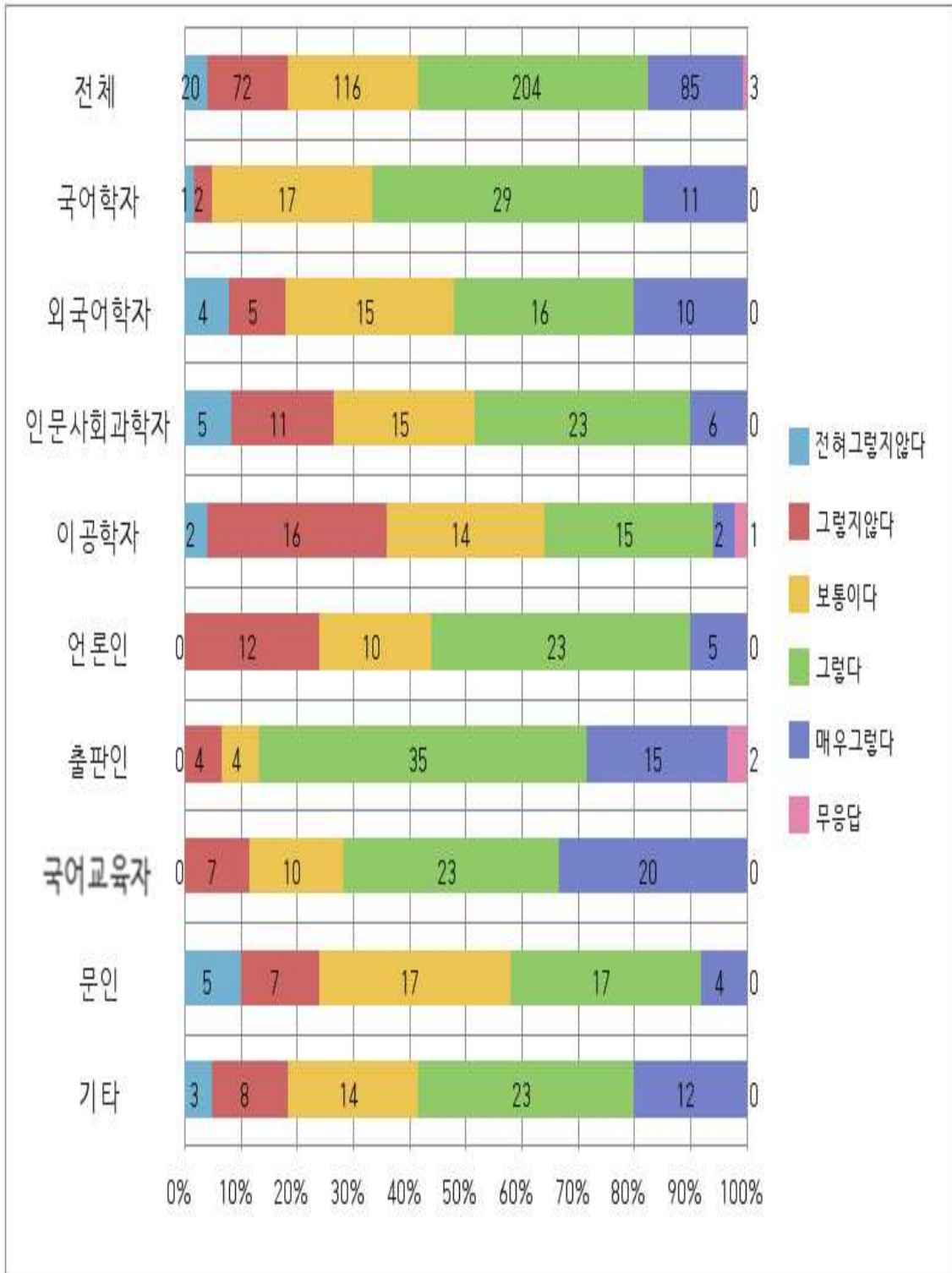
문항29는 문장 부호를 개정하였을 때 문장 부호의 개정된 내용을 직접 찾아보겠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항의 전체적인 의견은 문장 부호 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직접 보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매우 그렇다'가 85명(17%)이고 '그렇다'가 264명(52.8%)으로 합치면 69.8%(349명)에 이른다.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20명(4%)이고 '그렇지 않다'는 72명(14.4%)으로 합하면 18.4%(92명)이다.

집단별로 보면,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 내용을 직접 찾아보겠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출판인 집단으로 '매우 그렇다'(15명, 25%)와 '그렇다'(35명, 58.3%)를 합하면 83.3%(50명)에 이른다. 반대로 가장 낮은 집단은 이공학자로 '전혀 그렇지 않다'(2명, 4%)와 '그렇지 않다'(16명, 32%)를 합하여 36%(18명)가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을 직접 찾아보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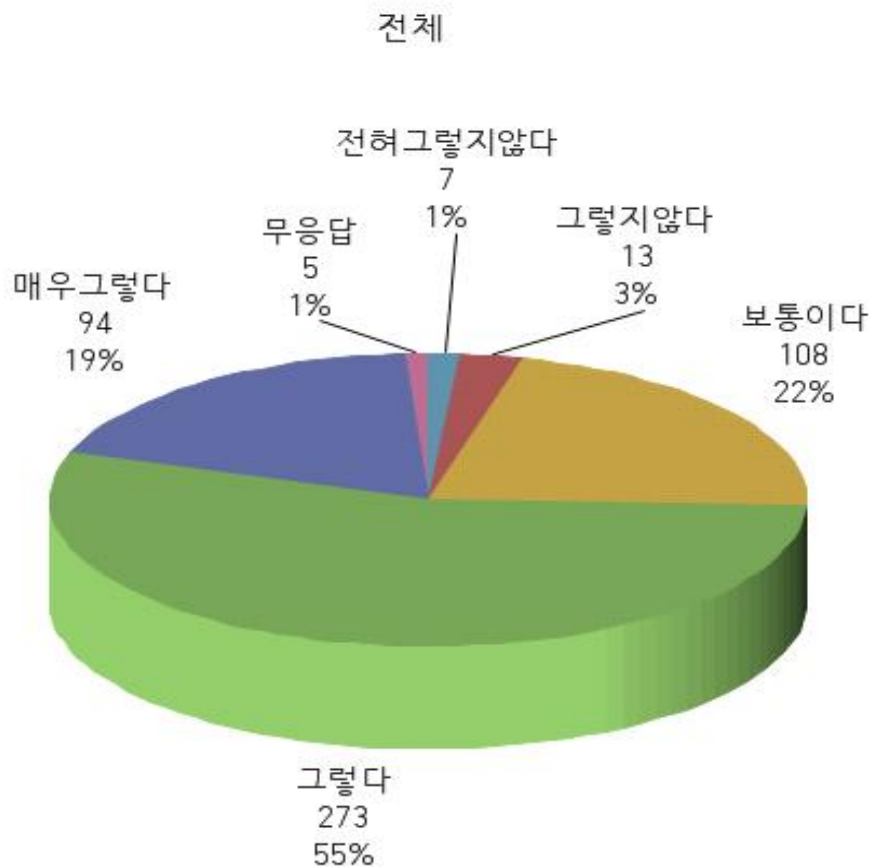
문항30. 문장 부호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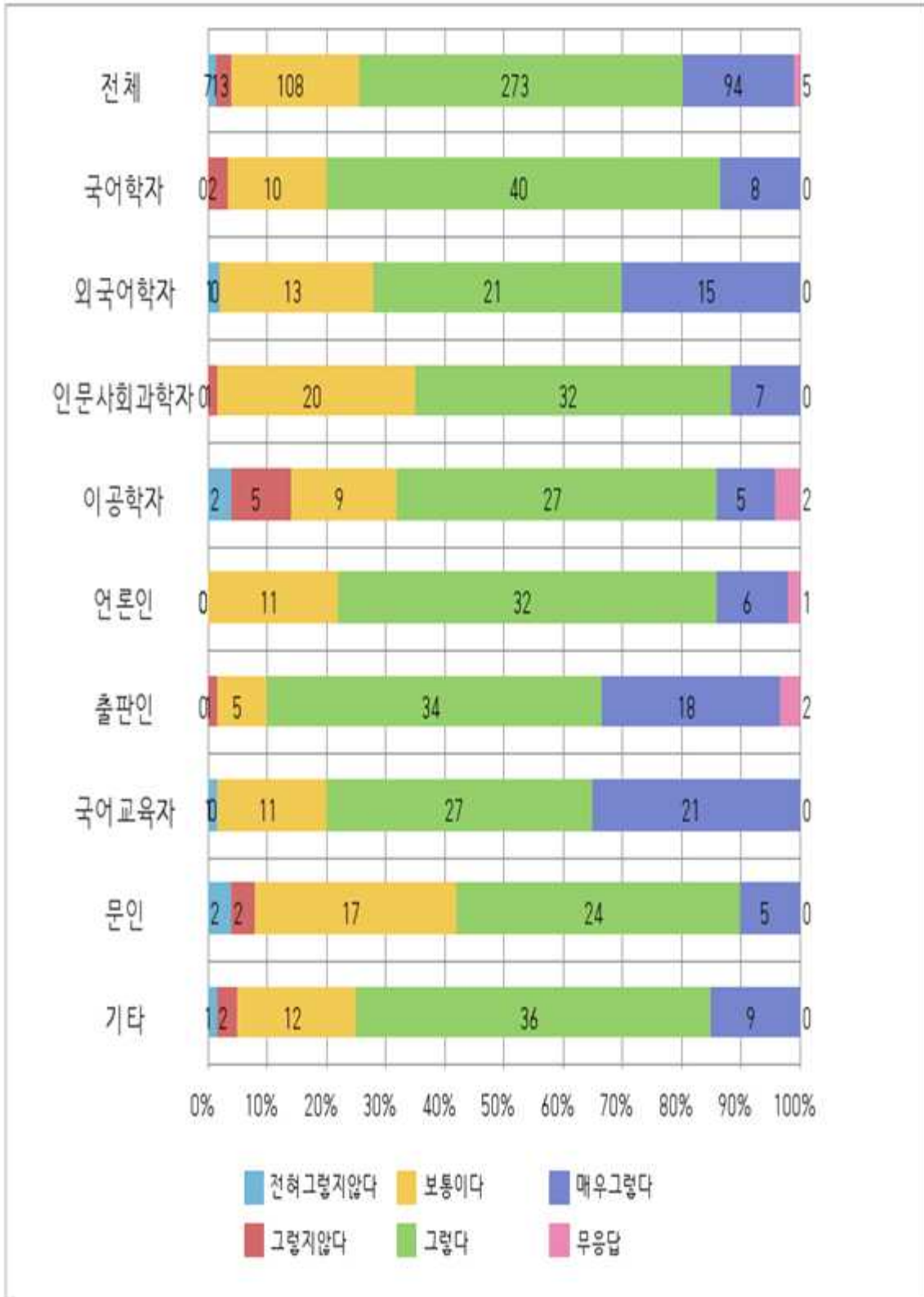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30은 문장 부호 규정을 개정한다면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대로 사용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은 문장 부호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규정대로 따른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전체 의견 중에서 ‘매우 그렇다’가 94명(18.08%), ‘그렇다’가 273명(54.6%)로 양자를 합하면 75.4%(367명)에 이른다. 반면에 개정된 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7명(1.4%), ‘그렇지 않다’가 13명(2.6%)으로 둘을 합하면 4%(20명)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에서 개정대로 따르겠다는 의견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그래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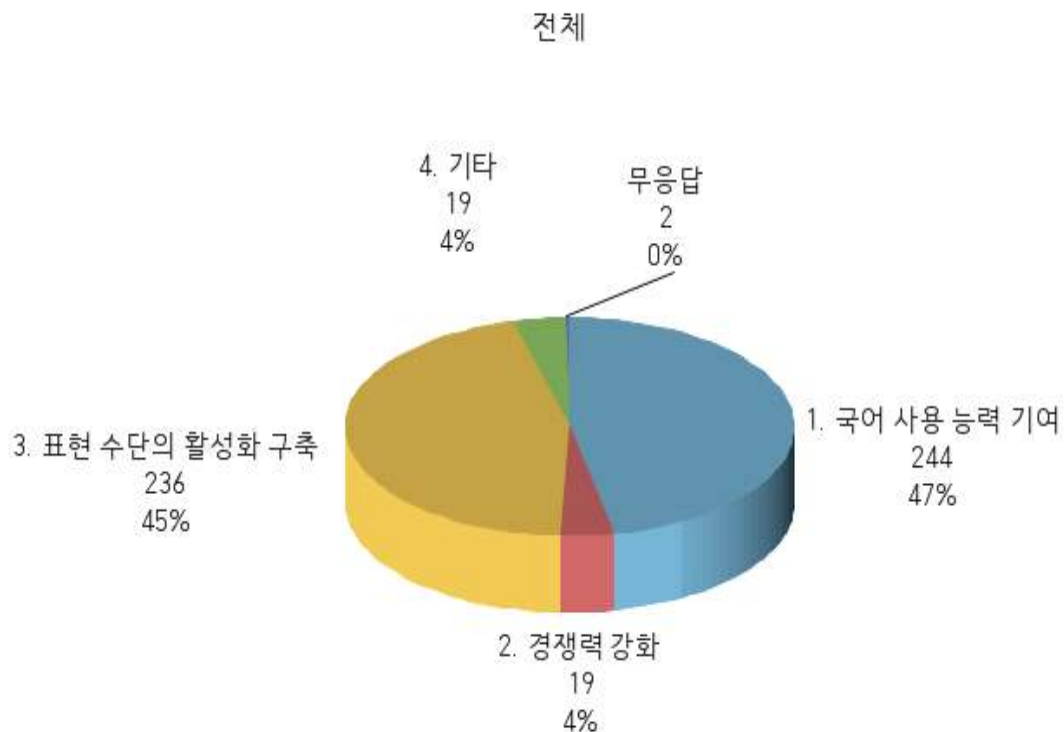
문항31. 국어의 문장 부호 개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기여 ② 다른 언어와의 경쟁력 강화
- ③ 문장 부호 사용을 통한 활발한 표현 수단 구축
- ④ 기타

문항31은 문장 부호 개정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의견으로 문장 부호 개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가장 큰 것은 '③ 문장 부호 사용을 통한 활발한 표현 수단 구축'이다. 236명이 응답하여 47.2%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은 '①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기여'이다. 224명이 응답하여 44.8%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항목은 응답률이 미미하다.

집단별로 보아도 모든 집단에서 '③ 문장 부호 사용을 통한 활발한 표현 수단 구축'과 '①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기여'를 대부분 선택하고 있음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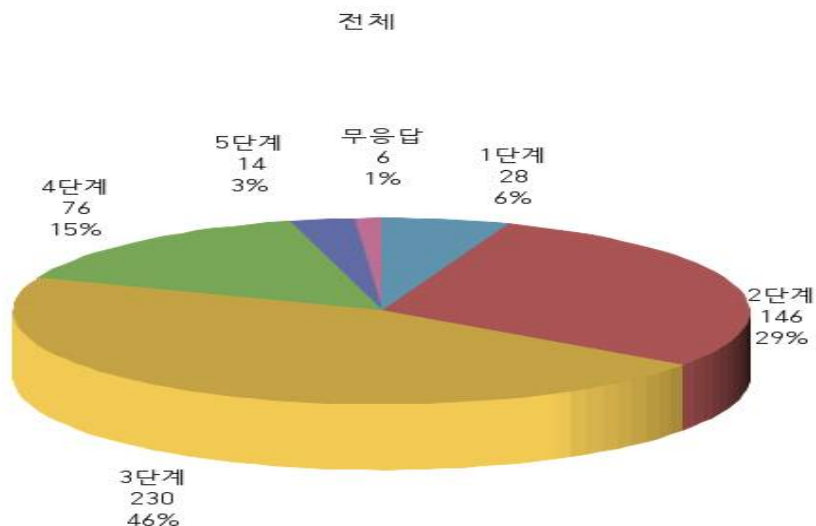


문항32.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어 문장 부호 개정의 여건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개정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큰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문항32는 우리나라 안에서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여기에서 '개정 여건'이라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응답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개정 여건'이라 함은 문장 부호의 실제 사용적인 측면과 실태 조사적인 측면, 문장 부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의 측면을 의미한다. 사용면은 문장 부호를 실제 사용하는 것과 문장 부호 규정과의 괴리로 인하여 국민들이 문장 부호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사면은 문장 부호 사용에 대한 사용 실태를 대규모로 조사·수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면은 문장 부호에 대한 학계의 면밀한 이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바라본 '개정 여건'의 정도를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구분하여 묻는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에서 문장 부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여건은 보통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아직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응답 비율(174명, 34.8%)과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보는 응답 비율(90명, 18%)이 전자에 조금 치우쳐 있지만, 후자도 그에 못지않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3단계의 비율(230명, 46%)이 우세하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문항33. 마지막으로 현행 문장 부호 규정 및 문장 부호 개정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점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33은 모든 설문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문장 부호 개정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생각하는 개선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주관식 질문이다.

총 171명의 응답자가 문장 부호 규정 개정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점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의 문제, 홍보의 문제, 개수의 문제, 사용 실태 조사의 문제, 명칭의 문제, 현실 반영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문장 부호만의 독자적인 대규모 실태 조사에 대한 의견들이 눈이 띈다. 이는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현실을 먼저 조사하여 규정에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1건의 의견 대부분은 설문 조사지에 반영되어 있는 의견들이라서 따로 모두를 기술하지는 않겠고, 아래 도표에 대표적인 의견들만을 제시한다.

의견 내용	
1	개정도 중요하지만 문장 부호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함. 초중고교에서 반복적으로 교수 학습할 필요 있음.
2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보통 대중들은 문장 부호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홍보부족 때문이라 생각한다.
3	컴퓨터 사용에 의한 새로운 문장 부호에 대한 제시가 부실한 듯
4	사용실태 조사하여 대다수가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5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문장 부호 이름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부호와 관련되는 이름으로요.
6	실태 조사 필요. 규정된 문장 부호도 적고 실제 사용이 반영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

V 법학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 분석

1. 면담 조사 개요

현재 문장 부호 규정의 법적 지위는 고시 수준에 있다. 그런데 문장 부호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실려 있어, 엄밀하게 말한다면 문장 부호 규정을 독립된 어문 규범이라 지칭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장 부호 규정의 효율적인 법적 지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1.1. 면담 조사 일정

법률 전문가 면담 조사에 대한 일정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8월에는 면담 조사에서 사용할 질문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에서 검토를 거친 후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면담을 실시할 피면담자로서 법률 전문가를 5명 섭외한 후 면담 날짜를 정하였다. 9월에는 면담 일정에 따라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제 면담이 이루어졌다. 실제 면담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날짜는 뒤에서 다시 제시하도록 한다. 10월에는 수집한 면담 자료들을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면담 일정이 종료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 면담 조사 일정

날 짜	내 용
8월	질문지 구성 및 법률 전문가 섭외
9월	면담 실행
10월	면담 내용 분석 및 정리

1.2. 면담 대상

피면담자는 현직 변호사 3명, 변리사 1명, 법과대학 교수 1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적인 전문 지식과 해당 분야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본 면담 조사에 응하여 유용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들로 구성한 것이다. 상세한 개인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5-2) 피면담자 개별 인적 사항

	피면담자 1	피면담자 2	피면담자 3	피면담자 4	피면담자 5
성별	남	남	남	남	남
연령	52세	40세	36세	48세	55세
지역	서울	서울	경기도	서울	서울
직업	변호사 (로펌 소속)	변호사 (로펌 소속)	변호사 (환경부 소속)	변리사 (로펌 소속)	법학과 교수
경력	20년	10년	5년	16년	20년
면담 일시	2010년 9월 13일 (월)	2010년 9월 13일 (월)	2010년 9월 27일 (월)	2010년 9월 15일 (수)	2010년 9월 17일 (금)
면담 장소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유선 전화	변리사 사무실	교수 연구실

1.3. 면담 조사 방법

면담 조사 방법은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방법을 사용한다. 반구조화 면담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되, 면담 시 면담자가 피면담자의 답변 내용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내용을 재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담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피면담자는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을 선택한다. 피면담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들은 그들 사이에 법률적 지식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표본 선정의 편리성에 기준을 두고 조사자 임의대로 피면담자를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면담 소요 시간은 1인당 평균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러한 면담 조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3) 면담 조사 방법

- 가. 날짜: 2010년 9월 중
- 나. 대상: 변호사 3명, 변리사 1명, 법학과 교수 1명
- 다. 방법: 반구조화 면담, 편의 표집
- 라. 면담 소요 시간: 각 30분 정도

1.4. 면담 조사 내용

면담 조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문장 부호 규정을 현재와 같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두어도 될지, 아니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지에 대해 질문

한다. 둘째는 문장 부호 규정을 현행과 같이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고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지침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질문한다.

(5-4) 개별 면담 조사의 주요 내용

가. 문장 부호 규정을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둘지,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질문

나. 문장 부호 규정을 고시 수준으로 정할지,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질문

실제 면담 조사에서 사용한 질문 내용은 아래 (5-5)에 제시한 질문지의 내용과 같다. (5-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된 질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질문지의 1번 항과 2번 항이 각각 (5-4)의 (가), (나) 항에 해당되므로 주된 질문이라 할 수 있으며, 3번 항과 4번 항은 주요 질문을 보충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5-5) 개별 면담 조사 질문지

♣ 개별 면담 조사 질문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국민의 불편 사항 및 요구 사항 등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규정의 방향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문장 부호 규정의 법적 지위에 따른 정책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법학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문장 부호는 ‘한글 맞춤법’(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장 부호 규정을 독자적인 규범으로 독립시켜 하나의 어문 규범으로 제정해야 할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두어도 좋은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법적 지위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2 현재는 고시(告示) 수준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고시 수준이 적합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장 부호 규정의 내용과 사용 정도를 고려했을 때 법적 지위가 어느 수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시, 지침 등)
미국의 경우 매뉴얼과 같이 단순 지침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3 그 법적 지위는 국민의 문장 부호 사용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국어기본법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법적 지위 수준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장 부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적절한 법적 지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면담 조사 실행

5명의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피면담자의 성별, 연령, 지역, 직업, 경력 등을 이력으로 제시하고 면담을 실시한 날짜와 장소를 밝힌 후,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개별 면담 질문지에 있는 네 개의 질문항을 반구조화 면담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실제 발화를 그대로 전사하기보다는 질문항에 대한 주요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2.1. 면담 1

면담 1의 피면담자는 현재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경력 20년의 52세 남성이다. 면담 일시는 9월 13일(월), 면담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5-6) 면담 1의 주요 답변 내용

질문 항목	주요 답변 내용
1	문장 부호가 중요성을 얼마만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적 지위 측면에서는 현행처럼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되어 있다 해도 한글 맞춤법과 같이 고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장 부호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한글 맞춤법의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현재 한글 맞춤법은 고시(告示) 수준에 속해 있는데,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내용을 일반에 알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 규칙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성문법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문장 부호를 단순 지침과 같은 불문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치, 사회, 문화적인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방

	자치 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문장 부호를 단순 지침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3	국어 사용에 있어서 문장 부호 규정이 혼란스럽다면 이를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가지고 표준화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장 부호 규정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고시 수준이 적합하다. 교육과정의 경우 부령에서 제4차 교육과정 이후 고시 형태로 바뀐 것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4	현행의 고시 수준보다 강한 법적 지위에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보다 더 상위의 기관에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하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고시 수준이 한글 맞춤법을 규정하는 데 적절하다.

2.2. 면담 2

면담 2의 피면담자는 현재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경력 10년의 40세 남성이다. 면담 일시는 9월 13일(월), 면담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5-7) 면담 2의 주요 답변 내용

질문 항목	주요 답변 내용
1	문장 부호 규정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둔다 하여도 법적으로 한글 맞춤법보다 지위가 격하되지는 않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	미국과 우리나라는 여러 측면에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문 규정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방자치 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어문 규정이 다르다.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같이 지방마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으므로 한글 맞춤법을 비롯한 문장 부호 규정 역시 미국처럼 단순 지침화할 수는 없다. 또한 고시 수준보다 상위 규정으로 구속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문장 부호 규정 측면에서는 알맞지 않다.
3	국어기본법 12조에서 제시한 대로 그 규정 내용은 국민의 문장 부호 사용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변경 가능한 관할 기관에서 바꿀 수 있다.
4	당연히 법적 지위 수준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는 데 제약을 갖거나 가능한 것들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그리고 문장 부호라는 규정 내용의 성격에 따라 그 법적 지위를 고시 수준으로 정했을 때, 정책을 실행하여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3. 면담 3

면담 3의 피면담자는 현재 환경부 소속 변호사로서 경력 5년의 36세 남성이다. 면담 일시는 9월 27일(월), 면담은 피면담자의 개인 사정상 유선 전화로 실시하였다.

(5-8) 면담 3의 주요 답변 내용

질문 항목	주요 답변 내용
1	문장 부호 규정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어도 한글 맞춤법이 갖는 고시 수준과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지위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2	<p>고시라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 고시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 고시보다 상위 규범인 헌법, 명령, 조례, 규칙보다는 구속력이 약하고, 별도로 정하는 영역까지 규정의 대상이 된다. 만약 상위 규범으로 구속하게 된다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미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쓸 때 “갑”이 “을”을 지칭하는 단어에서 사용한 큰따옴표가 문장 부호 규정에 어긋난다면 계약서를 쓰는 데 엄청난 불편함이 예상된다.</p> <p>또한 미국처럼 문장 부호 규정을 단순 지침으로 정할 수 없는 데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지침’이라는 명칭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다. 이는 법 체제가 다르기 때문인데, 미국이 영미법계라면 우리나라는 유럽대륙법계에서 차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구속력이 약한 지침 수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미국과 같이 문장 부호 규정을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한다면 언론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법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p>
3	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는 국어사용 정책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법적 지위는 변경 가능한 기관에서 바꿀 수 있다.
4	법률이나 명령으로 구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고시, 훈령, 예규 수준보다 강한 수준의 것은 만들 수 없다. 입법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문장 부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고시 수준이 적합하다.

2.4. 면담 4

면담 4의 피면담자는 현재 로펌 소속 변리사로서 경력 16년의 48세 남성이다. 면담 일시는 9월 13일(월), 면담은 피면담자의 변리사 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5-9) 면담 4의 주요 답변 내용

질문 항목	주요 답변 내용
1	문장 부호 규정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둔다 하여도 법적으로 한글 맞춤법보다 지위가 격하되지는 않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	<p>미국과 법 체제가 다르고 사회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장 부호 규정을 미국과 같이 선불리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고시 수준으로 정한 데는 그것을 고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 내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보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들이나 신문 기자들은 고시된 문장 부호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사용 영역에서 보다 적합한 문장 부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p> <p>만약 단순 지침화한다면 교과서나 어느 정도 표준화된 문서에서조차 제각각 문장 부호를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어지러운 양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지방 자치적으로라도 규정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아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법적으로 보다 상위 규범으로 정한다면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문장 부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고충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고시 수준이 적절하다.</p>
3	법적 지위는 변경 가능한 관할 기관에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문장 부호 규정 내용은 그것을 고시한 기관 내에서 바꿀 수 있다.
4	문장 부호 규정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문장 부호 규정 내용이 갖는 성격을 따져보았을 때, 현행의 고시 수준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는 데 적절하다.

2.5. 면담 5

면담 5의 피면담자는 현재 법학과 교수로서 경력 20년의 55세 남성이다. 면담 일시는 9월 17일(금), 면담은 피면담자의 교수 연구실에서 실시하였다.

(5-10) 면담 5의 주요 답변 내용

질문 항목	주요 답변 내용
1	<p>문장 부호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성에 걸맞은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장 부호 규정을 현행과 같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두기보다는 독자적인 규범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p>
2	<p>모든 문화 생활의 기본은 문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문자 생활이 정립되어야 문화가 발달할 수 있다. 문자 생활에서 문장 부호가 갖는 역할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므로 문장 부호 규정은 문자 생활 측면에서 다룰 만한 문제이다. 이처럼 문장 부호 규정은 넓게는 문화 생활과 연관된 문제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의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다를 수밖에 없다.</p> <p>미국에서 문장 부호를 단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지방자치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문자에 대한 규정이 다른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규정 역시 국가에서 규정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문장 부호를 단순 지침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p> <p>그런데 문장 부호가 현재와 같은 고시 수준에서는 혼란스럽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표준화되지 않은 결과이다. 현행보다 강한 법적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지만 문장 부호를 표준화하여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절실하다고 본다.</p>
3	<p>현행과 같이 고시 수준에서 정한 문장 부호 규정은 국어 사용에 혼란스러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가지고 표준화해 주어야 한다. 이는 교육적 효과를 가질 만한 수준으로 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p>
4	<p>법적 실효성과 교육적 효과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행과 같은 고시 수준보다 더 강력한 법적 지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p>

3. 면담 조사 분석

위와 같이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약 두 주에 걸쳐 법학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 실시 후 각 질문에 대한 피면담자의 주된 응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1) 면담 조사 주요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 요약

주요 질문 내용	응답 1	응답 2	응답 3
가. 문장 부호 규정을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둘지,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질문	부록으로 두어도 문제없다.	한글 맞춤법의 본문에 포함시킨다.	독자적인 규범으로 설정한다.
	3명	1명	1명
나. 문장 부호 규정을 고시 수준으로 정할지,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질문	고시 수준으로 정한다.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한다.	고시보다 높은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4명	0명	1명

3.1. 응답 1 유형

(문장 부호 규정을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둘 것인가,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문장 부호 규정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 실려 있어도 한글 맞춤법과 같이 고시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 많았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의 본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거나 독자적인 규범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장 부호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성에 걸맞은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2. 응답 2 유형

(문장 부호 규정을 고시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가,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가?)

이 두 번째 응답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고시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표준화 측면을 고려하여 고시 수준보다 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였다.

3.2.1.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할 수 없는 이유

문장 부호 규정을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지침’이라는 명칭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다. 이는 법 체제가 다르기 때문인데, 미국이 영미법계라면 우리나라는 유럽대륙법계에서 차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만약 미국과 같이 문장 부호 규정을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한다면 법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현재 한글 맞춤법은 고시(告示) 수준에 속해 있는데,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내용을 일반에 알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규칙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성문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모든 문화생활은 기본은 문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문자생활이 정립되어야 문화가 발달할 수 있다. 문자생활에서 문장 부호가 갖는 역할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므로 문장 부호 규정은 문자생활 측면에서 다룰 만한 문제이다. 이처럼 문장 부호 규정은 넓게는 문화생활과 연관된 문제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의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문장 부호를 단순 지침과 같은 불문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치, 사회, 문화적인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방자치 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문자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규정 역시 국가에서 규정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문장 부호를 단순 지침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와 연장선 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구속력이 약한 지침 수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2.2. 고시 수준이 적합한 이유

문장 부호 규정은 현행과 같이 고시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장 부호 규정 내용의 성격과 법적 지위로서 고시 수준의 성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시라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 고시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 고시보다 상위 규범인 헌법, 명령, 조례, 규칙보다는 구속력이 약하고, 별도로 정하는 영역까지 규정의 대상이 된다. 만약 문장 부호 규정을 상위 규범으로 구속하게 된다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문장 부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예기치 못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국어 사용에 있어서 문장 부호 규정이 혼란스럽다면 이를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가지고 표준화해 주어야 한다. 문장 부호 규정은 강제성이 적되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고

시 수준이 적합하다. 이는 국민의 국어사용을 고려하여 규정이 어느 정도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5-12) 문장 부호 규정 고시 수준

가. 성문법에 속하는 고시 수준: 문장 부호의 표준화

나. 강제성이 적은 고시 수준: 국어사용 측면을 고려함.

3.2.3. 그 외 사항

질문지의 3번과 4번 질문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문지 3번에서 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는 국어 사용 정책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법적 지위는 변경 가능한 기관에서 바꿀 수 있다. 국어 사용에 있어서 문장 부호 규정이 혼란스럽다면 이를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가지고 표준화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장 부호 규정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고시 수준이 적합하다.

다음으로 질문지 4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고시, 훈령, 예규 수준보다 강한 수준의 것은 만들 수 없다. 입법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장 부호를 규정하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또한 국어 사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규정을 만들기도 힘들 것이다. 또한 국민이 문장 부호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문장 부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고시 수준이 적합하다.

4. 면담 조사 결과

4.1. 문장 부호 규정의 독립성 유무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 그대로 실려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법적 지위 측면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같이 고시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장 부호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에 걸맞은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의 본문에 포함시키거나 따로 독자적인 영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4.2. 문장 부호 규정의 고시(告示) 수준

문장 부호 규정은 현행과 같이 고시 수준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문장 부호 규정을 단순 지침의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국과 같이 단순 지침으로 바꿀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13) 문장 부호 규정을 미국과 같이 단순 지침으로 설정할 수 없는 이유

가. '지침'이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다.

나. 문장 부호 규정은 넓게는 문화생활과 연관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

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언론의 환경이 다르다.

(5-13. 가)는 법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과 같이 문장 부호 규정을 단순 지침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며, (5-13. 나)는 문자생활에서 문장 부호가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방자치사회의 성격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5-13. 다)는 (5-13. 나)와 관련된 것으로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언론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장 부호의 규정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겠다.

이번에는 문장 부호 규정이 현행과 같이 고시 수준이 적합한 이유를 국어사용과 관련된 문장 부호의 성격과 고시의 법적 성격을 밝힘으로써 다시 한 번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설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4) 문장 부호 성격과 고시의 법적 성격과의 관계

가. 문장 부호 규정을 상위 규범으로 구속하게 된다면, 일상적으로 문장 부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기치 못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나. 국어 사용에 있어서 문장 부호 규정이 혼란스럽다면, 강제성이 적되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고시 수준에서 표준화할 수 있다.

(5-14. 나)와 같이 국어사용에서 문장 부호 규정이 혼란스러울 경우 성문법에 속하는 법으로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데, (5-14. 가)의 이유 때문에 현행의 고시 수준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부호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매우 빈번하고 문자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지위를 부여할 때 문장 부호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VI. 조사 연구 요약 및 해석

이제까지 본 조사 연구에서 문장 부호에 대한 개념,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과 그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문장 부호에 대하여 중국어, 일본어, 영어의 경우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 문장 부호와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법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문장 부호 규정의 법적 지위 수준에 대하여도 의견을 타진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연구 개요

본 조사 연구에서는 문장 부호를 학제적 목적과 정책적 목적, 실용적 목적 등에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하여, “현재 문장을 표현하는 데 두루 사용되며, 문장의 의미를 더하거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문장 내의 보조적인 표기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문장 부호의 명칭의 문제, 문장 부호 규정에서 분류하고 있는 체계상의 문제, 문장 부호의 띄어쓰기 문제,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문장 부호의 수호 문제가 그것이다.

먼저, 문장 부호의 명칭에 대한 문제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명칭이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드러냄표[顯在符], 안드러냄표[潛在符]), 문장 부호의 형태나 모양을 본뜬 명칭(빗금, 쌍점, 물결표 등)과 기능이나 쓰임새를 본뜬 명칭(이음표, 묶음표, 드러냄표, 줄임표 등), 문장 부호의 사용 위치에 따른 명칭(마침표, 가운데뎛점 등) 등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분류 체계의 문제로 현재 문장 부호는 7개의 대분류 체계 아래에 세로쓰기를 포함하여 총 23개가 있다. 7개의 대분류 체계 중 “VI. 드러냄표[顯在符]”의 경우는 그 하위로 “드러냄표(·°)”를 두고 있어, 상·하위 체계명의 동일성이나 하위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체계상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문장 부호와 관련된 띄어쓰기의 문제이다. 쌍점의 경우 그 앞말에 붙여 쓸 것인지, 앞말과 뒷말을 모두 붙여 쓸 것인지 아니면 모두 띄어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네 번째는 문장 부호의 수호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세로쓰기를 위한 문장 부호로 고리점(。), 모점(、), 겹낫표(『』), 낫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언중들의 실제 말글살이에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겹꺾쇠표(《》), 꺾쇠표(《》)나 “쌍반점(:)” 등은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외국의 문장 부호와 우리나라의 문장 부호를 비교해 보면, 중국어에는 16개의 문장 부호가 있으며, 일본어에는 8개, 영어에는 14개의 문장 부호가 있다. 이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은 문장 부호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다.

2.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본 조사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수행한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타진해 보는 설문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만족도,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의한 국민의 국어 사용 변화 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먼저 전문가들의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도의 측면을 보았을 때, 각계 전문가들이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81.2%(406명),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의 지키는 정도는 88.2%(400명)로 대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 수준에 비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문장 부호를 수용하고 있는 정도는 이보다 떨어지고 있다. 실제 문장 부호 규정을 본 적이 없는 응답자가 47.4%(237명)에 이르고, 문장 부호의 개별적인 사용법(문항10~문항18)에 대하여 평균 28.7%에 이르는 응답자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은 높지만, 실제 문장 부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수용 측면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곤란을 경험한 응답자도 19.6%(98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장 부호의 명칭에 대한 응답으로 문장 사용 빈도와 인지도, 명칭의 적절성을 조사하였는데, 문장 부호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그 인지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문장 부호의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온점의 경우는 사용 빈도가 93.6%(468명)로 23개 문장 부호 중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명칭에 대한 인지도는 78.8%(394명)로 10위에 지나지 않았으며, 명칭의 적절성도 30.8%(154)로 13위에 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인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과 문장 부호의 사용 빈도와 인지도에 비해 그 명칭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인데, 문장 부호가 글을 읽고 쓸 때 필요하다라는 응답자가 91.6%(458명)나 되어, 우리의 말글살이 속에서 문장 부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장 부호에 대하여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 89.8%(449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38.6%(193명)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나왔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1.2%(56명)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 보았을 때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이 만족하고 있다고 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만족도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치가 49%(244명)에 달하여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장 부호에 대한 인지도나 수용도, 필요한 정도 등의 수치에 3분의 2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만족도 38.6%라는 수치로는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실제 문장 부호 사용과 문장 부호 규정과 차이가 난다는 의견(38.1%), 실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규정에는 빠져 있다는 의견(16.8%), 문장 부호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22.6%) 등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의한 국민의 국어 사용 변화 정도를 묻는 설문이다. 문장 부호 규정이 국민의 사용 양상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질문에 70%(355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문가의 3분의 2 이상이 문장 부호 규정은 실제 사용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개정의 타당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과 실제 문장 부호 사용에서의 수용도는 차이가 있으며, 글을 읽고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이 필요하며,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문장 부호 규정은 실제 문장 부호 사용 양상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각계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법학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

본 조사 연구의 마지막 수행 과제는 법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장 부호 규정의 법제적 지위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 5명의 법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장 부호 규정을 현행과 같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두어도 된다는 의견이 3명,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어문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명, 한글 맞춤법의 본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1명으로 나왔다. 현행과 같이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두어도 된다는 의견은 순수 법제적인 관점의 응답으로 본문의 지위나 부록의 지위나 같은 법적 지위에서는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관점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하여 한글 맞춤법의 본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내용은 면담에서 제시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 부호 규정을 한글 맞춤법 규정의 본문 속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학자의 의견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문장 부호 규정을 현재와 같이 고시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단순 지침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문장 부호 규정은 현재와 같이 고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명에 달한다. 법학 전문가 1명은 예외적으로 고시보다 높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1. 총서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어국문학회(2000),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민수(1995), 『(금성판) 국어대사전 1~2』, 금성출판사.
- 남영신(2006), 『한국어대사전』, 성안당.
- 동아출판사편집부(2000), 『동아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
- 신기철·신용철(1980),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운평어문연구소(1999), 『(금성판) 국어대사전. 1~2』, 금성출판사.
- 한글학회 편(1999),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2. 논문

- 강신항(1996), 넘쳐흐르는 이론가들, 필요한 언어규범, 한글과 태국문자, 『어문연구』9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도훈(2006), 문장 부호의 기능적 개념 및 용법, 『이중언어학』32, 이중언어학회.
- 김도훈(2010), 영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장 부호의 변이 양상 및 번역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의대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수(2003), 남북의 언어통합과 공용어, 『우리어문연구』20, 우리어문학회.
- 김병철(1977), 한국구두점기원고, 『한국학보』9, 일지사.
- 김봉국(2007), 국어 문장 부호의 몇 가지 문제점, 『어문교육』35, 한국어문교육학회.
- 김진아(2001) 문장 부호 중요성에 따른 한국어·중국어 문장 부호 비교, 『논문집』5, 한국외대 통역번역연구소.
- 박정규(2007), 국어의 문장 부호 규정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시학과 언어학』14, 시학과 언어학회, 123-151쪽.
- 신호철(2009), 국어 문장 부호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128, 한국어교육학회.
- 양명희(2002), 현행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 『새국어생활』12-4, 국립국어연구원.
- 양명희(2004), 국립국어원의 언어 실태 조사, 『새국어생활』14-4, 국립국어원.
- 유형선(1997가), 남한과 북한의 문장 부호에 대하여1, 『한국어학』6, 한국어학회.
- 유형선(1997나), 남한과 북한의 문장 부호에 대하여2, 『우리어문연구』11, 우리어문학회.

- 윤호숙(2008), 근·현대 일한 양국어의 부호에 관한 비교 고찰, 『일본학연구』 23.
- 윤호숙(2009), 일한 양국어의 문장 부호에 관한 대조 고찰-신문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14.
- 이관규(1995), 학교문법, 한글맞춤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나타난 상치점, 『새국어교육』 51,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관규(1997), 남북한의 규범 문법에 대한 연구, 『수련어문논집』 23, 수련어문학회.
- 이동석(2006), 동아일보 스타일북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복규(1995), 근대 이전의 우리 문장 부호, 『국제어문』 16, 국제어문학회.
- 이복규(1996), 우리의 옛 문장 부호와 교정 부호, 『고문서연구』 9, 한국고문서학회.
- 이승후(2001), 국어 문장 부호에 관하여, 『새국어교육』 62,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승후(2006), 문장 부호 사용 실태의 조사 분석,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익섭(1996), 국어 문장 부호의 기능,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익섭(2002), 문장 부호의 중요성과 우리의 현실,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 임동훈(2002), 현행 문장 부호의 미비점과 대안,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 임보선(2009), 남북 문장 부호 규정의 비교와 통일 방안-체계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반교어문연구』 26, 한교어문학회.
- 전기정(2007), 한중 문장 부호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46.
- 전수태(2002), 남북한 문장 부호 비교,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 차재은(1999), 문장 부호의 사용과 그 교육에 대하여, 『한국어학』 9, 한국어학회.

3. 단행본

- 강희숙(2003),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
- 고창운(2007), 『한글 맞춤법 해설과 이해』, 경진문화사.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국어연구소.
- 권용경(1988), 『새 한글 맞춤법 사전』, 집현전.
- 기주연(2001), 『한국어 맞춤법 안내』, 박이정.
- 김미형·서은아(2010), 『국어표기법의 이해』, 한국문화사.
- 김민수(1984), 『국어 정책론』, 탑출판사.
- 김정우(2006),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국어 어문 규정 365가지』,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주미(2005), 『현대인의 바른 국어 생활』, 경진문화사.
- 김창근(1991), 『한글 새 표기법』, 글숲.
- 나찬연(2008), 『국어의 규범 : 학교 문법의 이해』, 제이앤씨.
- 리의도(2001), 『(리의도 교수의) 이야기 한글 맞춤법』, 석필.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박갑수(1994), 『올바른 언어 생활』, 한샘출판사.
- 박종덕(2007), 『생활국어 정서법 연구』, 정인출판사.
- 박형익(2008), 『한국 어문 규정의 이해』, 태학사.
- 서정옥(2002), 『국어 정서법의 이론과 실제』, 문창사.
- 성기지(2000), 『생활 속의 맞춤법 이야기』, 역락.
- 연규동(1998), 『통일시대의 한글 맞춤법』, 박이정.
- 우형식(1995), 『국어정서법』,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우형식(2004), 『한글과 정서법』,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이관규(2002), 『개정판 학교문법론』, 월인.
- 이수열(1993), 『우리말 우리글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지문사.
- 이승우(1994), 『새 맞춤법과 교정의 실제』, 어문각.
- 이운영(2003),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이은정(1990), 『(최신)표준어·맞춤법 사전』, 백산출판사.
- 이은정(1992), 『남북한 어문 규범 어떻게 다른가』, 국어문화사.
- 이은정(1993), 『(어문 규정에 따라 정리한) 띄어쓰기 용례 및 해설』, 백산출판사.
- 이은정(1996), 『남북한 어문 규범 고찰』, 백산출판사.
- 이재석(2000), 『(알기 쉬운)어문규정집』, 문화관광부.
- 이주행(2005), 『한국어 어문 규범의 이해』, 보고서.
- 이충우(2006), 『국어 문법의 교육과 연구』, 역락.
- 이현복 외(1997), 『한글 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 이희승·안병희(1994), 『고친판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 『증보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임성규(2009), 『교사를 위한 국어 맞춤법 길라잡이』, 교육과학사.
- 임지룡 외(2005),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전수태(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전수태·장향실(2005),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 전영표(2007), 『새 국어 표기법 : 새 국어 표기의 자료·사전』, 상록문화정보연구소.
- 한용운·정상훈(2004),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한국문화사.
- 황경수(2008), 『한국 어문 규정의 이해』, 청운.

4. 연구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국정도서 편찬진 대상 어문 규범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8), 『문장 부호 개정안』,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8), 『우리말 바로 알기』.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편찬 백서』.
- 국립국어연구원(2001), 『한국 어문 규정집』.
- 국립국어원(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 국립국어원(2004), 『어문 규범 영향 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
- 국립국어원(2005), 『어문 규범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 국립국어원(2007),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연수 교재』.
- 국립국어원(2007),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상반기 교재』.
- 국립국어원(2007),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상반기 교재』.
- 국립국어원(2007),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하반기 교재』.
- 국립국어원(2007),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하반기 교재』.
- 국립국어원(2007),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 국립국어원(2008), 『국민의 국어 능력 조사 실시 계획』.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
-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국어연구소.
- 국어정보학회(1996), 『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 문화 체육부 연구보고서.
- 양명희(2000가),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 양명희(2000나),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 양명희(2005가), 『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영명희(2005나), 『국어사용환경 조사(2005)』, 국립국어원.
- 이관규(2009), 『국어 정책 통계 지표 개발 및 조사 수행』, 국립국어원.
- 전수태(2005),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 조남호(2000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 조남호(2000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연구원.
- 최혜원(2000),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 국립국어연구원.
- 최혜원(2001),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연구원.
- 최혜원(2002),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I』, 국립국어연구원.
- 최혜원(2003),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V』, 국립국어연구원.

5. 외국서

- 加藤彰彦 외(1989), 『日本語概説』, 東京: 桜楓社.
- 權田直助(1887), 『国文句読考』, 東京: 近藤圭造.

American Library Association(1991), *ALA-LC romanization table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Library of Congress.

- Andrew C. Nahm, James E. Hoare(2004),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Republic of Korea*, Scarecrow Press.
- Axel Wijk(2008), *The Orthography and Pronunciation of Henry Machyn, the London Diarist*, ACLS History E-Book Project.
- Brittain, Robert Edward(1908), *Punctuation : an easy method of learning to punctuate correctly*, New York : Barnes & Noble.
- Brittain, Robert(1950), *Punctuation for clarity : an easy method of learning to punctuate correctly*, New York : Barnea and Noble.
- Carey, G. V(1957), *Punctuation*, Cambridge : At the University Press.
- Ehrlich, Eugene H(1977), *Schaum's outline of theory and problems of punctuation, capitalization, and spelling*, New York : McGraw-Hill.
- Elmer W. Cavins(2008), *Orthography*, Biblio Bazaar.
- Ganske, Kathy(2000), *assessment-guided phonics, spelling, and vocabulary*, New York : Guildford Press.
- Gibaldi, Joseph(2009),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7th ed. New York :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 Heinrichs, Ann(2005), *Spelling Rules*, Childs World.
- Hill, Peter(1988), *Standard language in the Slavic world*, Munchen : Otto Sagner.
- Janis Bell(2009), *Clean, Well-Lighted Sentences: A Guide to Avoiding the Most Common Errors in Grammar and Punctuation*, W. W. Norton & Company.
- Lynne Truss(2003), *Eats, Shoots & Leaves*. London: Gotham Books(장경렬 옮김(2005), 『먹고, 쏘고, 튀다』, 문학수첩).
- Mark Sebba(2007), *Spelling and society :the culture and politics of orthography around the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Whorter, John(2007), *Language Interrupted : Signs of Non-Native Acquisition in Standard Language Grammars*, Oxford Univ Press.
- Merriam-Webster, Inc.(1985), *Webster's standard American style manual*, Springfield, Mass. : Merriam-Webster.
- Nunes(2006), *Children's Reading And Spelling*, Blackwell Pub.
- Robert M. Ritter(2003), *The Oxford style manual*.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ely, John(2008), *Oxford A-Z of Grammar and Punctuation*, Oxford Univ Press.
- Silk, M. S.(2009), *Standard languages and language standards*, Ashgate Pub.
- Sirish Rao(2009), *In the Land of Punctuation*, Tara Books.
-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5th ed.(200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6th ed.(201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allins, George Henry(1954), *Spelling / With a chapter on American spelling*, London :
A. Deutsch.

Wade, Harold Hamilton(1929), *A dozen a day in spelling, punctuation, and grammar*,
New York : Houghton Mifflin company.

Wijk, Axel(1966), *Rules of pronunciation for the English language : an accou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spelling and pronunciation*, London : Qxford
University Press.

6. 누리집

가나다 한글사랑: <http://rentsoft.co.kr/>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ckc.gsnu.ac.kr/>

국어능력시험: <http://www.tokl.or.kr/>

국어문화운동본부: <http://www.barunmal.co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교육정책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124.137.201.223/>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kor.donga.ac.kr/>

말글넷: <http://www.malgeul.net/>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바른한글: <http://www.barunhangul.com/>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www.smkorean.net/>

상명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 <http://cklc.smu.ac.kr/>

서울대학교 교수학습 개발센터: <http://ctl.snu.ac.kr/>

세종학당: <http://www.sejonghakdang.org/>

오케이코리아: <http://www.okkorean.com/>

우리말배움터: <http://urimal.cs.pusan.ac.kr/>

우리말 사랑 누리집: <http://www.woorimal.net/>

EB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http://home.ebs.co.kr/beginning/>

EBS 참 좋은 우리말: <http://home.ebs.co.kr/korean/>

21세기 세종계획: <http://www.sejong.or.kr/>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 <http://www.koreancontest.org/>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kor.chonnam.ac.kr/>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malgeul.cheju.ac.kr/>
중앙다문화교육센터: <http://cmc.snu.ac.kr/>
청주대학교 국어상담소: <http://www.koreanlab.or.kr/>
KBS 국어문화원: <http://korean.kbs.co.kr/>
KBS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http://www.topik.or.kr/>
KBS 한국어 학당: <http://www.kbskorean.co.kr/>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www.koreanlab.or.kr/>
한겨레 말글연구소: <http://www.hanmalgal.org/>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한국국어교육학회: <http://www.korean-lang.com/>
한국다문화센터: <http://www.cmck.kr/>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한국어교육문화원: <http://www.edukorean.com/>
한국어교육학회: <http://www.koredu.org/>
한국어국어교육학회: <http://www.korean-lang.com/>
한국어문학회: <http://www.eomunhak.or.kr/>
한국어진흥재단: <http://www.klacusa.org/>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http://www.klaces.or.kr/>
한국언어문화연구원: <http://www.languageculture.net/>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한글맞춤법 무료 동영상 강의: <http://www.kbskorean.co.kr/kbs/>
한글문화연대: <http://www.urimal.org/>
한글 사랑 서울 사랑: <http://hangeul.seoul.go.kr/>
한글재단: <http://www.hangul.or.kr/>
한글학회: <http://www.hangeul.or.kr/>

부 록

1. 예비 설문 조사

1.1. 예비 설문 조사 목적 및 방법

예비 설문 조사는 본 설문 조사에 앞서 시행하는 설문 조사이다. 예비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주요 목적은 설문지의 질문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설문지의 질문 문항 검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설문 조사 계획에서 준비된 사항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면서, 본 설문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사 방법을 실제 현장에서 검토하면서 조사원의 태도, 응답자들의 평균 응답 시간, 응답자들의 설문 응답 태도 등 설문 환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예비 설문 조사는 전문가 집단 중 국어교육자 50명을 조사 대상으로 2010년 8월 9일에서 8월 10일까지 2일간 시행되었다. 서울시 1급 정교사 연수를 수행 중인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수차례 실시하여 예비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1.2. 예비 설문 조사 질문 항목 선정

본 설문 조사 수행에 앞서 예비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자 질문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이는 본 설문 조사에서 사용될 질문 항목들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선정한 것인데, 예비 설문 조사 질문 항목과 본 설문 조사의 질문 항목은 문항의 대영역 범주는 동일하다. 다만 예비 설문 조사에서 발견되는 문항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여 본 설문 조사의 질문 문항들을 세밀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예비 설문 조사 질문 항목은 앞의 조사 목적에서 제시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네 가지의 대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선정하였다.

(1) 설문 문항의 대영역 범주

- 가.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나.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대한 국민의 국어 사용 변화 정도
- 다.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 라.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각 문항들은 표준안(1996), 세척안(2002) 등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 설문 질문 항목을 작성하였다.

(2) 예비 설문 조사 질문 항목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 필요성, 만족도, 개정에 의한 국어사용 변화 정도 등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협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외에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에 대해 잘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전화: 02-3701-9446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전화: 02-3290-2576
-------------------------------------	-----------------------------------

【응답자】

SQ 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SQ 2. 연 령	만 _____ 세
SQ 3. 거주지 역	① 수도권 ② 강원 ③ 충청 ④ 전라 ⑤ 경상 ⑥ 제주		
SQ 4. 직 업	① 국어학자 ② 외국어학자 ③ 인문사회과학자 ④ 이공학자 ⑤ 언론인 ⑥ 출판인 ⑦ 국어교육자 ⑧ 문인 ⑨ 기타 ()		

- ② 수학 공식 등에 사용하는 부호 (예: +, -, ×, ÷ 등)
- ③ 이모티콘 (예 : ^^ 등)
- ④ 휴대폰 및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부호 (예: @, #, & 등)
- ⑤ 기타 ()

※ 아래 표는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있는 문장 부호입니다. 다음 7~10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7. 다음의 각 문장 부호를 귀하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숫자를, 사용 빈도가 낮을수록 낮은 숫자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해 주십시오.

8. 다음 중 귀하가 해당 문장 부호의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 중 해당 문장 부호의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장 부호의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 번	문항 문장 부호	7. 사용 빈도	8. 명칭을 알고 있다	9. 명칭이 부적절하다	10.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칭
1	온점 (.)	5 : 4 : 3 : 2 : 1			
2	고리점 (。)	5 : 4 : 3 : 2 : 1			
3	물음표 (?)	5 : 4 : 3 : 2 : 1			
4	느낌표 (!)	5 : 4 : 3 : 2 : 1			
5	반점 (,)	5 : 4 : 3 : 2 : 1			
6	모점 (、)	5 : 4 : 3 : 2 : 1			
7	가운뎃점 (·)	5 : 4 : 3 : 2 : 1			
8	쌍점 (:)	5 : 4 : 3 : 2 : 1			

9	빗금 (/)	5	4	3	2	1			
10	큰따옴표 (“ ”)	5	4	3	2	1			
11	겹낫표 (『 』)	5	4	3	2	1			
12	작은따옴표 (‘ ’)	5	4	3	2	1			
13	낫표 (「 」)	5	4	3	2	1			
14	소괄호 (())	5	4	3	2	1			
15	중괄호 ({ })	5	4	3	2	1			
16	대괄호 ([])	5	4	3	2	1			
17	줄표 (-)	5	4	3	2	1			
18	붙임표 (-)	5	4	3	2	1			
19	물결표 (~)	5	4	3	2	1			
20	드러냄표 (; , °)	5	4	3	2	1			
21	숨김표 (××, ○○)	5	4	3	2	1			
22	빠짐표 (□)	5	4	3	2	1			
23	줄임표 (……)	5	4	3	2	1			

※ 다음은 문장 부호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11~15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온점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1919. 3. 1.	①	②	③	④	⑤
12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반점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①	②	③	④	⑤
13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 ‘그리고, 그러나’	①	②	③	④	⑤

	뒤에는 반점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사랑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루기는 어렵다.					
14	따옴표 가운데 다시 따옴표가 들어 있을 때 작은따옴표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15	검낫표(『 』)와 낫표(「 」)가 각각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기능으로 세로쓰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문장 부호의 사용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16~20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큰따옴표 또는 작은따옴표와 함께 ‘라고’ 등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따옴표 안에 들어간 문장 뒤에 온점(.)을 사용하십니까? 온점(.)을 사용한 예 :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온점(.)을 사용하지 않은 예 :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말을 줄일 때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줄임표(……)를 사용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8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①	②	③	④	⑤

	<p>때 일(日) 뒤에 온점(.)을 사용하십니까?</p> <p>일(日) 뒤에 온점(.)을 사용한 예 : 1919. 3. 1. 일(日) 뒤에 온점(.)을 사용하지 않은 예 : 1919. 3. 1</p>					
19	<p>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등록된 단어가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가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가운뎃점(·)을 사 용하십니까?</p> <p>(예) 남·여, 한·일, 직·간접, 육· 해군</p>	①	②	③	④	⑤
20	<p>‘내지’라는 뜻으로 물결표(~) 대신 붙임표(-) 를 사용하십니까?</p> <p>물결표(~)를 사용한 예 : 5~10명, 4 월 5일~4월 15일 붙임표(-)를 사용한 예 : 5-10명, 4월 5일-4월 15일</p>	①	②	③	④	⑤

21. 서명(書名)을 표시할 때 어떤 부호를 사용하십니까?

- ① 큰따옴표 (“ ”) ② 겹낫표 (『 』) ③ 작은따옴표 (‘ ’)
 ④ 낫표 (「 」) ⑤ 소괄호 (()) ⑥ 중괄호 ({ })
 ⑦ 대괄호 ([]) ⑧ 기타 ()

설문 (2)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

※ 다음 22~24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글을 읽고 쓰는 데 문장 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3	문장 부호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4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설문 (3)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 다음 25 ~ 26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26.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3가지를 골라 가장 비중이 큰 것부터 적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의 이름 중 부적절한 것이 있다.
 ②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의 사용법이 실제 사용과 다른 것이 있다.
 ③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 중 컴퓨터로 글을 쓸 때 부적절한 것이 있다.

- ④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빠진 경우가 있다.
- 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제시된 문장 부호의 수가 너무 많다.
- ⑥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제시된 문장 부호의 수가 너무 적다.
- ⑦ 기타 ()

27. 향후 국어의 문장 부호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세로쓰기에서 사용되었던 문장 부호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문장 부호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문장 부호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새로운 통신 수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에 대한 도입	①	②	③	④	⑤
5) 국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28. 문장 부호 개정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문장 부호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홍보
- ② 문장 부호 개정의 재정적 기반 마련
- ③ 문장 부호 개정 관련 아이디어 모색
- ④ 대대적인 문장 부호 사용 실태 조사
- ⑤ 기타 ()

설문 (4)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의한 국민의 국어 사용 변화 정도

※ 다음은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다음 29 ~ 31번 문항에 대

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문장 부호 규정은 국민의 사용 양상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0	문장 부호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찾아보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1	문장 부호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2. 국어의 문장 부호 개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기여
- ② 다른 언어와의 경쟁력 강화
- ③ 문장 부호 사용을 통한 활발한 표현 수단 구축
- ④ 기타 ()

33.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국어의 문장 부호 개정의 여건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4. 마지막으로 현행 문장 부호 규정 및 문장 부호 개정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점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3. 예비 설문 조사 결과

1.3.1. 예비 설문 조사 응답 결과

본 설문 조사에 앞선 사전 조사로서 예비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즉 예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설문지 문항에 대한 검토와 자료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대규모 본 설문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본 설문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설문에 앞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영석·채서일(2008)에 의하면, 사전 조사로서 예비 설문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예비 설문 조사 수행 시 유의점

- 가. 대부분의 질문은 폐쇄형인 것이 좋다.
- 나. 응답자들은 목표 모집단과 유사하여야 한다.
- 다. 25~75명 정도의 사전 조사 응답자가 합리적이다.
- 라. 사전 조사 자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유의 사항에 따라 본 예비 설문은 총 34개의 상위 문항 중 마지막 34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질문을 폐쇄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예비 설문 대상자는 8개의 목표 모집단 중 하나인 국어교육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합리적인 사전 조사 응답자의 범위를 고려하여 50명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예비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4) 예비 설문 조사 수행 개요

- 가. 일시: 2010년 8월 9일(월)~10일(화)
- 나. 대상: 국어 교사 50명(서울특별시 1정 연수 참여 교사)
- 다. 지역: 서울

예비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문항 1번을 통해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알아볼 수 있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이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1번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이 44명으로 88%가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 4번을 통해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수용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즉,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4명, ‘보통이다’가 26명, ‘그렇다’가 16명, ‘매우 그렇다’가 4명으로 40%가 문장 부호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22번 문항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글을 읽고 쓰는 데 문장 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한 사람이 각각 22명, 19명으로 82%가 문장 부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25번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로 응답한 사람이 각각 1명, 22명으로 46%가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의한 국민의 국어 사용 변화 정도는 31번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문장 부호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9명, 10명으로 78%가 국어 사용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1.3.2. 예비 설문 조사 질문 항목의 문제점

예비 설문 조사 수행 후 응답 결과들을 바탕으로 응답자 정보 수집의 문제, 설문지 전체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 특정 질문 자체의 문제 등 크게 세 종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응답자 정보 중 연령의 경우 예비 설문에서는 정확한 연령을 응답자가 직접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 정보에 대한 통계 처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처리 시에는 대략적인 연령 정보만 필요하므로 본 설문에서는 연령에 대한 보기를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으로 제시하고 응답자가 번호에 표시하도록 한다.

둘째, 설문지 전체의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문항 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비 설문 문항은 크게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7번 문항에서 10번 문항까지 네 문항은 각각 23개의 하위 문항이 있고, 27번 문항은 6개의 하위 문항이 있어 실제로는 127문항에 이른다. 이는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항 수이다. 즉,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문항 수의 조절이 필요하다.

셋째, 특정 문항 자체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5) 질문 문항에 대한 문제점

가. 1번과 2번 문항의 경우 각각 ‘알고 있는지’와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응답이 ‘안다 혹은 모른다’, ‘있다 혹은 없다’의 두 가지만 가능한데 예비 설문에서는 5점 척도로 묻고 있어 부적절하다.

나. 6번 문항의 보기 ①의 예를 보면 ‘서명(書名)’ 자체가 마치 전문 영역에서 사용하는 부호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다. 8번 문항과 9번 문항의 경우 23개의 문장 부호 각각의 명칭에 대해 응답자의 명칭 인지 여부와 명칭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7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23개 문장 부호 모두에 대해 ‘안다/모른다’와 ‘적절하다/부적절하다’를 표시하도록 문항 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 10번 문항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문항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번 문항은 해당 문장 부호의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떤 명칭이

적절할지 직접 써 달라는 주관식 문항인데 응답 결과를 보면 대부분 무응답이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칭이 무엇인지 표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명칭에 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장 부호의 명칭은 국어 전문가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일이지 일반인에게 묻기에는 부적절한 사항이므로 10번 문항은 삭제하기로 한다.

마. 25번 문항에 보기 ③이 두 개인데 이는 단순 오류 사항이다.

바. 27번의 항목 6)의 경우 '전혀 불필요~매우 필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므로 1)~5)의 항목과 함께 표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 27번의 항목 6)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을 통계상 무응답이라고 처리할 수도 없으므로 27번의 항목 6)은 삭제한다.

사. 33번 문항의 경우 '문장 부호 개정의 여건'을 묻는 것인데 '개정 여건의 도입기, 개정 여건의 활성화'라는 말이 어색한 만큼 보기의 '도입기, 중간단계, 활성화'라는 용어를 좀 더 적합한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예비 설문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여 본 설문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에 적극 반영하였다.

2. 전문가 설문 조사지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201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 필요성, 만족도, 개정에 의한 국어사용 변화 정도 등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협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외에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에 대해 잘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전화: 02-3701-9446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전화: 02-3290-2576
-------------------------------------	-----------------------------------

【응답자】

SQ 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SQ 2.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 3. 거주지역	① 수도권 ② 강원 ③ 충청 ④ 전라 ⑤ 경상 ⑥ 제주
SQ 4. 직 업	① 국어학자 ② 외국어학자 ③ 인문사회과학자 ④ 이공학자 ⑤ 언론인 ⑥ 출판인 ⑦ 국어교육자 ⑧ 문인 ⑨ 기타 ()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 용역에 대해 의견을 여쭙어보겠습니다. 설문에 답하실 때 문장 부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나 느낌이 아닌 실제와 규정만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설문 (1)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1.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이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 ② 모른다.

2.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1. 문장 부호 규정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동기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까?

(2번 문항에서 '① 있다'에 응답하신 분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학교 교육을 통해
- ② 다른 사람의 소개에 의해
- ③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 ④ 기타

※ 다음 3~4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문장 부호 규정을 알고 있으시면, 글을 쓸 때 참고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규정을 잘 지키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현행 문장 부호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보기 중 문장 부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① 전문 영역에서 사용하는 부호 (예: 「무정」, 『무정』, 《무정》 등의 책이름(書名) 표시 기호 등)
- ② 수학 공식 등에 사용하는 부호 (예: +, -, ×, ÷ 등)
- ③ 이모티콘 (예 : ^^ 등)
- ④ 휴대폰 및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부호 (예: @, #, & 등)
- ⑤ 기타

※ 아래 표는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6~8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6. 다음의 각 문장 부호를 귀하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숫자를, 사용 빈도가 낮을수록 낮은 숫자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해 주십시오.

7. 다음의 각 문장 부호에 대해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1번, 모르고 있는 경우는 2번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의 각 문장 부호에 대해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번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 번	문항		6. 사용 빈도					7. 명칭을 알고 있다		8. 명칭이 부적절하다	
	문장 부호	명칭	1	2	3	4	5	1	2	1	2
1	.	온점	1	2	3	4	5	1	2	1	2
2	。	고리점 (세로쓰기)	1	2	3	4	5	1	2	1	2
3	?	물음표	1	2	3	4	5	1	2	1	2
4	!	느낌표	1	2	3	4	5	1	2	1	2
5	,	반점	1	2	3	4	5	1	2	1	2
6	、	모점 (세로쓰기)	1	2	3	4	5	1	2	1	2
7	.	가운뎃점	1	2	3	4	5	1	2	1	2
8	:	쌍점	1	2	3	4	5	1	2	1	2
9	/	빗금	1	2	3	4	5	1	2	1	2
10	“ ”	큰따옴표	1	2	3	4	5	1	2	1	2
11	『 』	겹낫표 (세로쓰기)	1	2	3	4	5	1	2	1	2
12	‘ ’	작은따옴 표	1	2	3	4	5	1	2	1	2
13	「 」	낫표 (세로쓰기)	1	2	3	4	5	1	2	1	2
14	()	소괄호	1	2	3	4	5	1	2	1	2
15	{ }	중괄호	1	2	3	4	5	1	2	1	2

16	()	대괄호	1	2	3	4	5	1	2	1	2
17	—	줄표	1	2	3	4	5	1	2	1	2
18	-	붙임표	1	2	3	4	5	1	2	1	2
19	~	물결표	1	2	3	4	5	1	2	1	2
20	; °	드러냄표	1	2	3	4	5	1	2	1	2
21	××, ○○	숨김표	1	2	3	4	5	1	2	1	2
22	□	빠짐표	1	2	3	4	5	1	2	1	2
23	……	줄임표	1	2	3	4	5	1	2	1	2

※ 다음은 문장 부호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9~13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온 점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1919. 3. 1.	①	②	③	④	⑤
10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반점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①	②	③	④	⑤
11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 ‘그리고, 그러나’ 뒤에는 반점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사랑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루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p>따은 말 가운데 다시 따은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작은따옴표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p> <p>(예)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p>	①	②	③	④	⑤
13	<p>겹낫표(『 』)와 낫표(「 」)가 각각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기능으로 세로쓰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p>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14~18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p>큰따옴표 또는 작은따옴표와 함께 ‘라고’ 등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따옴표 안에 들어간 문장 뒤에 온점(.)을 사용하십니까?</p> <p>온점(.)을 사용한 예: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온점(.)을 사용하지 않은 예: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p>	①	②	③	④	⑤
15	<p>말을 줄일 때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줄임표(……)를 사용하십니까?</p>	①	②	③	④	⑤
16	<p>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일(日) 뒤에 온점(.)을 사용하십니까?</p> <p>일(日) 뒤에 온점(.)을 사용한 예: 1919. 3. 1. 일(日) 뒤에 온점(.)을 사용하지 않은 예: 1919. 3. 1</p>	①	②	③	④	⑤

17	<p>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등록된 단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가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가운데점(·)을 사용하십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 남·여, 한·일, 직·간접, 육·해군</p> </div>	①	②	③	④	⑤
18	<p>‘내지’라는 뜻으로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사용하십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물결표(~)를 사용한 예: 5~10명, 4월 5일~4월 15일 붙임표(-)를 사용한 예: 5-10명, 4월 5일-4월 15일</p> </div>	①	②	③	④	⑤

19. 책이름(書名)을 표시할 때 어떤 부호를 사용하십니까?

- ① 큰따옴표 (“ ”) ② 겹낫표 (『 』) ③ 작은따옴표 (‘ ’)
 ④ 낫표 (「 」) ⑤ 소괄호 (()) ⑥ 중괄호 ({ })
 ⑦ 대괄호 ([]) ⑧ 기타 (< > , 《 》)

20. 글을 쓸 때 세미콜론(:)을 사용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2)**문장 부호 규정의 필요성**

※ 다음 21~23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21	글을 읽고 쓰는 데 문장 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2	문장 부호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3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설문 (3)**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 다음 24 ~ 25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스럽다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의 이름 중 부적절한 것이 있다.
- ②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의 사용법이 실제 사용과 다른 것이 있다.
- ③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 중 컴퓨터로 글을 쓸 때 부적절한 것이 있다.
- ④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빠진 경우가 있다.
- 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제시된 문장 부호의 수가 너무 많다.
- ⑥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제시된 문장 부호의 수가 너무 적다.
- ⑦ 기타

26. 향후 국어의 문장 부호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 별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세로쓰기에서 사용되었던 문장 부호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문장 부호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문장 부호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새로운 통신 수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에 대한 도입	①	②	③	④	⑤
5) 국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	①	②	③	④	⑤

27. 문장 부호 개정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문장 부호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홍보
- ② 문장 부호 개정의 재정적 기반 마련
- ③ 문장 부호 개정 관련 아이디어 모색
- ④ 대대적인 문장 부호 사용 실태 조사
- ⑤ 기타

설문 (4)

문장 부호 규정 개정에 의한 국민의 국어 사용 변화 정도

※ 다음은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다음 28 ~ 30번 문항에 대해 아래 표에 차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문장 부호 규정은 국민의 사용 양상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9	문장 부호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찾아보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0	문장 부호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1. 국어의 문장 부호 개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기여
- ② 다른 언어와의 경쟁력 강화
- ③ 문장 부호 사용을 통한 활발한 표현 수단 구축
- ④ 기타

32.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어 문장 부호 개정의 여건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개정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큰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33. 마지막으로 현행 문장 부호 규정 및 문장 부호 개정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점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기본 통계표

3.1. 전체 통계표

		문항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06	81.2	81.5	81.5
	2	92	18.4	18.5	100.0
	합계	498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4		
	합계	500	100.0		

		문항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63	52.6	52.6	52.6
	2	237	47.4	47.4	100.0
	합계	50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6	31.2	54.7	54.7
	2	3	0.6	1.1	55.8
	3	96	19.2	33.7	89.5
	4	30	6.0	10.5	100.0
	합계	285	57.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5	43.0		
	합계	500	100.0		

		문항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2	4.4	4.5	4.5
	2	58	11.6	11.9	16.4
	3	132	26.4	27.0	43.4
	4	219	43.8	44.8	88.1
	5	58	11.6	11.9	100.0
결측	합계	489	97.8	100.0	
	시스템 결측값	11	2.2		
	합계	500	100.0		

		문항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2.2	2.3	2.3
	2	35	7.0	7.2	9.4
	3	208	41.6	42.7	52.2
	4	192	38.4	39.4	91.6
	5	41	8.2	8.4	100.0
결측	합계	487	97.4	100.0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4	1.4	1.4
	2	1	0.2	0.2	1.6
	3	12	2.4	2.5	4.1
	4	31	6.2	6.4	10.5
	5	437	87.4	89.5	100.0
	합계	488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2.4		
	합계	500	100.0		

문항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83	76.6	79.5	79.5
	2	46	9.2	9.5	89.0
	3	22	4.4	4.6	93.6
	4	12	2.4	2.5	96.1
	5	19	3.8	3.9	100.0
	합계	482	96.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	3.6		
	합계	500	100.0		

문항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0.8	0.8	0.8
	2	3	0.6	0.6	1.4
	3	22	4.4	4.5	5.9
	4	67	13.4	13.7	19.7
	5	392	78.4	80.3	100.0
	합계	488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2.4		
	합계	500	100.0		

문항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2	1.2	1.2
	2	9	1.8	1.9	3.1
	3	48	9.6	9.9	13.0
	4	74	14.8	15.2	28.2
	5	349	69.8	71.8	100.0
	합계	486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2.8		
	합계	500	100.0		

문항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6	1.6	1.6
	2	6	1.2	1.2	2.9
	3	35	7.0	7.2	10.1

		4	84	16.8	17.2	27.3
		5	354	70.8	72.7	100.0
		합계	48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6-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68	73.6	76.2	76.2
	2	61	12.2	12.6	88.8
유효	3	31	6.2	6.4	95.2
	4	12	2.4	2.5	97.7
	5	11	2.2	2.3	100.0
	합계	483	96.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3.4	
	합계		500	100.0	

문항6-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8	5.6	5.7	5.7
	2	50	10.0	10.3	16.0
유효	3	165	33.0	33.9	49.9
	4	123	24.6	25.3	75.2
	5	121	24.2	24.8	100.0
	합계	48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6-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2	4.4	4.5	4.5
	2	59	11.8	12.2	16.7
유효	3	154	30.8	31.8	48.5
	4	145	29.0	29.9	78.4
	5	105	21.0	21.6	100.0
	합계	485	97.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3.0	
	합계		500	100.0	

문항6-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0	4.0	4.1	4.1
	2	85	17.0	17.5	21.6
유효	3	153	30.6	31.5	53.2
	4	118	23.6	24.3	77.5
	5	109	21.8	22.5	100.0
	합계	485	97.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3.0	
	합계		500	100.0	

문항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1.0	1.0	1.0
	2	26	5.2	5.3	6.4
	3	69	13.8	14.2	20.5
	4	145	29.0	29.8	50.3
	5	242	48.4	49.7	100.0
	합계	48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0	22.0	22.6	22.6
	2	115	23.0	23.6	46.2
	3	123	24.6	25.3	71.5
	4	81	16.2	16.6	88.1
	5	58	11.6	11.9	100.0
	합계	48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6	1.6	1.6
	2	24	4.8	4.9	6.6
	3	73	14.6	15.0	21.6
	4	174	34.8	35.8	57.4
	5	207	41.4	42.6	100.0
	합계	486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2.8		
	합계	500	100.0		

문항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5	21.0	21.7	21.7
	2	116	23.2	24.0	45.7
	3	124	24.8	25.6	71.3
	4	81	16.2	16.7	88.0
	5	58	11.6	12.0	100.0
	합계	484	96.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6	3.2		
	합계	500	100.0		

문항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6	1.6	1.6
	2	14	2.8	2.9	4.5
	3	73	14.6	15.1	19.6
	4	161	32.2	33.2	52.8

	5	229	45.8	47.2	100.0
	합계	485	97.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3.0		
	합계	500	100.0		

문항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78	15.6	16.1	16.1
	2	126	25.2	26.1	42.2
유효	3	119	23.8	24.6	66.9
	4	84	16.8	17.4	84.3
	5	76	15.2	15.7	100.0
	합계	483	96.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3.4		
	합계	500	100.0		

문항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9	11.8	12.3	12.3
	2	122	24.4	25.4	37.6
유효	3	121	24.2	25.2	62.8
	4	96	19.2	20.0	82.7
	5	83	16.6	17.3	100.0
	합계	481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	3.8		
	합계	500	100.0		

문항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7	7.4	7.7	7.7
	2	79	15.8	16.5	24.2
유효	3	143	28.6	29.9	54.1
	4	123	24.6	25.7	79.7
	5	97	19.4	20.3	100.0
	합계	479	95.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	4.2		
	합계	500	100.0		

문항6-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65	13.0	13.7	13.7
	2	107	21.4	22.5	36.2
유효	3	153	30.6	32.2	68.4
	4	95	19.0	20.0	88.4
	5	55	11.0	11.6	100.0
	합계	475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5	5.0		
	합계	500	100.0		

문항6-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9	3.8	4.0	4.0
	2	40	8.0	8.4	12.3
	3	106	21.2	22.2	34.5
	4	157	31.4	32.8	67.4
	5	156	31.2	32.6	100.0
	합계	478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4.4		
	합계	500	100.0		

문항6-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9	61.8	65.3	65.3
	2	96	19.2	20.3	85.6
	3	44	8.8	9.3	94.9
	4	15	3.0	3.2	98.1
	5	9	1.8	1.9	100.0
	합계	473	94.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7	5.4		
	합계	500	100.0		

문항6-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45	49.0	51.5	51.5
	2	108	21.6	22.7	74.2
	3	78	15.6	16.4	90.5
	4	25	5.0	5.3	95.8
	5	20	4.0	4.2	100.0
	합계	476	95.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4	4.8		
	합계	500	100.0		

문항6-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7	61.4	64.2	64.2
	2	90	18.0	18.8	83.1
	3	53	10.6	11.1	94.1
	4	15	3.0	3.1	97.3
	5	13	2.6	2.7	100.0
	합계	478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4.4		
	합계	500	100.0		

문항6-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	3.4	3.6	3.6
	2	38	7.6	8.0	11.6
	3	136	27.2	28.6	40.1
	4	127	25.4	26.7	66.8
	5	158	31.6	33.2	100.0

	합계	476	95.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4	4.8	
	합계	500	100.0	

문항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94	78.8	81.4	81.4
유효	2	90	18.0	18.6	100.0
	합계	484	96.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6	3.2		
	합계	500	100.0		

문항7-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7	17.4	17.9	17.9
유효	2	398	79.6	82.1	100.0
	합계	485	97.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3.0		
	합계	500	100.0		

문항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64	92.8	95.1	95.1
유효	2	24	4.8	4.9	100.0
	합계	488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2.4		
	합계	500	100.0		

문항7-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59	91.8	95.0	95.0
유효	2	24	4.8	5.0	100.0
	합계	483	96.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3.4		
	합계	500	100.0		

문항7-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45	69.0	71.1	71.1
유효	2	140	28.0	28.9	100.0
	합계	485	97.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3.0		
	합계	500	100.0		

문항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2	16.4	16.9	16.9
유효	2	403	80.6	83.1	100.0
	합계	485	97.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3.0		

합계		500	100.0		
----	--	-----	-------	--	--

문항7-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46	69.2	71.0	71.0
	2	141	28.2	29.0	100.0
	합계	48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74	54.8	56.1	56.1
	2	214	42.8	43.9	100.0
	합계	488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2.4		
	합계	500	100.0		

문항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90	78.0	79.9	79.9
	2	98	19.6	20.1	100.0
	합계	488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2.4		
	합계	500	100.0		

문항7-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53	90.6	93.0	93.0
	2	34	6.8	7.0	100.0
	합계	48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2	30.4	31.3	31.3
	2	334	66.8	68.7	100.0
	합계	486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2.8		
	합계	500	100.0		

문항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50	90.0	92.6	92.6
	2	36	7.2	7.4	100.0
	합계	486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2.8		
	합계	500	100.0		

문항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4	28.8	29.7	29.7
	2	341	68.2	70.3	100.0
	합계	485	97.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3.0		
	합계	500	100.0		

문항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37	87.4	89.5	89.5
	2	51	10.2	10.5	100.0
	합계	488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2.4		
	합계	500	100.0		

문항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25	85.0	87.3	87.3
	2	62	12.4	12.7	100.0
	합계	48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30	86.0	88.5	88.5
	2	56	11.2	11.5	100.0
	합계	486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2.8		
	합계	500	100.0		

문항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49	49.8	51.1	51.1
	2	238	47.6	48.9	100.0
	합계	48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80	36.0	37.2	37.2
	2	304	60.8	62.8	100.0
	합계	484	96.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6	3.2		
	합계	500	100.0		

문항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1	417	83.4	85.6	85.6
유효	2	70	14.0	14.4	100.0
	합계	48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78	15.6	16.0	16.0
유효	2	408	81.6	84.0	100.0
	합계	486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2.8		
	합계	500	100.0		

문항7-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9	23.8	24.6	24.6
유효	2	364	72.8	75.4	100.0
	합계	483	96.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3.4		
	합계	500	100.0		

문항7-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93	18.6	19.3	19.3
유효	2	390	78.0	80.7	100.0
	합계	483	96.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3.4		
	합계	500	100.0		

문항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17	83.4	85.8	85.8
유효	2	69	13.8	14.2	100.0
	합계	486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2.8		
	합계	500	100.0		

문항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54	30.8	32.2	32.2
유효	2	324	64.8	67.8	100.0
	합계	478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4.4		
	합계	500	100.0		

문항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76	55.2	57.7	57.7
유효	2	202	40.4	42.3	100.0

	합계	478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4.4	
	합계	500	100.0	

문항8-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62	12.4	13.0	13.0
유효	2	415	83.0	87.0	100.0
	합계	477	95.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4.6		
	합계	500	100.0		

문항8-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64	12.8	13.4	13.4
유효	2	414	82.8	86.6	100.0
	합계	478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4.4		
	합계	500	100.0		

문항8-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73	34.6	36.3	36.3
유효	2	304	60.8	63.7	100.0
	합계	477	95.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4.6		
	합계	500	100.0		

문항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81	56.2	58.9	58.9
유효	2	196	39.2	41.1	100.0
	합계	477	95.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4.6		
	합계	500	100.0		

문항8-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73	14.6	15.3	15.3
유효	2	404	80.8	84.7	100.0
	합계	477	95.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4.6		
	합계	500	100.0		

문항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05	21.0	22.1	22.1
유효	2	371	74.2	77.9	100.0
	합계	476	95.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4	4.8		

합계		500	100.0		
----	--	-----	-------	--	--

문항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7	17.4	18.2	18.2
	2	389	77.8	81.6	99.8
	22	1	0.2	0.2	100.0
	합계	477	95.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4.6		
	합계	500	100.0		

문항8-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8	15.6	16.3	16.3
	2	400	80.0	83.7	100.0
	합계	478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4.4		
	합계	500	100.0		

문항8-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17	43.4	45.9	45.9
	2	256	51.2	54.1	100.0
	합계	473	94.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7	5.4		
	합계	500	100.0		

문항8-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9	13.8	14.5	14.5
	2	406	81.2	85.5	100.0
	합계	475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5	5.0		
	합계	500	100.0		

문항8-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12	42.4	44.7	44.7
	2	262	52.4	55.3	100.0
	합계	474	94.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6	5.2		
	합계	500	100.0		

문항8-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4	14.8	15.4	15.4
	2	405	81.0	84.6	100.0
	합계	479	95.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	4.2		
	합계	500	100.0		

문항8-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2	18.4	19.2	19.2
	2	386	77.2	80.8	100.0
	합계	478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4.4		
	합계	500	100.0		

문항8-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2	18.4	19.2	19.2
	2	386	77.2	80.8	100.0
	합계	478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4.4		
	합계	500	100.0		

문항8-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1	26.2	27.6	27.6
	2	344	68.8	72.4	100.0
	합계	475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5	5.0		
	합계	500	100.0		

문항8-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83	36.6	38.5	38.5
	2	292	58.4	61.5	100.0
	합계	475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5	5.0		
	합계	500	100.0		

문항8-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8	17.6	18.4	18.4
	2	391	78.2	81.6	100.0
	합계	479	95.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	4.2		
	합계	500	100.0		

문항8-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86	57.2	60.0	60.0
	2	191	38.2	40.0	100.0
	합계	477	95.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4.6		
	합계	500	100.0		

문항8-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95	39.0	41.1	41.1
유효	2	280	56.0	58.9	100.0
	합계	475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5	5.0		
	합계	500	100.0		

문항8-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31	46.2	48.5	48.5
유효	2	245	49.0	51.5	100.0
	합계	476	95.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4	4.8		
	합계	500	100.0		

문항8-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9	17.8	18.6	18.6
유효	2	389	77.8	81.4	100.0
	합계	478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4.4		
	합계	500	100.0		

문항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	0.8	0.8	0.8
	2	14	2.8	2.8	3.6
유효	3	32	6.4	6.4	10.0
	4	162	32.4	32.5	42.6
	5	286	57.2	57.4	100.0
	합계	498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4		
	합계	500	100.0		

문항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7	3.4	3.4	3.4
	2	59	11.8	11.9	15.3
유효	3	75	15.0	15.1	30.4
	4	143	28.6	28.8	59.2
	5	203	40.6	40.8	100.0
	합계	497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0.6		
	합계	500	100.0		

문항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3	2.6	2.6	2.6
유효	2	54	10.8	10.9	13.5
	3	69	13.8	13.9	27.4

		4	123	24.6	24.7	52.1
		5	238	47.6	47.9	100.0
		합계	497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0.6		
	합계		500	100.0		

문항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9	3.8	3.8
		2	43	8.6	12.4
유효		3	58	11.6	24.1
		4	140	28.0	52.2
		5	238	47.6	100.0
	합계	498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4	
	합계		500	100.0	

문항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49	29.8	30.0
		2	153	30.6	60.8
유효		3	79	15.8	76.7
		4	54	10.8	87.5
		5	62	12.4	100.0
	합계	497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0.6	
	합계		500	100.0	

문항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60	12.0	12.1
		2	103	20.6	32.8
유효		3	53	10.6	43.5
		4	165	33.0	76.7
		5	116	23.2	100.0
	합계	497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0.6	
	합계		500	100.0	

문항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5	5.0	5.0
		2	73	14.6	19.7
유효		3	76	15.2	35.0
		4	137	27.4	62.6
		5	186	37.2	100.0
	합계	497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0.6	
	합계		500	100.0	

문항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1	10.2	10.2	10.2
	2	103	20.6	20.7	30.9
	3	41	8.2	8.2	39.2
	4	129	25.8	25.9	65.1
	5	174	34.8	34.9	100.0
	합계	498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4		
	합계	500	100.0		

문항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5	11.0	11.0	11.0
	2	89	17.8	17.9	28.9
	3	81	16.2	16.3	45.2
	4	145	29.0	29.1	74.3
	5	128	25.6	25.7	100.0
	합계	498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4		
	합계	500	100.0		

문항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2	18.4	18.5	18.5
	2	149	29.8	29.9	48.4
	3	93	18.6	18.7	67.1
	4	98	19.6	19.7	86.7
	5	66	13.2	13.3	100.0
	합계	498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4		
	합계	500	100.0		

문항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2	22.4	22.5	22.5
	2	207	41.4	41.6	64.1
	3	116	23.2	23.3	87.3
	4	56	11.2	11.2	98.6
	5	7	1.4	1.4	100.0
	합계	498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4		
	합계	5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3	0.6	0.6	0.6
	3	33	6.6	6.7	7.3
	4	233	46.6	47.2	54.5
	5	225	45.0	45.5	100.0

	합계	494	9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2	
	합계	500	100.0	

문항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0.2	0.2	0.2
	2	5	1.0	1.0	1.2
유효	3	39	7.8	7.9	9.1
	4	225	45.0	45.5	54.7
	5	224	44.8	45.3	100.0
	합계	494	9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2		
	합계	500	100.0		

문항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3	6.6	6.7	6.7
	2	206	41.2	41.9	48.6
유효	3	155	31.0	31.5	80.1
	4	80	16.0	16.3	96.3
	5	18	3.6	3.7	100.0
	합계	492	98.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1.6		
	합계	500	100.0		

문항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	0.8	0.8	0.8
	2	52	10.4	10.5	11.4
유효	3	244	48.8	49.5	60.9
	4	189	37.8	38.3	99.2
	5	4	0.8	0.8	100.0
	합계	493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1.4		
	합계	500	100.0		

문항2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2	6.4	6.6	6.6
	2	121	24.2	25.1	31.7
유효	3	119	23.8	24.6	56.3
	4	141	28.2	29.2	85.5
	5	70	14.0	14.5	100.0
	합계	483	96.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3.4		
	합계	500	100.0		

문항2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1	6	1.2	1.2	1.2
	2	27	5.4	5.5	6.8
	3	61	12.2	12.5	19.3
유효	4	249	49.8	51.0	70.3
	5	145	29.0	29.7	100.0
	합계	488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2.4		
	합계	500	100.0		

문항2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2.2	2.3	2.3
	2	46	9.2	9.4	11.7
	3	72	14.4	14.8	26.5
유효	4	240	48.0	49.3	75.8
	5	118	23.6	24.2	100.0
	합계	48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6		
	합계	500	100.0		

문항2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9	3.8	3.9	3.9
	2	94	18.8	19.3	23.2
	3	125	25.0	25.6	48.8
유효	4	167	33.4	34.2	83.0
	5	83	16.6	17.0	100.0
	합계	488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2.4		
	합계	500	100.0		

문항2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0	2.0	2.1	2.1
	2	48	9.6	9.9	12.0
	3	185	37.0	38.2	50.2
유효	4	202	40.4	41.7	91.9
	5	39	7.8	8.1	100.0
	합계	484	96.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6	3.2		
	합계	500	100.0		

문항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70	34.0	34.4	34.4
	2	16	3.2	3.2	37.7
	3	57	11.4	11.5	49.2
유효	4	240	48.0	48.6	97.8
	5	10	2.0	2.0	99.8
	합계	494	9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1.2
	합계	500	100.0

문항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4	1.4	1.4
	2	50	10.0	10.0	11.4
	3	106	21.2	21.3	32.7
	4	264	52.8	53.0	85.7
	5	71	14.2	14.3	100.0
	합계	498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4		
	합계	500	100.0		

문항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0	4.0	4.0	4.0
	2	72	14.4	14.5	18.5
	3	116	23.2	23.3	41.9
	4	204	40.8	41.0	82.9
	5	85	17.0	17.1	100.0
	합계	497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0.6		
	합계	500	100.0		

문항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4	1.4	1.4
	2	13	2.6	2.6	4.0
	3	108	21.6	21.8	25.9
	4	273	54.6	55.2	81.0
	5	94	18.8	19.0	100.0
	합계	495	99.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1.0		
	합계	500	100.0		

문항3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24	44.8	45.0	45.0
	2	19	3.8	3.8	48.8
	3	236	47.2	47.4	96.2
	4	19	3.8	3.8	100.0
		합계	498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4		
	합계	500	100.0		

문항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8	5.6	5.7	5.7
	2	146	29.2	29.6	35.2

	3	230	46.0	46.6	81.8
	4	76	15.2	15.4	97.2
	5	14	2.8	2.8	100.0
	합계	494	9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2		
	합계	500	100.0		

Group \$문항5					
Category label		Cod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1	450	63.5	91.1
		2	134	18.9	27.1
		3	24	3.4	4.9
		4	74	10.4	15.0
		5	27	3.8	5.5
			-----	-----	-----
		Total responses	709	100.0	143.5

Group \$문항19					
Category label		Cod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1	41	9.1	9.4
		2	302	66.7	68.9
		3	31	6.8	7.1
		4	76	16.8	17.4
		5	3	.7	.7
			-----	-----	-----
		Total responses	453	100.0	103.4

Group \$문항25					
Category label		Cod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1	92	22.6	25.1
		2	155	38.1	42.2
		3	55	13.5	15.0
		4	16	3.9	4.4
		5	89	21.9	24.3
			-----	-----	-----
		Total responses	407	100.0	110.9

3.2. 국어학자 집단 통계표

		문항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6	93.3	93.3	93.3
	2	4	6.7	6.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8	80.0	80.0	80.0
	2	12	20.0	20.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41.7	50.0	50.0
	2	1	1.7	2.0	52.0
	3	17	28.3	34.0	86.0
	4	7	11.7	14.0	100.0
	합계	50	8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	16.7		
	합계	60	100.0		

		문항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5	8.3	8.3	8.3
	3	17	28.3	28.3	36.7
	4	31	51.7	51.7	88.3
	5	7	11.7	1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3	5.0	5.3	5.3
	3	24	40.0	42.1	47.4
	4	23	38.3	40.4	87.7
	5	7	11.7	12.3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2	5.2
	4	4	6.7	6.9	12.1
	5	51	85.0	87.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8	80.0	82.8	82.8
	2	3	5.0	5.2	87.9
	3	2	3.3	3.4	91.4
	4	1	1.7	1.7	93.1
	5	4	6.7	6.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4	3.4
	2	1	1.7	1.7	5.1
	3	2	3.3	3.4	8.5
	4	5	8.3	8.5	16.9
	5	49	81.7	83.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2	3.3	3.4	5.1
	3	5	8.3	8.5	13.6
	4	9	15.0	15.3	28.8
	5	42	70.0	71.2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4	3.4
	3	3	5.0	5.1	8.5
	4	6	10.0	10.2	18.6
	5	48	80.0	81.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5	75.0	77.6	77.6
	2	6	10.0	10.3	87.9
	3	3	5.0	5.2	93.1
	4	2	3.3	3.4	96.6

	5	2	3.3	3.4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5.0	5.1	5.1
	2	4	6.7	6.8	11.9
유효	3	17	28.3	28.8	40.7
	4	20	33.3	33.9	74.6
	5	15	25.0	25.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1.7	1.7	1.7
	2	9	15.0	15.3	16.9
유효	3	16	26.7	27.1	44.1
	4	16	26.7	27.1	71.2
	5	17	28.3	28.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3.3	3.4	3.4
	2	5	8.3	8.5	11.9
유효	3	19	31.7	32.2	44.1
	4	17	28.3	28.8	72.9
	5	16	26.7	27.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3.3	3.4	3.4
	2	2	3.3	3.4	6.8
유효	3	7	11.7	11.9	18.6
	4	20	33.3	33.9	52.5
	5	28	46.7	47.5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5.0	15.3	15.3
	2	14	23.3	23.7	39.0
	3	15	25.0	25.4	64.4
	4	11	18.3	18.6	83.1
	5	10	16.7	16.9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2	5.2
	3	5	8.3	8.6	13.8
	4	19	31.7	32.8	46.6
	5	31	51.7	53.4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5.0	15.5	15.5
	2	11	18.3	19.0	34.5
	3	18	30.0	31.0	65.5
	4	14	23.3	24.1	89.7
	5	6	10.0	10.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4	3.4
	2	1	1.7	1.7	5.2
	3	9	15.0	15.5	20.7
	4	16	26.7	27.6	48.3
	5	30	50.0	51.7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1.9	11.9
	2	11	18.3	18.6	30.5
	3	21	35.0	35.6	66.1
	4	9	15.0	15.3	81.4
	5	11	18.3	18.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8.3	8.5	8.5
	2	13	21.7	22.0	30.5
	3	19	31.7	32.2	62.7
	4	11	18.3	18.6	81.4
	5	11	18.3	18.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8.3	8.5	8.5
	2	7	11.7	11.9	20.3
	3	18	30.0	30.5	50.8
	4	14	23.3	23.7	74.6
	5	15	25.0	25.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1.9	11.9
	2	11	18.3	18.6	30.5
	3	17	28.3	28.8	59.3
	4	15	25.0	25.4	84.7
	5	9	15.0	15.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4	3.4
	2	5	8.3	8.5	11.9
	3	13	21.7	22.0	33.9
	4	20	33.3	33.9	67.8
	5	19	31.7	32.2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3	55.0	56.9	56.9

		2	11	18.3	19.0	75.9
		3	11	18.3	19.0	94.8
		4	2	3.3	3.4	98.3
		5	1	1.7	1.7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6	43.3	44.1
		2	17	28.3	72.9
유효		3	14	23.3	96.6
		4	1	1.7	98.3
		5	1	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9	65.0	66.1
		2	8	13.3	79.7
유효		3	11	18.3	98.3
		5	1	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9	15.0	15.3
		3	18	30.0	45.8
유효		4	15	25.0	71.2
		5	17	28.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9	81.7	84.5
유효		2	9	15.0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18.3	19.3	19.3

	2	46	76.7	80.7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4	90.0	93.1	93.1
유효	2	4	6.7	6.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3	88.3	93.0	93.0
유효	2	4	6.7	7.0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1	68.3	70.7	70.7
유효	2	17	28.3	29.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2	20.0	20.7	20.7
유효	2	46	76.7	79.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0	66.7	69.0	69.0
유효	2	18	30.0	31.0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2	53.3	55.2	55.2
유효	2	26	43.3	44.8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5	75.0	77.6	77.6
유효	2	13	21.7	22.4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3	88.3	91.4	91.4
유효	2	5	8.3	8.6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4	40.0	41.4	41.4
유효	2	34	56.7	58.6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3	88.3	91.4	91.4
유효	2	5	8.3	8.6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4	40.0	41.4	41.4
유효	2	34	56.7	58.6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3	88.3	91.4	91.4
유효	2	5	8.3	8.6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0	83.3	86.2	86.2
	2	8	13.3	13.8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2	86.7	89.7	89.7
	2	6	10.0	10.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9	48.3	50.0	50.0
	2	29	48.3	50.0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	50.0	51.7	51.7
	2	28	46.7	48.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9	81.7	84.5	84.5
	2	9	15.0	15.5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5.0	15.5	15.5
	2	49	81.7	84.5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	----	-------

문항7-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	23.3	24.1	24.1
	2	44	73.3	75.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	23.3	24.1	24.1
	2	44	73.3	75.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4	90.0	93.1	93.1
	2	4	6.7	6.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8	30.0	32.1	32.1
	2	38	63.3	67.9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6	43.3	45.6	45.6
	2	31	51.7	54.4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3.3	14.5	14.5
	2	47	78.3	85.5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2.7	12.7
	2	48	80.0	87.3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	28.3	30.9	30.9
	2	38	63.3	69.1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9	48.3	50.9	50.9
	2	28	46.7	49.1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8.2	18.2
	2	45	75.0	81.8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0.0	21.8	21.8
	2	43	71.7	78.2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8.2	18.2
	2	44	73.3	80.0	98.2
	22	1	1.7	1.8	100.0
결측	합계	55	91.7	100.0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8.2	18.2
	2	45	75.0	81.8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2	36.7	40.0	40.0
	2	33	55.0	60.0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8.2	18.2
	2	45	75.0	81.8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0	33.3	36.4	36.4
	2	35	58.3	63.6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18.3	20.0	20.0
	2	44	73.3	80.0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0.0	21.8	21.8
	2	43	71.7	78.2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	23.3	25.5	25.5
	2	41	68.3	74.5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6	26.7	29.1	29.1
	2	39	65.0	70.9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0	33.3	36.4	36.4
	2	35	58.3	63.6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18.3	20.0	20.0
	2	44	73.3	80.0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41.7	45.5	45.5
	2	30	50.0	54.5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	23.3	25.5	25.5
	2	41	68.3	74.5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1	35.0	38.2	38.2
	2	34	56.7	61.8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	23.3	25.5	25.5
	2	41	68.3	74.5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2	3.3	3.3	3.3
	3	4	6.7	6.7	10.0
	4	16	26.7	26.7	36.7
	5	38	63.3	6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7	11.7	11.7	11.7
	3	3	5.0	5.0	16.7
	4	18	30.0	30.0	46.7
	5	32	53.3	5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5	8.3	8.3	8.3
	3	8	13.3	13.3	21.7
	4	10	16.7	16.7	38.3
	5	37	61.7	6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0	5.0
	2	3	5.0	5.0	10.0
	3	5	8.3	8.3	18.3
	4	15	25.0	25.0	43.3
	5	34	56.7	56.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	21.7	22.0	22.0
	2	18	30.0	30.5	52.5
	3	10	16.7	16.9	69.5
	4	7	11.7	11.9	81.4
	5	11	18.3	18.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4	3.4
	2	13	21.7	22.0	25.4
	3	9	15.0	15.3	40.7
	4	19	31.7	32.2	72.9
	5	16	26.7	27.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4	6.7	6.7	8.3
	3	10	16.7	16.7	25.0
	4	18	30.0	30.0	55.0
	5	27	45.0	45.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0	5.0
	2	8	13.3	13.3	18.3
	3	7	11.7	11.7	30.0
	4	17	28.3	28.3	58.3
	5	25	41.7	4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1.7	11.7
	2	9	15.0	15.0	26.7
	3	11	18.3	18.3	45.0
	4	21	35.0	35.0	80.0
	5	12	20.0	20.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유효	1	6	10.0	10.0	10.0
	2	15	25.0	25.0	35.0
	3	18	30.0	30.0	65.0
	4	11	18.3	18.3	83.3
	5	10	16.7	16.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18.3	18.3	18.3
	2	30	50.0	50.0	68.3
	3	12	20.0	20.0	88.3
	4	7	11.7	1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1	1.7	1.7	1.7
	3	5	8.3	8.3	10.0
	4	23	38.3	38.3	48.3
	5	31	51.7	5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5	8.3	8.3	8.3
	4	21	35.0	35.0	43.3
	5	34	56.7	56.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0	5.0
	2	29	48.3	48.3	53.3
	3	18	30.0	30.0	83.3
	4	8	13.3	13.3	96.7
	5	2	3.3	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8	13.3	13.3	13.3
	3	23	38.3	38.3	51.7
	4	29	48.3	48.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0	5.0

	2	20	33.3	33.3	38.3
	3	15	25.0	25.0	63.3
	4	16	26.7	26.7	90.0
	5	6	10.0	10.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5	8.3	8.3	8.3
	3	7	11.7	11.7	20.0
	4	31	51.7	51.7	71.7
	5	17	28.3	28.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11	18.3	18.3	18.3
	3	6	10.0	10.0	28.3
	4	31	51.7	51.7	80.0
	5	12	20.0	20.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6.7	6.7	6.7
	2	11	18.3	18.3	25.0
	3	15	25.0	25.0	50.0
	4	23	38.3	38.3	88.3
	5	7	11.7	1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4	6.7	6.7	8.3
	3	17	28.3	28.3	36.7
	4	35	58.3	58.3	95.0
	5	3	5.0	5.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	28.3	28.3	28.3
	2	3	5.0	5.0	33.3
	3	7	11.7	11.7	45.0
	4	31	51.7	51.7	96.7
	5	2	3.3	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6	10.0	10.0	11.7
	3	18	30.0	30.0	41.7
	4	31	51.7	51.7	93.3
	5	4	6.7	6.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2	3.3	3.3	5.0
	3	17	28.3	28.3	33.3
	4	29	48.3	48.3	81.7
	5	11	18.3	18.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2	3.3	3.3	3.3
	3	10	16.7	16.7	20.0
	4	40	66.7	66.7	86.7
	5	8	13.3	1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3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5	58.3	58.3	58.3
	2	3	5.0	5.0	63.3
	3	20	33.3	33.3	96.7
	4	2	3.3	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2	5.2
	2	11	18.3	19.0	24.1
	3	30	50.0	51.7	75.9
	4	14	23.3	24.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Group \$문항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55	58.5	91.7	
	2	16	17.0	26.7	
	3	6	6.4	10.0	
	4	13	13.8	21.7	
	5	4	4.3	6.7	
		-----	-----	-----	
Total responses		94	100.0	156.7	

Group \$문항19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2	3.8	4.1	
	2	36	69.2	73.5	
	3	3	5.8	6.1	
	4	11	21.2	22.4	
		-----	-----	-----	
Total responses		52	100.0	106.1	

Group \$문항2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10	18.5	21.7	
	2	26	48.1	56.5	
	3	8	14.8	17.4	
	4	3	5.6	6.5	
	5	7	13.0	15.2	
		-----	-----	-----	
Total responses		54	100.0	117.4	

3.3. 외국어학자 집단 통계표

		문항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1	82.0	82.0	82.0
	2	9	18.0	1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50.0	50.0	50.0
	2	25	50.0	5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4.0	44.4	44.4
	3	8	16.0	29.6	74.1
	4	7	14.0	25.9	100.0
	합계	27	5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46.0		
	합계	50	100.0		

		문항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1	2.1
	2	5	10.0	10.4	12.5
	3	13	26.0	27.1	39.6
	4	23	46.0	47.9	87.5
	5	6	12.0	12.5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2	4.0	4.1	4.1
	3	24	48.0	49.0	53.1
	4	17	34.0	34.7	87.8
	5	6	12.0	12.2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1	2.0	2.0	2.0
	4	5	10.0	10.2	12.2
	5	43	86.0	87.8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3	66.0	70.2	70.2
	2	4	8.0	8.5	78.7
	3	5	10.0	10.6	89.4
	4	2	4.0	4.3	93.6
	5	3	6.0	6.4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2	4.0	4.2	4.2
	4	10	20.0	20.8	25.0
	5	36	72.0	75.0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5	10.0	10.6	10.6
	4	9	18.0	19.1	29.8
	5	33	66.0	70.2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1	2.1
	2	1	2.0	2.1	4.2
	3	1	2.0	2.1	6.3
	4	11	22.0	22.9	29.2
	5	34	68.0	70.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2	64.0	66.7	66.7
	2	8	16.0	16.7	83.3
	3	6	12.0	12.5	95.8
	4	2	4.0	4.2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	10.0	10.4	10.4
	2	9	18.0	18.8	29.2
유효	3	17	34.0	35.4	64.6
	4	11	22.0	22.9	87.5
	5	6	12.0	12.5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6	12.0	12.8	12.8
	2	5	10.0	10.6	23.4
유효	3	19	38.0	40.4	63.8
	4	11	22.0	23.4	87.2
	5	6	12.0	12.8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6-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6.0	6.3	6.3
	2	10	20.0	20.8	27.1
유효	3	15	30.0	31.3	58.3
	4	11	22.0	22.9	81.3
	5	9	18.0	18.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3	6.0	6.3	6.3
	3	5	10.0	10.4	16.7
유효	4	17	34.0	35.4	52.1
	5	23	46.0	47.9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	30.0	31.3	31.3
	2	11	22.0	22.9	54.2

		3	11	22.0	22.9	77.1
		4	8	16.0	16.7	93.8
		5	3	6.0	6.3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4.0	4.2
		2	2	4.0	8.3
유효		3	12	24.0	33.3
		4	15	30.0	64.6
		5	17	34.0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0	20.0	20.8
		2	13	26.0	47.9
유효		3	17	34.0	83.3
		4	5	10.0	93.8
		5	3	6.0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4.0	4.2
		2	1	2.0	6.3
유효		3	6	12.0	18.8
		4	18	36.0	56.3
		5	21	42.0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	16.0	16.7
		2	10	20.0	37.5
유효		3	9	18.0	56.3
		4	13	26.0	83.3
		5	8	16.0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2.0	12.5	12.5
	2	11	22.0	22.9	35.4
	3	10	20.0	20.8	56.3
	4	13	26.0	27.1	83.3
	5	8	16.0	16.7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4.0	14.6	14.6
	2	5	10.0	10.4	25.0
	3	13	26.0	27.1	52.1
	4	17	34.0	35.4	87.5
	5	6	12.0	12.5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22.0	22.9	22.9
	2	10	20.0	20.8	43.8
	3	14	28.0	29.2	72.9
	4	7	14.0	14.6	87.5
	5	6	12.0	12.5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2.0	12.5	12.5
	2	4	8.0	8.3	20.8
	3	9	18.0	18.8	39.6
	4	17	34.0	35.4	75.0
	5	12	24.0	25.0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2	64.0	66.7	66.7
	2	7	14.0	14.6	81.3
	3	5	10.0	10.4	91.7

		4	3	6.0	6.3	97.9
		5	1	2.0	2.1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3	46.0	47.9
		2	9	18.0	66.7
유효		3	10	20.0	87.5
		4	2	4.0	91.7
		5	4	8.0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9	58.0	60.4
		2	9	18.0	79.2
유효		3	7	14.0	93.8
		4	1	2.0	95.8
		5	2	4.0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1
		2	1	2.0	4.2
유효		3	20	40.0	45.8
		4	13	26.0	72.9
		5	13	26.0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8	96.0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22.0	22.9	22.9
유효	2	37	74.0	77.1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7	94.0	97.9	97.9
	2	1	2.0	2.1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7	94.0	97.9	97.9
	2	1	2.0	2.1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1	82.0	85.4	85.4
	2	7	14.0	14.6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8.0	18.8	18.8
	2	39	78.0	81.3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4	68.0	70.8	70.8
	2	14	28.0	29.2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2	64.0	66.7	66.7
	2	16	32.0	33.3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	--	----	-------	--	--

문항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3	86.0	89.6	89.6
	2	5	10.0	10.4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6	92.0	95.8	95.8
	2	2	4.0	4.2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	28.0	29.2	29.2
	2	34	68.0	70.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7	94.0	97.9	97.9
	2	1	2.0	2.1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22.0	22.9	22.9
	2	37	74.0	77.1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3	86.0	89.6	89.6
	2	5	10.0	10.4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4	88.0	91.7	91.7
	2	4	8.0	8.3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4	88.0	91.7	91.7
	2	4	8.0	8.3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	60.0	62.5	62.5
	2	18	36.0	37.5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	30.0	31.3	31.3
	2	33	66.0	68.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1	82.0	85.4	85.4
	2	7	14.0	14.6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20.0	20.8	20.8
	2	38	76.0	79.2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	34.0	35.4	35.4
	2	31	62.0	64.6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20.0	20.8	20.8
	2	38	76.0	79.2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2	84.0	87.5	87.5
	2	6	12.0	12.5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	30.0	31.9	31.9
	2	32	64.0	68.1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3	66.0	70.2	70.2
	2	14	28.0	29.8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8.0	8.5	8.5
	2	43	86.0	91.5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	8.0	8.5	8.5
유효	2	43	86.0	91.5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22.0	23.4	23.4
유효	2	36	72.0	76.6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8	56.0	59.6	59.6
유효	2	19	38.0	40.4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6.0	6.4	6.4
유효	2	44	88.0	93.6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	16.0	17.0	17.0
유효	2	39	78.0	83.0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	10.0	10.6	10.6
유효	2	42	84.0	89.4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1	3	6.0	6.4	6.4
유효	2	44	88.0	93.6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9	38.0	40.4	40.4
유효	2	28	56.0	59.6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6.0	6.4	6.4
유효	2	44	88.0	93.6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7	34.0	36.2	36.2
유효	2	30	60.0	63.8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6.0	6.4	6.4
유효	2	44	88.0	93.6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6.0	6.4	6.4
유효	2	44	88.0	93.6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6.0	6.4	6.4

	2	44	88.0	93.6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	16.0	17.0	17.0
유효	2	39	78.0	83.0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2	24.0	25.5	25.5
유효	2	35	70.0	74.5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1	2.1
유효	2	46	92.0	97.9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7	54.0	57.4	57.4
유효	2	20	40.0	42.6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22.0	23.4	23.4
유효	2	36	72.0	76.6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6	32.0	34.0	34.0
유효	2	31	62.0	66.0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1	2.1
유효	2	46	92.0	97.9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1	2.0	2.0	2.0
	3	1	2.0	2.0	4.0
유효	4	20	40.0	40.0	44.0
	5	28	56.0	5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7	14.0	14.0	14.0
	3	7	14.0	14.0	28.0
유효	4	16	32.0	32.0	60.0
	5	20	40.0	4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9	18.0	18.0	18.0
	3	11	22.0	22.0	40.0
유효	4	12	24.0	24.0	64.0
	5	18	36.0	3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4.0	4.0	4.0
	2	6	12.0	12.0	16.0
유효	3	4	8.0	8.0	24.0
	4	17	34.0	34.0	58.0
	5	21	42.0	4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22.0	22.0	22.0
유효	2	12	24.0	24.0	46.0

	3	14	28.0	28.0	74.0
	4	5	10.0	10.0	84.0
	5	8	16.0	1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4.0	14.0	14.0
	2	6	12.0	12.0	26.0
	3	7	14.0	14.0	40.0
	4	19	38.0	38.0	78.0
	5	11	22.0	2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3	6.0	6.0	8.0
	3	10	20.0	20.0	28.0
	4	14	28.0	28.0	56.0
	5	22	44.0	4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8.0	18.0	18.0
	2	6	12.0	12.0	30.0
	3	7	14.0	14.0	44.0
	4	16	32.0	32.0	76.0
	5	12	24.0	2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8.0	8.0	8.0
	2	9	18.0	18.0	26.0
	3	8	16.0	16.0	42.0
	4	15	30.0	30.0	72.0
	5	14	28.0	2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8.0	18.0	18.0
	2	19	38.0	38.0	56.0
	3	8	16.0	16.0	72.0
	4	10	20.0	20.0	92.0
	5	4	8.0	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6	32.0	32.0	32.0
	2	17	34.0	34.0	66.0
	3	10	20.0	20.0	86.0
	4	6	12.0	12.0	98.0
	5	1	2.0	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4	32	64.0	64.0	64.0
	5	18	36.0	3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5	10.0	10.0	10.0
	4	28	56.0	56.0	66.0
	5	17	34.0	3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10.0	10.0	10.0
	2	14	28.0	28.0	38.0
	3	21	42.0	42.0	80.0
	4	8	16.0	16.0	96.0
	5	2	4.0	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4.0	4.0	4.0
	2	8	16.0	16.0	20.0
	3	27	54.0	54.0	74.0
	4	12	24.0	24.0	98.0
	5	1	2.0	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6.0	6.3	6.3
	2	12	24.0	25.0	31.3
	3	13	26.0	27.1	58.3
	4	12	24.0	25.0	83.3
	5	8	16.0	16.7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	----	-------

문항2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2	4.0	4.1
	3	7	14.0	14.3
	4	20	40.0	40.8
	5	20	40.0	40.8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1
	2	4	8.0	8.3
	3	5	10.0	10.4
	4	19	38.0	39.6
	5	19	38.0	39.6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2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	13	26.0	26.0
	3	11	22.0	22.0
	4	18	36.0	36.0
	5	7	14.0	14.0
	합계	50	100.0	100.0

문항2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1
	2	2	4.0	4.2
	3	17	34.0	35.4
	4	22	44.0	45.8
	5	6	12.0	12.5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0	40.0	40.0
	2	1	2.0	2.0
	3	5	10.0	10.0
	4	21	42.0	42.0
	5	2	4.0	4.0

	6	1	2.0	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2	4.0	4.0	6.0
	3	7	14.0	14.0	20.0
	4	29	58.0	58.0	78.0
	5	11	22.0	2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8.0	8.0	8.0
	2	5	10.0	10.0	18.0
	3	15	30.0	30.0	48.0
	4	16	32.0	32.0	80.0
	5	10	20.0	2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3	13	26.0	26.0	28.0
	4	21	42.0	42.0	70.0
	5	15	30.0	3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3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9	38.0	38.0	38.0
	3	29	58.0	58.0	96.0
	4	2	4.0	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20	40.0	40.8	42.9
	3	19	38.0	38.8	81.6
	4	6	12.0	12.2	93.9
	5	3	6.0	6.1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3.4. 인문사회과학자 집단 통계표

문항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2	70.0	70.0
	2	18	30.0	3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1	18.3	18.3
	2	49	81.7	81.7
	합계	6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9	15.0	69.2
	3	4	6.7	30.8
	합계	13	2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7	78.3	
합계		60	100.0	

문항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	8.3	8.8
	2	4	6.7	7.0
	3	20	33.3	35.1
	4	22	36.7	38.6
	5	6	10.0	10.5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	3.3	3.6
	2	8	13.3	14.3
	3	24	40.0	42.9
	4	20	33.3	35.7
	5	2	3.3	3.6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1	1.7	1.7
	4	5	8.3	8.5
	5	53	88.3	89.8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9	81.7	83.1
	2	6	10.0	10.2
	4	3	5.0	5.1
	5	1	1.7	1.7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3	3	5.0	5.1
	4	7	11.7	11.9
	5	49	81.7	83.1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1	1.7	1.7
	3	5	8.3	8.5
	4	6	10.0	10.2
	5	47	78.3	79.7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1.7	1.7
	3	2	3.3	3.4
	4	12	20.0	20.3
	5	44	73.3	74.6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5	75.0	77.6
	2	7	11.7	12.1
	3	4	6.7	6.9
	4	1	1.7	1.7
	5	1	1.7	1.7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	8.3	8.6
	2	7	11.7	12.1
	3	17	28.3	29.3
	4	14	23.3	24.1
	5	15	25.0	25.9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	5.0	5.2
	2	8	13.3	13.8
	3	20	33.3	34.5
	4	16	26.7	27.6
	5	11	18.3	19.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	3.3	3.5
	2	9	15.0	15.8
	3	16	26.7	28.1
	4	16	26.7	28.1
	5	14	23.3	24.6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2	3.3	3.4
	3	7	11.7	12.1
	4	20	33.3	34.5
	5	29	48.3	5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8	13.3	13.8
	2	14	23.3	24.1

	3	20	33.3	34.5
	4	14	23.3	24.1
	5	2	3.3	3.4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6	10.0	10.3
	3	7	11.7	12.1
	4	23	38.3	39.7
	5	22	36.7	37.9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5	25.0	25.9
	2	9	15.0	15.5
	3	15	25.0	25.9
	4	15	25.0	25.9
	5	4	6.7	6.9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1.7	1.7
	2	2	3.3	3.4
	3	5	8.3	8.6
	4	18	30.0	31.0
	5	32	53.3	55.2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1	18.3	19.0
	2	13	21.7	22.4
	3	12	20.0	20.7
	4	11	18.3	19.0
	5	11	18.3	19.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7	11.7	12.5
	2	9	15.0	16.1
	3	11	18.3	19.6
	4	18	30.0	32.1
	5	11	18.3	19.6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	6.7	7.1
	2	5	8.3	8.9
	3	19	31.7	33.9
	4	17	28.3	30.4
	5	11	18.3	19.6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0	16.7	17.9
	2	12	20.0	21.4
	3	18	30.0	32.1
	4	10	16.7	17.9
	5	6	10.0	10.7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1.7	1.8
	2	4	6.7	7.1
	3	12	20.0	21.4
	4	17	28.3	30.4
	5	22	36.7	39.3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7	61.7	67.3
	2	12	20.0	21.8
	3	3	5.0	5.5
	4	1	1.7	1.8

	5	2	3.3	3.6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6-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6	60.0	65.5
	2	7	11.7	12.7
	3	8	13.3	14.5
	4	2	3.3	3.6
	5	2	3.3	3.6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6-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9	65.0	69.6
	2	8	13.3	14.3
	3	6	10.0	10.7
	4	2	3.3	3.6
	5	1	1.7	1.8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1.7	1.8
	2	5	8.3	8.9
	3	18	30.0	32.1
	4	11	18.3	19.6
	5	21	35.0	37.5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5	75.0	75.0
	2	15	25.0	25.0
	합계	60	100.0	100.0

문항7-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7	11.7	11.9
	2	52	86.7	88.1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	--	----	-------

문항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9	98.3	98.3
	2	1	1.7	1.7
	합계	60	100.0	100.0

문항7-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7	95.0	98.3
	2	1	1.7	1.7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3	71.7	74.1
	2	15	25.0	25.9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6	10.0	10.3
	2	52	86.7	89.7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8	63.3	64.4
	2	21	35.0	35.6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5	58.3	58.3
	2	25	41.7	41.7
	합계	60	100.0	100.0

문항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7	78.3	78.3

	2	13	21.7	21.7
	합계	60	100.0	100.0

문항7-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7	95.0	95.0
	2	3	5.0	5.0
	합계	60	100.0	100.0

문항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9	15.0	15.3
	2	50	83.3	84.7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5	91.7	91.7
	2	5	8.3	8.3
	합계	60	100.0	100.0

문항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1	18.3	18.3
	2	49	81.7	81.7
	합계	60	100.0	100.0

문항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5	91.7	91.7
	2	5	8.3	8.3
	합계	60	100.0	100.0

문항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3	88.3	88.3
	2	7	11.7	11.7
	합계	60	100.0	100.0

문항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5	91.7	93.2
	2	4	6.7	6.8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3	38.3	38.3
	2	37	61.7	61.7
	합계	60	100.0	100.0

문항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3	21.7	22.0
	2	46	76.7	78.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2	86.7	86.7
	2	8	13.3	13.3
	합계	60	100.0	100.0

문항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9	15.0	15.0
	2	51	85.0	85.0
	합계	60	100.0	100.0

문항7-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1	18.3	19.0
	2	47	78.3	81.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1	18.3	18.6
	2	48	80.0	81.4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1	85.0	85.0
	2	9	15.0	15.0
	합계	60	100.0	100.0

문항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3	38.3	39.0
	2	36	60.0	61.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3	55.0	57.9
	2	24	40.0	42.1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8	13.3	13.8
	2	50	83.3	86.2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8	13.3	13.6
	2	51	85.0	86.4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1	35.0	36.2
	2	37	61.7	63.8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1	51.7	54.4
	2	26	43.3	45.6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	--	----	-----	--------

유효	1	8	13.3	13.8
	2	50	83.3	86.2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2	20.0	20.7
	2	46	76.7	79.3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2	20.0	20.3
	2	47	78.3	79.7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1	18.3	19.0
	2	47	78.3	81.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8	46.7	50.0
	2	28	46.7	5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0	16.7	16.9
	2	49	81.7	83.1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5	41.7	44.6

	2	31	51.7	55.4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8	13.3	13.6
	2	51	85.0	86.4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4	23.3	23.7
	2	45	75.0	76.3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3	21.7	22.0
	2	46	76.7	78.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4	23.3	25.0
	2	42	70.0	75.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4	40.0	42.1
	2	33	55.0	57.9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5	25.0	25.4
	2	44	73.3	74.6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5	58.3	61.4
	2	22	36.7	38.6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4	56.7	60.7
	2	22	36.7	39.3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8	63.3	66.7
	2	19	31.7	33.3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6	26.7	27.1
	2	43	71.7	72.9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1.7	1.7
	2	1	1.7	1.7
	3	6	10.0	10.0
	4	14	23.3	23.3
	5	38	63.3	63.3
	합계	60	100.0	100.0

문항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	5.0	5.0
	2	8	13.3	13.3

	3	14	23.3	23.3
	4	14	23.3	23.3
	5	21	35.0	35.0
	합계	60	100.0	100.0

문항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	3.3	3.3
	2	5	8.3	8.3
	3	9	15.0	15.0
	4	17	28.3	28.3
	5	27	45.0	45.0
	합계	60	100.0	100.0

문항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	5.0	5.0
	2	6	10.0	10.0
	3	7	11.7	11.7
	4	16	26.7	26.7
	5	28	46.7	46.7
	합계	60	100.0	100.0

문항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2	36.7	36.7
	2	26	43.3	43.3
	3	4	6.7	6.7
	4	3	5.0	5.0
	5	5	8.3	8.3
	합계	60	100.0	100.0

문항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8	13.3	13.3
	2	17	28.3	28.3
	3	3	5.0	5.0
	4	16	26.7	26.7
	5	16	26.7	26.7
	합계	60	100.0	100.0

문항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7	11.7	11.7
	2	14	23.3	23.3
	3	6	10.0	10.0
	4	16	26.7	26.7
	5	17	28.3	28.3
	합계	60	100.0	100.0

문항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	8.3	8.3
	2	14	23.3	23.3
	3	2	3.3	3.3
	4	17	28.3	28.3
	5	22	36.7	36.7
	합계	60	100.0	100.0

문항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	8.3	8.3
	2	12	20.0	20.0
	3	11	18.3	18.3
	4	17	28.3	28.3
	5	15	25.0	25.0
	합계	60	100.0	100.0

문항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1	18.3	18.3
	2	18	30.0	30.0
	3	11	18.3	18.3
	4	15	25.0	25.0
	5	5	8.3	8.3
	합계	60	100.0	100.0

문항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3	21.7	21.7
	2	27	45.0	45.0
	3	13	21.7	21.7
	4	7	11.7	11.7
	합계	6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3	5	8.3	8.5
	4	26	43.3	44.1
	5	28	46.7	47.5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3	4	6.7	6.8
	4	33	55.0	55.9
	5	22	36.7	37.3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	5.0	5.1
	2	26	43.3	44.1
	3	21	35.0	35.6
	4	7	11.7	11.9
	5	2	3.3	3.4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5	8.3	8.5
	3	33	55.0	55.9
	4	21	35.0	35.6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7	11.7	12.1
	2	19	31.7	32.8
	3	14	23.3	24.1
	4	12	20.0	20.7
	5	6	10.0	10.3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2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1.7	1.7
	2	4	6.7	6.9
	3	7	11.7	12.1
	4	30	50.0	51.7
	5	16	26.7	27.6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2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1.7	1.7
	2	6	10.0	10.3

	3	12	20.0	20.7
	4	29	48.3	50.0
	5	10	16.7	17.2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2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	5.0	5.3
	2	10	16.7	17.5
	3	12	20.0	21.1
	4	16	26.7	28.1
	5	16	26.7	28.1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2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1.7	1.8
	2	7	11.7	12.5
	3	22	36.7	39.3
	4	21	35.0	37.5
	5	5	8.3	8.9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6	43.3	44.1
	3	8	13.3	13.6
	4	25	41.7	42.4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6	10.0	10.0
	3	11	18.3	18.3
	4	35	58.3	58.3
	5	8	13.3	13.3
	합계	60	100.0	100.0

문항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	8.3	8.3
	2	11	18.3	18.3

	3	15	25.0	25.0
	4	23	38.3	38.3
	5	6	10.0	10.0
	합계	60	100.0	100.0

문항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1	1.7	1.7
	3	20	33.3	33.3
	4	32	53.3	53.3
	5	7	11.7	11.7
	합계	60	100.0	100.0

문항3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3	38.3	38.3
	2	2	3.3	3.3
	3	33	55.0	55.0
	4	2	3.3	3.3
	합계	60	100.0	100.0

문항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	3.3	3.3
	2	19	31.7	31.7
	3	31	51.7	51.7
	4	5	8.3	8.3
	5	3	5.0	5.0
	합계	60	100.0	100.0

Group \$문항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56	62.2	94.9
		2	21	23.3	35.6
		3	2	2.2	3.4
		4	8	8.9	13.6
		5	3	3.3	5.1
			-----	-----	-----
Total responses			90	100.0	152.5

Group \$문항19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2	3.4	3.5
		2	44	74.6	77.2
		3	2	3.4	3.5
		4	11	18.6	19.3
			-----	-----	-----
Total responses			59	100.0	103.5

Group \$문항2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12	28.6	29.3
		2	9	21.4	22.0
		3	4	9.5	9.8
		4	4	9.5	9.8
		5	13	31.0	31.7
			-----	-----	-----
Total responses			42	100.0	102.4

3.5. 이공학자 집단 통계표

		문항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	60.0	60.0	60.0
	2	20	40.0	4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2.0	12.0	12.0
	2	44	88.0	8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6.0	33.3	33.3
	2	1	2.0	11.1	44.4
	3	3	6.0	33.3	77.8
	4	2	4.0	22.2	100.0
	합계	9	1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1	82.0		
	합계	50	100.0		

		문항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10.0	11.1	11.1
	2	7	14.0	15.6	26.7
	3	10	20.0	22.2	48.9
	4	18	36.0	40.0	88.9
	5	5	10.0	11.1	100.0
	합계	45	9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10.0		
	합계	50	100.0		

		문항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6.0	6.4	6.4
	2	5	10.0	10.6	17.0
	3	21	42.0	44.7	61.7
	4	14	28.0	29.8	91.5
	5	4	8.0	8.5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1	2.1
	3	2	4.0	4.2	6.3

		4	3	6.0	6.3	12.5
		5	42	84.0	87.5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8	76.0	82.6	82.6
	2	5	10.0	10.9	93.5
유효	3	2	4.0	4.3	97.8
	4	1	2.0	2.2	100.0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0	2.0
	2	1	2.0	2.0	4.1
유효	3	3	6.0	6.1	10.2
	4	3	6.0	6.1	16.3
	5	41	82.0	83.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0	2.0
	2	1	2.0	2.0	4.1
유효	3	6	12.0	12.2	16.3
	4	5	10.0	10.2	26.5
	5	36	72.0	73.5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1	2.0	2.0	2.0
	3	4	8.0	8.2	10.2
유효	4	6	12.0	12.2	22.4
	5	38	76.0	77.6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1	38	76.0	80.9	80.9
		2	6	12.0	12.8	93.6
유효		3	1	2.0	2.1	95.7
		5	2	4.0	4.3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6-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	8.0	8.2
		2	5	10.0	18.4
유효		3	19	38.0	57.1
		4	10	20.0	77.6
		5	11	22.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4.0	4.1
		2	5	10.0	14.3
유효		3	12	24.0	38.8
		4	18	36.0	75.5
		5	12	24.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4.0	4.1
		2	10	20.0	24.5
유효		3	14	28.0	53.1
		4	13	26.0	79.6
		5	10	20.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0
		2	7	14.0	16.3
유효		3	4	8.0	24.5
		4	12	24.0	49.0
		5	25	50.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	----	-------

문항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	34.0	34.7	34.7
	2	14	28.0	28.6	63.3
	3	10	20.0	20.4	83.7
	4	6	12.0	12.2	95.9
	5	2	4.0	4.1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3	6.0	6.1	8.2
	3	9	18.0	18.4	26.5
	4	21	42.0	42.9	69.4
	5	15	30.0	30.6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	30.0	30.6	30.6
	2	18	36.0	36.7	67.3
	3	9	18.0	18.4	85.7
	4	6	12.0	12.2	98.0
	5	1	2.0	2.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4.0	4.1	4.1
	2	1	2.0	2.0	6.1
	3	4	8.0	8.2	14.3
	4	14	28.0	28.6	42.9
	5	28	56.0	57.1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10.0	10.2	10.2
	2	12	24.0	24.5	34.7

		3	5	10.0	10.2	44.9
		4	9	18.0	18.4	63.3
		5	18	36.0	36.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4.0	14.3	14.3
	2	9	18.0	18.4	32.7
	3	6	12.0	12.2	44.9
	4	9	18.0	18.4	63.3
	5	18	36.0	36.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4.0	14.3	14.3
	2	16	32.0	32.7	46.9
	3	13	26.0	26.5	73.5
	4	4	8.0	8.2	81.6
	5	9	18.0	18.4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2.0	12.5	12.5
	2	14	28.0	29.2	41.7
	3	14	28.0	29.2	70.8
	4	12	24.0	25.0	95.8
	5	2	4.0	4.2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4	8.0	8.2	10.2
	3	12	24.0	24.5	34.7
	4	16	32.0	32.7	67.3
	5	16	32.0	32.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1	62.0	63.3	63.3
	2	11	22.0	22.4	85.7
	3	5	10.0	10.2	95.9
	4	2	4.0	4.1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1	62.0	63.3	63.3
	2	7	14.0	14.3	77.6
	3	5	10.0	10.2	87.8
	4	4	8.0	8.2	95.9
	5	2	4.0	4.1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1	62.0	63.3	63.3
	2	6	12.0	12.2	75.5
	3	8	16.0	16.3	91.8
	4	3	6.0	6.1	98.0
	5	1	2.0	2.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10.0	10.2	10.2
	2	5	10.0	10.2	20.4
	3	11	22.0	22.4	42.9
	4	14	28.0	28.6	71.4
	5	14	28.0	28.6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2	64.0	68.1	68.1
	2	15	30.0	31.9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	--	----	-------	--	--

문항7-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4.0	4.2	4.2
	2	46	92.0	95.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8	96.0	98.0	98.0
	2	1	2.0	2.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9	98.0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50.0	51.0	51.0
	2	24	48.0	49.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1	2.1
	2	47	94.0	97.9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9	58.0	59.2	59.2
	2	20	40.0	40.8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3	46.0	46.9	46.9
	2	26	52.0	53.1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4	68.0	69.4	69.4
	2	15	30.0	30.6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8	96.0	98.0	98.0
	2	1	2.0	2.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6.0	16.3	16.3
	2	41	82.0	83.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8	96.0	98.0	98.0
	2	1	2.0	2.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4.0	4.3	4.3
	2	45	90.0	95.7	100.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1	46	92.0	93.9	93.9
유효		2	3	6.0	6.1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5	90.0	91.8
유효		2	4	8.0	8.2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4	88.0	89.8
유효		2	5	10.0	10.2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3	26.0	26.5
유효		2	36	72.0	73.5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22.0	22.4
유효		2	38	76.0	77.6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2	84.0	85.7
유효		2	7	14.0	14.3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4.0	4.1

	2	47	94.0	95.9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	16.0	16.3	16.3
유효	2	41	82.0	83.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7-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4.0	4.2	4.2
유효	2	46	92.0	95.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1	82.0	83.7	83.7
유효	2	8	16.0	16.3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9	38.0	38.8	38.8
유효	2	30	60.0	61.2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7	54.0	56.3	56.3
유효	2	21	42.0	43.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6	12.0	12.2	12.2
유효	2	43	86.0	87.8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7	14.0	14.3	14.3
유효	2	42	84.0	85.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1	42.0	43.8	43.8
유효	2	27	54.0	56.3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6	52.0	54.2	54.2
유효	2	22	44.0	45.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7	14.0	14.3	14.3
유효	2	42	84.0	85.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0	20.0	20.8	20.8
유효	2	38	76.0	79.2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0	20.0	20.8	20.8
유효	2	38	76.0	79.2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6.0	16.3	16.3
	2	41	82.0	83.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2	44.0	45.8	45.8
	2	26	52.0	54.2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6.0	16.7	16.7
	2	40	80.0	83.3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3	46.0	47.9	47.9
	2	25	50.0	52.1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4.0	14.3	14.3
	2	42	84.0	85.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6.0	16.3	16.3
	2	41	82.0	83.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	--	----	-------	--	--

문항8-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8.0	18.4	18.4
	2	40	80.0	81.6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	28.0	29.2	29.2
	2	34	68.0	70.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50.0	52.1	52.1
	2	23	46.0	47.9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8-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22.0	22.4	22.4
	2	38	76.0	77.6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	60.0	61.2	61.2
	2	19	38.0	38.8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0	40.0	40.8	40.8
	2	29	58.0	59.2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4	48.0	49.0	49.0
	2	25	50.0	51.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4.0	14.3	14.3
	2	42	84.0	85.7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2	4.0	4.1	6.1
	3	3	6.0	6.1	12.2
	4	23	46.0	46.9	59.2
	5	20	40.0	40.8	100.0
결측	합계	49	98.0	100.0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2.0	12.2	12.2
	2	9	18.0	18.4	30.6
	3	16	32.0	32.7	63.3
	4	9	18.0	18.4	81.6
	5	9	18.0	18.4	100.0
결측	합계	49	98.0	100.0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6.0	6.1	6.1
	2	5	10.0	10.2	16.3
	3	9	18.0	18.4	34.7
	4	14	28.0	28.6	63.3
	5	18	36.0	36.7	100.0
결측	합계	49	98.0	100.0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6.0	6.0	6.0
	2	8	16.0	16.0	22.0
	3	8	16.0	16.0	38.0
	4	20	40.0	40.0	78.0
	5	11	22.0	2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8	36.0	36.0	36.0
	2	18	36.0	36.0	72.0
	3	8	16.0	16.0	88.0
	4	4	8.0	8.0	96.0
	5	2	4.0	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8.0	8.0	8.0
	2	9	18.0	18.0	26.0
	3	6	12.0	12.0	38.0
	4	22	44.0	44.0	82.0
	5	9	18.0	1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8.0	8.2	8.2
	2	12	24.0	24.5	32.7
	3	8	16.0	16.3	49.0
	4	15	30.0	30.6	79.6
	5	10	20.0	20.4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6.0	16.0	16.0
	2	8	16.0	16.0	32.0
	3	2	4.0	4.0	36.0
	4	15	30.0	30.0	66.0
	5	17	34.0	3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1	9	18.0	18.0	18.0
	2	7	14.0	14.0	32.0
	3	13	26.0	26.0	58.0
유효	4	11	22.0	22.0	80.0
	5	10	20.0	2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9	18.0	18.0	18.0
	2	12	24.0	24.0	42.0
	3	8	16.0	16.0	58.0
유효	4	12	24.0	24.0	82.0
	5	9	18.0	1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2	24.0	24.0	24.0
	2	17	34.0	34.0	58.0
	3	14	28.0	28.0	86.0
유효	4	6	12.0	12.0	98.0
	5	1	2.0	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	4	8.0	8.2	8.2
	4	31	62.0	63.3	71.4
유효	5	14	28.0	28.6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1	2.0	2.0	2.0
	3	5	10.0	10.2	12.2
	4	28	56.0	57.1	69.4
유효	5	15	30.0	30.6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6.0	6.1	6.1
	2	29	58.0	59.2	65.3
유효	3	10	20.0	20.4	85.7
	4	7	14.0	14.3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1	2.1
	2	1	2.0	2.1	4.2
유효	3	28	56.0	58.3	62.5
	4	18	36.0	37.5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2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	8.0	8.2	8.2
	2	13	26.0	26.5	34.7
유효	3	19	38.0	38.8	73.5
	4	10	20.0	20.4	93.9
	5	3	6.0	6.1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0	2.0
	2	3	6.0	6.1	8.2
유효	3	6	12.0	12.2	20.4
	4	26	52.0	53.1	73.5
	5	13	26.0	26.5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4.0	4.1	4.1
	2	6	12.0	12.2	16.3
유효	3	5	10.0	10.2	26.5
	4	28	56.0	57.1	83.7
	5	8	16.0	16.3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11	22.0	22.4	22.4

		3	10	20.0	20.4	42.9
		4	19	38.0	38.8	81.6
		5	9	18.0	18.4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0	2.0
	2	8	16.0	16.3	18.4
유효	3	24	48.0	49.0	67.3
	4	12	24.0	24.5	91.8
	5	4	8.0	8.2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3	46.0	46.9	46.9
	2	2	4.0	4.1	51.0
유효	3	2	4.0	4.1	55.1
	4	22	44.0	44.9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4	8.0	8.2	8.2
	3	12	24.0	24.5	32.7
유효	4	24	48.0	49.0	81.6
	5	9	18.0	18.4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4.0	4.1	4.1
	2	16	32.0	32.7	36.7
유효	3	14	28.0	28.6	65.3
	4	15	30.0	30.6	95.9
	5	2	4.0	4.1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4.0	4.2	4.2
	2	5	10.0	10.4	14.6
	3	9	18.0	18.8	33.3
	4	27	54.0	56.3	89.6
	5	5	10.0	10.4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3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9	38.0	38.8	38.8
	2	2	4.0	4.1	42.9
	3	24	48.0	49.0	91.8
	4	4	8.0	8.2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10.0	10.2	10.2
	2	15	30.0	30.6	40.8
	3	23	46.0	46.9	87.8
	4	5	10.0	10.2	98.0
	5	1	2.0	2.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Group \$문항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39	53.4	78.0	
	2	19	26.0	38.0	
	3	2	2.7	4.0	
	4	9	12.3	18.0	
	5	4	5.5	8.0	
		-----	-----	-----	
Total responses		73	100.0	146.0	

3.6. 언론인 집단 통계표

		문항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6	92.0	92.0
	2	4	8.0	8.0
	합계	50	100.0	100.0

		문항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2	64.0	64.0
	2	18	36.0	36.0
	합계	5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1	42.0	58.3
	3	13	26.0	36.1
	4	2	4.0	5.6
	합계	36	7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28.0	
	합계	50	100.0	

		문항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	4.0	4.1
	2	8	16.0	16.3
	3	15	30.0	30.6
	4	22	44.0	44.9
	5	2	4.0	4.1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2	4.0	4.1
	3	23	46.0	46.9
	4	23	46.0	46.9
	5	1	2.0	2.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3	1	2.0	2.1
	4	1	2.0	2.1
	5	46	92.0	95.8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39	78.0	83.0
	2	3	6.0	6.4
유효	3	4	8.0	8.5
	5	1	2.0	2.1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	1	2.0	2.1
	3	6	12.0	12.5
유효	4	9	18.0	18.8
	5	32	64.0	66.7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	2.0	2.1
	2	3	6.0	6.3
유효	3	4	8.0	8.3
	4	8	16.0	16.7
	5	32	64.0	66.7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	1	2.0	2.1
	3	6	12.0	12.5
유효	4	7	14.0	14.6
	5	34	68.0	70.8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38	76.0	79.2
유효	2	4	8.0	8.3
	3	6	12.0	12.5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2	4.0	4.2
	2	5	10.0	10.4
유효	3	16	32.0	33.3
	4	9	18.0	18.8
	5	16	32.0	33.3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2	4.0	4.3
	2	12	24.0	25.5
유효	3	18	36.0	38.3
	4	8	16.0	17.0
	5	7	14.0	14.9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6-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2	4.0	4.2
	2	8	16.0	16.7
유효	3	17	34.0	35.4
	4	10	20.0	20.8
	5	11	22.0	22.9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	1	2.0	2.1
	3	5	10.0	10.4
유효	4	13	26.0	27.1
	5	29	58.0	60.4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6	32.0	33.3

		2	14	28.0	29.2
		3	10	20.0	20.8
		4	4	8.0	8.3
		5	4	8.0	8.3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	4.0	4.2
		3	6.0	6.3
유효		4	38.0	39.6
		5	48.0	50.0
		합계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38.0	39.6
		2	16.0	16.7
유효		3	22.0	22.9
		4	12.0	12.5
		5	8.0	8.3
		합계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	2.0	2.1
		3	24.0	25.0
유효		4	38.0	39.6
		5	32.0	33.3
		합계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24.0	25.0
		2	36.0	37.5
유효		3	16.0	16.7
		4	10.0	10.4
		5	10.0	10.4
		합계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9	18.0	18.8
	2	17	34.0	35.4
	3	12	24.0	25.0
	4	6	12.0	12.5
	5	4	8.0	8.3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	4.0	4.2
	2	7	14.0	14.6
	3	14	28.0	29.2
	4	17	34.0	35.4
	5	8	16.0	16.7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9	18.0	19.6
	2	9	18.0	19.6
	3	11	22.0	23.9
	4	13	26.0	28.3
	5	4	8.0	8.7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6-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2.0	2.1
	2	3	6.0	6.3
	3	12	24.0	25.0
	4	16	32.0	33.3
	5	16	32.0	33.3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3	66.0	70.2
	2	9	18.0	19.1
	3	4	8.0	8.5
	4	1	2.0	2.1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6-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26	52.0	55.3
	2	12	24.0	25.5
유효	3	5	10.0	10.6
	4	3	6.0	6.4
	5	1	2.0	2.1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6-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37	74.0	78.7
	2	7	14.0	14.9
유효	3	2	4.0	4.3
	5	1	2.0	2.1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6-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3	6.0	6.4
	2	3	6.0	6.4
유효	3	13	26.0	27.7
	4	14	28.0	29.8
	5	14	28.0	29.8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36	72.0	76.6
유효	2	11	22.0	23.4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5	10.0	10.6
유효	2	42	84.0	89.4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	----	-------

문항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5	90.0
	2	2	4.0
	합계	47	94.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6	92.0
	2	1	2.0
	합계	47	94.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2	64.0
	2	15	30.0
	합계	47	94.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	8.0
	2	43	86.0
	합계	47	94.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7	74.0
	2	10	20.0
	합계	47	94.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2	44.0
	2	25	50.0
	합계	47	94.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3	86.0	91.5
	2	4	8.0	8.5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6	92.0	97.9
	2	1	2.0	2.1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0	20.0	21.3
	2	37	74.0	78.7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4	88.0	93.6
	2	3	6.0	6.4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1	22.0	23.4
	2	36	72.0	76.6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4	88.0	93.6
	2	3	6.0	6.4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2	84.0	89.4
	2	5	10.0	10.6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2	84.0	89.4
	2	5	10.0	10.6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6	32.0	34.0
	2	31	62.0	66.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9	18.0	19.1
	2	38	76.0	80.9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2	84.0	89.4
	2	5	10.0	10.6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	8.0	8.7
	2	42	84.0	91.3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7-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	8.0	8.7
	2	42	84.0	91.3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7-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	4.0	4.3
	2	44	88.0	95.7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2	84.0	91.3
	2	4	8.0	8.7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3	26.0	28.3
	2	33	66.0	71.7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7	54.0	58.7
	2	19	38.0	41.3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7	14.0	14.9
	2	40	80.0	85.1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	--	----	-----	--------

	1	8	16.0	17.0
유효	2	39	78.0	83.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7	34.0	36.2
유효	2	30	60.0	63.8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27	54.0	58.7
유효	2	19	38.0	41.3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3	26.0	27.7
유효	2	34	68.0	72.3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6	32.0	34.8
유효	2	30	60.0	65.2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1	22.0	23.4
유효	2	36	72.0	76.6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9	18.0	19.1

	2	38	76.0	80.9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20	40.0	43.5
유효	2	26	52.0	56.5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7	14.0	15.2
유효	2	39	78.0	84.8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6	32.0	34.8
유효	2	30	60.0	65.2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0	20.0	21.3
유효	2	37	74.0	78.7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3	26.0	27.7
유효	2	34	68.0	72.3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3	26.0	27.7
유효	2	34	68.0	72.3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1	22.0	23.4
유효	2	36	72.0	76.6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6	32.0	34.0
유효	2	31	62.0	66.0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9	18.0	19.1
유효	2	38	76.0	80.9
	합계	47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6.0	
	합계	50	100.0	

문항8-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28	56.0	60.9
유효	2	18	36.0	39.1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9	38.0	41.3
유효	2	27	54.0	58.7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24	48.0	52.2
유효	2	22	44.0	47.8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8-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9	18.0	19.6
	2	37	74.0	80.4
	합계	46	9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8.0	
	합계	50	100.0	

문항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	4.0	4.0
	2	1	2.0	2.0
	3	6	12.0	12.0
	4	15	30.0	30.0
	5	26	52.0	52.0
	합계	50	100.0	100.0

문항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	6.0	6.0
	2	7	14.0	14.0
	3	4	8.0	8.0
	4	17	34.0	34.0
	5	19	38.0	38.0
	합계	50	100.0	100.0

문항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2.0	2.0
	2	7	14.0	14.0
	3	6	12.0	12.0
	4	16	32.0	32.0
	5	20	40.0	4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2	4.0	4.1
	3	5	10.0	10.2
	4	15	30.0	30.6
	5	27	54.0	55.1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1	42.0	42.9
	2	13	26.0	26.5
	3	5	10.0	10.2
	4	4	8.0	8.2
	5	6	12.0	12.2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0	40.0	40.8
	2	12	24.0	24.5
	3	3	6.0	6.1
	4	7	14.0	14.3
	5	7	14.0	14.3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	6.0	6.1
	2	14	28.0	28.6
	3	6	12.0	12.2
	4	12	24.0	24.5
	5	14	28.0	28.6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5	10.0	10.2
	2	10	20.0	20.4
	3	3	6.0	6.1
	4	16	32.0	32.7
	5	15	30.0	30.6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2	4.0	4.1
	2	8	16.0	16.3
	3	6	12.0	12.2
	4	19	38.0	38.8
	5	14	28.0	28.6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9	18.0	18.4
	2	16	32.0	32.7
유효	3	5	10.0	10.2
	4	11	22.0	22.4
	5	8	16.0	16.3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13	26.0	26.5
	2	23	46.0	46.9
유효	3	10	20.0	20.4
	4	3	6.0	6.1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	1	2.0	2.0
	3	2	4.0	4.0
유효	4	27	54.0	54.0
	5	20	40.0	4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4	27	54.0	54.0
유효	5	23	46.0	46.0
	합계	50	100.0	100.0

문항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3	6.0	6.0
	2	19	38.0	38.0
유효	3	14	28.0	28.0
	4	11	22.0	22.0
	5	3	6.0	6.0
	합계	50	100.0	100.0

문항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6	12.0	12.0
	3	26	52.0	52.0
	4	17	34.0	34.0
	5	1	2.0	2.0
	합계	50	100.0	100.0

문항2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	8.0	8.0
	2	12	24.0	24.0
	3	11	22.0	22.0
	4	17	34.0	34.0
	5	6	12.0	12.0
	합계	50	100.0	100.0

문항2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2.0	2.0
	2	4	8.0	8.2
	3	6	12.0	12.2
	4	26	52.0	53.1
	5	12	24.0	24.5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2.0	2.1
	2	1	2.0	2.1
	3	9	18.0	18.8
	4	21	42.0	43.8
	5	16	32.0	33.3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2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2.0	2.0
	2	10	20.0	20.4
	3	13	26.0	26.5
	4	16	32.0	32.7

	5	9	18.0	18.4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2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2.0	2.1
	2	7	14.0	14.6
	3	19	38.0	39.6
	4	17	34.0	35.4
	5	4	8.0	8.3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4	28.0	28.0
	3	8	16.0	16.0
	4	28	56.0	56.0
	합계	50	100.0	100.0

문항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	2.0	2.0
	2	2	4.0	4.0
	3	12	24.0	24.0
	4	27	54.0	54.0
	5	8	16.0	16.0
	합계	50	100.0	100.0

문항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	12	24.0	24.0
	3	10	20.0	20.0
	4	23	46.0	46.0
	5	5	10.0	10.0
	합계	50	100.0	100.0

문항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3	11	22.0	22.4
	4	32	64.0	65.3
	5	6	12.0	12.2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3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7	34.0	34.0
	2	1	2.0	2.0
	3	31	62.0	62.0
	4	1	2.0	2.0
	합계	50	100.0	100.0

문항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4	8.0	8.0
	2	11	22.0	22.0
	3	23	46.0	46.0
	4	9	18.0	18.0
	5	3	6.0	6.0
	합계	50	100.0	100.0

Group \$문항5					
Category label	Cod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1	46	67.6	93.9	
	2	14	20.6	28.6	
	4	7	10.3	14.3	
	5	1	1.5	2.0	
		-----	-----	-----	
Total responses		68	100.0	138.8	

Group \$문항19					
Category label	Cod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1	1	2.2	2.3	
	2	27	60.0	61.4	
	3	8	17.8	18.2	
	4	9	20.0	20.5	
		-----	-----	-----	
Total responses		45	100.0	102.3	

Group \$문항 25					
Category label		Cod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1	11	23.9	25.0
		2	16	34.8	36.4
		3	12	26.1	27.3
		5	7	15.2	15.9
			-----	-----	-----
Total responses			46	100.0	104.5

3.7. 출판인 집단 통계표

		문항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3	88.3	89.8	89.8
	2	6	10.0	10.2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7	78.3	78.3	78.3
	2	13	21.7	2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41.7	52.1	52.1
	3	20	33.3	41.7	93.8
	4	3	5.0	6.3	100.0
	합계	48	8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20.0		
	합계	60	100.0		

		문항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7	11.7	11.7	11.7
	3	9	15.0	15.0	26.7
	4	32	53.3	53.3	80.0
	5	12	20.0	20.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3	5.0	5.0	5.0
	3	22	36.7	36.7	41.7
	4	26	43.3	43.3	85.0
	5	9	15.0	15.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2	3.3	3.4	3.4
	4	2	3.3	3.4	6.8
	5	55	91.7	93.2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4	90.0	91.5	91.5
	2	4	6.7	6.8	98.3
	3	1	1.7	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1	1.7	1.7	1.7
	4	7	11.7	11.9	13.6
	5	51	85.0	86.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4	6.7	6.8	6.8
	4	10	16.7	16.9	23.7
	5	45	75.0	76.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3	2	3.3	3.4	5.1
	4	11	18.3	18.6	23.7
	5	45	75.0	76.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1	85.0	86.4	86.4
	2	6	10.0	10.2	96.6
	3	1	1.7	1.7	98.3
	4	1	1.7	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5.0	5.1	5.1
	2	1	1.7	1.7	6.8
유효	3	21	35.0	35.6	42.4
	4	17	28.3	28.8	71.2
	5	17	28.3	28.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1.7	1.7	1.7
	2	4	6.7	6.8	8.5
유효	3	14	23.3	23.7	32.2
	4	22	36.7	37.3	69.5
	5	18	30.0	30.5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3.3	3.4	3.4
	2	10	16.7	17.2	20.7
유효	3	20	33.3	34.5	55.2
	4	14	23.3	24.1	79.3
	5	12	20.0	20.7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1.7	1.7	1.7
	2	3	5.0	5.1	6.8
유효	3	12	20.0	20.3	27.1
	4	15	25.0	25.4	52.5
	5	28	46.7	47.5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3	21.7	22.0	22.0
	2	14	23.3	23.7	45.8
유효	3	20	33.3	33.9	79.7
	4	8	13.3	13.6	93.2
	5	4	6.7	6.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4	6.7	6.8	6.8
	3	9	15.0	15.3	22.0
유효	4	20	33.3	33.9	55.9
	5	26	43.3	44.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18.3	19.3	19.3
	2	19	31.7	33.3	52.6
유효	3	13	21.7	22.8	75.4
	4	7	11.7	12.3	87.7
	5	7	11.7	12.3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	7	11.7	12.1	12.1
유효	4	16	26.7	27.6	39.7
	5	35	58.3	60.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0	16.7	16.9	16.9
	2	23	38.3	39.0	55.9
유효	3	13	21.7	22.0	78.0
	4	9	15.0	15.3	93.2
	5	4	6.7	6.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7	11.7	11.9	11.9
유효	2	18	30.0	30.5	42.4
	3	17	28.3	28.8	71.2

	4	10	16.7	16.9	88.1
	5	7	11.7	11.9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	6.7	6.9	6.9
	2	9	15.0	15.5	22.4
유효	3	17	28.3	29.3	51.7
	4	12	20.0	20.7	72.4
	5	16	26.7	27.6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	6.7	7.0	7.0
	2	17	28.3	29.8	36.8
유효	3	20	33.3	35.1	71.9
	4	6	10.0	10.5	82.5
	5	10	16.7	17.5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6-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1	1.7	1.8	1.8
	3	16	26.7	28.1	29.8
유효	4	17	28.3	29.8	59.6
	5	23	38.3	40.4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6-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8	63.3	67.9	67.9
	2	8	13.3	14.3	82.1
유효	3	8	13.3	14.3	96.4
	4	1	1.7	1.8	98.2
	5	1	1.7	1.8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1	35.0	37.5	37.5
	2	15	25.0	26.8	64.3
	3	9	15.0	16.1	80.4
	4	5	8.3	8.9	89.3
	5	6	10.0	10.7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4	56.7	59.6	59.6
	2	13	21.7	22.8	82.5
	3	4	6.7	7.0	89.5
	4	4	6.7	7.0	96.5
	5	2	3.3	3.5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6-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6	3.6
	2	3	5.0	5.4	8.9
	3	13	21.7	23.2	32.1
	4	14	23.3	25.0	57.1
	5	24	40.0	42.9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9	81.7	87.5	87.5
	2	7	11.7	12.5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7-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	28.3	29.3	29.3
	2	41	68.3	70.7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1	56	93.3	96.6	96.6
유효	2	2	3.3	3.4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4	90.0	94.7	94.7
유효	2	3	5.0	5.3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0	66.7	70.2	70.2
유효	2	17	28.3	29.8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5	25.0	25.9	25.9
유효	2	43	71.7	74.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9	81.7	84.5	84.5
유효	2	9	15.0	15.5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9	65.0	67.2	67.2
유효	2	19	31.7	32.8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8	80.0	82.8	82.8

	2	10	16.7	17.2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5	91.7	96.5	96.5
유효	2	2	3.3	3.5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1	35.0	36.8	36.8
유효	2	36	60.0	63.2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5	91.7	96.5	96.5
유효	2	2	3.3	3.5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9	31.7	33.3	33.3
유효	2	38	63.3	66.7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5	91.7	94.8	94.8
유효	2	3	5.0	5.2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2	86.7	89.7	89.7
유효	2	6	10.0	10.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2	86.7	89.7	89.7
유효	2	6	10.0	10.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3	55.0	56.9	56.9
유효	2	25	41.7	43.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7	45.0	46.6	46.6
유효	2	31	51.7	53.4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2	86.7	89.7	89.7
유효	2	6	10.0	10.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9	15.0	15.5	15.5
유효	2	49	81.7	84.5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7	28.3	29.8	29.8
유효	2	40	66.7	70.2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	21.7	22.8	22.8
	2	44	73.3	77.2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9	81.7	84.5	84.5
	2	9	15.0	15.5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1	35.0	38.2	38.2
	2	34	56.7	61.8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4	56.7	59.6	59.6
	2	23	38.3	40.4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2.5	12.5
	2	49	81.7	87.5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2.5	12.5
	2	49	81.7	87.5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	--	----	-------	--	--

문항8-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41.7	44.6	44.6
	2	31	51.7	55.4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0	66.7	70.2	70.2
	2	17	28.3	29.8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3.3	14.3	14.3
	2	48	80.0	85.7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3.3	14.3	14.3
	2	48	80.0	85.7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2.5	12.5
	2	49	81.7	87.5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0.0	10.7	10.7
	2	50	83.3	89.3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9	48.3	51.8	51.8
	2	27	45.0	48.2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0.0	10.9	10.9
	2	49	81.7	89.1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8-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	50.0	53.6	53.6
	2	26	43.3	46.4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0.0	10.7	10.7
	2	50	83.3	89.3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7.9	17.9
	2	46	76.7	82.1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7.9	17.9
	2	46	76.7	82.1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0	33.3	35.7	35.7
	2	36	60.0	64.3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6	43.3	46.4	46.4
	2	30	50.0	53.6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7.9	17.9
	2	46	76.7	82.1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6	60.0	63.2	63.2
	2	21	35.0	36.8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	50.0	53.6	53.6
	2	26	43.3	46.4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9	48.3	51.8	51.8
	2	27	45.0	48.2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	13.3	14.3	14.3
유효	2	48	80.0	85.7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1	1.7	1.7	1.7
	3	1	1.7	1.7	3.4
유효	4	18	30.0	30.5	33.9
	5	39	65.0	66.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7	11.7	11.9	11.9
	3	7	11.7	11.9	23.7
유효	4	18	30.0	30.5	54.2
	5	27	45.0	45.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2	3.3	3.4	3.4
	3	3	5.0	5.1	8.5
유효	4	14	23.3	23.7	32.2
	5	40	66.7	67.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	8.3	8.5	8.5
	2	3	5.0	5.1	13.6
유효	3	6	10.0	10.2	23.7
	4	12	20.0	20.3	44.1
	5	33	55.0	55.9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1	15	25.0	25.4	25.4
		2	16	26.7	27.1	52.5
		3	12	20.0	20.3	72.9
유효		4	7	11.7	11.9	84.7
		5	9	15.0	15.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5.0	5.1
		2	9	15.0	15.3
		3	4	6.7	27.1
유효		4	22	36.7	64.4
		5	21	35.0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1.7	1.7
		2	5	8.3	10.2
		3	6	10.0	20.3
유효		4	14	23.3	44.1
		5	33	55.0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	6.7	6.8
		2	14	23.3	30.5
		3	5	8.3	39.0
유효		4	11	18.3	57.6
		5	25	4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18.3	18.6
		2	9	15.0	33.9
		3	5	8.3	42.4
유효		4	15	25.0	67.8
		5	19	3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8	30.0	30.5	30.5
	2	11	18.3	18.6	49.2
유효	3	10	16.7	16.9	66.1
	4	12	20.0	20.3	86.4
	5	8	13.3	13.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4	23.3	23.7	23.7
	2	25	41.7	42.4	66.1
유효	3	15	25.0	25.4	91.5
	4	5	8.3	8.5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	3	5.0	5.1	5.1
유효	4	25	41.7	42.4	47.5
	5	31	51.7	52.5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	3	5.0	5.1	5.1
유효	4	23	38.3	39.0	44.1
	5	33	55.0	55.9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5.0	5.1	5.1
	2	23	38.3	39.0	44.1
유효	3	23	38.3	39.0	83.1
	4	8	13.3	13.6	96.6
	5	2	3.3	3.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6	10.0	10.2	10.2
	3	32	53.3	54.2	64.4
	4	21	35.0	35.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6.7	7.3	7.3
	2	10	16.7	18.2	25.5
	3	9	15.0	16.4	41.8
	4	19	31.7	34.5	76.4
	5	13	21.7	23.6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2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1	1.7	1.7	3.4
	3	6	10.0	10.3	13.8
	4	26	43.3	44.8	58.6
	5	24	40.0	41.4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2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2	3.3	3.4	5.1
	3	8	13.3	13.6	18.6
	4	31	51.7	52.5	71.2
	5	17	28.3	28.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0.0	10.5	10.5
	2	10	16.7	17.5	28.1
	3	16	26.7	28.1	56.1

	4	19	31.7	33.3	89.5
	5	6	10.0	10.5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2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7	11.7	12.1	12.1
	3	21	35.0	36.2	48.3
유효	4	24	40.0	41.4	89.7
	5	6	10.0	10.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2	36.7	37.3	37.3
	2	1	1.7	1.7	39.0
유효	3	5	8.3	8.5	47.5
	4	30	50.0	50.8	98.3
	5	1	1.7	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1.7	1.7	1.7
	2	11	18.3	18.6	20.3
유효	3	9	15.0	15.3	35.6
	4	31	51.7	52.5	88.1
	5	7	11.7	11.9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4	6.7	6.9	6.9
	3	4	6.7	6.9	13.8
유효	4	35	58.3	60.3	74.1
	5	15	25.0	25.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2	1	1.7	1.7	1.7
		3	5	8.3	8.6	10.3
유효		4	34	56.7	58.6	69.0
		5	18	30.0	31.0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3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2	53.3	54.2
		2	2	3.3	57.6
유효		3	23	38.3	96.6
		4	2	3.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	6.7	6.8
		2	22	36.7	44.1
유효		3	25	41.7	86.4
		4	6	10.0	96.6
		5	2	3.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Group \$문항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54	65.9	90.0	
	2	14	17.1	23.3	
	3	3	3.7	5.0	
	4	7	8.5	11.7	
	5	4	4.9	6.7	
		-----	-----	-----	
		Total responses	82	100.0	136.7

3.8. 국어교육자 집단 통계표

		문항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8	96.7	96.7	96.7
	2	2	3.3	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5	91.7	91.7	91.7
	2	5	8.3	8.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4	56.7	63.0	63.0
	3	19	31.7	35.2	98.1
	4	1	1.7	1.9	100.0
	합계	54	9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0.0		
	합계	60	100.0		

		문항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0	5.0
	2	5	8.3	8.3	13.3
	3	15	25.0	25.0	38.3
	4	27	45.0	45.0	83.3
	5	10	16.7	16.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3	5.0	5.0	5.0
	3	23	38.3	38.3	43.3
	4	27	45.0	45.0	88.3
	5	7	11.7	1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1	1.7	1.7	1.7
	4	1	1.7	1.7	3.4
	5	57	95.0	96.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4	73.3	75.9	75.9
	2	7	11.7	12.1	87.9
	3	2	3.3	3.4	91.4
	4	2	3.3	3.4	94.8
	5	3	5.0	5.2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4	7	11.7	11.9	11.9
	5	52	86.7	88.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3	3	5.0	5.2	6.9
	4	8	13.3	13.8	20.7
	5	46	76.7	79.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1	1.7	1.7	1.7
	3	4	6.7	6.8	8.5
	4	10	16.7	16.9	25.4
	5	44	73.3	74.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4	73.3	75.9	75.9
	2	9	15.0	15.5	91.4
	3	1	1.7	1.7	93.1
	4	2	3.3	3.4	96.6
	5	2	3.3	3.4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6	10.0	10.2	11.9
	3	17	28.3	28.8	40.7
	4	16	26.7	27.1	67.8
	5	19	31.7	32.2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6.7	6.8	6.8
	2	4	6.7	6.8	13.6
	3	17	28.3	28.8	42.4
	4	20	33.3	33.9	76.3
	5	14	23.3	23.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13	21.7	22.0	23.7
	3	19	31.7	32.2	55.9
	4	12	20.0	20.3	76.3
	5	14	23.3	23.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2	3.3	3.4	3.4
	3	7	11.7	11.9	15.3
	4	15	25.0	25.4	40.7
	5	35	58.3	59.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5.0	15.3	15.3
	2	12	20.0	20.3	35.6
	3	16	26.7	27.1	62.7
	4	9	15.0	15.3	78.0
	5	13	21.7	22.0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1	1.7	1.7	1.7
	3	8	13.3	13.6	15.3
유효	4	18	30.0	30.5	45.8
	5	32	53.3	54.2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6	10.0	10.2	10.2
	2	15	25.0	25.4	35.6
유효	3	12	20.0	20.3	55.9
	4	12	20.0	20.3	76.3
	5	14	23.3	23.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2	3.3	3.4	3.4
	3	6	10.0	10.2	13.6
유효	4	22	36.7	37.3	50.8
	5	29	48.3	49.2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0	16.7	17.9	17.9
	2	13	21.7	23.2	41.1
유효	3	20	33.3	35.7	76.8
	4	8	13.3	14.3	91.1
	5	5	8.3	8.9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2.5	12.5
	2	13	21.7	23.2	35.7

		3	19	31.7	33.9	69.6
		4	10	16.7	17.9	87.5
		5	7	11.7	12.5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3.3	3.6
		2	5	8.3	12.7
유효		3	20	33.3	49.1
		4	13	21.7	72.7
		5	15	25.0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6-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	8.3	9.1
		2	10	16.7	27.3
유효		3	21	35.0	65.5
		4	11	18.3	85.5
		5	8	13.3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6-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3.3	3.6
		2	4	6.7	10.9
유효		3	7	11.7	23.6
		4	21	35.0	61.8
		5	21	35.0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6-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2	53.3	58.2
		2	17	28.3	89.1
유효		3	2	3.3	92.7
		4	1	1.7	94.5
		5	3	5.0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6-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41.7	44.6	44.6
	2	15	25.0	26.8	71.4
	3	11	18.3	19.6	91.1
	4	3	5.0	5.4	96.4
	5	2	3.3	3.6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9	48.3	51.8	51.8
	2	18	30.0	32.1	83.9
	3	5	8.3	8.9	92.9
	4	1	1.7	1.8	94.6
	5	3	5.0	5.4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6-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8	1.8
	2	4	6.7	7.3	9.1
	3	12	20.0	21.8	30.9
	4	16	26.7	29.1	60.0
	5	22	36.7	40.0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5	91.7	93.2	93.2
	2	4	6.7	6.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9	31.7	32.2	32.2
	2	40	66.7	67.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8	96.7	98.3	98.3
	2	1	1.7	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8	96.7	98.3	98.3
	2	1	1.7	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1	85.0	86.4	86.4
	2	8	13.3	13.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	25.0	25.4	25.4
	2	44	73.3	74.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0	83.3	84.7	84.7
	2	9	15.0	15.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5	75.0	76.3	76.3
	2	14	23.3	23.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4	90.0	91.5	91.5
유효	2	5	8.3	8.5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8	96.7	98.3	98.3
유효	2	1	1.7	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5	58.3	59.3	59.3
유효	2	24	40.0	40.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7	95.0	98.3	98.3
유효	2	1	1.7	1.7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6	60.0	61.0	61.0
유효	2	23	38.3	39.0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5	91.7	93.2	93.2
유효	2	4	6.7	6.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1	51	85.0	87.9	87.9
유효	2	7	11.7	12.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1	85.0	87.9	87.9
유효	2	7	11.7	12.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7	78.3	81.0	81.0
유효	2	11	18.3	19.0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4	56.7	59.6	59.6
유효	2	23	38.3	40.4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3	88.3	91.4	91.4
유효	2	5	8.3	8.6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4	23.3	24.1	24.1
유효	2	44	73.3	75.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41.7	43.1	43.1

	2	33	55.0	56.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3	38.3	39.7	39.7
유효	2	35	58.3	60.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2	86.7	89.7	89.7
유효	2	6	10.0	10.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7	28.3	28.8	28.8
유효	2	42	70.0	71.2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4	56.7	57.6	57.6
유효	2	25	41.7	42.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7	11.7	11.9	11.9
유효	2	52	86.7	88.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	13.3	13.8	13.8
유효	2	50	83.3	86.2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1	35.0	35.6	35.6
유효	2	38	63.3	64.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8	63.3	64.4	64.4
유효	2	21	35.0	35.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	13.3	13.6	13.6
유효	2	51	85.0	86.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0	16.7	16.9	16.9
유효	2	49	81.7	83.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18.3	18.6	18.6
유효	2	48	80.0	81.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	13.3	13.6	13.6
유효	2	51	85.0	86.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4	40.0	41.4	41.4
	2	34	56.7	58.6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2.1	12.1
	2	51	85.0	87.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8-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41.7	42.4	42.4
	2	34	56.7	57.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5.0	15.3	15.3
	2	50	83.3	84.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0.0	20.3	20.3
	2	47	78.3	79.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0.0	20.3	20.3
	2	47	78.3	79.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	--	----	-------	--	--

문항8-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	28.3	28.8	28.8
	2	42	70.0	71.2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9	31.7	32.2	32.2
	2	40	66.7	67.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6.9	16.9
	2	49	81.7	83.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7	61.7	62.7	62.7
	2	22	36.7	37.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41.7	42.4	42.4
	2	34	56.7	57.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8	46.7	47.5	47.5
	2	31	51.7	52.5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6.9	16.9
	2	49	81.7	83.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2	3.3	3.3	3.3
	4	19	31.7	31.7	35.0
	5	39	65.0	65.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6	10.0	10.0	10.0
	4	18	30.0	30.0	40.0
	5	36	60.0	60.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6	10.0	10.0	11.7
	3	5	8.3	8.3	20.0
	4	15	25.0	25.0	45.0
	5	33	55.0	55.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3	5.0	5.0	5.0
	3	3	5.0	5.0	10.0
	4	14	23.3	23.3	33.3
	5	40	66.7	66.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	21.7	21.7	21.7
	2	15	25.0	25.0	46.7
	3	9	15.0	15.0	61.7
	4	10	16.7	16.7	78.3
	5	13	21.7	2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6.7	6.7	6.7
	2	15	25.0	25.0	31.7
	3	5	8.3	8.3	40.0
	4	22	36.7	36.7	76.7
	5	14	23.3	2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4	6.7	6.7	8.3
	3	4	6.7	6.7	15.0
	4	18	30.0	30.0	45.0
	5	33	55.0	55.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0	5.0
	2	15	25.0	25.0	30.0
	3	3	5.0	5.0	35.0
	4	14	23.3	23.3	58.3
	5	25	41.7	4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8.3	8.3	8.3
	2	11	18.3	18.3	26.7
	3	5	8.3	8.3	35.0
	4	22	36.7	36.7	71.7
	5	17	28.3	28.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	25.0	25.0	25.0
	2	16	26.7	26.7	51.7
	3	7	11.7	11.7	63.3
	4	11	18.3	18.3	81.7
	5	11	18.3	18.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	21.7	21.7	21.7
	2	24	40.0	40.0	61.7

	3	16	26.7	26.7	88.3
	4	7	11.7	1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2	3.3	3.3	3.3
	4	22	36.7	36.7	40.0
	5	36	60.0	60.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5	8.3	8.3	8.3
	4	18	30.0	30.0	38.3
	5	37	61.7	6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4	3.4
	2	30	50.0	51.7	55.2
	3	14	23.3	24.1	79.3
	4	7	11.7	12.1	91.4
	5	5	8.3	8.6	100.0
결측	합계	58	96.7	100.0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5	8.3	8.3	8.3
	3	23	38.3	38.3	46.7
	4	31	51.7	51.7	98.3
	5	1	1.7	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4	3.4
	2	14	23.3	23.7	27.1
	3	7	11.7	11.9	39.0
	4	23	38.3	39.0	78.0
	5	13	21.7	22.0	100.0
결측	합계	59	98.3	100.0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4	6.7	6.7	6.7
	3	7	11.7	11.7	18.3
유효	4	36	60.0	60.0	78.3
	5	13	21.7	2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8	13.3	13.6	13.6
	3	7	11.7	11.9	25.4
유효	4	32	53.3	54.2	79.7
	5	12	20.0	20.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11	18.3	18.3	18.3
	3	13	21.7	21.7	40.0
유효	4	25	41.7	41.7	81.7
	5	11	18.3	18.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1.7	1.7	1.7
	2	6	10.0	10.0	11.7
유효	3	28	46.7	46.7	58.3
	4	23	38.3	38.3	96.7
	5	2	3.3	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6	26.7	26.7	26.7
	3	8	13.3	13.3	40.0
유효	4	35	58.3	58.3	98.3
	5	1	1.7	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1.7	1.7	1.7
	2	7	11.7	11.7	13.3
유효	3	11	18.3	18.3	31.7
	4	32	53.3	53.3	85.0
	5	9	15.0	15.0	100.0

합계	60	100.0	100.0
----	----	-------	-------

문항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7	11.7	11.7
	3	10	16.7	28.3
	4	23	38.3	66.7
	5	20	3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3	11	18.3	20.0
	4	27	45.0	65.0
	5	21	35.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3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1	51.7	51.7
	2	2	3.3	55.0
	3	25	41.7	96.7
	4	2	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8.3	8.3
	2	16	26.7	35.0
	3	26	43.3	78.3
	4	12	20.0	98.3
	5	1	1.7	100.0
합계	60	100.0	100.0	

Group \$문항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58	69.9	98.3
	2	14	16.9	23.7
	3	2	2.4	3.4
	4	7	8.4	11.9
	5	2	2.4	3.4
		-----	-----	-----
Total responses		83	100.0	140.7

Group \$문항19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3	5.3	5.5
	2	44	77.2	80.0
	3	3	5.3	5.5
	4	7	12.3	12.7
		-----	-----	-----
Total responses		57	100.0	103.6

Group \$문항2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14	26.9	28.0
	2	22	42.3	44.0
	3	4	7.7	8.0
	5	12	23.1	24.0
		-----	-----	-----
Total responses		52	100.0	104.0

3.9. 문인 집단 통계표

		문항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6	72.0	72.0	72.0
	2	14	28.0	2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4	48.0	48.0	48.0
	2	26	52.0	5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8	36.0	62.1	62.1
	2	1	2.0	3.4	65.5
	3	5	10.0	17.2	82.8
	4	5	10.0	17.2	100.0
	합계	29	5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	42.0		
	합계	50	100.0		

		문항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8.0	8.0	8.0
	2	8	16.0	16.0	24.0
	3	17	34.0	34.0	58.0
	4	18	36.0	36.0	94.0
	5	3	6.0	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10.0	10.0	10.0
	2	6	12.0	12.0	22.0
	3	19	38.0	38.0	60.0
	4	18	36.0	36.0	96.0
	5	2	4.0	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3	3	6.0	6.0	8.0
	4	7	14.0	14.0	22.0
	5	39	78.0	7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3	66.0	66.0	66.0
	2	10	20.0	20.0	86.0
	3	2	4.0	4.0	90.0
	4	1	2.0	2.0	92.0
	5	4	8.0	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4	8.0	8.2	8.2
	4	11	22.0	22.4	30.6
	5	34	68.0	69.4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2	4.0	4.1	6.1
	3	8	16.0	16.3	22.4
	4	8	16.0	16.3	38.8
	5	30	60.0	61.2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2	4.0	4.1	6.1
	3	9	18.0	18.4	24.5
	4	9	18.0	18.4	42.9
	5	28	56.0	57.1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2	64.0	65.3	65.3
	2	9	18.0	18.4	83.7
	3	5	10.0	10.2	93.9
	4	2	4.0	4.1	98.0
	5	1	2.0	2.0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	----	-------

문항6-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8.0	8.2	8.2
	2	7	14.0	14.3	22.4
	3	20	40.0	40.8	63.3
	4	10	20.0	20.4	83.7
	5	8	16.0	16.3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6.0	6.1	6.1
	2	5	10.0	10.2	16.3
	3	21	42.0	42.9	59.2
	4	14	28.0	28.6	87.8
	5	6	12.0	12.2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8.0	8.2	8.2
	2	10	20.0	20.4	28.6
	3	12	24.0	24.5	53.1
	4	15	30.0	30.6	83.7
	5	8	16.0	16.3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4	8.0	8.2	10.2
	3	10	20.0	20.4	30.6
	4	15	30.0	30.6	61.2
	5	19	38.0	38.8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	26.0	26.5	26.5
	2	9	18.0	18.4	44.9

		3	8	16.0	16.3	61.2
		4	10	20.0	20.4	81.6
		5	9	18.0	18.4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	2.0		
	합계	50	50	100.0		

문항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0
		2	3	6.0	6.1
유효		3	11	22.0	22.4
		4	16	32.0	32.7
		5	18	36.0	36.7
	합계	49	98.0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	2.0	
	합계	50	50	100.0	

문항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5	30.0	30.6
		2	10	20.0	20.4
유효		3	9	18.0	18.4
		4	6	12.0	12.2
		5	9	18.0	18.4
	합계	49	98.0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	2.0	
	합계	50	50	100.0	

문항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0
		2	2	4.0	4.1
유효		3	13	26.0	26.5
		4	15	30.0	30.6
		5	18	36.0	36.7
	합계	49	98.0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	2.0	
	합계	50	50	100.0	

문항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	16.0	16.7
		2	8	16.0	16.7
유효		3	16	32.0	33.3
		4	9	18.0	18.8
		5	7	14.0	14.6
	합계	48	96.0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2	4.0	
	합계	50	50	100.0	

문항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10.0	10.4	10.4
	2	15	30.0	31.3	41.7
	3	14	28.0	29.2	70.8
	4	6	12.0	12.5	83.3
	5	8	16.0	16.7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4.0	4.2	4.2
	2	14	28.0	29.2	33.3
	3	11	22.0	22.9	56.3
	4	11	22.0	22.9	79.2
	5	10	20.0	20.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2.0	12.5	12.5
	2	13	26.0	27.1	39.6
	3	17	34.0	35.4	75.0
	4	9	18.0	18.8	93.8
	5	3	6.0	6.3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6.0	6.3	6.3
	2	10	20.0	20.8	27.1
	3	10	20.0	20.8	47.9
	4	15	30.0	31.3	79.2
	5	10	20.0	20.8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3	66.0	68.8	68.8
	2	9	18.0	18.8	87.5
	3	2	4.0	4.2	91.7

	4	3	6.0	6.3	97.9
	5	1	2.0	2.1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2	44.0	45.8	45.8
	2	15	30.0	31.3	77.1
유효	3	9	18.0	18.8	95.8
	4	1	2.0	2.1	97.9
	5	1	2.0	2.1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7	54.0	56.3	56.3
	2	11	22.0	22.9	79.2
유효	3	7	14.0	14.6	93.8
	4	2	4.0	4.2	97.9
	5	1	2.0	2.1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6-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2.0	2.1	2.1
	2	5	10.0	10.4	12.5
유효	3	13	26.0	27.1	39.6
	4	15	30.0	31.3	70.8
	5	14	28.0	29.2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6	72.0	72.0	72.0
유효	2	14	28.0	2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6	12.0	12.0	12.0
유효	2	44	88.0	8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6	92.0	92.0	92.0
	2	4	8.0	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4	88.0	88.0	88.0
	2	6	12.0	1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5	70.0	70.0	70.0
	2	15	30.0	3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8.0	18.0	18.0
	2	41	82.0	8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1	62.0	62.0	62.0
	2	19	38.0	3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2	44.0	44.0	44.0
	2	28	56.0	5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5	70.0	70.0	70.0
	2	15	30.0	3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2	84.0	84.0	84.0
	2	8	16.0	1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4.0	24.0	24.0
	2	38	76.0	7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2	84.0	84.0	84.0
	2	8	16.0	1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4.0	24.0	24.0
	2	38	76.0	7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2	84.0	84.0	84.0
	2	8	16.0	1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1	82.0	82.0	82.0
	2	9	18.0	1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2	84.0	84.0	84.0
	2	8	16.0	1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7	54.0	54.0	54.0
	2	23	46.0	4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8	36.0	36.0	36.0
	2	32	64.0	6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0	80.0	80.0	80.0
	2	10	20.0	2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22.0	22.0	22.0
	2	39	78.0	7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4.0	24.0	24.0
	2	38	76.0	7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22.0	22.0	22.0
	2	39	78.0	7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9	78.0	78.0	78.0
	2	11	22.0	2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22.0	22.0	22.0
	2	39	78.0	7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	60.0	60.0	60.0
	2	20	40.0	4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6.0	16.0	16.0
	2	42	84.0	8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1	7	14.0	14.0	14.0
유효	2	43	86.0	8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9	38.0	38.0	38.0
유효	2	31	62.0	6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8	56.0	57.1	57.1
유효	2	21	42.0	42.9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	16.0	16.0	16.0
유효	2	42	84.0	8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6	32.0	32.0	32.0
유효	2	34	68.0	6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2	24.0	24.5	24.5
유효	2	37	74.0	75.5	100.0
	합계	49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0		
	합계	50	100.0		

문항8-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22.0	22.0	22.0
유효	2	39	78.0	7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5	50.0	50.0	50.0
유효	2	25	50.0	5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2.0	12.0	12.0
	2	44	88.0	8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6	52.0	52.0	52.0
	2	24	48.0	4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20.0	20.0	20.0
	2	40	80.0	8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20.0	20.0	20.0
	2	40	80.0	8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20.0	20.0	20.0
	2	40	80.0	8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6	32.0	32.0	32.0
	2	34	68.0	6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1	42.0	42.0	42.0
	2	29	58.0	5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20.0	20.0	20.0
	2	40	80.0	8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2	64.0	64.0	64.0
	2	18	36.0	3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1	42.0	42.0	42.0
	2	29	58.0	5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	50.0	50.0	50.0
	2	25	50.0	5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8-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4.0	24.0	24.0
	2	38	76.0	7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4	8.0	8.0	8.0
	3	6	12.0	12.0	20.0
	4	19	38.0	38.0	58.0
	5	21	42.0	4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4.0	4.0	4.0
	2	8	16.0	16.0	20.0
	3	9	18.0	18.0	38.0
	4	17	34.0	34.0	72.0
	5	14	28.0	2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8.0	8.0	8.0
	2	11	22.0	22.0	30.0
	3	7	14.0	14.0	44.0
	4	11	22.0	22.0	66.0
	5	17	34.0	3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7	14.0	14.0	16.0
	3	10	20.0	20.0	36.0
	4	11	22.0	22.0	58.0
	5	21	42.0	42.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6	32.0	32.0	32.0
	2	14	28.0	28.0	60.0
	3	9	18.0	18.0	78.0
	4	8	16.0	16.0	94.0
	5	3	6.0	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4.0	14.0	14.0
	2	11	22.0	22.0	36.0
	3	7	14.0	14.0	50.0
	4	17	34.0	34.0	84.0
	5	8	16.0	1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8.0	8.0	8.0
	2	5	10.0	10.0	18.0
	3	13	26.0	26.0	44.0
	4	15	30.0	30.0	74.0
	5	13	26.0	2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8.0	18.0	18.0
	2	13	26.0	26.0	44.0
	3	8	16.0	16.0	60.0
	4	7	14.0	14.0	74.0
	5	13	26.0	2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8.0	18.0	18.0

	2	10	20.0	20.0	38.0
	3	12	24.0	24.0	62.0
	4	10	20.0	20.0	82.0
	5	9	18.0	1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2.0	12.0	12.0
	2	19	38.0	38.0	50.0
	3	11	22.0	22.0	72.0
	4	7	14.0	14.0	86.0
	5	7	14.0	1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22.0	22.0	22.0
	2	15	30.0	30.0	52.0
	3	14	28.0	28.0	80.0
	4	6	12.0	12.0	92.0
	5	4	8.0	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1	2.0	2.0	2.0
	3	9	18.0	18.0	20.0
	4	21	42.0	42.0	62.0
	5	19	38.0	3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3	6.0	6.0	8.0
	3	8	16.0	16.0	24.0
	4	18	36.0	36.0	60.0
	5	20	40.0	4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2.0	12.0	12.0
	2	15	30.0	30.0	42.0
	3	20	40.0	40.0	82.0
	4	9	18.0	1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6	12.0	12.0	14.0
	3	26	52.0	52.0	66.0
	4	17	34.0	3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6.0	6.3	6.3
	2	6	12.0	12.5	18.8
	3	16	32.0	33.3	52.1
	4	16	32.0	33.3	85.4
	5	7	14.0	14.6	100.0
	합계	48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0		
	합계	50	100.0		

문항2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1	2.0	2.0	2.0
	3	10	20.0	20.0	22.0
	4	26	52.0	52.0	74.0
	5	13	26.0	26.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3	6.0	6.0	8.0
	3	10	20.0	20.0	28.0
	4	22	44.0	44.0	72.0
	5	14	28.0	2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9	18.0	18.0	20.0
	3	19	38.0	38.0	58.0
	4	14	28.0	28.0	86.0
	5	7	14.0	1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3	6.0	6.0	8.0

	3	22	44.0	44.0	52.0
	4	20	40.0	40.0	92.0
	5	4	8.0	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	34.0	34.0	34.0
	2	6	12.0	12.0	46.0
	3	5	10.0	10.0	56.0
	4	20	40.0	40.0	96.0
	5	2	4.0	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2.0	2.0	2.0
	2	4	8.0	8.0	10.0
	3	14	28.0	28.0	38.0
	4	24	48.0	48.0	86.0
	5	7	14.0	1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10.0	10.0	10.0
	2	7	14.0	14.0	24.0
	3	17	34.0	34.0	58.0
	4	17	34.0	34.0	92.0
	5	4	8.0	8.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4.0	4.0	4.0
	2	2	4.0	4.0	8.0
	3	17	34.0	34.0	42.0
	4	24	48.0	48.0	90.0
	5	5	10.0	10.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3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8	36.0	36.0	36.0
	2	4	8.0	8.0	44.0
	3	26	52.0	52.0	96.0
	4	2	4.0	4.0	100.0
	합계	50	100.0	100.0	

문항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4.0	4.0	4.0
	2	10	20.0	20.0	24.0
	3	27	54.0	54.0	78.0
	4	11	22.0	22.0	100.0
	합계	50	100.0	100.0	

Group \$문항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41	70.7	85.4
		2	9	15.5	18.8
		3	1	1.7	2.1
		4	3	5.2	6.3
		5	4	6.9	8.3
Total responses			58	100.0	120.8

Group \$문항19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1	2.3	2.3
		2	32	74.4	74.4
		3	3	7.0	7.0
		4	6	14.0	14.0
		5	1	2.3	2.3
Total responses			43	100.0	100.0

Group \$문항2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6	14.3	14.6
		2	15	35.7	36.6
		3	5	11.9	12.2
		4	2	4.8	4.9
		5	14	33.3	34.1
Total responses			42	100.0	102.4

3.10. 기타 집단 통계표

문항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4	73.3	74.6	74.6
	2	15	25.0	25.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	25.0	25.0	25.0
	2	45	75.0	75.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5.0	47.4	47.4
	3	7	11.7	36.8	84.2
	4	3	5.0	15.8	100.0
	합계	19	3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1	68.3		
	합계	60	100.0		

문항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3	3.3
	2	9	15.0	15.0	18.3
	3	16	26.7	26.7	45.0
	4	26	43.3	43.3	88.3
	5	7	11.7	1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3	5.0	5.1	6.8
	3	28	46.7	47.5	54.2
	4	24	40.0	40.7	94.9
	5	3	5.0	5.1	100.0
결측	합계	59	98.3	100.0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4	3.4
	3	2	3.3	3.4	6.9
	4	3	5.0	5.2	12.1

	5	51	85.0	87.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5	75.0	77.6	77.6
	2	4	6.7	6.9	84.5
유효	3	4	6.7	6.9	91.4
	4	2	3.3	3.4	94.8
	5	3	5.0	5.2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1.7	1.7	1.7
	3	1	1.7	1.7	3.4
유효	4	8	13.3	13.8	17.2
	5	48	80.0	82.8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1.7	1.7	1.7
	3	8	13.3	13.8	15.5
유효	4	11	18.3	19.0	34.5
	5	38	63.3	65.5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3.3	3.5	3.5
	3	4	6.7	7.0	10.5
유효	4	12	20.0	21.1	31.6
	5	39	65.0	68.4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6-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3	71.7	74.1	74.1
	2	6	10.0	10.3	84.5

	3	4	6.7	6.9	91.4
	4	2	3.3	3.4	94.8
	5	3	5.0	5.2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1.7	1.7	1.7
	2	6	10.0	10.3	12.1
유효	3	21	35.0	36.2	48.3
	4	16	26.7	27.6	75.9
	5	14	23.3	24.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7	11.7	12.1	12.1
	3	17	28.3	29.3	41.4
유효	4	20	33.3	34.5	75.9
	5	14	23.3	24.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3.3	3.4	3.4
	2	10	16.7	17.2	20.7
유효	3	21	35.0	36.2	56.9
	4	10	16.7	17.2	74.1
	5	15	25.0	25.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2	3.3	3.4	3.4
	3	12	20.0	20.7	24.1
유효	4	18	30.0	31.0	55.2
	5	26	43.3	44.8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7.2	17.2
	2	13	21.7	22.4	39.7
	3	13	21.7	22.4	62.1
	4	11	18.3	19.0	81.0
	5	11	18.3	19.0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3	5.0	5.2	6.9
	3	9	15.0	15.5	22.4
	4	23	38.3	39.7	62.1
	5	22	36.7	37.9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8.3	8.6	8.6
	2	13	21.7	22.4	31.0
	3	20	33.3	34.5	65.5
	4	10	16.7	17.2	82.8
	5	10	16.7	17.2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4	6.7	6.9	6.9
	3	11	18.3	19.0	25.9
	4	23	38.3	39.7	65.5
	5	20	33.3	34.5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2.1	12.1
	2	18	30.0	31.0	43.1
	3	15	25.0	25.9	69.0
	4	11	18.3	19.0	87.9
	5	7	11.7	12.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	10.0	10.3	10.3
	2	17	28.3	29.3	39.7
	3	13	21.7	22.4	62.1
	4	13	21.7	22.4	84.5
	5	9	15.0	15.5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6.7	6.9	6.9
	2	11	18.3	19.0	25.9
	3	18	30.0	31.0	56.9
	4	18	30.0	31.0	87.9
	5	7	11.7	12.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2.1	12.1
	2	11	18.3	19.0	31.0
	3	21	35.0	36.2	67.2
	4	12	20.0	20.7	87.9
	5	7	11.7	12.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2	5.2
	2	5	8.3	8.6	13.8
	3	15	25.0	25.9	39.7
	4	18	30.0	31.0	70.7
	5	17	28.3	29.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0	66.7	70.2	70.2

		2	12	20.0	21.1	91.2
		3	4	6.7	7.0	98.2
		4	1	1.7	1.8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6-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5	58.3	60.3
		2	11	18.3	79.3
유효		3	7	11.7	91.4
		4	4	6.7	98.3
		5	1	1.7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2	70.0	72.4
		2	10	16.7	89.7
유효		3	3	5.0	94.8
		4	2	3.3	98.3
		5	1	1.7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6-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5.0	5.2
		2	3	5.0	10.3
유효		3	18	30.0	41.4
		4	15	25.0	67.2
		5	19	31.7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4	73.3	74.6
유효		2	15	25.0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

	1	9	15.0	15.3	15.3
유효	2	50	83.3	84.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1	85.0	86.4	86.4
유효	2	8	13.3	13.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1	85.0	87.9	87.9
유효	2	7	11.7	12.1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7	61.7	62.7	62.7
유효	2	22	36.7	37.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	18.3	18.6	18.6
유효	2	48	80.0	81.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8	63.3	64.4	64.4
유효	2	21	35.0	35.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4	40.0	40.7	40.7

	2	35	58.3	59.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1	68.3	69.5	69.5
유효	2	18	30.0	30.5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8	80.0	81.4	81.4
유효	2	11	18.3	18.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9	31.7	32.2	32.2
유효	2	40	66.7	67.8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9	81.7	83.1	83.1
유효	2	10	16.7	16.9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8	30.0	30.5	30.5
유효	2	41	68.3	69.5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4	73.3	74.6	74.6
유효	2	15	25.0	25.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7	78.3	79.7	79.7
유효	2	12	20.0	20.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8	80.0	81.4	81.4
유효	2	11	18.3	18.6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1	51.7	52.5	52.5
유효	2	28	46.7	47.5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3	38.3	39.7	39.7
유효	2	35	58.3	60.3	100.0
	합계	58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문항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6	76.7	78.0	78.0
유효	2	13	21.7	22.0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0	16.7	16.9	16.9
유효	2	49	81.7	83.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18.3	18.6	18.6
	2	48	80.0	81.4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1.9	11.9
	2	52	86.7	88.1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7	78.3	79.7	79.7
	2	12	20.0	20.3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	28.3	29.8	29.8
	2	40	66.7	70.2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2	53.3	56.1	56.1
	2	25	41.7	43.9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	11.7	12.5	12.5
	2	49	81.7	87.5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	--	----	-------	--	--

문항8-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3.3	14.0	14.0
	2	49	81.7	86.0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1	35.0	36.8	36.8
	2	36	60.0	63.2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4	56.7	59.6	59.6
	2	23	38.3	40.4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3.3	14.3	14.3
	2	48	80.0	85.7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	21.7	22.8	22.8
	2	44	73.3	77.2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5.0	15.8	15.8
	2	48	80.0	84.2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0.0	21.1	21.1
	2	45	75.0	78.9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8	46.7	49.1	49.1
	2	29	48.3	50.9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0.0	21.1	21.1
	2	45	75.0	78.9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	50.0	52.6	52.6
	2	27	45.0	47.4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7.5	17.5
	2	47	78.3	82.5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	16.7	17.9	17.9
	2	46	76.7	82.1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	13.3	14.3	14.3
	2	48	80.0	85.7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	25.0	26.3	26.3
	2	42	70.0	73.7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0	33.3	35.7	35.7
	2	36	60.0	64.3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8-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1	18.3	19.3	19.3
	2	46	76.7	80.7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6	60.0	63.2	63.2
	2	21	35.0	36.8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1	35.0	36.8	36.8
	2	36	60.0	63.2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6	43.3	45.6	45.6
	2	31	51.7	54.4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8-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2	20.0	21.1	21.1
	2	45	75.0	78.9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2	3.3	3.3	3.3
	3	3	5.0	5.0	8.3
	4	18	30.0	30.0	38.3
	5	37	61.7	6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1	5.1
	2	6	10.0	10.2	15.3
	3	9	15.0	15.3	30.5
	4	16	26.7	27.1	57.6
	5	25	41.7	42.4	100.0
결측	합계	59	98.3	100.0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4	3.4
	2	4	6.7	6.8	10.2
	3	11	18.3	18.6	28.8
	4	14	23.3	23.7	52.5
	5	28	46.7	47.5	100.0
결측	합계	59	98.3	100.0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문항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3	3.3
	2	5	8.3	8.3	11.7

	3	10	16.7	16.7	28.3
	4	20	33.3	33.3	61.7
	5	23	38.3	38.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0	33.3	33.3	33.3
	2	21	35.0	35.0	68.3
	3	8	13.3	13.3	81.7
	4	6	10.0	10.0	91.7
	5	5	8.3	8.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8.3	8.3	8.3
	2	11	18.3	18.3	26.7
	3	9	15.0	15.0	41.7
	4	21	35.0	35.0	76.7
	5	14	23.3	2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0	5.0
	2	12	20.0	20.0	25.0
	3	13	21.7	21.7	46.7
	4	15	25.0	25.0	71.7
	5	17	28.3	28.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8.3	8.3	8.3
	2	15	25.0	25.0	33.3
	3	4	6.7	6.7	40.0
	4	16	26.7	26.7	66.7
	5	20	33.3	3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0	5.0
	2	14	23.3	23.3	28.3
	3	10	16.7	16.7	45.0
	4	15	25.0	25.0	70.0
	5	18	30.0	30.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5.0	15.0	15.0
	2	23	38.3	38.3	53.3
	3	15	25.0	25.0	78.3
	4	9	15.0	15.0	93.3
	5	4	6.7	6.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	15.0	15.0	15.0
	2	29	48.3	48.3	63.3
	3	12	20.0	20.0	83.3
	4	9	15.0	15.0	98.3
	5	1	1.7	1.7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	3	5.0	5.3	5.3
	4	26	43.3	45.6	50.9
	5	28	46.7	49.1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2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1	1.7	1.8	1.8
	3	4	6.7	7.0	8.8
	4	29	48.3	50.9	59.6
	5	23	38.3	40.4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	8.3	8.8	8.8
	2	21	35.0	36.8	45.6
	3	14	23.3	24.6	70.2
	4	15	25.0	26.3	96.5
	5	2	3.3	3.5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	7	11.7	12.3	12.3
	3	26	43.3	45.6	57.9
유효	4	23	38.3	40.4	98.2
	5	1	1.7	1.8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26-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3.3	3.6	3.6
	2	15	25.0	26.8	30.4
유효	3	15	25.0	26.8	57.1
	4	16	26.7	28.6	85.7
	5	8	13.3	14.3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26-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	3.3	3.6	3.6
	2	3	5.0	5.5	9.1
유효	3	5	8.3	9.1	18.2
	4	28	46.7	50.9	69.1
	5	17	28.3	30.9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26-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4	6.7	7.1	7.1
	2	5	8.3	8.9	16.1
유효	3	10	16.7	17.9	33.9
	4	27	45.0	48.2	82.1
	5	10	16.7	17.9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26-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	5.0	5.4	5.4
	2	9	15.0	16.1	21.4
유효	3	16	26.7	28.6	50.0
	4	17	28.3	30.4	80.4
	5	11	18.3	19.6	100.0
	합계	56	93.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7
	합계	60	100.0

문항26-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5	5.5
	2	4	6.7	7.3	12.7
	3	15	25.0	27.3	40.0
	4	28	46.7	50.9	90.9
	5	5	8.3	9.1	100.0
	합계	55	91.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8.3		
	합계	60	100.0		

문항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5	25.0	26.3	26.3
	2	3	5.0	5.3	31.6
	3	9	15.0	15.8	47.4
	4	28	46.7	49.1	96.5
	5	2	3.3	3.5	100.0
	합계	5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0		
	합계	60	100.0		

문항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8	13.3	13.3	15.0
	3	12	20.0	20.0	35.0
	4	31	51.7	51.7	86.7
	5	8	13.3	1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	5.0	5.0	5.0
	2	8	13.3	13.3	18.3
	3	14	23.3	23.3	41.7
	4	23	38.3	38.3	80.0
	5	12	20.0	20.0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	1.7	1.7	1.7
	2	2	3.3	3.3	5.0
	3	12	20.0	20.0	25.0
	4	36	60.0	60.0	85.0
	5	9	15.0	15.0	100.0

합계	60	100.0	100.0
----	----	-------	-------

문항3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	50.0	50.0
	2	3	5.0	55.0
	3	25	41.7	96.7
	4	2	3.3	100.0
	합계	60	100.0	100.0

문항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	3.3	3.4
	2	22	36.7	40.7
	3	26	43.3	84.7
	4	8	13.3	98.3
	5	1	1.7	100.0
합계	5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7	
합계	60	100.0		

Group \$문항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53	62.4	88.3
	2	16	18.8	26.7
	3	2	2.4	3.3
	4	9	10.6	15.0
	5	5	5.9	8.3
		-----	-----	-----
Total responses		85	100.0	141.7

Group \$문항19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6	10.7	10.9
	2	40	71.4	72.7
	3	3	5.4	5.5
	4	7	12.5	12.7
		-----	-----	-----
Total responses		56	100.0	101.8

Group \$문항25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1	11	23.9	28.9
		2	16	34.8	42.1
		3	9	19.6	23.7
		4	1	2.2	2.6
		5	9	19.6	23.7
			-----	-----	-----
Total responses			46	100.0	121.1

4. 설문 조사 서술식 문항 결과

번호	문항 33
1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점'이라고 할 때의 타당성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현행 맞춤법 부록에 규정되어 있는 문장 부호는 너무 적다. 현실과 안 맞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에 필요한 규정이 많이 빠져 있으므로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된 교재 혹은 설명이 필요.
4	문장 부호를 쓸 때, 띄어쓰기를 꼭 정해 주십시오. 예)일시:/일시:/4:5/5~6/5~6등 띄어 쓰는가 붙여 쓰는가?
5	단순한 체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6	개정도 중요하지만 문장 부호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함. 초중고교에서 반복적으로 교수학습할 필요 있음.
7	규정과 사용의 일치
8	표준말은 어원을 고려해야 하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문장 부호는 언중의 사용 양상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9	실제 사용하는 문장 부호의 용어 수월성 마련, 홍보 필요.
10	현행과 사용 실태가 너무 다름.
11	개정 전에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 같다. 나는 전공 분야라 관심이 있지만 아닌 사람들에게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인식될 것 같기 때문에.
12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문장 부호 규정과 개정에 관심을 이렇게 갖는다는 것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 생각한다.
13	일관성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14	개정할 경우 개정 후 문장 부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15	국민들의 문장 부호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보다 실용적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또한 개정 후에도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알고 사용하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정해서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16	실용적이고 많이 쓰는 문장 부호들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과 개정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17	문장 부호의 명칭이 문장 부호의 기능을 연상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8	문장 부호 규정과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국민적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봄.
19	부호 사용을 확대하여 문장을 통한 활발한 표현수단이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	영어 문장 부호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1	가끔 생소한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부호를 알게 되면 기억하기 힘들어 사용빈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모양하고 비슷한 물결표 같은 이름들은 와닿고 사용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들은 자동 소멸될 듯.
22	명칭을 현실화시켜 정규교육을 받은 자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23	현재 문장 부호 사용법의 홍보를 강화하고 실제로 일반인들의 인식, 사용 상태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파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어, 한국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호의 용법이 다른 경우 혼란스러우므로 철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24	문장 부호 사용규정에 관한 충분한 홍보 필요성
25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홍보와 교육이 덜 되어있어서, 일반인들이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어렵다. 쉬운 체계를 도입하거나 세계화 추세에 맞게 영어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6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이름을 혼동하거나 정확한 의미, 사용법을 혼동하는 문장 부호는 대대적인 홍보, 인식을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27	일반인들이 부호 규정을 잘 모르고 명칭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이후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28	교육상 언급이 되어지긴 하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외유학, 거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부호 규정에 대한 지식 존재유무가 모호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이 필요한 듯 합니다.
29	국어학자들만의 연구로는 한계가 있음. 영어,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어 문장 부호의 단점을 보완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30	,의 쓰임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조를 나타내는 문장 부호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31	문장 부호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2	사용 명칭이 문장 부호를 보면 의미를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3	일반적으로(실제로) 쓰이는 문장 부호의 정확성과 과거에 쓰였으나 개정된 문장 부호의 홍보,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호가 표준부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부호를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35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기호 써 주길
36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의사소통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선통신수단 등에 적합한, 개선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	규정이 있다는 사실부터 인지시켜 주세요.
38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쓰는 예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함.
39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며, 알더라도 복잡하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0	일단 교과과정에 넣어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함.
41	국민들에게 문장 부호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42	개선안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3	국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원고지에 글을 직접 써보면서 문장 부호를 익힐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44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알기 쉬운 문장 부호 언급. 복잡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장 부호 삭제 고려 등
45	공무원, 회사원 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문장 부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러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부족함.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함.

46	문장 부호에 대해 평상시에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고 앞으로 이를 습득하여 쓰도록 하겠다.
47	빙송에서 정확한 언어와 문장 부호를 써야한다. 초,중,고 학교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한다.
48	문장 부호가 너무 많고 어려우며 컴퓨터로 주로 문서작업을 하므로 고칠 필요가 있다.
49	초등학교에서 글 쓰는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야 문장 부호에 대한 습득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듯.
50	규정을 위한 규정, 개정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길.
51	문장 부호에 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기본적인 문장 부호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꼭 알아야만 하는 문장 부호에 대한 정리 및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52	널리 홍보될 수 있기를,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53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의사소통 불편해소를 위해 약간의 문장 부호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54	편견에 갇히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개정해 주세요
55	교육과정에 넣었으면 좋겠네요
56	난 잘 모르겠지만 과연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뭐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처럼 생각할 사람 많을테니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57	사람들의 사용 실태에 맞춰서 현행 문장 부호 규정 및 문장 부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58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보통 대중들은 문장 부호에 대해 큰 관심은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홍보부족 때문이라 생각한다.
59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보다는 실제 사용에 도움이 되고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0	컴퓨터 사용에 의한 새로운 문장 부호에 대한 제시가 부실한 듯
61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62	실제로 사람들이 문장 부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이제까지 규정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보다는 사용의 흐름에 맞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언어의 사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의 반영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3	문장 부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64	사용실태 조사하여 대다수가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65	컴퓨터 언어에 휩쓸리지 않는 바른 부호 규정이었으면 좋겠다.
66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67	학술자료 작성시에 보다 명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하도록 문장 부호를 강력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에 대해 검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문장 부호 검사 웹사이트와 같은 것)
68	일단 질문에 나오는 문장 부호들을 잘 모르는 것부터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69	사용 빈도가 낮거나 국제 표준이 아닌 문장 부호 제거. 운점과 고리점, 가운뎃점과 같이 모양이 비슷하거나 사용 용도가 비슷한 문장 부호는 하나로 통일.

70	올바른 문장 부호 사용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문장 작성 시에 “문장 부호 도움말 기능”을 추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71	1.논문작성시, 국어 시간에 배운 문장 부호 사용 규정과 영어 논문작성시에 사용되는 문장 부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해외에서 사용되는 공통되는 문장 부호 규정으로 통일화 되기를 바랍니다. 2.컴퓨터에서 특정 문장 부호를 사용하려면, 여러 키 조작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나, 휴대기기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부호의 제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3.개정 후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들의 입력 장치에서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72	개정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위해 홍보나 교육 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73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문장 부호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부호와 관련되는 이름으로요.
74	문장 부호에 관하여 지식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있어야 앞으로 개정된 사항을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고 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75	개정이 필요하진 않다 봅니다. 그보다는 (.,?!-'")말고는 용모를 잘 모르므로 교육 필요.
76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가 있어야 한다.
77	현행 문자 부호에 대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장 부호에 관련 없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문장 부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은 늘리고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쓰는 경향을 바탕으로
78	직관적인 문장 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9	문장 부호를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너무 언어학적인 내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80	문장 부호 사용 실태, 인식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1	문장 부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통일된 사용법 확산이 필요할 듯.
82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장 부호들을 표준화해 새 개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83	개정판 홍보가 중요합니다. 워드나 한글 등 프로그램에 간단한 설명메뉴 포함(단축키로).
84	현재 쓰지 않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장 부호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통합해야 함.
85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홍보 방안 마련. 문장 부호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86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따른 사용 형태에 따르기보다 언어 경쟁력 측면에서 고집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87	문장 부호명을 순우리말로 사용하기
88	문장 부호로 띄어쓰기 등과 마찬가지로 초중등 시절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
89	사용 방법을 모르겠어요. 적극적인 언론 광고.
90	교육이 잘 이뤄져서 규정대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91	책자 및 사용규정 홍보 활성화
92	잘 사용하지 않는데 부호가 너무 많다. 그리고 부호가 잘 사용되더라도 '실익'이 뭔지 의문이다. 온점, 반점, 따옴표만 잘 쓰면 일반인의 의사소통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다.

93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바른 문장 부호쓰기 알리미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94	청소년들 언어에서 나타나는 문장 부호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듯.
95	문장 부호는 온점, 물음표 등 빈도수가 높은 것이 아니면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만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개정된다면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
96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7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98	현재 컴퓨터에서 부호 입력시에 '자음+한자키'로 입력을 하는데 어떤 자음에 어떠한 부호가 있는지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용자에게 입력 방법을 알려주거나 체계를 정립하여 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잘 사용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9	체계적인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나 소통 수단일 뿐 실용성에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100	더 이상 쓰지 않는 문장 부호, 혹은 대부분이 잘못 쓰는 문장 부호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1	문장 부호 규정 및 문장 부호 개정 자체를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들며, 또한 모른다고 하여도 불편함이 없어, 알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102	책자나 규정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여 '정확한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103	규정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므로, 홍보에 노력이 필요할 듯.
104	세로쓰기의 문장 부호가 가로쓰기의 문장 부호와 쓰임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서책 표시) 통일성 있게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105	잘 모르고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매우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106	문장 부호 개정으로 효율적, 실제적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그에 대해 입지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문장 부호에 대한 설명의 기회 마련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07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구분이 모호하게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삭제나 수정 등이 필요하다. 또 구체적인 규정은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 세로쓰기 관련 문장 부호, 중괄호나 대괄호 등
108	문장 부호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문장 부호의 개정보다 시급한 것이 문장 부호의 홍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109	실제 사용에 맞고 알기 쉬운 문장 부호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110	문장 부호 역시 언어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학술적이고 규정적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거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서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융통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11	문장 부호의 명칭을 부르기 쉬운 것으로 하고, 쓰임새의 설명, 용례를 자세히 제시한 해설서를 만들어 주세요.
112	복잡한 문장 부호 규정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듯 합니다.
113	문장 부호 사용에 대한 풍부한 용례집을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114	사용 실태와 규정이 서로 다른 문장 부호의 개정, 문장 부호 사용법에 대한 홍보.
115	일반적으로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 같다. 사실 잘못 사용해도 크게 의미상

	잘못된 것이 아니라서 더더욱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초적인 문장 부호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116	몇몇 학교나 컴퓨터에 사용될 때 통일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일이 좀 되었으면 한다.
117	한글날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지는 요즘, 문장 부호 실태조사를 통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118	문장 부호에 대해 국문과가 아니면 따로 배울 일이 없다. 학창시절, 문장 부호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었다. 교과서에 제대로 들어가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19	세로쓰기 등 오늘날 사용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거나 점차 축소하여 사라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신 실생활에서 새로이 쓰이고 있는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보다 실생활에 유용한 규정이 되었으면 한다.
120	올바른 문장 부호가 친숙하지 않아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과 함께 국민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121	1.외국 문장에서 갖는 의미만을 담은 부호는 실제로 우리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으며 오히려 혼란만 줄 뿐이다. 2.학술용 부호와 일상 부호를 구분해 두는 게 필요할 듯.
122	인터넷, 통신 언어의 사용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문장 부호 첨가하고 과거의 것으로 쓰이지 않는 부호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23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한국어의 특수성과 세계 언어의 공통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4	문장 부호 규정을 보편화시켜서 통일된 부호로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5	오랫동안 써 와서 익숙한 문장 부호를 한꺼번에 개정하기 보다는 현재 많이 쓰지 않는 문장 부호부터 정리한 다음, 비슷한 성격의 것들을 하나로 묶어 간략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6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연구하자
127	<세로쓰기> 관련 ‘문장 부호’는 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합니다. 세로쓰기 거의 안 쓰니까요
128	일반적인 사용 양상과 규정의 충돌을 해소해야 함. 매체언어의 하나인 컴퓨터 사용법과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9	말줄임표를 … 점 3개만으로도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Word program에서 문자표에서 두 번씩 찾아 쓰기가 귀찮아서 온점 3개를 연속해서 쓰는 일이 잦습니다. 온점 3개는 온점과 구별되지 어려운 단점이 있으니 가운데점 3개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되, 두 번씩 중복해서 ……식으로 쓰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점과 ‘.반점을 ‘마침표’‘셈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130	문장 부호의 개정보다, 규정을 잘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식과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바른 말을 홍보하듯이, 짧은 홍보 영상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상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131	시대 흐름에 맞춰 미디어 매체(특히 통신수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호들을 적당한 기준에 의해 도입할 여건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132	실생활에 유용한 문장 부호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 이론만인 문장 부호 규정은 사용자들에게 부담과 혼동을 줄 뿐이다.
133	간단하게 만들자.
134	실제 사용하는 상황, 실태를 반영하시고 개정 후 아주 많이 홍보해주셔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135	국어교육에서 일정 정도의 비중치를 높여 교육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
136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다.
137	실제 사용되지 않는 종류가 많고, 혼동되는 것도 많다.
138	문장 부호 쓰임새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139	문장 부호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이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140	국민들이 문장 부호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장 부호 규정이 쉽게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문장 부호 용어)
141	프로젝트 이후에 성공적으로 개정하여 일반인들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2	대화체에서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이 쉽도록 개선 바랍니다.
143	문장 부호가 너무 많다.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줄였으면 좋겠다.
144	문항부호의 경우,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데 더 잘 알아서 국어표현에 활용한다면 의사 전달 효과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145	실태 조사 필요. 규정된 문장 부호도 적고 실제 사용이 반영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146	문장 부호의 지칭이 쉽게 외워지지가 않아서 잘못 쓰는 경우도 많다. 우선 문장 부호에 대한 지칭을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147	학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지킬 수 있는 통일된 문장 부호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8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혼란을 주기 보다는 현행 규정 교육 강화를 통해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149	격식을 차려 글을 쓸 때 꼭 필요하나 교육이 안됨. 중학교 때 짚 교육 필요. 이름을 쉽게.
150	생각보다 문장 부호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올바른 쓰임새가 무엇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제대로 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151	중등 교육 과정에서 문장 부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2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으므로 영어에서의 문장 부호와의 간극은 확실히 줄어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컴퓨터의 사용이 생활화 되고 있으니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부호를 늘리거나 그렇지 못한 부호들은 없애야 할 것 같다.
153	홍보부탁
154	일단 사람들에게 문장 부호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
155	재정, 지원 필요. 문장 부호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156	맞춤법만이 아니라 문장 부호 교육도 필요함.
157	국민의사용실태조사가필요함.이러바탕으로한개정,홍보가절실함.
158	문장 부호 개정에 대한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9	문장 부호가 개정되었다면 그러한 사실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160	홍보를 통한 국민의 관심 촉구
161	교육
162	홍보 및 단순화
163	널리 홍보하시고 국어의 맞춤법 교육과 함께 문장호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용 기회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164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현재의 추세 반영이 중요할 듯 함.

165	문장 부호자를 정확하게 쓰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166	문장 부호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못쓰고 몰라서 못쓰는 수준입니다.
167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168	문장 부호 규정도 맞춤법 규정처럼 활발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169	사람들이 많이 알도록 홍보했으면 좋겠다
170	앞의 설문 6, 7, 8번에서 모르는 문장 부호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홍보하거나 아예 친숙한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171	문장 부호의 수가 너무 적고, 얼마 없는 그 문장 부호들의 사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호를 다양하게 늘림과 더불어 그 사용법에 관한 알림이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72	규정이 너무 많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규정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자주 쓰이는 부호 중심으로 개선됐으면 한다.
173	『』와 「」와 《》와 <>의 차이가 굳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의 이름을 의용할 때 많은 혼동이 생깁니다.
174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 현황에 대한 많은 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5	보다 쉽게 변화 할 필요가 있다
176	평소 글을 쓰는 곳 대부분이 문자 메시지 또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사용하기 쉽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5. 자문 회의 회의록

일시: 2010년 8월 17일(화) 오후 3시

장소: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신관 124호

자문 위원: 채완(동덕여대), 허재영(단국대), 정철근(중앙일보), 김도훈(부산외대)

연구 참여자: 이관규, 신호철, 양세희, 박보현, 정지현

I. 채완

1. 1996년에 국어정보학회에서 문장 부호에 대하여 조사된 부분들을 설문조사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의 지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범주 이름(십표, 마침표)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사 기간에 비해 전문가 설문지의 조사 수가 너무 많다. 설문 양에 쫓겨 유의미하지 못한 조사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금 양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II. 허재영

1. 과제의 성격: 용역 개요에 나타난 과업 목적과 범위 내용이 현 단계의 국어생활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음.

2.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이 할 필요가 있음: 특히 (2)의 ‘다’를 목표로 한다고 할 때, 이 과제는 조사 및 연구·토의·토론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음. 따라서 (2)의 ‘가’와 ‘나’에 초점을 맞추고 ‘다’는 지향점으로 두는 것이 어떤지? 그것이 가능한지?

3. 만약 ‘다’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면

1) 문장 부호의 개념: 문장에 한정하는지, 모든 문어적인 의사소통을 포괄하는지부터 정해야 하며

2) 법의 성격상 계도적인 성격과 강제적인 성격이 동시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의무적 사용 범위’(예를 들어 공공언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를 정하지 않으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을 듯.

3)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다’는 꼭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 ‘다’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태 조사와 규범화 가능성 조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임.

4. ‘3.1. 과제1: 실태 조사·분석’의 예에는 쌍점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실태 조사에서 쌍점만을 논의할 것인지 여부.

1)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기존 연구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듯. 상황에 따라 문장 부호의 혼란은 전문가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음.

예를 들어 문장 부호를 겹쳐 사용할 때의 원칙 부재: 다음은 어느 것이 맞는지?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2) 기호의 통일 문제: 책명, 논문명,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 쓰는 기호가 통일되지 않음.

3) 새로운 기호의 등장: 문장 부호의 역사를 고려할 때(문장 부호가 쓰인 시점은 띄어쓰기에서 점찍기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쓰인 시점은 1890년대 후반부터로 보임. 1922년 『개벽』에 ‘점구법’이라는 논문도 참조할 수 있음), 새로운 문장 부호가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임. 기존의 부호 가운데 세로쓰기 관련 부호가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임.

4) 실태 조사만도 거대한 과제임을 고려해야 함.

5. 문장 부호 규범의 독립성: 꼭 성취해야 할 목표임에 틀림없음.

6. 사소한 표현

1) 5쪽 (11) 예문 밑 2행 ‘각각 온점, 쉼표, 가운데점 …’ : ‘쉼표’는 ‘반점’이 아닌지?

2) 16쪽 설문 21번 ‘서명(書名)’ 보다는 ‘책이름’ 또는 ‘책명’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닐지?

7. 결론

문장 부호 규범의 부실은 일상의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칩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서로 다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일상의 국어생활의 혼란뿐만 아니라 공적 언어생활의 혼란 및 낭비가 심합니다. 학술지나 잡지, 신문 등의 편집 과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문서나 법률 문서 등의 기호 사용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번 과제는 궁극적으로 문장 부호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법적 수준에서 ‘문장 부호 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아서 실태 조사 하나만으로도 매우 벅찬 과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 프로젝트의 속성상 결과 도출만 지나치게 독려할 염려가 있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법’과 ‘규범’은 필요한 만큼 논의 과정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 자체가 규범의 내실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Ⅲ. 김도훈

1. 영한 번역에서 문장 부호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작가들의 지식 결핍인지 한국어 문장부호 규정의 문제점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여기에서는 전문가 설문이 실시되는데, 일반인들은 문장 부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영어 문장 부호에 대한 지식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만약 영어 문장 부호의 좋은 점이 있다면 들여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3. 2002년에 <문장부호 세척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이 프로젝트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IV. 정철근

1.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는 조사 수행 기간 상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 수를 200~300명 정도로 줄여도 유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언론계에서 일반적으로 문장 부호를 쓰는 관례를 소개하겠다.

대부분 문장부호 보다는 독자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문자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자문회의 자료에 제시된 사례 중에서,

1)오전 7:00 → 오전 7시

오전 7:30 → 오전 7시 30분

2) 마태복음 3:16 → 마태복음 3장 16절

3)경기결과를 알려주는 3:2 → 3 대 2

(다만 기사 본문이 아닌 제목의 경우 3:2로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

4) 1,800리터 → 1800리터

186,785 → 18만 6785

(재무제표 등 숫자를 다루는 경우 천 단위로 ','를 표시하는 게 맞다. 하지만 신문에선 만 단위로 숫자를 끊어주기 때문에 ','를 쓰지 않는 것 같다.)

5) 대화가 아닌 단순 인용이나 강조는 " " 대신 ' '를 사용. " " 안에서 마침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말을 완전히 인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 신문은 문장 인용 부호를 엉망으로 쓰고 있다."

이관규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때는 " " 안에 마침표를 찍는다.

하지만 이관규 고려대 교수는 "한국 신문은 문장 인용 부호를 엉망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인용문의 경우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6. 중간 보고회 회의록

일시: 2010년 10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635호

참석자: 김선철 이현주(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참여자: 이관규, 이동석, 신호철, 양세희, 박보현, 김남희, 정지현

1. 본 조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 조사 내용과 그 결과의 분석, 그리고 이를 최종적으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다.

2. 문장부호 개념 정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학계의 개념 + 정책적 개념’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들의 문장 부호에 대한 인식과 제시된 개념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문장 부호 개념을 결론 부분에서 제시할 때는 존재하는 간극을 언급해 주고 정책적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안해주면 좋겠다.

3.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온점을 제시된 용법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 규정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지.

4. 현재 ‘문장 부호 사용 실태 분석’에는 오류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장 부호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그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5. 외국의 문장 부호는 정리가 잘 되었다. 특히 우리 문장 부호가 특히 영어의 문장 부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공계 중심으로 이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분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종 보고서에 참고하여 제시해 주면 좋겠다.

①문항 1과 2는 독립적인가?

②문항 3은 5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통이다’의 경우 참고하는 것인가, 아닌가.

③문항 5의 ‘기타’ 항목에 어떤 부호를 생각하는지 빈칸을 주고 제안할 수 있도록 했었다면 좋았겠다.

④문항 14. 답을 밝히고(“‘민심은 천심이다.’가 맞다.’ 등으로) 나머지 질문을 기술했었다면 좋았겠다.

⑤문항 21, 22가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종속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⑥문항 28은 국어 기본법에서 영향 평가 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 과업 지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까다로운 문제였을 텐데, 질문 구성이 만족스럽게 되었다.

⑦문항 31에서 답지 중에 문장 부호는 문어에 활용하는 도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었으면 좋았겠다.

⑧문항 32를 문장 부호 개정이 미비하므로 개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

⑨설문 조사 결과가 전문가의 분류에 따라 통계 처리 되었는데, 연령별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지도 살펴 볼 수 있겠다.

7. 문장 부호 규정

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1.19.)

문장 부호

문장 부호의 이름과 그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I. 마침표[終止符]

1. 온점(.), 고리점()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집으로 돌아가자.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압록강은 흐른다(표제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

 1919. 3. 1. (1919년 3월 1일)

(3)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1. 마침표 ㄱ. 물음표 가. 인명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서. 1987. 3. 5. (서기)

2.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1) 직접 질문할 때에 쓴다.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니?

 이름이 뭐지?

(2) 반어나 수사 의문(修辭疑問)을 나타낼 때 쓴다.

 제가 감히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남북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3)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그것 참 훌륭한(?) 태도야.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붙임 1]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붙임 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이 일을 도대체 어쩐단 말이냐.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면 모를까.

3. 느낌표(!)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1)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다음에 쓴다.

앗!

아, 달이 밝구나!

(2) 강한 명령문 또는 청유문에 쓴다.

지금 즉시 대답해!

부디 몸조심하도록!

(3) 감정을 넣어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대답할 적에 쓴다.

춘향아!

예, 도련님!

(4) 물음의 말로써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붙임] 감탄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느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II. 쉼표[休止符]

1. 반점(,), 모점(·)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

(1)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다만,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2)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 (3)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 (4)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팔 심으면 팔 난다.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 (5)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애야,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 (6) 제시어 다음에 쓴다.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용기,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이의 자산이다.
- (7) 도치된 문장에 쓴다.
 이리 오세요, 어머니님.
 다시 보자, 한강수야.
- (8)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쓴다.
 아, 깜빡 잊었구나.
- (9) 문장 첫머리의 접속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
 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 (10)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
- (11)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에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 (12)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쓴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본다면,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 (13) 숫자를 나열할 때에 쓴다.
 1, 2, 3, 4
- (14)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쓴다.
 5, 6 세기 6, 7 개

(15)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에 쓴다.

14,314

2. 가운뎃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1) 십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 명씩 국회 의원을 뽑는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3. 쌍점(:)

(1) 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 쓴다.

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문방 사우: 붓, 먹, 벼루, 종이.

(2)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쓴다.

일시: 1984년 10월 15일 10시.

마침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3)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에 쓴다.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주시경: 국어 문법, 서울 박문서관, 1910.

(4)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

오전 10:20 (오전 10시 20분)

요한 3:16 (요한 복음 3장 16절)

대비 65:60 (65 대 60)

4. 빗금(/)

(1)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 원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2)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쓰기도 한다.

3/4 분기 3/20

Ⅲ.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겹낫표(『 』)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2. 작은따옴표(‘ ’), 낫표(「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1)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2)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붙임]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IV. 묶음표[括弧符]

1. 소괄호(())

(1)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무정(無情)’은 춘원(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2)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 단어, 구에 쓴다.

(1) 주어 (ㄱ) 명사 (라) 소리에 관한 것

(3) 빈 자리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우리 나라의 수도는 ()이다.

2. 중괄호({ })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에 쓴다.

{ 이 }	{ 국토 }
주격 조사 { }	국가의 3 요소 { 국민 }
{ 가 }	{ 주민 }

3. 대괄호([])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

(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

V. 이음표[連結符]

1. 줄표(—)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낸다.

(1)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여들 때 쓴다.

그 신동은 네 살에 —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 벌써 시를 지었다.

(2)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쓴다.

어머님께 말했다가 — 아니, 말씀드렸다가 — 꾸중만 들었다.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2. 붙임표(-)

(1)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겨울 - 나그네 불 - 구경 손 - 발
휘 - 날리다 슬기 - 롭다 - (으)르걸

(2)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

나일론 - 실 디 - 장조 빛 - 에너지 염화 - 칼륨

3. 물결표(~)

(1) ‘내지’라는 뜻에 쓴다.

9월 15일 ~ 9월 25일

(2)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쓴다.

새마을: ~ 운동 ~ 노래
-가(家): 음악~ 미술~

VI. 드러냄표[顯在符]

1. 드러냄표(·, °)

·이나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쓴다.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한글의 본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붙임] 가로쓰기에서는 밑줄(____, ~~~~~)을 치기도 한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VII. 안드러냄표[潛在符]

1. 숨김표(××, ○○)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

-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 (2) 비밀을 유지할 사항일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육군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 빠짐표(□)

글자의 자리를 비워 뚫음 나타낸다.

- (1) 옛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薦 (옛 비문)

-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3. 줄임표(……)

- (1) 할 말을 줄였을 때에 쓴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철수가 나섰다.

-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쓴다.

“빨리 말해!”

“…….”